

제5권 제2호

Vol. 5, No.2, Dec 2024

장애의재해석

Journal of Reinterpretation of Disability



JOURNAL OF
REINTERPRETATION
OF DISABILITY

「장애의재해석연구」 제5권 제2호의 오른쪽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보이스아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시각장애인용 리더기 혹은 스마트폰 어플(보이스아이)을 이용하여
본문 내용을 음성출력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ISSN 2734-1275



제5권 제2호

Vol. 5, No.2, Dec 2024

장애의재해석

Journal of Reinterpretation of Disability

JOURNAL OF
REINTERPRETATION
OF DISABILITY



목 차

- 가톨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성찰일지로 살펴본 지적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례연구
김미숙 1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참여가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주는 영향 분석
: 성향점수매칭 분석을 중심으로
전혜영 29
- AI 기술과 데이터 보호 관련 법률 비교 연구
: 장애인복지 분야 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옴즈리마 바트체첵, 남미정 53
- 장애여성의 시쓰기와 내러티브의 정치성
: 랑시에르의 미학을 중심으로
한광주 77

- **한국 SF 소설에서의 장애의 의미와 재현 양상 연구**
 : 천선란 소설을 중심으로
 유창민

105
- **지적장애인의 자기표현을 위한 미술치료 연구 동향 분석**
 : 2010 - 2024 국내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조영숙, 정진자

129
- **구전서사를 통해 본 장애인 가족에 대한 비장애 형제의 부모화 문제와 함의**
 유수빈, 서주원, 임나린, 박현숙

161
- **탈시설의 개념적 분석과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적용방안**
 이승기

187

- 청각장애인 아이돌 빅오션(Big-O!cean)에 대한 대중의 인식
 : 유튜브(Youtube) 댓글 양상을 중심으로
 박채원, 김하린, 한지우 209
- 해외 주요국의 ‘접근성 매니저’ 직무 현황 분석
 : 접근성 매니저 채용 공고 분석을 중심으로
 정종은, 최강찬, 강지섭 239
- 장애와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한 조건
 : 돌봄 토대의 장애 정의론
 이주영, 최수민 271
- 인문학 강좌를 통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최금희 303

장애의재해석 제5권 제2호

2024 Vol. 5, No. 2, 1 - 28

가톨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성찰일지로 살펴본 지적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례연구

김미숙*

이 연구는 가톨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작성한 성찰일지를 분석하여 성인 지적장애인의 도전적 행동과 관련된 시설 입·퇴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를 이해하고,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더 나은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성인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작성한 7개의 성찰일지를 활용한 질적 사례연구로 수행되었다. 분석은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세 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시설 입·퇴소 과정에서 '시설과 가족 간 협력적 연대'가 필요하다. 둘째, 거주시설에 생활하는 동안에 '도전적 행동에 사랑과 진심으로 동반'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시설 퇴소 후에는 '미완의 자립 여정에서 소통의 문 열어놓기'가 필요하다. 결론에서는 이 세 가지 주제를 사회복지 실천과 가톨릭 사회복지 실천의 관점에서 논의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의 정체성과 가톨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의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지적장애인, 가톨릭 사회복지, 자립생활, 성찰일지, 카리타스(사랑실천)

*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연구전담조교수

I. 서론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은 전 세계적으로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 자립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법적·제도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2021년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발표를 통해 본격적인 탈시설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자립생활 운동은 2000년 전후로 지적장애인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지적장애인의 자립 권리도 점차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적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제한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낮은 지적 능력과 부적응 행동은 자립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유병주, 2004; 박진영, 2011).

이에 대해 UN 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UN CRPD, 2022)는 지적장애인이 개인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시설에 수용하거나 시설 생활을 선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포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서경주, 박수경, 이정하, 2022). 이와 같은 배경에서 장애인복지 실천의 패러다임은 기존의 전문가주의에 기반한 정형화된 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욕구 실현과 역량 강화를 통해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람중심실천(Person-Centered Practices)’이 중요한 실천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열망, 욕구, 선호 및 가치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와 지원을 계획하고, ELP(Essential Lifestyle Planning) 도구를 사용하여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과 ‘당사자를 위해 중요한 것’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이상중, 장순옥, 2021: 8; Smull et al., 2005: 17).

현재 지적장애인의 자립 준비와 관련된 연구들은 시설 생활, 지역사회 거주, 자립 준비 등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고, 시설에 거주하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지적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노이연(2017: 25)의 연구에 의하면, 성인 지적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은 그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신체적·정신적 소진을 경험하기 쉽다. 그러나 훈육 과정을 통해 점차 경험이 쌓이면, 사회복지사들은 당사자를 더 깊이 이해하고 대처 능력이 향상되며, 다양한 시도를 통해 개인의 욕구에 맞춘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실천가의 현장 경험은 지적장애인의 부적응 행동을 이해하고 더 나은 실천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부적응 행동과 관련된 입·퇴소 및 자립 과정을 다룬 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금전 문제, 도벽, 폭력, 자해, 가출 등의 부적응 행동은 종종 시설 퇴소, 재입소, 전원의 원인이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시설

종사자의 경험을 연구하여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실천적 통찰을 얻을 필요가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24.4.19.)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전국에 1,207개의 가톨릭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가톨릭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일반적인 사회복지 실천가의 역할을 넘어, 가톨릭 신앙과 가치를 바탕으로 장애인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중 정체성은 종교와 관계없이, 사회복지 실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황중열, 도건창, 김미숙, 2021). D 가톨릭사회복지회는 산하 기관 종사자들의 실천 경험을 반영하여 더 나은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성찰일지를 모집하고 연구를 위한 자료를 축적해왔다. 이 성찰일지를 통해 종사자들의 실천 경험을 분석하는 것은 실천적 통찰과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가톨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작성한 성찰일지를 분석하여 성인 지적장애인의 도전적 행동과 관련된 시설 입·퇴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를 이해하고,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더 나은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문헌고찰

1. 가톨릭 사회복지의 역사적 역할과 정체성

가톨릭교회는 한국 근대 사회에서 취약한 공공복지 부문을 보완하고 선도하는 민간복지 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교회의 주요 사명으로 삼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명은 가톨릭 사회복지의 본질적인 기초가 된다. 선행연구자들은 교회가 사회복지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 측면에서 설명했다. 김성철(1995)은 교회가 사회복지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하느님 사랑'의 신앙고백과 '이웃 사랑'의 실천 차원에서 설명했으며, 최무열(1999)은 사회문제 해결, 교회개혁, 생명 구원 등을 위한 가톨릭교회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90년대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가톨릭은 개신교와 함께 정부의 중요한 민간복지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정부 보조금이 증가하면서 가톨릭 사회복지시설도 증가했고, 종교 사회복지기관의 공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정부 보조금에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정치적 종속과 규제 압력이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사회복지는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개입으로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약자들의 보호자에서 복지비용의 효율적인 관리자로 역할이 변화하면서, 종교사회복지

의 정체성 유지는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김인숙, 2004).

가톨릭 사회복지지는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가치체계를 공유지만, 가톨릭 신앙과 종교적 가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와 출발점이 다르다. 사회복지지는 인간존엄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 인본주의적 접근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 가톨릭 사회복지지는 신의 모상으로서 인간이 갖는 존엄성에 의미를 부여하며, 공동선, 연대성, 보조성 등을 핵심 가치로 제시한다(유영준, 2018).

무르시아 가톨릭대학교 카리타스학과¹⁾ 교수인 라이너 게리히(Rainer Gehrig, 2017)는 가톨릭 사회복지의 정체성을 ‘사랑’, ‘개방성’, ‘협력’으로 요약했다(심현주, 2019: 28). 교회의 활동은 ‘이웃사랑’의 계명에서 출발하며, 사랑의 실천은 서로 다른 문화, 종교, 언어를 가진 사람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교류하는 것을 장려한다. 따라서 가톨릭 사회복지지는 ‘인간 본성’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비신자의 이웃사랑 활동 속에서도 인간 본성의 보편적 가치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톨릭 사회복지지는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며, 그리스도교 정신에 부합하는 사랑실천을 촉진한다.

2. 가톨릭 기반의 장애인복지 실천 연구

박영만과 김미숙(2022: 52)의 연구는 가톨릭 사회복지시설에서 30년간 근무한 주저자의 자전적 실천 사례를 통해 정신장애인 시설 이용자와의 인격적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조현병이나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이용자에게 접근할 때, 이들을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존엄한 존재로 인식해야 하며, 비장애인과 동일한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 즉, 정상적인 감정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행동을 구별하고, 비장애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정신장애인의 증상과 그들의 삶을 분리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용서의 관계를 형성하고, 개인 문제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구별하며, 도덕적·윤리적 잣대로 판단하는 태도를 지양할 것을 강조한다. 이 연구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인격적 관계로 다가갈 때 그들이 사랑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용세웅과 김승주(2023: 32-43)는 가톨릭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과 노숙인 등 시설

1) ‘카리타스(Caritas)’는 그리스도교 정신에 기반한 교회의 ‘사랑실천’을 의미한다(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25항). 이를 학문으로 연구하는 카리타스학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에서의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사랑실천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그리스도교다운 사랑실천을 촉진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도건창, 2022).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응하는 실천가들의 경험을 연구했다. 연구 결과, 실천가들은 다양한 전략을 통해 희망을 잃지 않고 실천 현장을 지켜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문제행동의 원인 탐색하기’에서는 이용자가 사랑의 결핍과 가족으로부터 버려짐으로 상처가 있음을 발견했다. ‘돌봄의 자세 갖추기’에서는 신앙을 바탕으로 조건 없는 사랑과 의지적인 사랑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돌봄에서 의미 찾기’에서는 돌봄을 통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자신의 도움으로 더 나빠지지 않음에 기뻐하며 돌봄의 의미를 발견했다. ‘존재 그대로 받아들이기’에서는 이용자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해하고 어려움을 수용했다. ‘동반의 노력하기’에서는 대화를 통해 문제행동의 이유를 탐색하고, 함께 극복하며 동료들과 소통하고 협력했다. 이 연구는 실천 과정을 통해 돌보는 이와 돌봄을 받는 이가 동반 성장을 이루고, 진정한 동행이 이루어짐을 확인했다.

박재완, 김도우, 박지혜(2024: 55-56)는 가톨릭 정신으로 운영하는 지체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경험을 질적연구로 조사했다. 연구에 따르면, 시설 이용자들은 원가족의 돌봄에 한계가 있어 부득이하게 시설에 입소했으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부름을 받은 수도자, 봉사자, 종사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며 신체적, 정신적, 영적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 이러한 ‘사랑받고 있다는 자각’은 이용자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며, 시설 내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가톨릭 사회복지시설 실천가들이 정신장애인, 지체장애인, 노숙인 등 시설 이용자와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조건 없는 사랑으로 돌봄의 자세를 유지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사랑을 통한 치유와 회복 경험을 통해 시설 이용자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자각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가톨릭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경험 연구가 부족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주제로 연구하여 실천적 함의를 발견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질적연구에서 성찰일지의 유용성

성찰일지는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자기 경험을 기록하고 이를 분석하여 실천의 질을 향상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다. 성찰(reflection)은 자기 행동을 깊이 되돌아보는 행위로, Dewey는 이를 자신의 신념이나 실천 행위에 대해 주의 깊게 숙고하는 ‘성찰적 사고(reflective

thinking)’로 정의했다(유영준, 이현지, 김민수, 2020). 성찰은 실천 과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새로운 지식을 체득하도록 이끌며, 이론과 실천의 간극을 줄이고, 실천가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양혜원, 최정숙, 김희수, 2018). 성찰일지는 단순히 업무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 경험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더 나은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업무 일지와 차별화된다. 업무 일지가 주로 일정과 실행 여부를 점검하는 반면, 성찰일지는 깊은 통찰을 통한 실천적 성장을 추구한다.

D 가톨릭사회복지회는 실천가들의 보다 나은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산하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찰일지를 모집하고 작성법 교육을 제공했다. 이 교육에서는 Gibbs(1988)가 제안한 6단계 성찰 과정(기술, 느낌, 평가, 분석, 결론, 계획)을 예시로 제시하였으나(유영준, 2009), 실천가들이 작성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7개의 성찰일지는 6단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황종열 외(2021: 162)를 참조하여, 성찰의 6단계 중 기술과 느낌을 통합하여 ‘기술(description)’로, 평가, 분석, 결론을 ‘평가(evaluation)’로, 계획을 ‘계획(action plan)’으로 축약하여 분석의 틀로 활용했다.

2. 연구참여자 선정

질적연구에서 참여자 선정 기준은 적절성과 충분성이다. 적절성은 연구 주제에 대해 가장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천가들이 작성한 성찰일지 중 실천 경험이 구체적으로 진술되고, 더 나은 실천을 위한 성찰이 포함된 사례를 선정했다. 충분성은 연구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자료가 포화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뜻한다. 포화는 질적연구의 엄격성을 보장하는 요소로 자주 언급되지만, 이는 선형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Morse, 2015). 본 연구에서는 주제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7개의 사례를 선정하여 자료의 충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D시에 위치한 가톨릭사회복지회가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모집한 성찰일지를 분석자료로 활용했다. 성찰일지는 공문을 통해 현장 실천가들에게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요청되었으며, 총 19명의 실천가가 참여했다. 성찰일지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며, 논문으로 작성되어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음이 사전에 안내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작성한 7개 성찰일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연구참여자는 장애인복지시설 실천가로, 이들이 기록한 성찰 내용과 관련된 시설 이용자 7명은 보조연구참여자로 포함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정보

구분		연령대	소속 기관	직책	근무 기간
주연구참여자		40대	성인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8년
구분		장애	입소한 시설의 종류	현재 거주지	주요 어려움
보조 연구 참여자	A	만18세 이상 법정 등록 지적장애인	보육원, 그룹홈, 장애인시설	시설 거주	채팅, 금전 관리
	B		보육원, 장애인시설	정신병원	거짓말, 자해
	C		장애인시설, 전원	시설 거주	도벽, 폭력
	D		보육원, 장애인시설, 전원	자립생활	부친이 금전 소비
	E		보육원, 장애인시설	시설 거주	감정조절, 폭력
	F		장애인시설	시설 거주	금전 관리
	G		보육원, 장애인시설	자립생활	채팅 만남, 가출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로 진행되었다. 사례연구는 특정 현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실제 생활 상황에서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두고 수행되는 경험적 연구로, 연구자가 창의적으로 분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조흥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공역, 2015). 질적연구는 연구 목적에 맞추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사례연구는 심층 면담 없이도 기타 자료를 통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윤견수, 2013).

본 연구는 7개의 사례를 다룬 다중 사례연구로,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으로 진행했다(조흥식 외 공역, 2015). 먼저, 성찰일지를 반복해서 읽고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했다. 둘째, 각 사례에 대해 생애사를 간추려 작성했다. 셋째, 사례 내 분석에서는 의미 있는 개념들을 모아 개방코딩을 한 후, 유사한 개념들을 묶어 하위범주로 재분류하고, 이를 기술, 평가, 계획의 성찰 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했다. 넷째, 사례 간 분석에서는 여러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하위범주들을 모아 범주를 도출하고, 새로운 범주를 기존 범주와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섯째, 사례 간 분석 결과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시설 입·퇴소 과정’, ‘시설 생활’, ‘시설 퇴소 후’로 구분하고, 주제별로 성찰의 3단계로 범주를 배치했다. 끝으로, 분석 결과로 도출된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더 나은 실천 방안을 중심으로 일반 사회복지 실천과 가톨릭 사회복지 실천 관점에서 논의했다.

4.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는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원화’와 ‘동료집단 지지’를 사용했다(유태균 역, 2001). 먼저, 다원화란 다양한 시각이나 관점의 수렴을 말하며, 다양한 자료출처 또는 해석방법을 통해 연구 결과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 다원화’를 통해 하나의 자료를 해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론과 관점을 활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에 대해 사회복지 관점에서 선행연구와 비교하고, 가톨릭 사회복지 관점에서 선행연구와 비교하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가톨릭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이 자신의 실천 경험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동료집단 지지’에서는 가톨릭 사회복지 전문가, 장애인복지 전문가 및 질적연구 전문가들과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그들의 조언을 반영하여 논문의 완성도를 높였다.

IV. 연구 결과

1. 연구참여자의 간추린 생애사와 사례 내 분석

1) 사례 A: 보육원 퇴소 후 금전 관리 어려움으로 시설 재입소

A는 보육원에서 생활하다가 성인이 되어 퇴소했다. 이후에 공동생활가정에 6개월 동안 생활하며 자립을 시도했다. 그러나 금전 관리와 채팅 문제로 통장 잔액이 바닥나며 어려움을 겪었다. 보육원에서는 퇴소자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어 장애인시설로의 재입소를 의뢰했다. 처음에는 장애인시설 직원들이 자립을 경험한 이용자가 다시 시설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A의 삶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보육원 직원과 장애인시설 직원이 직원회의를 통해 입소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그런데 A의 입소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데, 역지로 입소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고민이 있었으나, A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노력을 해보기로 했다. 장애인시설 상담자는 A와 세 차례 입소 상담을 진행하며, 시설 간섭과 규칙으로 자유로운 생활이 어려울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상담자는 A의 자립 욕구와 경제 활동을 통한 미래 비전을 강조하고, 시설에서 간섭보다 효율적인 금전 관리만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A가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금전 연습과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입소 후 함

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시설 내 규칙과 제한이 불가피하지만, 성인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필요 이상의 제한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세 차례 상담 후, A는 입소 예비체험을 결심했고, 이 기간에 다른 이용자와의 긍정적 경험을 통해 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었다. A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약물 복용을 시작했고, 본인이 심리적으로 편해졌고 자살 생각도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현재 A는 시설 생활에 긍정적으로 적응하며, 직장에서 작업장 전환을 고려 중이다.

상담자는 자신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이용자 중심에서 A의 더 나은 삶에 초점을 두고 지원을 한 것이 성공적인 시설 재적응에 기여했다고 성찰했다. 또한, 한 번 자립에 실패한 A에 대해 만일 선입견으로 입소를 거부했다면 A가 다시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을 생각하며 미안함을 표명했다. 사례 A의 성찰 단계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A의 사례 내 분석

성찰 단계	하위범주
기술: 문제 상황	시설 간 정보 전달과 협력, 보육원에서 퇴소자 사후관리 어려움, 자립 후 금전 관리와 채팅 만남 문제, 퇴소 후 자기관리의 어려움, 자기결정의 모호함, 당사자는 재입소에 거부감 표현, 억지로 입소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평가: 실천적 한계 및 문제 분석	자립의 어려움, 자립 후 시설 재적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당사자는 시설 간섭과 규칙으로 인해 자립을 원함, 당사자의 자기결정 존중과 시설 지원 간에 실천적 고민
계획: 더 나은 실천 방안	선입견을 내려놓고 이용자 중심 실천, 시설 간섭이 아닌 효율적인 금전 관리 지원, 예비 체험을 통해 시설 생활 거부감 완화, 정신적 및 정서적 안정 지원

2) 사례 B: 관심받기 위한 도전적 행동과 자해로 정신병원 입원

B는 정신질환이 있는 어머니와 지적장애가 있는 아버지 사이에서 자라며, 보육원의 의뢰로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했다. B는 지적장애 3급으로 경계성 장애를 보이며, 사회적응 기술이 뛰어나지만, 직원이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주었다.

입소 후, B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용돈을 갈취하는 등 도전적 행동을 했고, 직원이 잘못을 직면하면 가출하거나 늦은 귀가를 했다. 본인의 요구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으나 약을 먹지 않고 숨기는 일이 발생했다. 직원이 학대나 언어폭력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확인해보면 사과하며 울기도 했다. B는 일탈적 행동과 거짓말 수위가 늘어나 길 가던 행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했으나 경찰의 CCTV 조사 결과 거짓임이 드러나자 자신이 관심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했다. B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다른 이용자들이 자주 피해를 입었으며,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졌다.

도전적 행동을 통해 직원의 관심을 유도하는 B에게 무관심한 대응을 하면 처음에는 잘하려고 했으나 더욱 강한 도전적 행동을 보였고, 본인의 요구로 여러 차례 생활관을 이동하면서 담당 직원의 교체가 빈번해졌다. 도전적 행동을 일삼는 B에게 직원들이 무관심하게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아 지내던 중, B는 자살 충동을 느껴 커터 칼로 자해 소동을 벌였고, 본인의 요청으로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정신병원에 생활하면서 체중이 급격히 증가했으나 병원 생활이 좋다며 웃음을 지었다. 퇴소 후 B는 가끔 시설에 연락하여 안부를 묻고, 직원들에게 방문을 요청하기도 했다. 시설에 있을 때 잘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면, “괜찮아요”라고 어른스럽게 대답하는 B를 보면 안쓰럽다.

실천가는 B가 관심을 원할 때 충분히 대화하며 그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성찰했다. 또한, 시설의 한계를 핑계로 대며 노력을 게을리한 점과 B의 잘못을 강조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반성했다. 시설 이용자 대부분이 힘든 가정환경에서 온 사람들이며, 애정결핍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직원들에게 관심받기를 원한다. 직원들은 당사자의 처지를 고려하여 좀 더 따뜻한 관심과 요청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성찰했다. 사례 B의 성찰 단계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B의 사례 내 분석

성찰 단계	하위범주
기술: 문제 상황	보육원에서 시설로 전원, 거짓말, 폭력, 용돈 갈취 등 도전적 행동, 관심받기 위한 자해 행동으로 정신병원에 입원
평가: 실천적 한계 및 문제 분석	직원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방어적 대응, 도전적 행동에 단합하여 무관심으로 대응, 이용자의 문제를 악화시키고 이용자는 관심을 더 얻으려는 시도 지속, 이용자의 애정결핍과 관심에 대한 욕구를 읽으려는 노력이 부족했음, 자해로 병원에 입원하며 삶의 질 저하
계획: 더 나은 실천 방안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필요, 퇴소 후 지속적인 사후 지원이 필요함

3) 사례 C: 원가정에서 고착된 도벽과 폭력 행동으로 시설 전원

C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이전 시설에서 폭력 문제로 퇴소하게 되었으나, 원가족의 적극적인 입소 희망으로 현재 시설에 전원 되었다. 시설에서는 C의 도전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원가족의 지원과 협력을 약속받았다. 입소 후 C는 다른 이용자들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고집을 부리며 폭력을 사용하는 등 도전적 행동을 보였다. C는 다른 이용자에게 국을 끼얹거나 물건으로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의 폭력적 행동을 했다. 담당

직원이 이 문제를 원가족과 상의했으나, 문제행동이 반복되면서 언성을 높이는 일이 발생했다. 원가족은 C가 문제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자극해서 그런 행동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입소 당시 원가족과 신뢰를 쌓았던 직원이 담당자가 되어 원가족과의 상담을 다시 시작했다. 원가족의 이야기를 세 시간 동안 들은 후, C의 행동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C의 아버지는 지적장애가 있었고, 돌아가실 때까지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어머니는 그로 인해 병을 앓게 되었고, 비장애인 언니가 집안일을 맡아 하면서 동생인 C를 성인이 될 때까지 돌보았다. 이 과정에서 언니는 C가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도 야단을 치지 않았고, 이로 인해 C의 행동이 고착된 것으로 보였다. 언니는 자신이 측은지심으로 사랑을 주다 보니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했다고 자책했으며, 상담자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면서 특수교사로 일하는 언니에게 격려와 지지를 표현했다.

시설 담당자는 C의 문제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일원화된 지도와 교육이 필요함을 안내했다.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기본 교육을 필수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사용하면 시설에서 생활이 어려워질 것임을 알렸다. 원가정 방문 시에도 언니 물건을 가져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생활관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면 자신의 용돈으로 똑같은 물건을 사주도록 지도했다. 문제행동이 반복되면 원가정 방문에 제한이 생길 것임을 전달했다. 일원화된 지도가 초기에는 효과가 없었지만, 한 차례 원가정 방문 기회가 제한된 후, C의 폭력적 행동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도벽 문제는 환경적 변화를 통해 예방하고, 다른 이용자들의 물건을 옷장에 잠금장치로 보관하게 했다. C는 여전히 도벽을 가끔 보이지만, 폭력적 행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많은 원가족은 시설 입소 후 연락을 끊거나 돈을 요구할 때만 연락하지만, C의 원가족은 항상 C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준다. 직원은 이용자뿐만 아니라 원가족과도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직원과 원가족이 서로 믿고 지원함으로써 이용자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대상자를 지원할 뿐 아니라, 대상자를 둘러싼 생태계 자원과 연대하여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성찰했다.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사회복지사 자신의 역량 개발로 이어진다. C의 성찰 단계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C의 사례 내 분석

성찰 단계	하위범주
기술: 문제 상황	이전 시설에서 폭력으로 시설 전원, 도벽과 폭력 문제, 원가족이 이용자의 문제행동을 인정하지 못함, 직원과 원가족 간의 갈등
평가: 실천적 한계 및 문제 분석	원가족의 훈육 부족으로 이용자의 도벽과 폭력 행동이 고착됨, 원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라포형성, 원가족의 협력이 중요함
계획: 더 나은 실천 방안	사랑으로 훈육함, 원가족과 협력 강화, 시설과 원가족의 협력이 이용자의 더 나은 삶에 도움이 됨, 도벽 예방을 위한 조치

4) 사례 D: 부친 요구로 조기 퇴소 후 시설 전원과 불안정한 자립생활

어린 시절, 부친의 방임과 도박으로 D는 보육원에 입소했다. 성인이 되어 보육원에서 현재 시설에 입소했다. D는 입소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직원의 지원이 많이 필요했다. 언어표현이 미숙하여 눈치만 보며 의사 표현이 서툴고 울기만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원들은 D가 단체활동에 어울릴 시간을 마련하고, 점차 자기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주었다. 시설 생활이 안정되면서 작업장에서의 태도도 좋아져서 급여를 모았다.

그러나 부친이 가끔 연락해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재정을 원가족이라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다고 안내했지만, 부친은 몇 차례 돈을 요구하다가 D의 퇴소를 요구했다. D는 처음에 원치 않았지만, 결국 부친과 살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여 조기 퇴소했다. 자립정착금과 모은 돈 500여만 원이 든 통장을 가지고 부친과 함께 살았다. 부친은 D가 금전적 이익과 집안일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D는 집안일을 잘하지 못해 부친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부친은 스트레스를 폭력으로 표출했고, D는 집에서 무기력하게 지냈다.

통장의 잔액이 바닥이 되자 부친은 D의 재입소를 요구했고, D는 부친의 집에서 생활하는 3~4개월 동안 체중이 20kg 이상 증가했고 무의미한 표정으로 퇴행했다. 시설에서 조금씩 자기 의사를 표현하던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러나 재입소를 하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 예상되어 D와 부친과 상의한 끝에 다른 시설로 전원을 의뢰했다. 퇴소 후 간헐적으로 연락이 오다가 4년 만에 D로부터 전화가 왔다. D는 새로 전원한 시설에서 남자 이용자의 아이를 낳고, 결혼 없이 남편 집에서 살고 있었다. 남편은 시설에 계속 생활하고 본인만 남편의 부모와 살고 있다. 양육은 시어른들이 도와주고 있고 자신은 잘 지낸다고 한다. D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반가웠고, 돌잔치 초대도 받았다. 부친의 안부를 물어보니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서 대답을 회피했다.

실천가는 시설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성찰했다. 원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해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원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원가족의 강제적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렵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부정적 결과를 예상하면서도 개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은 실천가를 좌절하게 만들지만,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되새겼다.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삶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함을 성찰했다. 사례 D의 성찰 단계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D의 사례 내 분석

성찰 단계	하위범주
기술: 문제 상황	보육원에서 장애인시설로 전원, 부친의 요구로 이용자가 마지못해 조기 퇴소, 자기결정의 모호함, 퇴소 후 삶의 질 저하 및 퇴행, 다른 시설로 재입소, 출산 후 남편 없이 시댁 생활
평가: 실천적 한계 및 문제 분석	부친의 금전적 요구와 퇴소 결정, 금전 소진 후 부친의 요구로 재입소 요구, 다른 시설로 전원, 원가족의 요구를 시설에서 거절하기 어려움, 시설 개입과 책임의 한계
계획: 더 나은 실천 방안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결과를 수용, 이용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안내, 지속적인 소통의 창구

5) 사례 E: 애정결핍으로 폭력 행동을 하며 자립을 기대함

E는 보육원에서 장애인시설로 전원하여 1년 동안 생활하다가 퇴소를 앞두고 있다. E는 키가 크고 덩치도 크며 감정 기복이 심하여 종종 도전적 행동을 보이며, 다른 이용자들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다. 보육원 동기들에 따르면, 학창 시절에도 폭력에 연루되어 담당 직원이 경찰서와 학교에 불려간 경험이 있었다. 입소 의뢰 당시 폭력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직원들은 E의 행동에 당황했다.

E는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면 다른 이용자들을 때리거나 밟는 행동을 하며, 최근에는 폭행으로 경찰이 개입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흥분 상태에서 경찰과 직원에게 큰소리를 치고 폭언했지만, 설득 끝에 형식적인 사과를 하고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직원들이 지속적인 상담과 지도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E의 변화는 쉽지 않았고 고착된 기질적 문제로 보인다. E는 감정조절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거부했다. 폭력이 다른 이용자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

E는 시설에서 나가 자립하고 싶다고 했지만, 자립을 위한 노력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자립하려면 안정된 직장과 재정이 필요하지만, 일반 사업장에서는 일을 힘들어하고, 보호자

업장에서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동료와의 불화로 직장을 자주 옮기고 있다. 현재는 실직한 상태로, 공동생활가정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한 상태이지만, 현재의 태도로 공동생활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E와 같이 도전적 행동 수위가 높아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위해가 되면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다. 다른 시설로의 전원이 쉽지 않아서 퇴소를 마지막 수단으로 두고 있지만, 원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다. E는 자립을 향해 가야 하는데, 불안정한 자립이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E를 대하는 직원들도 힘들어한다. E는 어릴 적부터 사랑받지 못했고 부모도 없어 배우지 못해 이러한 행동이 나온다고 호소한다. 또한, 아무도 자신을 좋아하지 않고 자신의 편은 없다고 한다. 직원들은 E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무한정 사랑으로만 대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사랑받지 못한 유년기의 상처를 현재의 사랑이 다 채울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거짓말과 약속을 불이행하는 이용자를 이제는 믿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고, 퇴소까지 그냥 두고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고, 형식적인 인사만 유지하기도 한다. E를 보면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그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노력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진다. E는 자기편이 없다고 호소하지만, 나는 네 편이라고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는 것을 아는 E가 한 번은 “고맙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그 말에 힘을 얻고 그의 진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E가 자립하여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심으로 대하며 동반해야 한다고 성찰했다. 사례 E의 성찰 단계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E의 사례 내 분석

성찰 단계	하위범주
기술: 문제 상황	시설 간 정보 미전달, 유년기 상처, 폭력과 감정조절 어려움, 애정의 욕구, 자립의 욕구
평가: 실천적 한계 및 문제 분석	직원 피로로 방어적 대응, 이용자에 대한 불신, 지속적인 상담과 지도에도 변화를 이끌기에 한계가 있음, 시설의 역할에도 개입의 한계, 근로의욕이 낮음, 직장 내 적응 문제, 불안정한 자립 전망
계획: 더 나은 실천 방안	당사자의 주체적인 삶을 위해 힘이 되는 존재, 진심으로 동반함

6) 사례 F: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로 과소비와 금전 관리 어려움

F는 지적장애가 있는 시설 생활자로, 과소비로 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6개월 단위로 새 휴대폰을 개통하여 위약금이 백만 원 이상 발생하며, 게임 아이টে를 구매하는데 하

루에 백만 원을 지출하기도 한다. 대리점에서는 F가 지적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라는 이유로 휴대폰 개통을 허용한다. 시설 근처 대리점에서 양해를 구하면 시내까지 나가 개통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통신사의 납부 독촉장이 수시로 날아오고 재정 상태는 악화된다. 직원들이 통장을 관리하면 F는 은행에 가서 분실 신고 후 재발급받아 돈을 인출한다. 용돈이 부족하면 은행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을 시도하고, 먹고 싶은 것을 사지 못하면 휴대폰 소액 결제로 이백만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기도 한다. 사회보장비와 급여를 미리 인출하여 병원비나 검사비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F에게 이러한 소비의 이유를 물어보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사회적응 기술이 뛰어나고 여러 활동과 정보에 관심이 많으며,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인 F는 조울증이 의심된다는 주치의의 진단을 받았다. 스스로 문제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형편이 넉넉지 못한 누나가 원가족으로 있으나 금전적인 도움은 받을 수 없다.

F는 다양한 방법으로 과소비를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지 못한다. 여러 차례 언어로 안내했으나 한계가 있었다. 현재 보호작업장에서 월 20여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일반 사업장에서는 적응이 힘들어 조기에 종료했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작업장을 찾기 위해 면접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적장애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금전관리이다. 자립 후에는 소비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다. 초기 사후관리 기간에는 직원의 관리로 괜찮으나, 사후관리가 끝나면 연락이 끊기고 재정이 거의 사라져 기초수급비로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F의 경우, 자립이 어려울 뿐 아니라 현재 부채 해결이 우선 필요하다.

한번은 F가 자진해서 정신병원 입원을 요구하며, 입원하면 소비 성향이 없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담을 통해 입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퇴원 후 더 큰 소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직원들은 F를 위해 어떤 지원이 가장 효과적일지 고민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으며, 지금으로서는 그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그가 사회적 이슈를 이야기하기 좋아한다는 점을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F에게 아직 기회가 많은 젊은 나이임을 강조하며,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걱정보다는 미래를 설계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격려했던 과정을 성찰했다. 사례 F의 성찰 단계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F의 사례 내 분석

성찰 단계	하위범주
기술: 문제 상황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 조울증 의심 소견, 원가족의 지지 부족, 금전 관리의 어려움, 스트레스로 인한 과소비 행동, 소비를 줄이기 위해 자진해서 정신병원 입원을 요구
평가: 실천적 한계 및 문제 분석	스스로 문제해결이 어려움, 과소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 시도, 시설 역할의 한계, 언어로 안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정신병원 입원이 해결책이 아님, 퇴원 후 더 큰 소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이 큼, 자립이 어렵고 부채 해결이 시급함
계획: 더 나은 실천 방안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함, 미래를 함께 설계

7) 사례 G: 채팅과 가출 반복 후 퇴소하여 기초수급 생활

G는 보육원 시절부터 채팅을 통해 남성과의 만남을 위해 가출을 반복해 왔다. 시설 전원 시에 사전에 고지되지 않아 입소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입소 후 첫 명절 전날, G는 외출 후 돌아오지 않았고, 직원들은 외출을 막을 명분이 없었다. G는 채팅남을 만나러 나갔고, 결국 직원이 새벽에 그를 데리고 돌아왔다. 직원은 G에 대한 안타까움과 지적장애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울분을 느꼈다. 그러나 사전에 알리지 않은 이전 시설 관계자에게는 화를 표현하지 않았다.

시설 직원들은 회의를 통해 성교육을 강화하고 폐해에 관한 사례를 지속해서 안내했지만, G의 행동은 나아지지 않았다. G는 채팅을 통해 관심받는 것을 즐겼고, 쉽게 끊지 못했다. 상대방은 하룻밤의 만남을 위한 접근이지만, G는 그저 받는 관심이 좋았을 뿐이다. 직원들은 G에게 관심을 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매일 감정일기를 쓰게 하고, 일정 시간 대화를 나누며, 고민과 관심사를 나누었지만, 어느 시점에서 G는 다시 채팅을 시작했다. 지적장애인들은 본능적 욕구가 강한 편이며, 성 문제는 강한 성욕보다는 애정결핍으로 인한 관심받기가 더 큰 원인일 수 있다.

여러 차례 채팅으로 가출을 반복하던 G는 결국 자발적으로 퇴소를 결정했다. 부산에 있는 모 씨와 두 번 만남을 한 후 결혼 약속을 맺었다. 시설에서 함께 자립을 준비하자고 제안하던 중에 G는 가출했다. 본인의 돈으로 집을 구했으나 남자 명의로 등록했고, 살림살이와 생활비를 부담했으나 돈이 바닥나자 두 달 만에 헤어졌다. 시설로 돌아오라는 제안에도 G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거절했다.

G는 가끔 연락을 하여 직원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살이 많이 찼 모습을 보고 직원은 걱

정을 표했지만, 그는 괜찮다며 웃었다. 현재 G는 일을 하지 않고 기초수급비로 생활하며 여전히 채팅을 끊지 못하고 있다. 직원들은 그에게 세상에 혼자가 아님을 알리고,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관심을 표현했다. 그러나 더 이상 그에게 제공할 것이 없음을 느끼며 도움의 한계를 절감했고, 어떤 방식으로 더 나은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사례 G에 대한 성찰 단계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G의 사례 내 분석

성찰 단계	하위범주
기술: 문제 상황	시설 간 정보 미전달, 보육원 시절부터 채팅 만남을 위한 가출과 과소비 반복, 채팅을 통해 관심받는 것을 즐기고 원함, 애정과 관심의 욕구
평가: 실천적 한계 및 문제 분석	직원의 관심을 가져주기 위한 노력에 한계, 채팅으로 돌아가는 상황 반복, 시설에서 함께 자립을 준비하자고 제안했으나 가출함, 준비가 부족한 자립생활, 자발적 퇴소 후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상황에 한계
계획: 더 나은 실천 방안	퇴소 후 지속적인 지원 필요, 세상에 혼자가 아님을 강조, 소통과 도움의 문 열어놓기

2. 사례 간 분석

사례 간 분석에서는 앞서 수행한 사례 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여러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하위범주들을 모아 범주를 도출했다. 이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정리한 결과, 세 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주제는 시설 입·퇴소 과정에 대한 성찰로, ‘시설과 원가족 간 협력적 연대’를 다룬다. 두 번째 주제는 시설 생활에 대한 성찰로, ‘도전적 행동에 사랑과 진심으로 동반’을 포함한다. 세 번째 주제는 시설 퇴소 후에 대한 성찰로, ‘미완의 자립 여정에서 소통의 문 열어놓기’를 제시한다.

1) 주제 1. 시설 입·퇴소 과정: 시설과 원가족 간 협력적 연대

(1) 시설 입소와 갈등 조정

보육원과 장애인시설 간 전원 사례에서는 입소자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과 원가족 간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A 사례에서는 퇴소 후 사후관리가 부족해 다시 입소가 요청되었고, C 사례는 폭력 문제로 전원이 이루어졌으나 원가족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D 사례는 부친의 요구로 시설 퇴소 후 생활 능력이 퇴행하여 다른 시설로 전원 되었으며, E와 G 사례에서는 정보 부족으로 시설이 혼란을 겪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시설 전원 및 재입

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조정을 보여준다.

(2) 시설 역할과 책임의 한계

A 사례에서는 자립을 경험한 후 재입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를 설득해 긍정적으로 재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러나 D 사례에서는 부친의 요구로 급작스러운 퇴소가 이루어졌고, 당사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친의 강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개입은 제한적이었다. F와 G 사례에서는 금전 관리와 자발적 가출 문제에서 시설의 개입이 한계에 부딪혔다.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자립을 지원하지만, 중요한 의사결정 시기에 시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3) 시설과 원가족 간 연대와 협력

C 사례에서 원가족은 시설과 협력해 문제행동을 개선하려 노력했으며, 원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도전적 행동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반면, D 사례에서는 부친의 금전적 요구로 인해 이용자가 퇴소하였고, 그 후 생활 능력이 퇴행하는 등 가족이 이용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원가족은 정서적 지지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경제적 요구의 대상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상황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시설과 원가족 간 연대가 문제해결과 이용자 지원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표 9〉 주제 1. 시설 입·퇴소 과정: 시설과 원가족 간 협력적 연대

성찰 단계	범주	하위범주	사례
기술	시설 입소와 갈등 조정	시설 전원 및 재입소 과정	A, B, C, D, E, G
		원가족과의 갈등 및 문제해결	C, D
평가	시설 역할과 책임의 한계	시설의 역할과 책임	A, D, E, F
		시설 개입의 한계	D, E, F
계획	시설과 원가족 간 연대와 협력	시설 간 정보 협력	A, E, G
		원가족과 협력의 중요성	C, F

2) 주제 2. 시설 생활: 도전적 행동에 사랑과 진심으로 동반

(1) 관심이 필요한 문제 상황들

시설 이용자들은 거짓말, 폭력, 자해 등 도전적 행동을 보이며, 이는 관심 부족이나 정서

적 결핍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A, F, G는 채팅이나 스트레스성 과소비로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E와 B는 폭력 및 거짓말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다. 이러한 도전적 행동들은 종종 정서적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되며, 정신과 치료를 통해 증상이 개선되기도 하지만, 일부 이용자는 치료를 거부하기도 한다.

(2) 직원의 미흡한 대처와 실천적 한계

직원들은 시설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고 방어적으로 대처하게 되며, 이용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더 나은 실천을 위해 노력하지만, 종종 실천의 한계를 마주하게 된다. B 사례에서는 직원의 관심을 얻고자 하는 이용자의 마음을 읽어주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성찰했으며, A 사례에서는 선입견을 내려놓고 이용자의 더 나은 삶에 집중하여 상담을 진행했다. F와 G 사례에서는 과소비 문제와 채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으나, G는 채팅과 가출을 반복했고, 퇴소 후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직원들은 한계를 절감했다.

(3) 사랑과 진심으로 동반

시설 이용자들은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종종 도전적 행동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는 유년기의 사랑 결핍으로 인한 상처로 적대감을 표출했으나, 직원의 진심 어린 지원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보였다. 또한, C는 가족의 훈육이 부족하여 도벽과 폭력 문제가 고착되었으나, 시설과 가족 간에 협력을 통해 사랑이 담긴 훈육이 이루어짐으로써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시설 이용자들에게는 사랑을 기반으로 한 훈육과 진심이 담긴 동반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된다.

〈표 10〉 주제 2. 시설 생활: 도전적 행동에 사랑과 진심으로 동반

성찰 단계	범주	하위범주	사례
기술	관심이 필요한 문제 상황들	금전 관리의 어려움	A, D, F, G
		거짓말, 도벽, 폭력 등 도전적 행동	B, C, E
		채팅 만남, 가출 등 이탈 행동	A, B, G
		정신건강 문제	A, B, E, F
평가	직원의 미흡한 대처와 실천적 한계	직원 피로도 누적으로 방어적 대응	B, E
		더 나은 실천을 위한 성찰	A, B, D, E, F
		관심을 기울이려는 노력의 한계	B, F, G

성찰 단계	범주	하위범주	사례
계획	사랑으로 훈육하며 진심으로 동반함	애정과 관심의 욕구	B, E, G
		원가족의 영향과 지지 부족	C, E, F
		사랑으로 훈육하며 진심으로 동반함	C, E

3) 주제 3. 시설 퇴소 후: 미완의 자립 여정에서 소통의 문 열어놓기

(1) 미완의 자립 여정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들은 자립을 희망하지만, 금전관리 직업 유지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D는 시설에서 생활하며 안정적인 직업 활동을 이어가던 중 부친의 요구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소해 퇴행했고, 결국 다른 시설로 전원되었다. E는 근로의욕 부족과 동료와의 잦은 불화로 인해 자립 전망이 불안정하다. F는 과도한 소비로 인해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이처럼 자립의 욕구가 크더라도 경제적 어려움, 불안정한 자립전망, 준비 부족이 미완의 자립 여정으로 이끈다.

(2) 퇴소 이후 남겨진 과제

시설 퇴소 후에도 자립생활이 순조롭지 않은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 G는 가출과 퇴소를 반복하며 기초수급비로 생활하고 있고, D는 남자 이용자의 아이를 낳아 남편 없이 시댁에서 생활 중이다. 이러한 사례는 퇴소 후 삶의 질 저하와 사후관리의 부족으로 인해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퇴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체계와 사후관리의 강화가 필요한 이유다.

(3) 소통의 문 열어놓기

시설 이용자들의 입·퇴소 결정 시 자기결정권은 매우 중요하지만, 때로는 가족이나 직원의 요구로 인해 자기결정이 모호해지기도 한다. D는 퇴소 후 4년 만에 시설과 연락을 취하며 자신이 시설에서 만난 남자 이용자의 아이를 낳아 살고 있음을 알렸다. G는 여전히 채팅 문제를 겪고 있지만, 직원은 그가 혼자가 아님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이용자들이 퇴소 후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직원과의 열린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직원들의 지원과 소통은 이용자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자립의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 11〉 주제 3. 시설 퇴소 후: 미완의 자립 여정에서 소통의 문 열어놓기

성찰 단계	범주	하위범주	사례
기술	미완의 자립 여정	자립의 욕구	A, E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A, E, F
		불안정한 자립 전망	E, F, G
		준비가 부족한 자립생활	D, G
평가	미해결의 과제	퇴소 후 삶의 질 저하	B, D, G
		퇴소 후 자기관리의 어려움	A, F
계획	소통의 문 열어놓기	자기결정의 모호함과 선택의 존중	A, D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이 필요함	B, D, G

V. 논의

주제 1. 시설과 원가족 간 협력적 연대

시설과 원가족 간 협력적 연대를 통해 이용자의 존엄성과 존재를 지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사회복지 관점에서, UN 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UN CRPD, 2022)는 장애인 ‘당사자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포괄적 지원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서경주 외, 2022: 99). 장애인 복지의 중요한 실천 전략인 ‘사람중심실천’은 장애인과 실천가 간의 관계에서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과 ‘당사자를 위해 중요한 것’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중시한다(Smull et al., 2005: 17; 이상중, 장순옥, 2021: 8). Harvey(2012)는 지적장애인의 문제행동이 부적응적 이라고 판단되어 행동수정이 필요해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존 반응일 수 있다고 해석하며, 이들에게는 안전감, 의사소통, 그리고 연대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가톨릭교회의 카리타스 윤리강령은 ‘연대’를 강조하며, 이는 개인과 공동체의 고통을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돕는 것”을 의미한다(최현순, 2015: 84-101). 국제 카리타스(Caritas Internationalis, 2014)는 연대를 통해 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는 세상을 만드는 공동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러한 연대는 시설, 가족, 직원이 하나가 되어 이용자의 삶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협력적 관계 속에서 실현된다.

주제 2. 도전적 행동에 사랑과 진심으로 동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적장애인 시설 이용자들은 과도한 채팅, 거짓말, 폭력, 자해 등 다양한 도전적 행동을 보인다. 지적장애인들은 시설 퇴소 후 자립생활에서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감정조절, 금전 관리, 생활 규칙 준수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서경주 외, 2022; 차영란, 조선영, 김경록, 2022). 때로는 일탈적 행동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초래한다(서경주 외, 2022). 금전 관리의 문제는 장애 특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차영란 외, 2022), 관심과 소속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과도한 채팅이나 통신비 지출과 같은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지적장애인은 자립생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사람들을 그리워하며(전양희, 2013), 여성 지적장애 청소년의 이성 교제는 종종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된다(김민영, 2018). 그러나 장애로 인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가 제한된 탓에, 성적인 호기심이나 사회적 관계 형성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출되기도 한다(신준용, 최재원, 2021). 이에 따라 사회복지 관점에서는 지적장애인의 자해와 같은 도전적 행동을 단순한 문제로 보기보다 그들의 욕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해석하며, ‘개별적 욕구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노이연, 2017: 15).

본 연구에서도 가족의 훈육 부족이나 정서적 지원 부족이 도벽이나 폭력과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 결과는 사랑과 훈육의 조화가 필요하며, 사랑으로 훈육하며 진심으로 대하고 동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가톨릭 사회복지 실천 연구에서는 시설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 이면에 숨겨진 사랑 받고자 하는 욕구를 이해하고, 상호 인격을 존중하며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박영만과 김미숙(2022)의 연구는, 폭력 행동이나 부적응 사례에서 직원들이 인격적으로 대할 때 이용자들이 사랑을 통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했다.

가톨릭교회의 가치에 따르면,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을 지닌 존엄한 존재로서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인간의 구원자, 10항).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때, 인간의 삶은 공허해진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인간은 사랑의 대화를 통해 자신을 완성해 나간다. 따라서 시설 이용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의 손길’이며, 이는 ‘아낌없는 관심’으로 표현된다(간후린 사회 교리, 222항). 진정한 사랑은 공손함, 존중, 인내를 통해 성장하며, 그 본질은 무례하거나 불손하게 행하지 않는다(사랑의 기쁨, 99항).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사랑과 훈육을 조화롭게 하여 서로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사랑의 기쁨, 119항). 이러한 역할이 가정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시설에서 이 역할을 대신 수행해야 한다.

한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시설 역할과 책임의 한계’, ‘직원의 미흡한 대처’, 그리고 ‘미해결의 과제’를 경험했다. 특히, ‘직원 피로도 누적으로 방어적 대응’과 ‘관심을 기울이려는 노력의 한계’가 두드러졌으며, 연구참여자들이 ‘더 나은 실천’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실천적 한계’를 절감했다. 이와 관련하여 황중열 외(2021)의 그리스도교 영성 살이 관점에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가톨릭 사회복지 실천가들은 실천 과정에서 이용자의 행동이나 문제를 단순히 시설 역할이나 실천가의 직무 역할로만 바라보기보다는, 그가 겪고 있는 존재적 아픔과 욕구를 먼저 이해하며, 진정한 사랑과 진심으로 그들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보호하고 동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당사자는 자아존중감 향상, 사랑받고 있다는 인식, 그리고 변화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얻을 수 있다(황중열 외, 2021). 본 연구에서 감정조절이 어렵고 폭력적 행동을 보이는 E가 실천가에게 “고맙다”라고 표현한 것은, 도전적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실천가의 진정한 관심과 사랑이 이용자의 마음에 전달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랑과 진심 어린 태도가 장애인시설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강조한다. 가톨릭 사회복지 실천가의 역할은 단순히 문제행동을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존재적 아픔과 욕구를 이해하며, 진정한 사랑과 진심으로 그들을 동반하는 것이다. 이는 실천가와 이용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며, 궁극적으로 자아존중감과 변화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용세웅, 김승주, 2023).

주제 3. 미완의 자립 여정에서 소통의 문 열어놓기

대부분의 장애인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의 한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퇴소 후에도 가족의 충분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최문정, 2011). 지적장애인들은 퇴소 후 자립생활에 정착하기까지 장기간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면 소속 기관이 없어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다(서경주 외, 2022). 이러한 문제는 탈시설 이후 친구나 이웃이 없어 지역사회에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예산 부족으로 사후 지원에도 한계가 존재한다(성명진, 2019).

서경주 외(2022: 116)는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 경험을 연구하며, 일관된 공공 및 민간 지원체계의 부재와 당사자와의 소통을 증시하는 권익옹호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진영(2011: 52)은 지적장애인이 자립홈에서 생활할 때 가족, 선생님, 이웃, 후원자 등 지지체계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박종숙 외(2024: 98-99)는 주거 서비스를 중복해서 이용한 당사자

의 경험에서 선생님, 동료 등 든든한 지원자 역할이 자립에 힘이 된다고 밝혔다. 외국 연구에서도 탈시설화가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밝혔다(Bredewold, Hermus, Trappenburg, 2018). 세계보건기구(WHO, 2014)는 탈시설을 위한 다섯 가지 원칙 중 하나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차영란 외, 2022).

이처럼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시설 퇴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사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McCarron et al., 2019; 차영란 외, 2022). 본 연구에 소개된 사례에서도 퇴소 후 재입소, 시설 전원, 정신병원 입원 등 불안정한 자립 과정을 겪는 이들에게 시설 직원들이 지지자이자 옹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시설 직원은 이용자와 친밀한 관계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들이 미완의 자립 여정을 가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애인이 퇴소 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사후 지원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김미숙(2024: 69)의 주장과 일치한다.

가톨릭교회의 시각에서 자립은 단순히 독립적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과정이다. 인간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시하지만, 동시에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며, 사회적 존재로서 서로 조화롭게 연결된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간추린 사회 교리, 110항, 125항). 김미숙과 도건창(2022: 131-132)에 따르면, 가톨릭 사회복지사의 사랑실천은 ‘가족 같은 관심’을 바탕으로 ‘상호주체적 동반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퇴소 후 이용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 결과, 실천가들은 지적장애인이 시설을 퇴소한 후에도 소통의 문을 열어두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이 자립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움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작성한 성찰일지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2차 자료의 특성상 자료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궁금한 점을 확인하거나 분석 결과를 연구참여자들과 공유하여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정체성과 가톨릭 기관 종사자의 정체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가톨릭 사회복지의 이중 관점에서 실천 방안을 논의한 데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전국의 천여 개 가톨릭 사회복지시설 실천가들과 종교 사회복지 실천에 관심이 있는 현장 실천가들이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2005). 간추린 사회 교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김미숙 (2024). 한국의 탈시설화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 경험 연구의 질적 내용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 65, 45-78.
- 김미숙, 도건창 (2022). 근거이론으로 살펴본 가톨릭사회복지기관 실천가의 사랑실천 과정.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6(1), 121-152.
- 김민영 (2018). 여성 지적장애 청소년의 이성교제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지적장애연구**, 20(3), 75-98.
- 김민철 (2017). 장애인의 탈시설 경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김성철 (1995). 성서적 측면에서 본 사회복지이념. **기독교와 사회복지**, 46-66.
- 노이연 (2017). 성인지적장애인의 자해행동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주간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도건창 (2022). 카리타스학 입문 1. 청주: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출판부.
- 라이너 게리히 (2008). 교황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카리타스학에 대한 고찰. **가톨릭사회복지**, 47,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사회복지위원회.
- 박영만, 김미숙 (2022). 가톨릭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사랑실천에 대한 자전적 사례탐구: 가평꽃동네정신요양원을 중심으로. **카리타스복지논총**, 17(1), 45-74.
- 박재완, 김도우, 박지혜 (2024). 가톨릭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의 거주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카리타스복지논총**, 19(1), 31-61.
- 박중숙, 황정우, 박나경, 강우혁, 이승아 (2024). 정신장애 당사자의 주거서비스 경험 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51, 79-113.
- 박진영 (2011). 자립홈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5(2), 35-59.
- 서경주, 박수경, 이정하 (2022). 혼자가 된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생존 경험과 지원에 관한 사례연구 - 남성 지적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24(4), 95-127.
- 성명진 (2019).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과정, 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 신준용, 최재원 (2021). 장애 학생을 위한 성교육 활성화 연구 : 지적장애 학생을 중심으로. **장애의재해석**, 2(1), 215-255.
- 심현주 (2019). 가톨릭 사회복지의 시대적 과제: 자선과 ‘사회적 공공성’ 운동의 연대. **생명**

연구, 52, 13-35.

- 양혜원, 최정숙, 김희수 (2018). 지역사회복지관 한부모 자조집단 실천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성찰 연구 - 참여실행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 **한국가족복지학**, 62, 103-139.
- 용세웅, 김승주 (2023). 가난한 사람과의 동행에서 '절망'으로부터 '희망'을 경험한 꽃동네 종사자들에 관한 연구. **카리타스복지논총**, 18(2), 31-64.
- 유영준 (2009). 사회복지사의 반성적 실천과정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사회복지연구**, 40(4), 515-540.
- 유영준 (2018). 가톨릭 사회복지 윤리강령 제정에 관한 소고. **가톨릭사회복지**, 48,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사회복지위원회.
- 유영준, 이현지, 김민수 (2020). 사회복지 성찰역량척도(reflective capacity scale)의 타당화 연구.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7(1), 5-34.
- 윤건수 (2013). 경험의 의미와 질적 연구의 연구 과정: 근거이론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2), 163-200.
- 이상종, 장순옥 (2021).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사람중심실천 학습조직 참여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41, 5-33.
- 전양희 (2013). 지적장애인의 거주시설 퇴소 후 자립생활경험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 차영란, 조선영, 김경록 (2022).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과정에 대한 사후관리 사례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58, 5-28.
- 최무열 (1999). 한국교회와 사회복지. 서울: 나눔의집.
- 최문정 (2011). 탈시설 장애여성의 생애체험: 대상에서 주체로. **장애의재해석**, 215-268.
- 최현순 (2015). 공동체의 구성적 가치로서의 연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헌장」 9항에 함축된 연대의 신학적 개념. **신학과 철학**, 27, 81-118.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24.4.19.).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3.
<https://ebook.cbck.or.kr/gallery/view.asp?seq=214998>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성서위원회 (2005). 성경.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9).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인간의 구원자.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6). 교황 프란치스코 권고. 사랑의 기쁨.
- 황종열, 도건창, 김미숙 (2021). 가톨릭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성찰일지에 나타난 존재 중심 영성 삶이 실천 사례연구. **생명연구**, 62, 153-182.
- Bredewold, F., Hermus, M., & Trappenburg, M. (2018). 'Living in the community'

- the pros and con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the impact of deinstitutionalisation on people with intellectual and psychiatric disabilities. **Journal of Social Work**, 20(1), 83-116.
- Caritas Internationalis (2014). 국제카리타스 윤리강령(한국카리타스인터네셔널 역).
- Creswell, J. W. (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3판(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 지성 공역). 서울: 학지사.
- Gibbs, G. (1988). Learning by doing: A guide to yeaching and learning methods. Oxford Polytechnic Further Education Unit.
- Harvey, K. (2022). 문제행동 뒤에 숨어 있는 트라우마: 지적장애인을 위한 트라우마 기반 행동중재(강영심, 손성화 공역). 서울: 학지사.
- McCarron, M., Lombard-Vance, R., Murphy, E., May, P., Webb, N., Sheaf, G., McCallion, Phillip, Stancliff, Roger, Normand, Charles, Smith, Valerie, & O'Donovan, M.A. (2019). Effect of deinstitutionalisation on quality of life for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 systematic review. **BMJ Open**, 9(4). <https://doi.org/10.1136/bmjopen-2018-025735>
- Morse, J. M. (2015). Data were saturated. **Qualitative Health Research**, 25(5), 587-588. <https://doi.org/10.1177/1049732315576699>
- Padgett, D. (2001).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유태균 역). 서울: 나남.
- Smull, M. W., Sanderson, H., Sweeney, C., Skelhorn, L., George, A., Bourne, M., & Steinbruck, M. (2005). Essential lifestyle planning for everyone. The Learning Community-Essential Lifestyle Planning.
-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UN CRPD). (2022).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WHO (2014). Innovation in deinstitutionalization: A WHO expert survey. World Health Organization.

논문 투고 : 2024.9.26.	논문 심사 : 2024.11.29.	게재 확정 : 2024.12.10.
--------------------	---------------------	---------------------

Abstract

A case study on supporting independent living for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 Catholic social workers' reflective journals

MeeSook Kim*

This study analyzes reflective journals of Catholic social workers to understand key issues in the admission and discharge processes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focusing on their challenging behaviors. It aims to explore practical challenges in supporting independent living and propose improved practices. A qualitative case study was conducted using seven reflective journals from workers in residential facilities. The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both within-case and cross-case comparisons, resulting in three main themes. First, the need for “collaborative solidarity between the facility and family” during the admission and discharge process. Second, the importance of “accompany challenging behaviors with love and sincerity” in care. Third, the value of “maintaining the door open for communication in the unfinished journey of independent living” after discharge. The findings are discussed from both general social work and Catholic social work perspectives, offering practical insights to harmonize these professional identities in their practice.

Keywords: intellectual disabilities, Catholic social welfare, independent living, reflective journal, Caritas

* Research Professor, Catholic Kkotongnae University

장애의재해석 제5권 제2호

2024 Vol. 5, No. 2, 29 - 5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참여가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주는 영향 분석 : 성향점수매칭 분석을 중심으로

전혜영*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을 높이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 코호트 2023년도 조사 패널자료 중 사용한 변수에 응답한 발달장애인 45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방법은 SPSS 25.0을 통해 기술통계분석과 성향점수매칭,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향점수매칭 분석을 통해 평생교육을 경험하는 집단과 미경험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t-test를 통해 집단 간 균등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평생교육은 발달장애인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성향점수매칭 후의 분석에서 다른 요인보다도 더 큰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평생교육의 경험이 발달장애인의 행복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을 통해 평생교육이 발달장애인의 자아존중감에 여타 요인보다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행복감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파악하면서, 앞으로도 질적인 평생교육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자아존중감, 행복감, 성향점수매칭

* 부산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시간강사

I. 연구의 필요성

평생교육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의무로, 개인적인 이유나 전문성을 위해 자기 주도적이며,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지식을 추구하는 학습이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2000). 장애인도 평생교육에서 예외가 될 수 없기에 이들을 위한 평생교육도 법적, 제도적, 행정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2020년 기준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은 4%, 비장애인은 43.4%로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인식, 2022). 장애학생이 학령기 이후 자기 계발 및 교육의 연장선상으로 평생교육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데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실정이다.

장애인은 자기계발과 심리적 만족(조창빈, 김두영, 이상진, 2018)과 삶의 질(전리상, 2022),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이삼미, 정연수, 2022) 목적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혹은 현재는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이동의 편의성과 함께 참여하는 수강생과 교사의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의 여건이 된다면 참여의사를 보이곤 한다(김기룡, 2020). 이렇게 장애인에게도 배움의 욕구는 있으며, 평생교육은 장애인에게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개인의 목적과 사회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평생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중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감, 심리적인 만족이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고, 이것이 타인 존중에도 영향을 주기도 하며, 이것이 행복을 이루는 바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심리 요인인데, 비교적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보고된다(유설희, 김지혜, 임준, 2022).

자아존중감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인 행복은 1980년대부터 정의되어 왔는데, 관계적 행복, 비관계성 행복, 발생하는 행복, 기질적인 행복을 포함한다고 보았다(Davis, 1981). 행복은 삶의 질과 만족도와 함께 연구되고 있으며 10여 년 전부터는 장애인의 행복감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개인 심리적인 요인, 관계가 좋은 경우, 취업을 포함한 경제적 여유, 여가를 즐기는 경우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바 있다(강승원, 2015; 이채식, 김명식, 2019; 황정우, 유수현, 2013; 황정우, 2014).

평생교육이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더라도, 정규 교과 교육과정 외의 프로그램이 자기결정력(이옥인, 박은영, 신인수, 2011; 하민진, 김정기, 전병운, 2019), 자아존중감(김대룡, 2018; 김대룡 2019; 신윤수, 이숙향, 2024; 강충만, 김경신, 2024; 이미정, 연평식, 2024; 이혜림, 박승희, 2018; 정재원, 2022; 최경희, 오승환, 2022) 등 장애인의 심리적 특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검증된 결과들이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비정규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은 분명하다.

이렇게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연구로 다양한 영향 요인을 살펴볼 수 있는데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심리적 만족,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박미진, 허선주, 김기룡, 2024; 오은경, 임원균, 2021; 이삼미, 정연수, 2022; 조창빈, 김두영, 이상진, 2018).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평생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긍정적 심리적 효과를 분석하였기에 평생교육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과 비교한 연구가 부족하였으며, 조사 연구에서 ‘평생교육 참여경험’이라는 독립변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발달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을 구분하여 표본의 동질성을 확보한 후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에 따른 성향점수매칭 전과 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둘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는 자아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셋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는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장애인 평생교육과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과의 관계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된다(법제처, 2024).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23)에서도 제5조 제1항 제10호 중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한다고 수정되어 중·고등학교 교육 외에 평생교육도 고등교육 범주에 포함하였으며, 평생교육법(2024) 일부 개정된 부분에서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시 장애 유형을 고려한 수어, 자막, 점자 등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해당 시설에서 학습 중인 재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을 위한 제도를 법제화하고 마련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장애인은 성인기로의 전환과정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이 37.4%로 전체 인구 65.3% 경제활동 참가율에 비해 반 정도에 겨우 달하는 실정이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4).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장애인은 집에서 지내게 되거나 평생교육으로 활동의 장이 옮겨지는데, 평생교육 기관은 제한된 선택지일 수 있지만(권혁상, 곽승철, 2018) 한편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으로 연계되지 않더라도 배움과 교류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직장인도 배움의 욕구는 있기에 사회 흐름에 발맞출 수 있도록 도움받는 곳이 평생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이삼미, 정연수, 2022).

10여 년 전부터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장애학생이 성인이 되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단계별로 마련하고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도 교육청별로 발전계획 수립 단계(4차),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구축 및 특수교육 전담 조직 확대(5차),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 및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수요에 맞는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6차)까지 받는 것을 목표삼아 발전하고 있다.

차세진과 황순영(2017)은 장애인 평생학교의 교육과정 목적은 장애인이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있다고 하였다. 즉, 평생교육은 장애인의 긍정적 심리, 행복감을 통해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선행연구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참여목적은 배움의 욕구와(박미진, 허선주, 김기룡, 2024; 이삼미, 정연수, 2022) 심리적 만족, 건강한 삶을 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오은경, 임원균, 2021; 이윤희, 이인수, 2020; 조창빈, 김두영, 이상진, 2018).

장애인은 건강한 심리 형성과 건강한 삶을 목표로 평생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으나 평생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변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요구되거나, 이동의 편의성, 교육비, 정보 등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당면 과제가 존재한다(김두영, 김호연, 홍재영, 2014; 류재연, 2017; 명소연, 김두영, 2017; 박미진, 허선주, 김기룡, 2024; 송인애, 오민석, 2019; 조창빈, 김두영, 2016). 그럼에도 평생교육의 취지에 맞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은 참여 만족도도 높으며(심석순, 2019; 오은경, 임원균, 2021), 자기만족, 행복과 같은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는 비중이 높았다(이삼미, 정연수, 2022; 조창빈, 김두영, 이상진, 2018).

평생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교육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와 질적연구를 통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밝혀낸 만큼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질적연구를 통해 참여자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은 있으나 통계적인 검증도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평생교육을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을 균등한 집단으로 구성하였으며,

심리적 요인 중 자신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과 관련 있는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2.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흔하게 연구되는 개념 중 하나이며, 자신에 대해 수용적 또는 거부적인지에 대한 태도의 표현으로 자기를 스스로 유능하거나, 중요하거나, 성공적이었거나, 가치가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박현숙, 양희택, 2013 재인용). 여기서 자아존중감과 감정이 혼동될 수 있는데, 감정은 자아존중감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아존중감은 자기 검증의 결과로 볼 수 있다(Cast, & Burke, 2002).

자기 검증을 통해 구축된 자아존중감은 자기 검증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완충하고 개인이 정체성을 검증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게 되기에(Tesser, 2001) 모든 사람에게 자아존중감은 주요한 심리적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유설희, 김지혜, 임준(2022)은 주거 빈곤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이 더 낮기에 더 나은 장애인의 삶을 위한 자아존중감 연구는 지속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변인이 영향을 주는지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장애 수용이 삶의 만족 또는 생활 만족도에 주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은 정적인 부분 매개효과가 있으며, 자아존중감은 장애수용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고이슬, 전지혜, 2024; 이나연, 임예림, 백성욱, 홍세희, 2024). 그 외에 사회적 지지와 대인관계 등의 관계 형성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박수선, 심다연, 2014; 오지원, 여영훈, 2023; 이민경, 2024). 직업 관련 요인도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인데, 박단아, 최진혁(2024)은 직무만족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여 취업 관련 요인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차별경험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박현숙, 양희택, 2013; 전리상, 2023; 조혜정, 윤명숙, 2016).

이렇듯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차별경험, 관계형성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자아존중감은 장애인 개인의 삶과 사회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다(Mecca, 1989).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과 만족도에 매개하는 변수로 사용이 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평생교육이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3. 장애인의 행복감

행복감(happiness)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을 느낀다는 사전적 정의를 할 수 있으며, Davis(1981)는 개인의 믿음과 욕망, 생각의 관점에서 정의된다고 하며, 관계적 행복, 비관계적 행복, 발생하는 행복, 기질적인 행복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긍정심리학에서 Seligman(2011)은 행복의 요소를 긍정 정서(기쁨, 희열, 따뜻함, 자신감), 몰입, 관계, 의미(중요하다고 믿는 어떤 것에 소속되고 적극적 기여), 성취의 요소로 구분하는 등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대개 연구에서 행복감은 생활 만족, 주관적 안녕감의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강승원, 이해경, 2016).

행복감을 느낀다는 건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도 장애인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기에(박세혁, 이윤정, 서희정, 2023)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다. 먼저, 황정우와 유수현(2013)은 정신장애인의 행복감 수준은 낮은 편이며, 자아존중감, 정신과적 증상, 동료관계, 취업 여부, 건강, 학력 등의 다양한 요인이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박세혁, 이윤정, 서희정(2023)은 팬데믹 상황에서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지각된 무력감과 자기효능감이 부족한 경우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 외의 선행 연구에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으로는 연령, 건강, 결혼 유무, 사회적 지원, 경제적 궁핍이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강승원, 2014; 유향금, 2020; 황정우, 2014). 사회적 참여와 상호작용 요인으로는 여가(김동원, 2014), 동료관계, 심리, 프로그램 경험(황정우, 2014). 그 외에도 취업 여부를 비롯하여, 임금, 소통과 관계 등이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김경희, 이채식, 김명식, 2019).

즉, 장애인의 행복감에 취업이나 경제적 상황, 인간관계, 사회적 활동이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자아존중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공통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을 통제 변수로 하고, 평생교육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Ⅲ.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일과 삶 패널 4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행복감, 평생교육 참여여부의 문항에 모두 응답한 458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공통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인 가족과의 관계, 친구 유무, 교류하는 친구 수, 차별 경험, 취업 여부를 투입하여 성향매칭분석 후 22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성별은 여정보다 남성이 더 많았으며, 연령대는 20대가 과반수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19세 이하의 정규 교육과정 수행으로 평생교육기관과 관련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주말에 종교기관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교육과정 이외의 프로그램에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20대 이하의 발달장애인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주된 장애는 지적장애인이 자폐성장애인보다 많으며,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70% 이상으로 가장 많고 초졸 이하와 대학교 졸업이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배우자는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90% 이상에 달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은 기타 시·도, 광역시·도와 경기도, 서울 순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 대상인 발달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정보에 대한 사항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분석 발달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정보

구분		매칭 전(n=458)		매칭 후(n=220)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여성	143	31.2	72	32.7
	남성	315	68.8	148	67.3
연령	20대 이하	242	52.8	117	53.2
	30대	95	20.7	36	16.4
	40대	54	11.8	34	15.5
	50대	42	9.2	20	9.1
	60대 이상	25	5.5	13	5.9
주된 장애	자폐성 장애	136	29.7	76	34.5
	지적장애	322	70.3	144	65.5

구분		매칭 전(n=458)		매칭 후(n=220)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중복장애	있음	23	5.0	14	6.4
	없음	435	95.0	206	93.6
최종학력	초졸 이하	50	10.9	24	10.9
	중학교 졸업	27	5.9	14	6.4
	고등학교 졸업	330	72.1	161	73.2
	대학교 졸업	51	11.1	21	9.5
배우자	있음	42	9.2	199	90.5
	없음	416	90.8	21	9.5
지역	서울	63	13.8	40	18.2
	경기	99	21.6	56	25.5
	광역시도	125	27.3	55	25.0
	기타시도	171	37.3	69	31.4

2. 분석 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으로 먼저, 자아존중감은 ‘1. 나는 다른 사람들 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2. 나는 자랑할 것이 많다.’, ‘3.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4.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 총 4문항 3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응답으로 구성되도록 역코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성향점수 매칭 전 .813, 성향점수 매칭 후 .781로 확인되었으며, 종속변수로 사용하기 위해 변수 합치기를 통해 4문항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 행복감은 3점 척도 단일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요 독립변인은 최근 3년 동안 학교 이외의 기관 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묻는 문항으로 경험했다는 1, 경험이 없다는 0으로 재코딩 하였다.

통제변수는 선행연구에서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분석된 사회적 지지와 대인관계(박수선, 심다연, 2024; 이민경, 2024), 차별 경험(전리상, 2023; 조혜정, 윤명숙, 2016), 취업 여부(박수선, 심다연, 2024), 장애수용(고이슬, 전지혜, 2024; 이나연, 임예림, 백성욱, 홍세희, 2024) 등을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패널은 장애수용 관련 변수가 없어 이를 제외한 가족과의 관계, 친구 유무, 교류하는 친구의 수,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 취업여부 등의 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연구변수 설명

변수		변수설명
종속1	자아존중감	3점 Likert 척도, 3문항 합쳐서 평균점수를 사용
종속2	행복감	1= 전혀 아니다. 2=그냥 그렇다. 3=매우 그렇다.
독립	3년 이내 평생교육 경험 여부	1=있음, 0=없음
통제	가족과의 관계(역코딩)	1=잘 지내지 못한다, 2=보통이다. 3=매우 잘 지낸다.
	친구 유무	1=있음, 0=없음
	교류하는 친구 수	1=전혀 없다, 2=1명~4명, 3=5명~9명
	차별 경험(일자리 차별 제외)	1=경험이 없다, 2=드물게 있다, 3=자주 경험 했다
	취업여부	1=취업, 0=미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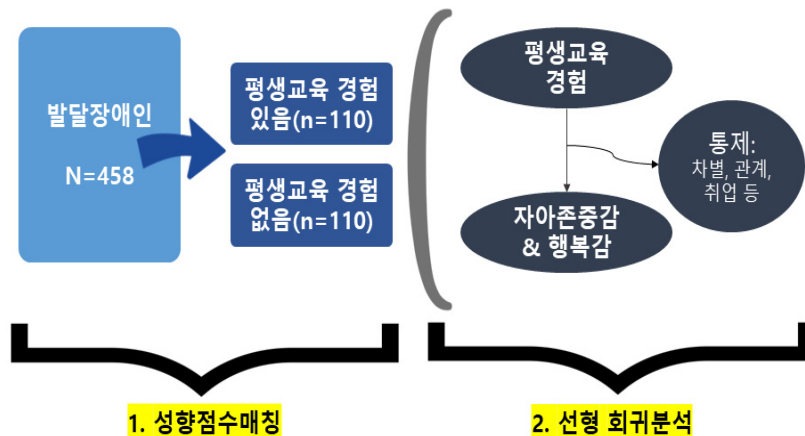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만약 영향을 준다면 영향력의 크기는 어떠한지 분석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 분석과 선행회귀분석을 위해 SPSS 25.0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사용한 분석 방법인 성향점수매칭은 Rosenbaum & Rubin(1983)이 처음 제안한 방법으로,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에 사용되는 준 실험적 연구 방법이다. 가장 큰 특징은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실험연구의 무작위 할당과 유사한 조건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권현정, 조용운, 고지영, 2011). 성향점수매칭 방법은 이질성을 가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사한 성향의 데이터로 짝을 지어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먼저,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 2023년도 조사 데이터에서 선행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변수와 인구사회학적 정보와 관련된 변수를 추렸으며, 이에 응답한 패널을 458명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SPSS 25.0의 성향매칭분석을 사용하여 공차를 0.1로 설정하였다. 수치는 0.1~0.01까지 설정하는데, 0.1에 가까울수록 차이점 한계 기준을 높게 설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집단은 평생교육 경험 여부(1=경험있음, 0=경험없음)로 설정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 차별 경험, 가족관계, 친구 유무, 취업 여부, 평소 교류 친구 수를 변수로 하였다. 이렇게 최종 평생교육 경험한 집단 110명, 경험하지 않은 집단 110명, 총 220명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패널이 적절하게 분류되었는지 t-test를 통해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확인 후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평생교육 경험 여부는 독립변수,

그 외에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공통으로 영향을 주는 차별 경험, 가족관계, 친구 유무, 취업 여부, 평소 교류 친구의 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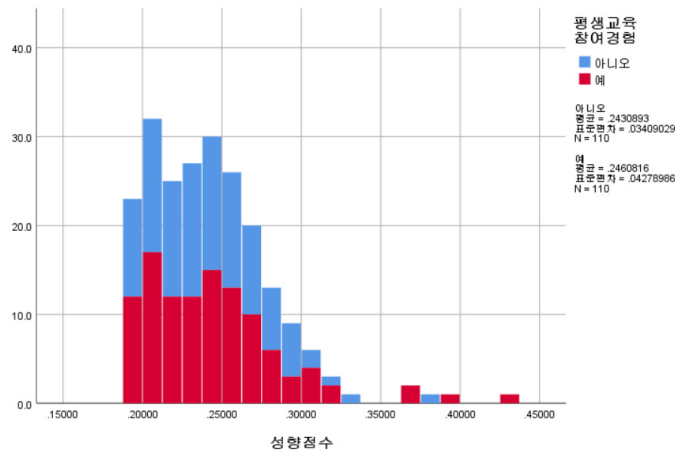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V. 연구결과

1.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경험에 따른 성향점수매칭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평생교육 경험 집단과 경험이 없는 집단을 동질하게 구성하는 작업을 하였다. 사전에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인 대인관계(가족관계, 친구 유무, 친구 수), 취업, 차별변수를 투입하여 성향점수매칭을 하였다. 그 결과 모형은 .000 수준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ext{Exp}(B) = .316$). 다만, 평생교육 여부에 변수들이 유의한 영향은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향점수들을 평생교육 참여 경험에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성향점수의 차이를 히스토그램을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는 [그림 2]와 같다.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는 .2460816,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는 .2430893으로 거의 균일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 성향점수분포

다음으로 성향점수매칭 이후 매칭 질을 확인하기 위해 평생교육 경험여부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을 하였다. <표 3>에 제시한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매칭 전과 후의 t검정결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매칭 전에도 두 집단이 평균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각 집단 간의 표본 수의 차이가 크면 평생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어 최종 분석하고자 하는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검정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평생교육 경험이 없는 패널 200명 정도의 탈락을 감안하고, 평생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표본 수를 맞추었다.

<표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평균차이분석

변수		매칭 전(m, sd)		매칭 후(m, sd)		매칭 후 t-test
		경험 있음 (n=110)	경험 없음 (n=348)	경험 있음 (n=110)	경험 없음 (n=110)	
대인관계	가족과의 관계	2.70(.82)	2.72(.61)	2.70(.82)	2.68(.83)	.163
	친구 유무	.56(.50)	.53(.50)	.56(.50)	.51(.50)	.809
	교류 친구 수	1.69(.74)	1.64(.69)	1.69(.74)	1.71(.75)	-.182
차별 경험(일자리 차별 제외)		1.58(.67)	1.48(.71)	1.58(.67)	1.46(.55)	1.428
취업 여부		.51(.50)	.56(.56)	.51(.50)	.46(.50)	.672

2.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성향점수 매칭 전 발달장애인의 자아존중감에 평생교육 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선형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표 4>와 같다. 선형 회귀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F=9.203$,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0.9%이며($R^2=.109$, adj. $R^2=.097$), Durbin-watson 검정 결과가 2.131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때 평생교육 경험은 통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96$, $p<.05$). 그 외의 통제변수는 가족관계($\beta=.159$, $p<.001$), 친구 유무($\beta=.139$, $p<.05$), 취업 여부($\beta=.200$, $p<.001$)가 영향을 주며, 이는 평생교육이 자아존중감에 주는 영향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성향점수 매칭 전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자아존중감)

구분	변수	B	S.E.	β	t	VIF
	(상수)	1.525	.154		9.890***	
독립 변수	평생교육 경험 여부	.147	.068	.096	2.159*	1.007
통제 변수	가족과의 관계	.155	.044	.159	3.549***	1.014
	친구 유무	.182	.077	.139	2.371*	1.732
	교류하는 친구의 수	.010	.054	.011	.184	1.738
	차별경험(일자리 차별 제외)	-.001	.042	-.001	-.021	1.037
	취업 여부	.262	.060	.200	4.395***	1.045
R^2		.109				
adj. R^2		.097				
Durbin-Watson		2.131				
F		9.203***				

* $p<.05$, *** $p<.001$

다음으로 성향점수 매칭 후 자아존중감에 평생교육 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선형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표 5>와 같다. 선형 회귀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F=7.657$,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7.7%로($R^2=.177$, adj. $R^2=.154$), 매칭 전보다 설명력이 높아졌으며, Durbin-watson 검정 결과가 1.891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성향점수매칭 후의 회귀분석은 매칭 전보다 평생교육 경험이 발달장애인의 자아존중감에 다른 통제변수보다 더 큰 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beta=.226$, $p<.001$). 그 외의 통제변수는 가족과의 관계($\beta=.131$, $p<.05$), 취업여부($\beta=.179$, $p<.01$)도 발달장애인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성향점수 매칭 후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자아존중감)

구분	변수	B	S.E.	β	t	VIF
	(상수)	1.624	.180		9.030***	
독립 변수	평생교육 경험여부	.265	.074	.226	3.589***	1.023
통제 변수	가족과의 관계	.093	.045	.131	2.087*	1.013
	친구 유무	.169	.096	.144	1.769	1.706
	교류하는 친구의 수	.075	.064	.094	1.171	1.685
	차별경험(일자리 차별 제외)	-.081	.063	-.084	-1.287	1.105
	취업 여부	.210	.076	.179	2.759**	1.087
R^2		.177				
adj. R^2		.154				
Durbin-Watson		1.891				
F		7.657***				

* $p<.05$, ** $p<.01$, *** $p<.001$

3.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경험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성향점수 매칭 전 발달장애인의 행복감에 평생교육 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선형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표 6〉과 같다. 선형 회귀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F=11.721$,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3.5%이며($R^2=.135$, adj. $R^2=.123$), Durbin-watson 검정 결과가 1.886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성향점수 매칭 전 평생교육 경험은 발달장애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통제변수인 가족과의 관계가 좋을수록($\beta=.226$, $p<.001$), 친구가 있는 경우($\beta=.226$, $p<.001$), 차별경험이 없는 경우($\beta=.226$, $p<.001$)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성향점수 매칭 전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행복감)

구분	변수	B	S.E.	β	t	VIF
	(상수)	1.933	.132		14.622***	
독립 변수	평생교육 경험 여부	-.018	.058	-.014	-.307	1.007
통제 변수	가족과의 관계	.245	.038	.288	6.542***	1.104
	친구 유무	.221	.066	.194	3.368**	1.732
	교류하는 친구의 수	-.050	.047	-.062	-1.076	1.738
	차별경험(일자리 차별 제외)	-.087	.036	-.108	-2.410*	1.037
	취업 여부	.075	.051	.066	1.464	1.045
R ²		.135				
adj. R ²		.123				
Durbin-Watson		1.886				
F		11.721***				

*p<.05, **p<.01, ***p<.001

성향점수 매칭 후 발달장애인의 행복감에 평생교육 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선형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표 7〉과 같다. 선형 회귀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F=7.437$,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7.3%이며($R^2=.173$, adj. $R^2=.150$), Durbin-watson 검정 결과가 2.024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성향점수 매칭 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경험은 행복감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다만, 통제변수인 가족관계($\beta=.297$, $p<.001$), 친구 유무($\beta=.238$, $p<.01$), 차별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beta=-.174$, $p<.01$)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성향점수 매칭 후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행복감)

구분	변수	B	S.E.	β	t	VIF
	(상수)	2.079	.184		11.323***	
독립 변수	평생교육 경험 여부	.022	.076	.018	.292	1.023
통제 변수	가족과의 관계	.216	.046	.297	4.730***	1.013
	친구 유무	.286	.098	.238	2.927**	1.706
	교류하는 친구의 수	-.065	.066	-.080	-.990	1.685
	차별경험(일자리 차별 제외)	.170	.064	-.174	-2.662**	1.105
	취업 여부	.101	.079	.084	1.295	1.087

구분	변수	B	S.E.	β	t	VIF
	R^2			.173		
	adj. R^2			.150		
	Durbin-Watson			2.024		
	F			7.437***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경험이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지 성향점수매칭과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 심리적 요인에 대한 주요 논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성향점수매칭 분석 후 매칭 전과 후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공통으로 영향을 주는 대인관계(가족과의 관계, 친구 유무, 교류하는 친구의 수), 차별 경험, 취업 여부를 기점으로 성향점수매칭을 하였다. 매칭 전과 후 모두 각 집단 간의 평균차는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순수 평생교육의 효과만을 검정하기 위해서 성향점수 매칭을 통해 유사한 크기의 두 표본을 만들고자 하였다. 평균 차이를 분석할 때 양 집단 표본크기 차이가 큰 경우 평생교육 경험과 여타 다른 변수의 평균 분포가 달라지므로 비교가 정확히 어렵기에 비슷하게 만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 경험집단 110명, 경험 없는 집단 348명으로 약 3배 차이가 있었다. 장애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 증가하고 있지만(통계자료 찾기), 현실적으로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이 적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0년 전의 평생교육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의사는 있으나 이동 문제나 교육비 부담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지만(김두영, 김호영, 홍재영, 2014), 개인적인 여건이나 사회적인 여건 개선이 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경험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성향점수매칭 전보다 성향점수매칭을 한 후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향점수매칭 전에는 $\beta = .096$ 으로 통제변수 중 취업한 경우, 가족과의 관계가 좋은 경우,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도 적은 수치였다. 하지만, 성향점수매칭 후에는 $\beta = .226$ 으로 취업한 경우, 가족관계가 긍정적인 경우보다 영향력이 커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경험은 성향점수매칭 전과 후 행복감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향점수매칭 후를 살펴본다면, 통제변수가 행복감에 영향을 주었는데 가족관계가 좋은 경우, 친구가 있는 경우, 차별경험이 없는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최근까지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등 심리적 변인에 영향을 주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어서 비교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평생교육의 목적이 심리적 만족(조창빈, 김두영, 이상진, 2018)과 삶 적응(박미진, 허선주, 김기룡, 2024)을 위한 기회로 여기는 만큼 분명 평생교육 참여는 심리적인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학습지향을 위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이 긍정적 인지정서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힌 바 있다(오은경, 임원균, 2021). 이때 긍정적 정서는 긍정심리학에서 행복의 5가지 요인 중 하나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 개념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행복감에는 평생교육 참여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참여(강승원, 이해경, 2016), 여가 활동(정우영, 정지혜, 2020)이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지만 이에 미치지 못한 결과이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험을 통해 부족한 부분과 흥미 있는 분야를 익히고 배움으로써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이는 어떤 요소보다 자아존중감에 큰 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광범위한 심리적 요소인 행복감에까지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행복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긍정적 정서, 활동 중의 몰입, 감사나 수강생과의 긍정적인 관계, 평생교육을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스스로 생각했던 성취가 뒤따라야 한다. 이 외에 평생교육을 경험한 자아존중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행복감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 요인이 무엇일까? 인터뷰에서 개인의 의견을 진술한 내용과 통계적 검증에서 오는 연구방법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행복감이 본 연구 자료에서는 3점의 단일척도로 인해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평생교육 경험이 행복감까지 영향을 줄 수 없었던 이유를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유추하면, 평생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은 늘고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학습환경을 이유로 들 수 있다. 개인별 특성 및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있거나(박미진, 허선주, 김기룡, 2024; 조창빈, 김주영, 2016), 장애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있는 참여자(권혁상, 곽승철, 2018; 박미진, 허선주, 김기룡, 2024; 송인애, 오민석, 2019)로 인해 발달장애인이 불편함을 느꼈을 가능성이 그 예이다. 행복감과 자기계발을 목적(조창빈, 김두영, 이상진, 2018)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만큼 함께 수업하는 참여자와 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보완할 수 있는 편의를 기관 예산 범위 내에 보장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 관련한 추후 연구를 위해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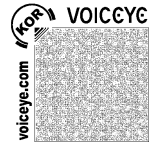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이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행복감까지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향후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연구는 심리적 역량을 강화했다는 결과를 보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크기를 구하는 메타분석을 시도하여 프로그램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평생교육 참여 여부에 따라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심리적 요인을 분석하였지만, 추후에는 평생교육 참여 여부를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계속된 평생교육 연구로 발달장애인에게 행복하고, 성인이 되어 사회에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삶을 보내는 방법으로 평생교육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승원, 이해경 (2016). 고령장애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농촌과 도시지역 비교. **사회과학연구**, 40(2), 31-56.
- 강승원 (2015). 기혼 여성 지적장애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웰니스학회지**, 10(2), 117-126.
- 강충만, 김경신 (2024). 수화를 활용한 무용 창작 프로그램(DCD)이 성인청각장애인의 자아 존중감과 자기표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적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95(3), 19-37.
- 고이슬, 전지혜 (2024). 발달장애인의 장애수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발달장애연구**, 28(1), 65-83.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4). 평생교육백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권혁상, 곽승철 (2018). 자폐성 장애 성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부모의 경험을 통한 의미. **정서·행동장애연구**, 34(4), 477-500.
- 권현정, 조용운, 고지영 (20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대상노인 및 부양가족의 삶의 질과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 결합모형을 이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3(4), 301-326.
- 김경희, 간기현 (2023).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우울, 행복감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33(1), 81-109.
- 김기룡 (2020). 중도 지체·뇌병변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의사 영향 변인 탐색.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3(3), 77-96.
- 김대룡 (2018). 자기주도 학습의 직업탐색 교육이 발달장애 대학생의 진로태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4(1), 77-100.
- 김대룡 (2019). 역할부여를 통한 자립생활교육이 발달장애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1(4), 227-251.
- 김동원 (2014). 파크골프 참여가 지체장애인의 심리적 웰빙과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재활복지**, 18(4), 187-205.
- 김두영, 김호연, 홍재영 (2014). 시각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5(4), 199-228.
- 김용수 (2012). 독서치료를 활용한 사회통합인성프로그램이 장애·비장애 대학생의 자아존중

- 감과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1(1), 1-23.
- 류재연 (2017). 통합교육 실천을 위한 발달장애인 부모의 평생교육 참여 저해 요인 분석. **통합교육연구**, 12(1), 145-162.
- 명소연, 김두영 (2017).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평생교육 인식 및 참여 실태.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18(3), 1-23.
- 박단아, 최진혁 (2024). 발달장애인의 직무만족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특수아동교육연구**, 26(1), 151-172.
- 박미진, 허선주, 김기룡 (2024).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요구. **장애인 평생교육복지연구**, 10(1), 1-26.
- 박수선, 심다연 (2024). 취업 장애인 1인가구의 대인관계능력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분석.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8(1), 1-11.
- 박현숙, 양희택 (2013). 임금근로장애인의 일자리 차별경험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22, 67-84.
- 법제처 (2024). 평생교육법.
- 법제처 (20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송인애, 오민석 (2019). 지체·뇌병변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0), 449-471.
- 신윤수, 이숙향 (2024). 실천중심 성격감정 프로그램이 전공과 발달장애 학생의 자기결정, 자아존중감 및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논총**, 40(1), 99-133.
- 심석순 (2019).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거주환경에 따른 평생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사례관리연구**, 10, 31-49.
- 오은경, 임원균 (2021). 평생교육에 참여한 장애인의 긍정적 인지정서상태 영향요인 연구.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7(1), 135-156.
- 유설희, 김지혜, 임준 (2022). 주거빈곤이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비장애인, 장애인 비교를 중심으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9(5), 15-28.
- 유향금 (2020). 중고령 장애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웰니스학회지**, 15(4), 621-632.
- 이나연, 임예림, 백성욱, 홍세희 (2024). 임금근로 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적성적합성에 따른 다집단분석 및 자아존중감과 직무만족도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34(1), 95-122.
- 이삼미, 정연수 (2022). 성인 발달장애 직장인의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에 관한 질적

- 연구. **직업재활연구**, 32(3), 23-49.
- 이혜림, 박승희 (2018). 발달장애학생 간 비디오모델링을 활용한 상급학생교수가 중학생 학습자의 의복정리기술과 상급학생 교수자의 자아존중감에 미친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53(1), 49-81.
- 오은경, 임원균 (2021). 평생교육에 참여한 장애인의 긍정적 인지정서상태 영향요인 연구.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7(1), 135-156.
- 오지원, 여영훈 (2023). 근로장애인의 대인관계능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59(59), 215-239.
- 이미정, 연평식 (2024).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활용한 청각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증진. **한국산림휴양학회지**, 28(3), 33-48.
- 이민경 (2024). 중고령 장애인 1인가구가 인식하는 사회적지지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장애수용의 이중매개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6(2), 99-116.
- 이삼미, 정연수 (2022). 성인 발달장애 직장인의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에 관한 질적 연구. **직업재활연구**, 32(3), 23-49.
- 이옥인, 박은영, 신인수 (2011). 장애학생의 자기결정에 대한 중재프로그램의 효과: 메타분석.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4(3), 101-121.
- 이채식, 김명식 (2019). 임금근로장애인의 직무만족이 주관적 삶의 질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GRI연구논총**, 21(2), 209-230.
- 전리상 (2023). 장애인근로자의 차별경험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장애수용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발달장애연구**, 27(4), 347-358.
- 정재원 (2022). 콜라주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지체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5(3), 193-225.
- 조인식 (2022).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250, 1-17.
- 조창빈, 김두영, 이상진 (2018).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실태 및 요구 분석 :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7(1), 195-217.
- 조창빈, 김두영 (201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현황 및 요구 분석.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17(4), 1-24.
- 조혜정, 윤명숙 (2016). 중증장애인의 장애차별경험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유형 및 취업유무 집단비교. **한국장애인복지학**, 33, 67-90.
- 최경희, 오승환 (2022).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직무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4), 885-902.



- 하민진, 김정기, 전병운 (2019). 자기주도적 여가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발달장애성인의 자기결정기술 사용 변화.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5(2), 55-82.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4). 한눈에 보는 2023 장애인 통계. 경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황정우 (2014). 시설입소 정신장애인과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3, 199-224.
- 황정우, 유수현 (2013). 정신장애인의 행복감 영향요인 연구. **재활심리연구**, 20(2), 191-222.
- Cast, A. D., & Burke, P. J. (2002), A theory of self-esteem. *Social forces*, 80(3), 1041-1068.
- Davis, W. (1981). A theory of happiness.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18(2), 111-120.
-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2000). *Learning for Life: Paper on Adult Education*. Dublin: Stationery Office.
- Mecca, A. M. (1989). *The Social Importance of Self-Estee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osenbaum P. R., & Rubin D. B. (1983). The Central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Observational Studies for Causal Effects. **Biometrika**, 70(1), 41-55.
- Seligman, M. E. (2011).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well-being*. CA: Simon and Schuster.
- Tesser, A. (2001). Self-esteem. *Blackwell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Intraindividual processes*, 479-498.

논문 투고 : 2024.9.27.	논문 심사 : 2024.11.22.	게재 확정 : 2024.12.11.
--------------------	---------------------	---------------------

Abstract

Analysis of the Impact of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n Self-esteem And Happiness

: Focusing on 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

HyeYeong J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lifelong education can affect the self-esteem and happiness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458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responded to the variables to be used in the 2023 Work and Life Cohort Survey Panel Data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rovided by th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The analysis method was descriptive statistics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5.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group was divided into a group that experienced lifelong education and a group that did not experience lifelong education through propensity matching analysis, and the equality between the groups was secured through a t-test. Second, lifelong educ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elf-esteem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analysis after

* Pusan National University Dept. of special education

personality score matching confirmed that it had a greater positive effect than other factors. Third, the experience of lifelong education did not affect the happines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rough this analysis, it was proven that lifelong education has a more positive effect on the self-esteem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an other factors, and while it did not affect happiness, it suggested the requirements necessary for quality lifelong education in the future.

Keywords: Developmental disabilities, lifelong education, self-esteem, happiness, propensity score matching

장애의재해석 제5권 제2호

2024 Vol. 5, No. 2, 53 - 76

AI 기술과 데이터 보호 관련 법률 비교 연구 : 장애인복지 분야 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옴즈리마 바트체렉*, 남미정**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장애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AI 윤리 문제, 디지털 격차와 같은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과제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 전환 속에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술적 도구로 자리 잡았지만, 개인정보 침해, AI의 편향적 학습, 데이터 유출, 디지털 접근성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미국, EU의 관련 법률을 비교 분석하여 각국의 법적 대응 현황을 평가하고, 특히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도입에 따른 법적 사각지대를 확인한다. 연구 결과, 국내법은 개인정보 보호 및 AI 윤리 규제 측면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며,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고 차별 방지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개선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제어: 디지털 기술, 장애인복지, AI, 개인정보, 디지털 격차, 법 비교, EU, 미국, 한국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nomad_9612@naver.com

I. 서론

2015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후 AI(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사회·경제 분야의 적용과 그로 인한 혁신적 변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앞서가기 위해 앞다퉈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제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의 열쇠로 양질의 데이터 시장형성과 고도의 인공지능 확보, 데이터와 AI(인공지능) 간 유기적 융합이 제시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9).

AI(인공지능) 기술은 첨단기술을 통해 그 동안 축적되어온 데이터를 첨단 기술을 통해 연결하며 지능적인 사회로 향하게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앞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민간에서도 AI(인공지능) 기술은 주목받고 있으며, 글로벌 IT 기업들은 빅데이터 축적과 다양한 AI(인공지능) 혁신기술을 개발·공개하고 있다. 구글(Google)의 경우 AI(인공지능) 기반 검색 최적화, 대화형 AI(인공지능) 등 미래 신산업에 활용될 AI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아마존(Amazon)은 고객데이터와 AI(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혁신기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고, 삼성(Samsung) 이나 애플(Apple) 같은 모바일 제품 제작사에서도 제품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서비스 내 AI(인공지능)기능을 탑재하며 인공지능 산업 영역에 앞서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빅데이터, AI(인공지능) 개발 및 적용에 대한 관심이 과열되는 상황 속에서 디지털 기술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역기능인 딥페이크는 AI(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단어인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가장 대표적인 역기능으로 AI(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을 의미한다. 실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한 포르노 영상이 유포되거나, 가족의 목소리와 얼굴 사진을 활용한 사기가 발생하기도 하며 가짜 영상·이미지를 통한 사기 및 허위 정보 유포 등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다른 역기능으로 AI(인공지능) 기술 제작을 위해 수집되는 데이터의 유출 문제가 있다. 정교한 AI(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발생하며, 실제 2020년 12월 ‘이루다’라는 챗봇 서비스의 경우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고 서비스를 종료하는 사례도 존재하였다.

사회 전반 내 급격한 디지털 기술 도입 흐름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 내에서도 디지털 기술 도입을 촉진하여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이라는 개념을 등장시켰다. 복지기술

(Welfare Technology) 도입은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복지기술 도입에 대한 활성화가 이뤄지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기술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복지 분야 내 디지털 기술 도입의 경우 ‘인간 중심성’이라는 복지 특성이 결부되어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디지털 기능의 역기능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개인정보침해는 사회적 약자와 관련하여 더욱 민감하게 작용하게 되고, 디지털 격차 및 접근성 문제, 인간 간 상호작용 저하, AI(인공지능)의 차별/편견 학습을 통한 윤리적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된다.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면서 그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AI(인공지능) 및 빅데이터와 관련된 산업을 증진시키면서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해킹 및 오용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도입하였다. 유럽의 GDPR이나 한국의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보호와 무단 사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개인정보 유출 시 그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다. 그 외에도 개인이 데이터를 제공한 후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다룬 EU AI Act, 지능정보 기술이 경제·사회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관리하여, 사회적 신뢰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AI(인공지능)와 관련된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능정보화기본법 등을 실행하고 있다.

다만 위에 제시된 법들이 디지털 기술이 사회적 약자 계층 내에 적용될 때 발생 되는 문제들을 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AI(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역기능 방지를 위한 법령을 살펴보고, 사회적 약자 계층 중 복지기술이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장애인복지 분야 내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어떻게 포용하고 있는지, 사각지대는 무엇인지 확인하고 앞으로의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디지털 기술 현황 및 개요

1. 디지털 기술의 발전 배경과 장애인복지 분야 내 도입 개요

1980년대 개인용 컴퓨터가 개발된 이후부터 컴퓨터 성능 향상과 정보통신기술(ICT)의 급격한 발전은 사회 전 분야 내 디지털 기술 도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서울경제, 2020).

반도체 기술의 발전을 통한 데이터 처리 능력 향상은 대규모 데이터의 신속한 처리와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5G와 같은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은 장치 간 연결성을 증가시켜 사물인터넷(IoT) 환경을 활성화시켰다.

발전된 디지털 기술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자동화 기술은 생산 공정의 효율성 증대를 가능하게 하고, 빅데이터분석은 맞춤형 마케팅 및 소비자 분석을 통해 마케팅 전략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만들었다.

특히 2019년 발생한 코로나 19는 사회 전체 구조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 19 이전 ICT의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이 제시되었지만 코로나 19 이후 사회 구조의 온라인화, 비대면화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어 원격회의, 재택근무, 디지털 협업 등의 디지털 업무환경 변화, 온라인 쇼핑, 원격의료서비스, 원격교육, 배달 서비스 등의 변화된 생활방식과 원격제조 및 유연한 생산 등 사회 다양한 분야의 비대면 문화를 확산함과 동시에(구경철, 2020) 사회 전 분야 내 디지털 기술이 필수적으로 도입되게 만들었다.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 흐름 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2023년) 구성, R&D 예산 확대, AI(인공지능)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디지털 전략 수립 등 우리나라 정부도 기술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존 타 영역에서 검증된 효과성을 바탕으로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시키는 계기로 여겨지며 과거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의료 서비스, 교육, 고용 기회에서 소외되거나 제한된 접근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고 보다 필요한 서비스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 평가되며 장애인복지 분야 내 도입이 시도되어왔다.

특히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2020년 49.9%에서 2024년 54.3%로 4.4% 증가하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 감소 현상과 달리 장애인 인구는 2019년 261만명에서 2024년 265.7만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 장애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라 피부양 인구 수가 증가하였지만 여성의 학력수준 증가 및 취업률 감소, 전통적 성 역할 변화와 함께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비혼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족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며 높은 사회적 돌봄 수요를 충족시킬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복지 서비스는 비용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2. 디지털 기술 활용 현황 및 주요 쟁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영역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AI(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은 기업의 운영 방식, 소비자와의 상호작용,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 등에 큰 혁신을 가져왔으며, 디지털 전환의 주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교육 분야의 디지털 기술 적용 현황의 경우 코로나 19 이후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해 학습자 개인 데이터 기반 자기 자기 주도 학습 및 맞춤형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하며(한상복, 2022), 원격수업은 시공간 제약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언제든지 편리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의 흐름을 변화시켰다(김선주, 최정인, 2021).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전통적인 교육 모델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의 접근과 협력 학습을 강조하는 흐름을 제시하였다(이재철, 이정희, 2020)

금융 분야의 경우 다수의 은행들이 기존 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하며 비대면 영업이 증가하며 영업점 수를 대폭 감소시켰으며, 실제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영업점 수는 2019년대비 20.1%(709개)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오프라인 영업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일경제, 2024). 이처럼 많은 은행이 디지털 बैं킹 활성화를 시도하며 간편결제서비스인 핀테크가 대세로 자리잡는 동시에 디지털로 표기되는 자산에 대한 소유권 증명 필요성이 요구되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 NFT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김태형, 2021; 이상훈, 2020).

제조 분야에서는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로봇을 통해 섬세한 작업 및 업무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며 생산성을 높이며, 많은 기업에서 설계, 개발, 제조, 품질, 유통 등 다양한 생산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생산공장인 스마트팩토리를 설립하고 있다(박지민, 이형철, 2022; 유광호, 2020; 신유진, 2021).

유통 분야도 제조 분야와 마찬가지로 유통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쉽고 간편하게 제품을 결제·배송하는 시스템을 구축(김유리, 정지혜, 2021)하였으며, AI(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맞춤 상품 추천 광고를 표시(이상국, 2020)하는 등 개인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로 기존 TV 프로그램, 영화관 등의 영상 여가 문화활동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온라인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편리성(김민지, 박지혜, 2021)과 다양한 콘텐츠를 소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이준형, 김형수, 2020) 높은 만

속도를 보여주며 여가활동에서도 디지털 기술로의 흐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런 디지털 기술은 기존 복잡하고 어려웠던 행정 분야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이는데, 전자정부 시스템을 통해 서류발급과 세금신고를 더욱 간편하게 만들었으며 도시 교통, 에너지, 환경 관리 시 사물인터넷(IoT)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하여 더욱 정밀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한다(정재호, 이수정. 2022).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원격 의료 서비스나 건강 모니터링, AI 기반 의료 진단 등 디지털 기술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 내 디지털 기술 도입은 원격으로 상담, 처방과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쉽고 간편히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김소연, 이종민. 2021; 조미영. 2022; 정우재. 2023; 박지민, 이형철. 2022).

이처럼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서비스 중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제조 분야에서 활용되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로봇 기술은 스마트 휠체어에 적용되어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게 된다. 스마트 휠체어는 음성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작 및 제어를 가능하게 하며 장애물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인식하여 안전한 경로로 안내하는 기능을 제공한다(이정희, 박찬호. 2020).

교육 과정에서 원격수업 진행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더 나아가 VR을 통해 각종 실습 과정을 간접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의사소통 보조를 위한 점자키보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생성 소프트웨어, 언어 장애인을 위한 AAC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을 통해 교육 시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한다(최현주, 김소연. 2022; 권정민, 이영선. 2020).

특히 디지털 기술은 복지서비스 신청 및 관리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 뿐 아니라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 기관에게도 데이터 기반 효율적 서비스 운영을 가능하게 하거나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는 이동이 불편하거나 장거리 간의 통신을 발전시키며 개인 간 연결성, 의료 서비스 개선 등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기술은 우리가 일하고 소통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이처럼 크게 바꿔 놓으며(정재호, 이수정. 2022) 각 분야의 효율성 향상과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순기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와 AI 기술은 사용자의 선호도와 필요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과 차별적인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며,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거나 스마트팩토리, 행정업무 간소화 등 업무 과정 내 AI(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을 적용하며 모든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킴과 동시에 기술 혁신 과정 속 자율주행, 드론배송, 블록체인 기반 금

용 서비스 등의 새로운 산업과 AI 개발자, 빅데이터 분석가 등 일자리가 창출 효과를 갖고 있다.

3. 데이터·개인정보보호 관련 선행연구 및 주요 쟁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순기능을 가져오는 반면, 그 급격한 확산과 발전은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 위협의 증가에 대해 강희철(2021)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변화하는 데이터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진수·이재홍(2020) 역시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위한 법적 장치가 강조되었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박종수·이수정(2020)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동의 기반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동의 절차의 간소화, 동의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하였으며, 박성규·이민규(2019)는 데이터 보호의 정당성과 법적 보호 권리에 대한 논의를 통해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소유권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다양한 선행연구(강희철, 2021; 김진수·이재홍, 2020; 박종수·이수정, 2020; 박성규·이민규, 2019)에서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다루는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분석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장애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역기능으로 꼽히는 것은 개인 정보 침해 및 보안 문제이다. AI(인공지능)의 기술 활용 시 필수적으로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대규모로 수집, 분석하는 경우가 잦아지며 수집 및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악용되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경호(2020)와 김민정 외(2021)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기관들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보안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며 건강과 일상생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장애인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부족은 사생활 침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박지훈, 2019; 김영진, 2020). 이에 클라우드 기술의 사용 확대로 인해 데이터 보안 문제의 중요성이 확대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김지현, 정희철, 2020).

수집된 데이터를 AI(인공지능)가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 AI(인공

지능)은 주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동작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가 장애인에 대한 편향된 정보나 충분한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와 기술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정희철, 이소라, 2020; 박정우, 2019). 이에 AI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 및 정책적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하였다(이혜진, 김도현, 2021; 김도형, 2019)

만약 데이터가 장애인의 특수한 요구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AI는 역으로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거나(정수민, 2020; 이나영, 김현수, 2019)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장애인들을 차별하거나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만든다(박현아, 2019). 현재까지 AI(인공지능)을 의사결정에 있어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 기술의 발전으로 적극 활용하게 될 경우 큰 사회적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채용 과정에서 AI(인공지능)를 활용하여 지원자를 평가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AI 시스템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학습되었기 때문에 지체장애로 자세 정령이 어렵거나, 언어 장애로 인한 부정확한 발음 등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장애인이 차별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역기능은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술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의 고가의 디지털 기기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접근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과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이영민, 2018; 김은주, 정재훈, 2020; 김현정, 2018). 디지털 기기의 대부분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시각·청각·신체 장애인의 경우 특별한 보조 도구 또는 기술 없이 접근이 어려우며, 이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야기하게 된다. 디지털 격차를 예방하기위해 정부는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장애 유형과 그에 따른 욕구를 반영한 교육이 충분치 못하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이승훈, 2019; 정미숙, 2020).

이러한 상황 속 4차 산업혁명 이후 디지털 기술은 그 혜택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기술의 발전이 많은 사람의 삶을 풍족하게 할 수 있도록 윤리적, 사회적 고려가 필수적이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장치 마련되어야 한다.

〈표 1〉 4차산업혁명의 디지털전환으로 인한 순기능과 역기능

순기능	역기능
업무/사업 효과성 및 효율성 증대	개인 정보 침해 및 보안
개인 간 연결성 확장	
의료 서비스 질 개선	AI 윤리적 문제
개인 맞춤형 서비스/경험 제공	디지털 격차
신규 일자리 창출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 EU, 미국의 디지털 기술 관련 법이 장애인복지 분야 내 적용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의 역기능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비교 분석하기 위해 사례분석 방법 실시하였다. 사례분석연구는 특정 사례를 상세하게 조사하고 분석하는 연구 방법으로 하나의 현상에 대해 면담, 관찰, 시청각 자료, 문서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사례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유용하다(박진희, 서민재, 김선아. 2024).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 분야 내 디지털 기술의 역기능을 바탕으로 비교 준거를 1) 개인 정보 침해 및 보안, 2) AI 윤리적 문제, 3) 디지털 격차로 설정하고 한국의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지능정보사회기본법,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EU의 GDPR, 디지털서비스법, 디지털시장법, 인공지능 법안, 유럽 접근성법, 미국의 CCPA, 알고리즘 책무성 법안, 뉴욕시 144 지방법, 장애인법, 재활법을 비교하여 3개 국가 내 관련 법이 어떻게 해당사항을 다루고 있는지 확인하고 앞으로 관련 법률이 사회적 취약계층 중 장애인복지 분야 내 디지털 기술 적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할 수 있는 역기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V. 연구결과

1. 개인 정보 침해 및 보안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민감한 건강 정보, 신체적 제약, 복지 수혜 기록 등이 포함되므로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화면 읽기 도구를 통해 개인정보 입력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아 보안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며, 청각장애인의 경우 복지 신청 과정에서 음성 기반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체 인증 방식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노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EU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미국의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CPA)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접근, 보호, 삭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활용이 활발히 이뤄지는 현 시점에 비장애인은 물론 장애인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로 작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다만 미국의 경우 통일된 연방 차원의 보호법이 부재하고 주별 법을 통해 규제된다. 대표적인 법령은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CPA)로 해당 법은 2018년 제정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 중 하나이다.

해당 법 제1798조는 개인정보 접근권, 삭제 요청권, 개인정보 판매 금지권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언제든지 접근할 권리와 사업자의 무료 제공에 대한 의무(개인정보 접근권), 소비자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와 사업장의 수용(삭제 요청권), 소비자의 개인정보 제3자 판매 거부 요청권과 사업자의 명확한 고지 의무(개인정보 판매 금지권)를 다루고 있다.

미국 내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각 법들은 특정 주, 산업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며 이는 넓은 토지면적을 갖고 있는 미국 특성상 상황 맞춤형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다 분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각 분야의 특성을 포괄할 수 있는 법이 부재하다는 단점이 공존한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EU의 GDPR을 참고하여 2011년 제정되었다.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매우 강력한 법이며, 개인정보 수집 목적 제시와 명확한 동의, 최소한의 정보 수집과 정보 폐기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제15조),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제17조), 정보 제공자의 삭제, 열람 요청, 이의 제기, 수정 요청 등 권리를 다루고 있다(제28조). 개인정보보호법 외에도 국가정보화기본법의 제8조(정보화 역기능 방지)와 제23조(정보보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의 제27조의2(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

치), 제49조(해킹·바이러스 등의 금지), 지능정보화사회기본법의 제9조(개인정보보호와 안전) 등 다수의 법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그 규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를 다루는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만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에서 다루는 개인정보 자동화 처리 규정, 개인정보 중심 설계, 기본 설정 등의 규정은 제외되어 있어 다소 미흡한 모습을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언급되는 EU의 GDPR은 EU내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든 기업과 데이터를 보호하는 법이다. 제6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과 정보 주체의 동의, 예외사항에 대해 제시하고 제7조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잊혀질 권리’라고 명하고 있다. 제25조는 기업이 서비스와 제품 설계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하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83조를 통해 위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벌금 부과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4% 또는 2천만 유로라는 비교적 엄격한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3개 국가 중 엄중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그 외 디지털 서비스 법(Digital Services Act, DMA)와 디지털 시장 법(Digital Markets Act, DMA)도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지고 개인정보보호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GDPR은 설계과정부터 암호화된 보안 체계 마련, 관련 인력/자원 마련을 통해 개인정보를 고려해야하는 등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인프라의 제약이 있을 경우 기관이 GDPR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2. AI 윤리적 문제

AI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는 특징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 이후 가장 주목받는 기술이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역기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특히 AI가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같은 부정적 인식도 함께 학습하게 된다면 앞으로 AI가 적용되는 모든 분야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산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채용 과정에서 일반적인 채용 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AI의 경우 데이터에 장애인 관련 편향이 포함되어 장애인을 부정확하게 인식하거나 차별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복지 서비스 수혜자 선별 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할 경우 알고리즘과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작동하는 AI 및 자동화 시스템의 의사결정 과정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학습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경우 뉴욕시 144 지방법(NYC Local Law 144)이 2023년부터 시행되고, 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 법이 2022년 재발의되었다. Local Law 144법은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고용을 활용한 고용 관련 자동화된 의사결정 도구(Automated Employment Decision Tools, AEDT)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을 규제하는 데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제 20조) 자동화된 고용 의사결정 도구에 대한 정의, 기업의 연 1회 이상 편향성 감사 요구, 편향성 감사 결과 공개 의무, 벌금에 대해 다루며 고용과정 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규제이다.

알고리즘 책무성 법안(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앞선 뉴욕시 144 지방법(NYC Local Law 144)과 마찬가지로 AI(인공지능)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 제3조(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정의)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automated decision systems, ADS)을 개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의사결정을 내리는 알고리즘, AI(인공지능), 기계학습이라 정의하였다. 제4조(고위험 시스템 규정)은 생명이나 경제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의 경우 고위험으로 분류 및 특별 규제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제5조(알고리즘 감사 의무화)는 대형 기술 회사 및 특정 기준 이상의 기업들은 사용하고 있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의 편향성, 차별적 결과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정기적인 알고리즘 감사 수행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제7조(데이터 편향성 규제)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이 학습하는 데이터의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와 편향성 평가 결과 보고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알고리즘 책무성 법안(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의 경우 주별 법 규제가 대세인 미국에서 이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연방정부 차원의 법으로 미국 전체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보호,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다만 두 법 모두 구체적인 규제 지침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지침을 따르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을 못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2021년 제안되어 현재 논의 중인 EU의 AI Act도 미국의 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과 마찬가지로 AI 시스템 위험 수준을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보다 자세히 금지,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위험 AI 시스템으로 구분하고(제6조), 고위험 AI 시스템의 사전 검증과 인증, 정기평가를 통해 안정성과 보안을 보다 확실히 하고(제9조), AI 시스템 사용 목적, 기능, 잠재위험에 대한 명확한 고지 및 충분한 정보제공(제12조)에 대해 다루고 있다. EU는

보다 명확한 윤리적 기준과 구체적인 위험수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으며, 본 장점은 엄격한 규제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일으키며 실제 감시 및 집행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EU와 미국의 경우 선제적으로 AI로 발생될 윤리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을 도입하기 위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국내의 경우 관련 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023년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내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조항을 신설하며 AI 채용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거나, 2020년 AI 윤리지침을 발표하며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법제화까지의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직접적으로 AI 윤리성을 감시하거나 규제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정보화기본법의 제3조(균등한 정보 접근과 정보활용 기회 보장, 정보화로 발생하는 부작용 예방),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기본 법적 틀을 제공하는 지능정보사회기본법이 제8조(데이터 활용 촉진 및 품질 관리)에서 관련하여 다루고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3. 디지털 격차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한 중요성은 꾸준히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디지털 콘텐츠 접근성에 미흡한 편의제공 등으로 인해 미흡한 수준으로 머물고 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복지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스크린 리더 소프트웨어가 공공

웹사이트와 호환되지 않아 신청 과정을 진행할 수 없거나, 청각장애인들이 온라인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사전 강의 자료 및 자막 미제공으로 인해 학습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 쉬운 말 설명이 없는 은행 어플 사용 시 어려움을 겪는 지적장애인 등 아직까지 많은 장애인들이 디지털 격차로 인해 디지털 전환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 장애인 관련 다수의 법에서 디지털 격차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제정되어있다. 미국의 경우 1990년 제정된 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ADA)은 장애인 차별 방지와 공공 시설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 디지털 서비스도 공공시설에 포함되며(제2편) 상업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공공장소로 간주되어 웹 접근성을 갖춰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3편). 이와 함께 1973년 제정된 재활법의 508조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하여 연방정부의 디지털 콘텐츠 접근성에 대한 책임과 제재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미국 내 디지털 격차와 관련된 법은 연방법으로 주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 차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주로 공공

부문의 규제를 다루며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 적용이 약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EU 유럽 접근성법(European Accessibility Act, EAA) 2019년 제정되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법으로 장애인 및 고령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더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다. 전자기기, 디지털·금융·교통 서비스의 접근성 요구사항(제3조)을 규정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제품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 접근성을 고려하여 제작하고, 접근성 준수여부 검증 및 유지 서비스 구축, 접근성 관련 문제 해결 지원 제공에 대해 제시하며(제8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 대한 법적 집행 및 벌칙(제13조)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EU 유럽 접근성 법은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를 포괄하는 일관된 규제로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의의를 갖지만 각 회원 국가별 서비스 및 업체 운영 방식이 달라 법 집행의 일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일명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17년 디지털 전환 흐름에 따라 디지털 접근성 보장을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과정 중 장애인 차별 금지와 디지털 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의 디지털 접근성 제공 의무를 명시하는 항목(제21조)을 신설하였으며, 지능정보사회기본법은 국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제17조)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 타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정부 주도의 집중적이고 강력한 디지털 접근성 보장을 시도하고 있지만 민간 부문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표 2〉 한국·EU·미국 간 법률 비교

구분	한국	구분	EU	구분	미국
국가 정보화 기본법	제3조 (국가정보화의 기본 이념 및 목표) 제7조 (정보격차 해소) 제8조 (정보화 역기능 방지) 제23조 (정보보호)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제6조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제17조 (잊혀질 권리) 제25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설계 및 기본 설정) 제83조 (벌금 부과 기준)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_CCPA (California Cousmer Privarcy Act)	제1798조 (개인정보 접근권) (삭제 요청권) (개인정보 판매 금지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 (개인정보의 제3자)	디지털 서비스 법 (Digital Services)	제10조 (불법 콘텐츠 대응 의무) 제13조		

구분	한국	구분	EU	구분	미국
	제공) 제28조 (정보 주체의 권리)	Act, DSA)	(콘텐츠 관리의 투명성) 제17조 (플랫폼 사용자의 권리 보호)		
정보통신 망법	제27조의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제49조 (해킹·바이러스 등의 금지)	디지털 시장 법 (Digital Markets Acts, DMA)	제5조 (게이트키퍼의 금지 행위) 제6조 (데이터 결합 및 공유 제한) 제7조 (상호 운용성 요구)		
지능정보 사회 기본법	제6조(지능정보사회 촉진 기본계획 수립) 제8조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제9조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 제10조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발전 지원) 제11조 (공공 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촉진) 제12조 (지능정보기술의 윤리적 사용) 제15조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 제17조 (국민의 리터러시 교육 강화) 제19조 (산업 간 융합 촉진) 제25조 (신뢰성 및 투명성 보장) 제29조 (지능정보사회의 법적·제도적 지원)	인공지능 법안 (AI Act)	제6조 (AI 시스템 분류) 제9조 (안전성 및 보안 요구사항) 제12조 (AI 시스템의 투명성 요구)	알고리즘 책임성 법안 (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	제3조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정의) 제4조 (고위험 시스템 규정) 제5조 (알고리즘 감사 의무화) 제7조 (데이터 편향성 규제)
				뉴욕시 144 지방법 (NYC Local LAW 144)	제20조 (정의) (편향성 감사를 요구) (결과 공개 의무) (위반 시 벌금)

구분	한국	구분	EU	구분	미국
장애인차 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차별 금지)	유럽 접근성 법 (European Accessibility Act)	제3조 (접근성 요구 사항) 제8조 (시장 감독 및 적합성 검증) 제13조 (불이행에 대한 제재)	미국 장애인 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제2편 (공공서비스) 제3편 (공공 숙박 시설 및 상업 시설)
				재활법 (The Rehabilitation Act)	508조

〈표 3〉 한국·EU·미국 간 디지털 기술 관련 법률 비교 분석 결과

구분	한국	EU	미국
개인정보 보호	장점 -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 (동의, 최소 수집, 정보 제공·삭제 등) - GDPR을 참고한 법 체계 마련	- GDPR을 통한 포괄적이고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 CCPA를 통한 주 차원의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접근, 삭제, 판매 금지 등)
	단점 - GDPR 대비 개인정보 자동화 처리 규정 미비 - 일부 세부 규정 미흡	- 엄격한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와 인프라가 부족한 기업은 GDPR 준수 어려움	- 연방 차원의 통일된 개인정보보호법 부재 - 주별 법률 차이로 인한 혼란 발생 가능
AI 윤리적 문제	장점 - AI 윤리성 논의 시작 (AI 윤리지침, 채용 관련 법 신설 등)	- AI Act를 통해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별로 구분하고, 고위험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및 사전 검증 요구	- Local Law 144를 통한 AI 편향성 규제 시도 - 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로 AI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시도
	단점 - AI 윤리 관련 법적 규제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음	- 엄격한 규제가 기업 경쟁력 약화 초래 가능 - 실제 법 집행 및 감시에 어려움 발생 가능	- 구체적 규제 지침 부족 - 중소기업에 대한 인프라 부족으로 AI 윤리 규제 준수 어려움
디지털 격차	장점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를 통해 웹 접근성 보장 의무 명시 - 공공 부문에서 강력한 디지털 접근성 보장	- 유럽 접근성법(EAA)을 통해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서 디지털 접근성 보장 - 접근성 준수 의무와 법적 제재 규정 포함	- ADA와 재활법(508조)로 연방 차원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접근성 규정 -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상업 웹사이트에도 적용
	단점 - 민간 부문에 대한	- 회원국별 법 집행의	-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

구분	한국	EU	미국
	강제력이 부족 - 구체적인 실행 방안 미흡	일관성 문제 발생 가능 -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법 집행이 달라질 수 있음	적용이 약함 - 공공 부문에만 초점 맞춰져 있음

V. 소결

한국, 미국, EU의 개인정보보호, AI 윤리적 문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법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한국은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동의, 최소 수집, 정보 제공·삭제 등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를 마련하였으나, EU의 GDPR 대비 개인정보 자동화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다소 미흡하다. 미국은 주별로 강력한 규제, 특히 CCPA와 같은 주 차원의 법을 통해 개인정보 접근과 삭제, 판매 금지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지만, 연방 차원의 통일된 법이 부재하여 주마다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EU는 GDPR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가장 포괄적이고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잊혀질 권리’와 강력한 벌금 제도를 포함하여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엄격한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기업들이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AI 윤리적 문제의 경우 이에 대한 각국의 규제 차이가 두드러진다. 한국은 AI 윤리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일부 지침과 법이 발표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법적 규제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뉴욕시 144 지방법(NYC Local Law 144)과 알고리즘 책무성 법안(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을 통해 AI 편향성과 투명성을 규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AI 사용의 윤리성을 보장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규제 지침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이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EU는 AI Act를 통해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별로 구분하고, 고위험 시스템에 대해 엄격한 규제와 사전 검증을 요구함으로써 보다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나, 그 엄격한 규제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실제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격차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를 통해 공공 부문에서 웹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민간 부문에 대한 강제력과 구체

적인 실행 방안이 미흡하다. 미국은 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과 재활법 508조(The Rehabilitation Act)을 통해 연방 차원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공 및 상업 웹사이트에서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 적용이 약한 편이다. EU는 유럽 접근성법(European Accessibility Act)을 통해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하고, 접근성 준수 여부를 검증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하는 일관된 규제를 마련하고 있지만, 회원국별로 법 집행 방식이 달라 일관성 있는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

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국내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AI 윤리성과 차별 방지 규제의 강화가 시급하다. 현재 한국은 AI 윤리성과 관련된 법적 규제가 미비하며, 특히 AI 시스템이 장애인에 미칠 수 있는 차별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다. 미국과 EU에서 시행 중인 AI 관련 법률처럼, 한국도 AI 시스템의 편향성을 예방하고 윤리적 문제를 감시할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알고리즘 감사 의무화와 차별 방지 조항을 도입하여 AI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대한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AI 시스템의 윤리적 운영을 감독할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민간 부문에서의 디지털 접근성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디지털 접근성 보장은 주로 공공 부문에 한정되어 있으며, 민간 부문에 대한 강제력은 미약하다. 미국의 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과 EU의 유럽 접근성법(European Accessibility Act)처럼, 민간 기업 역시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전자기기 등에서 디지털 접근성 준수 의무를 부과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민간 서비스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부과하는 실질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민간 부문에서도 접근성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평가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 도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법 마련이 필요하다. 디지털 격차는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큰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과 보조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구체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서비스와 AI 시스템에 대한 장애인 중심 설계 의무화가 필요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야한다. GDPR의 '개인정보 중심 설계' 개념처럼, 디지털 서비스와 AI 시스템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중심 설계 원칙을 법제화하여, 서비스나 제품 개발 시 최소한의 접근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장애인 사용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법적 개선을 통해 한국은 보다 포괄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희철 (2021). 빅 데이터 시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관계부처 합동 (2019). -혁신성장 전략투자-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19~'23년).
- 구경철 (2020). 코로나19 팬데믹, 뉴노멀 시대의 비대면 산업 표준화 현황. **TTA저널**, 191, 45-67.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국양 (2020.05.24.). [로터리]디지털의 역사.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VIM1QJ4>
- 권정민, 이영선 (2020). 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동향. **한국초등교육**, 31, 187-202.
- 김민정, 박영호 (2021).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보안: 기업의 대응 전략. **한국정보보호학회 논문지**, 31(4), 230-245.
- 김민지, 박지혜 (2021). 비대면 시대의 OTT 서비스 이용자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김선주, & 최정인 (2021).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학습의 변화와 성과. **한국교육학회**.
- 김소연, & 이종민 (2021). 원격 의료 서비스의 발전과 향후 과제. **의료정보학회지**.
- 김유리, & 정지혜 (2021).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소비자 행동 변화. **소비자학연구**.
- 김윤명 (2024). 딥페이크 발명이 특허법상 공서양속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연구. **IP&Data 法**, 4(1), 121-159.
- 김지현, & 정희철 (2020).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관리 방안 연구. **정보보호연구**, 30(1), 89-102.
- 김진수, 이재홍 (2020).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5(3), 123-148.
- 김태형 (2021). 디지털 बैं킹의 발전과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 **한국금융학회지**.
- 뉴욕시 (2021). 뉴욕시 144 지방법 (NYC Local Law 144). NYC.gov.
<https://www.nyc.gov>
- 대한민국 (2001). 국가정보화기본법. 법률 제 645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2001). 정보통신망법. 법률 제 2001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200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845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2011).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 104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2020). 지능정보사회기본법. 법률 제 171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미국 (1973). 재활법 (The Rehabilitation Act). Congress.gov.
<https://www.congress.gov>
- 미국 (1990). 미국 장애인 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gov.
<https://www.ada.gov>
- 미국 (2022). 알고리즘 책무성 법안. Congress.gov. <https://www.congress.gov>
- 박나은, 양세호 (2024.03.17.). 4대은행 영업점포 5년새 20% 줄었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10966428>
- 박성우, 이민규 (2019). 빅데이터 시대에 있어서 데이터 보호에 관한 연구. 정보법제연구, 8(2), 88-102.
- 박종수, 이수정 (2020).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관한 연구동향 고찰: KCI등재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3(4), 157-174.
- 박지민, 이형철 (2022). AI 기반 스마트팩토리 구축과 운영 방안. **한국자동차공학회**.
- 박지민, 이형철 (2022). 디지털 헬스케어와 장애인 의료 서비스의 혁신. **의료정보학회지**.
- 배상훈.(2023).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그 사회적 영향. **경제연구**.
- 보건복지부 (2023).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신유진 (2021). IoT 기반 스마트 제조 시스템의 가능성과 도전 과제. **정보처리학회지**.
- 유광호 (2020). 디지털 혁신과 제조업의 변화. **산업경제연구**.
- 유럽연합 (2016).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GDPR). Eur-Lex. <https://eur-lex.europa.eu>
- 유럽연합 (2021). 인공지능 법안 (AI Act). Eur-Lex. <https://eur-lex.europa.eu>
- 유럽연합 (2022). 디지털 서비스 법 (Digital Services Act, DSA). Eur-Lex.
<https://eur-lex.europa.eu>
- 유럽연합 (2022). 디지털 시장 법 (Digital Markets Act, DMA). Eur-Lex.
<https://eur-lex.europa.eu>
- 이경호 (2020). 디지털 전환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법적 과제. **정보와 사회**, 23(2), 45-67.

- 이상국 (2020). AI 마케팅의 변화와 유통업의 대응. **유통과 마케팅 연구**.
- 이상훈 (2020). 핀테크의 성장과 금융 산업의 변화. **금융연구**.
- 이재철, 이정희 (2020). 비대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디지털 전환의 교육적 함의. **한국정보교육학회지**.
- 이정희, 박찬호 (2020). AI 기반 스마트 휠체어의 기술적 발전과 적용 가능성. **한국인공지능학회**.
- 이준형, 김형수 (2020).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소비자 행동 분석: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 정우재 (2023). 헬스케어에서의 IoT 활용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IT의학회지**.
- 정재호, 이수정 (2022). 스마트 정부: 디지털 전환을 통한 행정 혁신. **한국행정학회보**.
- 정재호, 이수정 (2022). 스마트 정부와 장애인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한국행정학회보**.
- 정진아, 김유신 (2022).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의 발전 현황. **정보통신정책연구**.
- 정희철, 이소라 (2020). AI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정보사회와 윤리**, 22(1), 58-78. 50
- 조미영 (2022).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영향. **의료사회학 연구**.
- 조민영 (2023). 원격 교육의 접근성과 효과성: 장애인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 **특수교육학 연구**.
- 최철수 (2023). AI 로봇 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제조기술연구**.
- 최현주, 김소연 (2022). VR을 활용한 장애인 교육 접근성 향상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소**.
- 캘리포니아 주 (2020).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CCPA).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https://leginfo.legislature.ca.gov>
- 한상복 (2022).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학습의 가능성. **정보사회연구**.

논문 투고 : 2024.10.4.	논문 심사 : 2024.11.29.	게재 확정 : 2024.12.11.
--------------------	---------------------	---------------------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AI Technology and Data Protection Laws

: Focusing on the challenges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in the field of welfare for the disabled

YUMJIRMAA BATTSETSEG*, MiJeong Nam**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digital technology development on the welfare of the disabled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resents legal tasks and improvement measures to prevent dysfunction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I ethics issues, and digital gaps caused by the use of AI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welfare services for the disabled have become an important technical tool to increase efficiency and accessibility, but va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I biased learning, data leakage, and digital accessibility issues are raised together.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related laws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to evaluate the current status of legal responses in each country and identifies legal blind spots due to the introduction of digital technology, especially in the field of welfare for the disable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derived that domestic law is incomplete in term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AI ethics regulation, and legal improvement is needed to strengthen digital accessibility for

* Doctor Course, Dept. of Social welfare, University of Seoul

** Master, Dept.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the disabled and to prepare measures to prevent discrimination. Through this, we intend to seek ways to utilize digital technology to protect the rights and improve welfare of the disabled.

Keywords: Digital technology, Welfare of the disabled, AI, Personal information, Digital gap,
Law comparison, EU, USA, Korea

장애의재해석 제5권 제2호

2024 Vol. 5, No. 2, 77 - 104

장애여성의 시쓰기와 내러티브의 정치성 : 랑시에르의 미학을 중심으로

1) 한광주*

본 연구에서는 장애여성의 시 작품과 내러티브를 통해, 장애여성의 시쓰기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랑시에르의 미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60여 년을 장애여성으로 살아온 참여자가 받았던 차별의 내러티브가 장애여성의 시쓰기 행위와 어떻게 관련하며, 장애여성의 이러한 시쓰기가 어떻게 정치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그 결과 첫째, 참여자의 시쓰기는, 기존에 질서지어진 세계에 수용되지 않는 자신을 인지하고 이를 언어로 표현하는 행위로서, 부당함에 저항하는 ‘데모스’의 모습을 보여준다. 둘째, 참여자가 시쓰기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은 랑시에르가 말하는 ‘지적능력의 평등함’을 보여준다. 아울러 기존 시인의 등단 문화에 동조하기보다는 자신의 욕구에 충실한 시를 써나간 행위는 ‘주제화’와 과정이자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다. 셋째, 참여자의 시쓰기와 관련한 서사는 ‘사회적 대응에 따른 결과물로서의 장애’라는 개념을 강화하며 더 나아가 장애/비장애라는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정교한 성찰을 요구한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 장애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차별과 억압을 받고 살아가는 과정이며, 이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장애여성의 시쓰기는 정치적 행위가 된다는 점이 확인된다. 더 나아가 랑시에르가 노동자/자본가라는 이분법에 이의를 제기한 것처럼 장애학에서 장애인/비장애인 구분도 근본적인 지점에서 다시 사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 우선 ‘장애’, ‘장애인’이라는 개념에 대한 논의부터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주제어: 장애여성, 랑시에르, 시쓰기, 장애, 데모스, 지적평등

*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장애학과 박사과정

I. 서론

본 연구에서는 장애여성¹⁾의 시 작품과 내러티브를 통해, 장애여성의 시쓰기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랑시에르의 미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 박정천(가명)은 60대 중반의 여성으로 3세 때 소아마비를 앓은 이후 지체장애를 갖게 되었으며 지금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이다. 10여 년 전에 시문학 계간지를 통해 등단했지만 이른바 ‘문단’ 활동보다는 온라인 카페 등 SNS에 일기처럼 시를 써서 담아왔는데 이렇게 모인 시가 1천 편이 넘는다. 연구자는 이 중 500편의 시를 건네받아 정독하면서, 이러한 장애여성의 시 작업이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함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장애여성으로 60여 년을 살아온 참여자가 양육 과정에서부터 교육, 노동을 포함한 생애 전반에서 차별과 배제를 받으며 살아온 경험이 담긴 참여자의 시에는, ‘부당’하고 ‘혹독’한, 때로는 생존을 위협받으며 살아온 장애여성의 서사가 문학적 장치에 잘 녹아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서사가 단지 취약자로서의 정체성에 한정하여 부정적 인식의 표현에 머무는 것은 아니었다.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새로운 ‘삶’이 주어지고, 이 삶은 일상을 살아가는 데 ‘힘’으로 작용하여 또다른 ‘삶’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참여자의 시쓰기 행위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여성이 갖는 ‘취약자로서의 위상’과 장애여성에게 ‘내재된 힘’이라는 양가적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는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취약한 이의 삶에 더 넓게 적용됨으로써, ‘결과적 평등’이 아니라 랑시에르가 말한 ‘근원적 평등’(l'égalité fondamentale)에 대한 이해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랑시에르는 그의 저서 『프롤레타리아의 밤』에서 1830년대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의 삶과 그들이 쓴 글을 추적하여 알리고 설명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노동에 지쳐 잠을 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책을 읽고 시를 쓰는 등 스스로 생각하는 삶을 사는 주체적인 노동자, 노동하고 철학함으로써 이상을 개척하고 혁명을 준비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노동자의 모습을 해방적 이미지로 드러냈다. 이러한 랑시에르의 사유를 적용하자면 참여자의 시 쓰는 행위 역시 정치적인 행위로 설명될 수 있다. 장애여성의 몸이 경험하는 내러티브에

1) ‘장애여성’과 ‘여성장애인’이라는 용어는 혼용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장애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이라는 말 앞에 ‘여성’을 붙임으로써 장애인의 개념을 남성 중심의 용어로 보았다는 점, ‘장애인’ 앞에 붙은 ‘여성’은 일종의 유표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신숙경, 2021). 이와 달리 ‘장애여성’은 장애를 가진 여성의 독자적 영역을 나타내기 위해 더 적합한 용어라고 판단했다.

는 추상화된 지식으로 가늠하는 것과는 다른 ‘축’이 있다. 장애여성이라는 교차적 삶의 과정에서 겪는 차별과 배제는 ‘장애인’으로서 또는 ‘여성’으로서 겪는 그것과 다른 ‘질’이 있다. ‘장애여성’이라는 살아있는 몸이 어떤 경험을 해내는 ‘현장’이 있으며, 그 현장 안에서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어떤 현장에서 ‘실존적인 나’가 ‘무기력하고 비참한 나’가 되는지를 체험을 통해 이야기할 때 그 ‘차별’과 ‘배제’는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탐구하는 참여자의 경험은 개인적 사안에 머물기보다는 또다른 장애여성, 혹은 다른 교차성을 가지는 사람들의 삶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맥락으로 확장된다. 또한 억압적 사회에서 살아오는 동안 차별받고 배제되어 온 장애여성의 서사를 드러내어 언어화하는 일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를 부여하며 ‘그 자체가 중요한 변화의 첫걸음이자 귀중한 자원’으로 작용한다(이혜수, 2022). 같은 맥락에서 학대의 수위가 죽음 가까이 닿았던 경험을 포함하여 장애여성에 대한 여러 멸시와 억압, 시혜와 동정에 해당하는 경험과 이에 대응하여 시 쓰기를 비롯하여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온 참여자의 행위를 장애학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일은 장애여성 담론은 물론 장애학의 담론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II. 선행연구

1. 랑시에르 미학에 관한 연구

랑시에르는 미학(aesthetics)을 단지 예술에 대한 사유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인 것의 나눔’의 문제로 파악함으로써 정치적 토대를 이루는 것으로 보았다. 서양 고대 정치철학의 전통 안에서 정치는 인간 본성에 근거한 ‘자질’의 ‘나눔’으로 간주되었다(전혜림, 2017). 누스(nous)²⁾를 가진 철인, 현대적 의미에서 보자면 엘리트 전문가들의 ‘셈’에 의해 각자의 ‘몫’이 나누어진다는 것인데, 이런 이유로 사회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있고 이들은 ‘몫 없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다.

2) 정신, 마음, 이성을 지칭하는 고대 그리스어.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에서 감각을 통해서 얻게 된 지식은 변화하는 것으로 참 지식이 아닌바, 그 배후에서 변하지 않는 존재인 ‘이데아’를 볼 수 있는 수단으로 누스를 말한 바 있다.

“단순히 빈민들이 부자들과 대립한다고 해서 정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빈민들을 실재로서 존재하게 하는 것은 바로 정치 — 곧 부자들의 지배의 단순한 효과들의 중단 — 라고 말해야 한다. **자신이 바로 공동체 전체라는 ‘데모스’의 과도한 주장**만이 그 나름의 방식으로 — 한 부분의 방식으로 — 정치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뭇 없는 이들의 뭇**’의 설립에 의해 지배의 자연적 질서가 중단될 때 정치가 존재한다.”(랑시에르, 『불화』, 39쪽, 강조 연구자)

‘자신이 바로 공동체 전체라는 데모스의 과도한 주장’은 ‘뭇 없는 자’의 주체화 과정이자, 기존의 윤리가 지배하는 ‘치안(police)’에 저항함으로써 정치적 행위가 된다. 랑시에르가 『자본을 읽자(Lire le Capital)』의 공동 저자이자 스승인 알튀세르와 결별하게 된 핵심적인 비판은 마르크스주의 안에서 혁명의 주체이자 지식계급인 인텔리겐치아(Intelligentsia)와 노동자 계급인 프롤레타리아(Proletarier)를 구분한 점인데, “알튀세르주의는 사회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 분할의 논리, 불평등의 논리로, 대중의 정치를 사유할 수 없는 치안(police)의 논리”라는 것이다(박기순, 2015, p.181). 이러한 분할은 사회를 두 계층-생산을 하지만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과 사유를 자신들의 고유한 임무로 삼는 가진 자들 -으로 나눈다. 랑시에르는 바로 이 분할에 의해 정치는 소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랑시에르가 말하는 해방은 과학적 지식을 갖추고 모든 것들을 간파하고 있는 지식인들을 포함하는 외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도움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가능한 것이다(김회용, 2014). 이러한 해방의 조건으로서 랑시에르는 ‘평등’을 제시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지향해야 할 목표로서의 평등이 아니라, 이미 내재되어 있는 출발점으로서의 ‘근원적 평등’이다. 같은 맥락에서 랑시에르가 설명하는 민주주의는 아르케(arkhê)의 논리, 즉 신분이나 부 또는 지식을 기준으로 명령을 기초하는 토대를 부정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통치나 관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따라서 어느 누구나의 권력이 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자신 이외에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행동이 존재한다는 한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정치적 주체들에 의한 집단적 연표 행위와 표명이 항상 민주주의에 요청되는 것이다(유재홍, 2015).

이러한 정치철학이 문학을 포함한 예술 일반에 적용된 것이 랑시에르의 미학이다. 이러한 미학의 실천으로 랑시에르는 19세기 노동자들의 글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자 꿈꾸면서 사회질서가 강요하는 분할의 논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발견한다(주형일, 2012).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노동자 꿈의 아카이브’라는 부제가 달린 『프롤

레타리아들의 밤』(1981)이라는 책이다. 이 책을 저술함으로써 랑시에르는 1830년대부터 1848년까지 익명의 프랑스 노동자들이 남긴 텍스트에 담긴 시간, 공간, 정체성, 말하는 방식 등을 규율하는 일종의 선형 체제인 감각적 지형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유재홍, 2015). 굳이 프랑스 혁명 이전을 시간적 배경으로 한 점에 유의해서 보자면 랑시에르는 마르크스가 『경제철학수고』를 통해 설정한 ‘노동자’의 개념에 이의를 제기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를 해체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마르크스가 말하던 ‘노동자의 해방’이란 생산수단의 소유 및 생산의 관계에 기반한 계급투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은 랑시에르는 자신이 읽고 수집한 텍스트들을 노동 조건을 표현하고 있는 자료들이 아닌, 일종의 철학적·문학적 텍스트로 간주하고 접근한다(전혜림, 2017).

이상의 랑시에르 연구는 장애학에 적용되어 ‘뭉 없는 자’의 서사와 연결될 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한창희(2023)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대미술관에서 진행된 「Crip Time」 전시를 랑시에르의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분석한바, 이 전시를 장애예술이 제기하는 정치적 주체화 과정으로 보았다. 이 분석에서 「Crip Time」은 시간적 규범성을 전복시킴으로써,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삶의 속도를 균질화하는 선형적 시간성에 대한 비판을 담는다. 전시에 참여한 41명의 예술가는 장애·질병의 ‘극복’이나 원상태로의 ‘회복’을 결말로 하는 능력주의적 서사에서 벗어남으로써, 시간에 대한 규범적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장애가 있는 자아’를 자전적 이야기로 표현해낸다(한창희, 2023). 이상의 연구들은 ‘뭉 없는 자’로서 장애여성의 내러티브를 연구하는 데 사유의 기반이 되었다.

2. 시쓰기 효과에 대한 연구

시쓰기 효과에 대한 연구는 창의성 함양(강민정, 2012. 권현준, 1998. 김혜연, 2013, 현남숙(2013))이나 교육적 치료 효과(박소영, 2014. 김남희, 2018. 정재찬, 2009. 배선운, 2013)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와 달리 정한기(2023)는 시쓰기 효과에 대해 “문학적 속성의 구사 능력의 향상, 창의성 향상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471)”고 주장한다. 시 쓰기는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표출하여 치유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시에서의 내면표출은 ‘시’가 시행의 제약을 받는다는 장르적 특성상 여타 글쓰기의 효과와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는 제목처럼 ‘시’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시쓰기’에 관한 이야기이다. 문학 장르로서의 ‘시’와 구체적 실천행위로서의 ‘시쓰기’는 그 사유의 지점이 다를 수 있다. 김중철(2010)은 이 영화가 시를 ‘쓴다’는 것, 혹은 글을 ‘쓴다’는 것과 관련되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함유하고 있다고 보면서, 시쓰기 혹은 글쓰기 일반으로까지 논의의 영역

을 확장했다. 영화 「시」의 주인공 미자는 이혼한 딸이 맡긴 손자 종욱을 데리고 파트타임 간병인으로 일하며 누추하게 살아가지만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삶을 향유하고자 하는 주체이다(황혜진, 2011). 시쓰기를 배우는 미자는 강사의 말에 따라 ‘세상의 아름다움’을 찾으려 하지만 그럴수록 현실은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아프게 다가올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글쓰기는 두터운 현실의 벽 때문에 보지 못했던, 혹은 너무 흔해서 별 시선을 끌지 못했거나 너무 은밀히 숨어 있어서 쉽게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만드는 힘을 발휘한다(김중철, 2010).

이상의 연구들은 시쓰기의 효과에 대한 여러 논의 양상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시’의 내재적 의미보다는 ‘시쓰기’ 행위를 하는 작가(표현론)가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반영론)을 장애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이는 장애여성인 작가가 고통에 익숙해지도록 치유받거나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본질인 차별과 억압을 자신의 언어로 드러내 보임으로써 이에 대해 저항하는 참여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과 연관된다.

3. 장애여성의 사회적 취약성에 관한 연구

‘장애여성’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가졌다고보다는, ‘장애’와 ‘여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형성된 하나의 정체성을 갖는 집단이다. 교차성 이론에 의하면 계급, 인종, 젠더, 장애, 섹슈얼리티 등을 포함한 사회 불평등의 요소들이 단순한 합이 아니라 서로 교차가 되어 차별을 강화한다(Crenshaw, 1989). ‘장애여성’이 받는 차별과 억압은, ‘장애인’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젠더와 연관된 억압이 누락되고, ‘여성’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장애로 인한 억압이 누락되기 때문에 그 정도나 심각성이 희석될 수 있다(김은정, 1999). 실제로 장애여성이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많은 문제는 ‘장애’와 ‘여성’뿐만 아니라 ‘질병’, ‘빈곤’, ‘노화’ 등 여러 소수성과 교차되어 있음을 볼 때, 교차성은 장애여성을 논의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장애여성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취약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여성에게 요구되는 성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배제당하거나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쉽게 성적 폭력과 착취의 대상이 되는(장애여성공감, 2020)는 점도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1993년 12월에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어 1994년 4월 1일부터 실시되었고, 국제적으로도 1990년대에 들어 성폭력의 문제는 여성의 인권에 대한 침해로 인식되게 되었다(신혜수, 2006).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그 때까지 없었던 존재로 여겨지던 장애여성이 ‘성폭력’이라는 주제와 함께 인식되기 시작했다(조미경, 2003). 장애여성의 성폭력 문제는 일부

사회적 이슈로도 드러나면서 연구 분야에서도 ‘성’(이선민, 2006), ‘폭력’(주경미, 2013), 성폭력(안옥희, 2000; 정진옥, 2013; 문현주, 2014; 신기숙, 2010; 홍정련, 2014), ‘차별’(김정애, 1999)과 관련 주제가 자주 등장했고, 장애여성과 관련한 정책에 관한 연구(정은자, 2012; 이준우, 2008)로 이어지기도 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다수가 발달장애 여성이었던 점에서 이들의 돌봄 역할을 하는 가족에 관한 연구도 이어졌다(성완용, 2019; 김미정, 2012; 안옥희, 2000; 양선화, 2008; 임명희, 2017). 이외에도 장애여성에 대한 연구가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 등 성역할과 관련한 연구(이가연, 2023; 김정호·김문근, 2023; 고다경, 2020; 강봉하·김진숙, 2022; 고미선, 신나래 2015; 박명숙 2013)는 다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장애여성의 사회권(정정희, 2022)이나 안전권(곽자영, 2015)에 직업재활(오혜경, 1998), 건강에 대한 인식(홍영순, 2005; 오화영, 2016; 꺾지영, 2013; 이보람, 2023; 문영민·박은영·전지혜, 2019; 이진희, 2013)에 관한 연구는 장애여성의 욕구를 파악하여 장애여성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고찰하고 실천적 제언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필요한 작업이다. 이런 연구의 흐름에서 아쉬운 점은 ‘장애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가치’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이며, 이는 자칫 장애여성을 무력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바라볼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한편으로 장애여성공감 20주년 선언문 「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정치」는 장애여성운동에 하나의 누빔점이 되었으며 정정훈(2021)은 이 선언문을 페미니즘으로 독해함으로써 ‘여성주의 실천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경험’이 그 실천에 참여한 이들에 의해 어떻게 하나의 정치적 지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 실천에 기초한 정치적 지식이 어떻게 이론과 공명하는지를 탐구하였다. 선언문에서 쓰인 불구(Crip)라는 말은 당시로서 생경하게 들리기도 했는데, 전해은(2023)은 ‘불구화하기(cripping)’에 대해 ‘교차성을 전제’하면서 맥루어(McRuer)와 케이퍼(Kafer)의 이론을 빌어, ‘장애’를 다르게 사유할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한 용어로 설명했다. 그 이전에도 장애여성의 서사와 ‘당면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 당대비평 기획팀(김은정·안은자·박영희·홍성희, 2001)은 ‘장애’와 ‘성’이라는 이중의 차이를 가진 몸을 통해 장애여성이라는 범주의 의미를 살펴보고, 장애여성의 삶을 ‘다양한 몸의 평등한 삶’이라든지 ‘다름’에 대한 철학적 담론으로 가져와서 논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여성은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취약하고(정정희, 2020) 비가시적인 존재(정정훈, 2017)로 인식되는 것은, 여전히 장애여성에 대해 잘 모르고, 이는 장애여성의 경험에 대한 공유가 부족한 탓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할 때, 장애여성에게 직접 들은 장애여성의 경험과 ‘앓’은 우리 모두가 처해 있거나 해결해야 한 문제를 논의하는데 또다른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 장애여성이 말하는 ‘장애여성의 고유한 경험’, ‘삶에

내재한 힘' 등에 관한 관심은, 학술 연구보다는 인터뷰 기사나 생애 기록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장애학과 여성학의 관점에서 장애여성의 경험을 연구하는 일은 더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시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문헌 연구이며,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시와 관련한 작가의 경험을 분석한 점에서 내러티브 연구이다. 내러티브 연구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삶을 기술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여기에는 인간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야기되는 삶을 살아가는, 즉 이야기하는 유기체라는 개념이 전제된다. 참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되물어가며 거시적·미시적인 서사를 구성하고, 이러한 서사가 서로 연결되어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는 하나의 맥락으로 형성될 때 이는 내러티브가 되어 연구자에게 탐구의 대상이 된다.

내러티브 탐구의 이러한 관계적이고 맥락적인 특성과 일련의 탐구과정은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밀접한 관계 맺기를 요구한다(염지숙, 2009). 이렇게 관계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은 연구자와 참여자에게 서로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의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해나가는 과정에서 양쪽 모두 질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김무길, 2005). 내러티브 연구 과정에서 참여자의 이야기는 탐구는 시간성(Temporality), 공간성(Place), 사회성(Sociality)이라는 3차원적 공간(Clandinin & Connelly, 1990)을 통해 해석된다. 여기서 시간성이란 과거, 현재, 미래의 경험에 대한 연관성을, 공간성이란 인간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공간을, 사회성이란 사회적 맥락 속의 상호작용으로의 경험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결국 내러티브 연구는 인간의 상황과 경험에 관심을 가지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 박정천(가명)은 64세의 장애여성이다. 10년 전에 노들장애인야학의 학생으로 들어오면서 '장애인에게도 삶이라는 게 있다'는 자각과 함께 일상의 생각과 판단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금은 장애인 단체 활동가이자 일상의 소회를 시로 표현하는 일에 적극적인 '시인'이다. 참여자의 생애 전반에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여성이 겪을 법한 부정적 경험이 다양하게 담겨 있다. 어릴 때 부모에게 온전하게 양육되지 못하고 친척집을 전전한 일, 임시

양육자인 고모에게서 정서적 물리적 학대를 당한 일, 장애를 이유로 초졸 이후 공교육을 받지 못한 일, 17세 때 자살을 권유하는 아버지를 피해 목발 하나 든 채 가출했던 일, 봉제공장에서의 임금차별과 성적인 폭행 등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배제, 억압과 폭력을 고스란히 겪었다. 이런 기억은 참여자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참여자의 시, 「나는 시인이 아니다」)로 남아있어, 가끔씩 가슴이 타오르는 느낌으로 힘겨울 때는 ‘시’로 풀어내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된다고 한다.

참여자의 내러티브는 질병 서사와도 연결된다. 소아마비라는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되었고, 성인이 된 이후 ‘섬유근육통 증후군’으로 인한 통증이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견딜 만하게 몸에 내재하고 있어 늘 긴장 상태이다. 2023년에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 일정 간격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몸 상태를 검진한다. 자신의 질병을 원망하거나 적대시하기보다는 몸에 찾아온 손님 대하듯 다스려가고 있는 참여자의 일상은 장애여성이자 질병인의 교차적 서사를 보여준다. 이러한 서사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은, ‘질병’과 ‘질병인’에 대해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다른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참여자가 쓴 ‘시’와 심층 인터뷰 내용이다. 연구자는 인터뷰 전에 참여자로부터 오백여 편의 시를 건네받은 바 있다. 이후 총 2회 인터뷰를 가졌으며, 연구 기간 전반에 걸쳐 수시로 텔레그램과 전화 통화로 소통하였다. 1차 인터뷰에서는 개방적인 질문으로 시의 내용과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1차 인터뷰를 전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텔레그램과 통화로 보완하였다. 2차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갈때기식 방법’을 적용하여 첫 번째 인터뷰에서 코딩화를 통해 추출한 특정 사안에 대해 심화된 질문을 함으로써, 본 연구 주제인 장애여성의 시쓰기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했다.

3. 자료분석

먼저 오백여 편의 시를 꼼꼼히 읽으면서 내용별로 범주화하고, 인터뷰 녹음자료는 클로버 앱을 통해 한글로 변환한 후 반복되거나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여 의미있는 텍스트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의 시는 표현론적 관점과 반영론적 관점을 통해서 분석했다. 대부분의 작품에서 시적 화자는 작가 자신으로, 작가의 경험을 시에 담았다는 점에서 표현론적

관점을, 시적화자의 경험은 우리 사회의 차별과 억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점에서 반영론적 관점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전사 자료를 줄코딩 방법으로 범주화 작업을 한 후, 시의 내용 중 서로 교차하는 부분을 찾아 연결하며 새로운 범주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 5개의 범주와 각 범주마다 3개씩 총 15개의 주제를 구성했다. 이어 2차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이미 줄코딩을 통해 범주화한 자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1차 인터뷰로부터 추출된 범주에 2차 인터뷰 내용을 적용하면서, 주제와 내용의 긴밀한 연결과 장애여성의 삶을 잘 드러내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미 범주화된 자료를 묶거나 취사선택하여, 3개의 범주와 6개의 주제를 추출하였다. 이후 각 주제에 포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미 수집해 놓은 신문기사 등의 자료를 찾아 사회적인 맥락을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마지막 작업으로 참여자의 기고 글이나 참여자에 대한 인터뷰 자료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중요한 사안을 놓치지 않는지, 잘못 기록된 것은 없는지 교차적으로 분석하며 살펴보았다.

4. 연구의 윤리적 확보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연구참여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내용과 목적, 의의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특히 내러티브 연구의 특징을 공유하면서 ‘연구자와 참여자가 평등한 위치에서 함께 공부하고 알아가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또한 인터뷰 내용을 녹음할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며, 이 녹음 기록은 본 연구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된 이후 폐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질문한 내용 중 밝히기 싫은 내용에 대해서는 대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이미 말한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되기 꺼려지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언제든지 식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전했다. 2차 인터뷰를 마친 후에는 전사본을 참여자에게 보여주며 사실과 다르거나 드러내기 싫은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가 원할 경우 언제라도 연구를 중단하거나 특정 내용을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렸다.

IV. 연구 결과

참여자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여성으로 살아오면서 겪은 자신의 경험을 1인칭 시적화자 혹은 시적 대상으로 한 ‘시’로 표현했다. 따라서 참여자의 시는 대부분 자신의 경험을 진술하는 내러티브와 내용상으로 일치했다. “장애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땀별을 고스란히 맞으

며 맨발로 자갈밭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다고 서술할 만큼 참여자 삶의 궤적에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장애여성이 겪는 차별과 배제, 억압이 마치 축소판처럼 담겨 있었다. 한편, 참여자의 시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면은, 장애여성이 차별받고 억압받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 호명을 그대로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 안에서 꿈틀거림이 있고 이는 끊임없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주체적인 모습으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시’는 시각적 충족의 대상이자 ‘몸으로 기억되는 하나의 언어적 사건’으로 다가오게 할 뿐 아니라, ‘현존하는 사건으로서의 시’를 경험함으로써 문제적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의 삶을 대비해 나갈 수 있는 전망을 얻게 한다(김소은, 2020). 참여자의 시 역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 왔음이, 그의 ‘시’에 토사물처럼 담겨 있는 ‘현장’의 모습에서 잘 드러나 있다. 본 연구 결과의 범주와 소주제는 <표 1>과 같다.

〈표 1〉 범주와 소주제

범주	소주제
혹독한 세상과 마주하여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삼류로 살아가기
나를 발언하기	나는 시인이 아니다
	배려라는 이름의 배제
장애인에게도 ‘삶’이란 게 있구나	부당한 세상, 맞서는 힘 저항해야 하는 통증
	질병이 있는 몸과 관계 맺기 삶의 성찰, 몸의 초월

1. 혹독한 세상과 마주하여

1)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아이는 가방에 지갑을 숨기고 / 눈물 담길 채찍을 저물도록 기다린다 / 밥 주는
고모의 주걱보다 / 그의 눈 안에 들고픈 간절한 바람이 / 처절하게 무너지던 날에 //
종아리 터져 피투성이로 찾아오는 고향은 오히려 / 아이의 허한 심장 달랠 만한 꽤
감이었다. (『불놀이』)³⁾

3) 본 연구에서 인용한 시는 모두 참여자의 시로 작가를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시 인용 중 ‘/’는 행 구분을,

“우리 고모는 집에서 눈 한 번 맞추지 않고 나를 그냥 내버려두었어요. 그런 속에서 나는 스스로 살기 위해서 바깥으로 돌아다녔지. 그러면 고모는 한 번 찾지도 않으면서, 그 몸뚱아리를 해 갖고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밤 늦게 들어가기라도 하면 고모는 나를 막 때리고 그랬어요.”⁴⁾

참여자는 그의 유년시절을 ‘학대’라고 단정지었다. 먹이고 입혔다고 해서 ‘키웠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어머니가 부재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새 여성을 집에 들이면서 참여자는 친척집을 떠돌아다니며 양육되었는데, 마지막 양육자였던 고모는 당시의 어린 참여자를 ‘동생(참여자의 아버지)의 인생을 망쳐버린 원인’으로 보았다.

참여자의 시에서 눈이 띄게 자주 등장하는 시어는 ‘노을’, ‘밤’, ‘저물녘’, ‘일몰’, ‘석양’ ‘만장’ 등으로 죽음을 암시한다. 그만큼 참여자는 죽음을 많이 생각했다고 한다. 장애인은 오래 못 산다, 길게 살아야 한 사십 살려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처럼 33살에 죽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했었다. 그런 참여자가 65세가 될 때까지 살 줄은 자신도 그 누구도 몰랐다고 한다. 참여자에게 죽음은 두려움이자 위안이었다. 삶이 정말 힘들 때 죽음이 있어 고통의 끝이 있거니 했다. 만에 하나 참여자가 죽음을 맞이했다더라면 그것은 ‘타살’이고 ‘살해’로 규정될 일이다. 참여자가 실제로 죽음을 직면한 처음은 17살 즈음이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껌짝 안에 있던 농약을 다 꺼내놓고 ‘너랑 나랑 죽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볼게요.’ 그랬어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아니 왜 나보고 죽자고 해? 좀 생각해 보자고, 오늘은 아니라고. 그 다음 날 바로 서울로 내뺐버렸죠.”

새벽이 오며 절름발이 아이는 맨몸에 산을 넘고 있었다./ 다시는 이 길에 서지 않으리라고 죽을 맘을 먹고/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겠노라고 작은 가슴에 인두질을 하고 있었다.(「함정」 중에서)

시의 시간적 배경인 ‘새벽’은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자, 조금만 지나면 동이 틀 것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하다. 시적화자는 아직 어두운 ‘새벽’에 아무 보호막 없이 ‘맨몸’

‘//’는 연 구분을 나타낸다.

4) 본 연구의 인용문은 모두가 참여자의 진술이므로 진술자를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으로 힘겨운 ‘산’을 넘고 있다. 당시 참여자에게는 ‘죽음에 대한 강요는 부당한 것’이라는 ‘앓’이 있었고, 이대로 있다가는 진짜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더하여 ‘도망’이라는 선택을 하게 했다. 참여자가 도착한 서울역은 당시에 이른바 ‘무작정 상경’을 한 사람들로 붐비던 곳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이농과도 관계가 있다. 농촌에서 삶을 이어나가기 힘든 사람들이 상경하여 서울의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조세희, 1978)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아무런 대책 없이 서울역에 도착한 것은 참여자도 마찬가지였다. 바로 남대문파출소를 찾아가 “나 기술 배우는데 보내주세요”라고 말했다. 참여자는 이 때를 한 에세이에서 “미치 몰랐던 무정한 사회에 첫발을 딛는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그렇게 경찰의 손에 이끌려 간 곳은 부녀보호소였다. 당시에 서울시는 여성 직업훈련 시설로 부녀사업관, 부녀복지관, 동부여자기술원, 종합여자훈련원 등을 두고 있었는데 기술 교육보다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따라 잡혀온 성매매 여성을 수용하는 시설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곳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기독교 장로교 단체에서 하는 ‘애란원’⁵⁾으로 옮겨 양재기술을 배웠다.

2) 삼류로 살아가기

입성도 누추한데 들쳐업힌 숙명은/ 길길이 뛰어들어 / 굵은 세월과 상관 없이 / 제 살점을 갈아먹고 크다.// 팔닥거리는 과거의 환영들이 / 들끓어 울적이며 처연한 몸부림에/ 누런 곰팡이로 올라붙는 한 때// 영과 혼의 거리를 조절해야 하는 길은/ 언제나 신작로는 아니었다.(『그림자』 중에서)

“양재학원에서 다 배우고나서 의상실에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장애인에다가 여자에다가 안경 끼고 딱 가니까, 아침 일찍 갔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구했다고 막 이래. 그래서 그냥 나오는데, 뒤통수에다가 소금을 한 바가지 뿌리는 거야. 어디 안경 낀 병신이 아침부터 재수 없게, 이러면서. 야, 세상은 만만치가 않구나. 처음 당한 거야.”

참여자가 구직 과정에서 겪은 경험은 1970년대 말 당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1970년대는 RI(세계재활협회)의 ‘재활 10년 선포’(1970)와 ‘장애인의 권리선언’(1975)

⁵⁾ 애란원은 1960년 미국 선교사인 반애란이 지은 ‘가출소녀와 고아, 성매매여성 보호 및 자활시설’이다. 1973년 ‘미혼모 전담 보호 및 자활시설’로 전환되었다.

및 ‘세계장애인의 해’ 지정(1981) 등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장애인에 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였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은 한국에도 영향을 끼쳐 1978년 ‘심신장애자종합보호 대책’과 ‘도시환경시설 개선지침’ 등이 발표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법은 전무한 상태였다(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6). 당시의 사회적 인식에서 참여자의 첫 구직은 당시 우리 사회 ‘금기’와의 대면이기도 했다. 어떠한 것을 보거나 들었을 때 ‘재수없다’고 믿는 속신에는 ‘비정상적인 것’, ‘이질적인 것’, ‘낯선 것’ 등은 상당히 큰 몫을 한다(김열규, 1979). 장애를 바라보는 차별적인 시선 속에서 참여자에게 수식되는 ‘장애’, ‘여성’, ‘안경’ 등의 단어는, 교차성을 가진 장애여성으로서의 삶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참여자는 엉겁결에 당한 수모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다. 이는 앞으로 이런 차별적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계기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이 땅의 천민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함께 목말라 할 뿐/ 깃발을 기워줄 수 없는/
나의 무력한 육신의 연약함이/ 그들 앞에 부끄럽고 슬프다./ 사라지지 않는 그들의
절규 귓전에 맴돌아/ 이불 둘러쓴 채 뜨거운 방에서 뒹굴어도// 나는 지금도
춥고 아프고 슬프다.(「겨울, 춥다」)

“난 그래도 아무진 손재주가 있어 취직은 바로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완성품을 더 내는데 임금은 비장애인 노동자보다 덜 받는 거야. 사장은 장애인에게 일 시켜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라는 식이었고.”

참여자는 이 상황을 꼭꼭 참았다고 한다. 그 부당함을 몰라서가 아니라, 장애인에게 일을 준 것만으로도 무슨 시혜를 베푸는 양하는 사장에게 장애여성 혼자 몸으로 어찌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의 억울함은 몸과 마음에 각인되어 지금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 이들은 참여자의 시에서 대부분 ‘천민’으로 등장한다.

1980년대 초에 우리나라 의류업계의 큰 변화는 기성복 시장의 활성화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 성장으로 생활 수준의 향상되고 대중 매체가 발달하면서 기성복 시장이 커지면서 의류 산업이 전문화·기업화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는 대기업이 기성복 산업에 대거 참여하고 유명 디자이너가 새로운 유행 감각을 기성복에 도입하는 등 기성복 산업이 더욱 활기를 띠었다. ‘○○패션’이라는 이름을 붙인 큰 회사가 등장함에 따라 참여자는 소규모 공장에서 분업화된 큰 공장의 노동자가 되었다.

2. 나를 발언하기

1) 나는 시인이 아니다

백지 위에 / 내지른 배냇짓 // 오물거리기도 하고 / 히죽거리기도 하지 // 손가락
을 오므려도 보고 / 찢어 보기도 해 / 아직은 맛을 모르면서도 / 입맛을 쫓 쫓 / 감
당 못할 자극에 /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해. (「나의 시」 중에서)

“내가 지금은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졸업했지만 그 때는 초졸이고, 국어국문학과를 나와야 시를 쓸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나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 진짜 아는 단어가 별로 없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있었다면 이러쿵저러쿵하는 수다가 될 수도 있지만, 주변에 그럴 만한 사람은 없는데 나는 좀 말하고 싶고, 그런 이야기를 쓰는 녀두리 같은 거예요.”

시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의 맛을 알아가는 모습으로 표현한 참여자는, ‘시’라고 하는 장르에 대한 지식보다는 ‘시’가 가지는 ‘표현’이라는 기능에 충실하면서 시를 써온 것으로 보인다. 시쓰기는 참여자를 ‘말하는 위치’로 옮겨 놓았다. 참여자가 자신의 삶을 표현할 단어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사전을 파헤치는 일이었다. 장애여성이 경험한 것을 표현할 단어 딱 하나가 찾아지지는 않을 때는 우리말사전, 시어사전 등을 온갖 사전을 공책 옆에 쌓아놓고 뒤지곤 했는데,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적절한 단어 하나를 찾다가 밤을 훌쩍 새는 날도 있었다. 이러한 시작행위는 플로베르(Flaubert)의 일물일어설(一物一語說)⁶⁾을 연상케 한다. 그렇게 힘들여 쓴 시를 일명 ‘클리닉’ 해준다는 온라인 카페에 올리면 참여자의 고된 시어는 무시받기 일쑤였다.

나는 시인이 아니다./ 다만/ 가슴에 불이 있을 뿐// 시를 공부한 적도 없고/ 시 쓰는 형식도 모른다// 다만/ 삶이 너무 뜨거워/ 담고 있지 못해 토해냈을 뿐// 나는

6) 프랑스의 소설가 플로베르(Flaubert)는 ‘작가의 생각과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는 단 하나밖에 없다’는 일물일어설(一物一語說)을 말한 바 있다. 이는 작가가 단어 선택에 있어 그만큼 치열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다음은 일물일어설에 대한 플로베르의 언급으로 내용은 널리 알려졌지만 출처는 불분명하다. “Whatever the thing you wish to say, there is but one word to express it, but one verb to give it movement, but one adjective to qualify it: you must seek until you find this noun, this verb, this adjective.”

시인이 아니다/ 다만/가슴에 강이 흐를 뿐// 맞춤법도 다 틀리고/ 말도 어눌하다//
다만/ 흐르는 물이 어지러워/ 주저앉아 눈물 흘릴 뿐// 나는 시인이 아니다(「시인이
아니다」)

“내 시를 클리닉 해준다면 그 시인이 그러더라고요. 시에는 한문이 들어가면 안
되네. 그래서 그럼 이거 뭐라고 쓰죠? 그래서 나 이거 진짜 어렵게 찾아서 쓴 건데,
했더니 어쨌든 다시 찾아오래. 그래서 안 찾아봤어요. 그냥 뇌됐어요.”

인용한 시 「시인이 아니다」에는 참여자가 시를 써야만 하는 절실한 이유가 역설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장애여성으로 살아가면서 받아온 차별과 억압은 가슴 속 불이 되었고, 이를 도
저히 담고 있을 수 없어 ‘토해’낸 것이 ‘시’라는 말은 참여자에게 시 쓰기가 어떻게 기능하는
지 잘 알 수 있게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가 상품화되는 통로인 이른바 ‘문단’의 기성작
가들에게 참여자의 시가 곱게 수용되지 못함은 당연한 일이다.

죽어야 사는 것이 있다 / 미쳐/ 갈무리 되지 못하고 뱉어내는/ 설익은 나의 언어
이리// 말이란 이리 쉽게 쏟아지는데/ 백지 위에 떨어져 즉사를 하니/ 스스로 숨통
조일 거 아니라면/ 길게 침묵함이 옳지 않을까?// 어쭙잖은 고집만 살아/ 괜시리 시
어만 죽이고 있으니/ 나 어찌 글쟁이라 말할까?/ 가없는 나의 언어 나의 시여!// 시
인이라 함이 낯뜨거운 한낮/ 민망함에 붓을 꺾어 나를 지운다.(「미련한 마음」)

“시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 완력이 있어요. 보니까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
람이고, 그래도 이제 내 글에 대한 존심은 있어가지고 누가 건드리는 거 별로 안 좋
아했거든요. 난 내 마음을 쓴 건데 자꾸 태클을 거는 거예요, 관념적이다 뭐다 막 그
러면서. 관념적인 게 뭐냐 난 그걸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싸우기도 했는데, 학력 가
방꾼 이런 게 되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나는 돈도 없고 장애인이고 또 뭐 줄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동인회같은 데 들어가도 별로 섞이지 못했어요. ‘그래, 너네 잘 쓰는
사람끼리 모여서 해봐라’ 이라고 그만됐어요.”

시를 ‘클리닉’한다는 것은 ‘시인’이라는 자격을 얻기 위한 ‘등단’을 도와주는 과정으로, 이
때 ‘원로’라는 사람의 ‘코멘트’는 등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거부하기 어려운 권력으로 작용
한다. 참여자가 이 과정에서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시 쓰기 담론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거부감으로도 볼 수 있다. 그것은 참여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주 만난 부정적인 ‘힘’과 유사한 것이었던 까닭이다. 또한 참여자의 시를 그들의 말대로 바꾼다는 것은 참여자의 ‘앓’이 담긴 언어를 권력 친화적인 언어로 바꾸어내는 일이자, 자신을 지탱해 온 버팀목을 내놓고 하는 타협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배려라는 이름의 배제

산다는 것은/ 참말로 우습기도 하고/ 한없이 구차스럽기도 해/ 어떤 이는 해를 보고 웃지만 어떤 이는 해가 버거워 찡그린다// 용기를 낸다는 것은/ 차디찬 얼음을 뒤집어쓰는 아픔이다/ 새롭게 일어서는 자아를 마주하며 미소를 보내도/ 단혀진 살점에 닿지 못하는 햇살/ 텅빈 무기력의 시간이 추를 달아 떨어뜨린다 / 연신 토해내는 마른 앞에 절규/ 행여 밟혀 사그러질까/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갈갈거린다.
(「천천히 되어가는 것들」 중에서)

“장애인으로서의 비장애인들의 모임에 가는 건 쉽지 않아요. 물론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못 가는 상황을 이해 못 해요. 나 같은 장애여성은 어디 나가려면 준비 시간이 길게 들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죠.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휠체어 들어가는지 물어야 하잖아요. 나 때문에 휠체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노릇이죠.”

같은 해를 보고 웃는 사람과 찡그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배려’라는 이름의 행위가 어떤 사람에게는 ‘배제’가 될 수 있다는 참여자의 통찰에서 나온 표현이다. 장애여성에게 모임이 나오라고 하는 것이 ‘배려’라면, 휠체어 접근이 여부를 장애여성이 확인해야 하고 알아서 불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배제’에 해당한다. 장애에 대한 편견만 작동할 뿐 장애인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는 염두에 두지 않는 상황,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활동 영역과 방식을 공유하지 못하면 같은 현장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많은 장애인들은 이럴 때 마음의 에너지를 덜 쓰는 방법으로 ‘불참’을 선택한다.

너는 밤낮 없이 울지마라 하여도/ 한낮에 뜨거움을 삼켜버려/ 연기도 없이 솟구치는 불꽃을/ 멈출 수 없는 나는 아파서 운다.(「달의 노래」 중에서)

“배려 속에 배제는 나같이 살아보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저같이 재가장애인들은 가족들이 보호해 준다고 하지만 그 보호 속에 버림받는 게 있거든요. 나 모르게 집안 회의를 했나 봐. 큰아버지가 저런 애를 무슨 학교를 보내냐, 기술이나 가르쳐서 먹고 살게 하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학교에 안 보낸 거예요.”

큰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참여자는 초등학교 졸업 후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되었는데, 참여자에게는 한 마디 묻지도 않고 진행된 일이었다. 장애인에게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은 당시로서 흔한 일이지만 특히 장애여성은 장애남성에 비해서도 교육의 기회는 더 부족하다⁷⁾. 이는 장애인 자녀를 부모 키우는 입장에서도 아들과 딸을 대하는 인식이 달랐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지 ‘장애’뿐만 아니라 ‘여성’이 교차됨으로써 장애여성은 학령기부터 교육의 기회를 덜 갖게 되고, 이는 이후의 노동을 비롯한 삶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배려 속의 배제’는 주는 이와 받는 이의 인식 차이가 클수록 받는 이에게 더 큰 억압으로 작용한다. 도와주려는 마음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담긴 차별은 보이는 사람에 게만 보인다. 참여자가 다니는 교회의 신도들은 참여자가 20대부터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었고, 두 아이 양육할 때는 순번을 정해서 아이들 목욕을 시켜주기도 했다. 이 고마운 사람들에게서 가끔씩 느껴지던 싸한 기분, 불쾌하긴 하지만 표현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의 실체를 참여자는 노들야학에 와서야 알았다고 한다. 그들은 자신을 같은 ‘급’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구제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원하지도 않는 반찬을 싸주고, 남편에게 대해서도 ‘어디 모자란 사람 아니냐’, ‘도망갈지 모르니까 얼른 아이부터 가지라’는 등의 조언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참여자가 기억하는 가장 기가 막힌 말은 “박정천은 그냥 교회에 와서 웃음만 줘도 은혜다.”라고 말한 예전 목사의 ‘축언’이다. 고마운 관계 속에 끼어 있는 차별과 배제를 어떻게 드러내고 바꾸어 나가야할지는 참으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정교한 ‘읽’을 필요로 한다. 어떤 이들에게는 강한 대응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관계에서는 그냥그냥 넘어가야 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 될 때도 있다.

⁷⁾ 2020년 9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 중에서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진 사람 중에는 여성이 52.8%로 남성 35.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경우는 남성 18.7%, 여성 8.2%였으며 학교를 전혀 다니지 못한 ‘무학’의 경우 남성 2.9%, 여성 16.9%였다. 참여자 연배에 해당하는 60대 이상의 경우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진 장애인이 여성 83.1%, 남성 63.0%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장애인에게도 ‘삶’이란 게 있구나

1) 부당한 세상, 저항이라는 통증

자정이 훌쩍 넘어 버렸다.// 녹록한 어둠이 지하 공장으로 퍼지고/ 하나 둘 사열을 마친/ 형광등 아래 무거운 눈꺼풀은/ 사력을 다해 마지막 떨림을 잠재운다.// 블랙커피 한 잔과 드링크제 한 병/ 배고픔도 잊고, 잠도 잃었다./ 부어오른 다리로 밤새워 미싱을 밟고/ 불꽃을 날리는 재단 칼의 굉음은/ 온몸을 돌아 몽롱한 기억을 아득하게 만든다.(『반란의 이유』 중에서)

“우리 팀에 사장 동생이 있었는데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고 우리를 엄청 무시하는 거예요. 니가 뭘 안다고. 니가 뭐 배우지도 못한 게, 니가 학교를 알아? 막 이렇게 애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지가 대학을 나왔으면 나왔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든 생각이 학교를 다녀야 되겠구나, 개가 나를 무시하는 거는 자기가 대학을 나왔다는 거, 딱 그거 하나거든요.”

‘무거운 눈꺼풀’로 표현되는 공장에서의 피로는 피복 노동자들에게 ‘칼의 굉음’처럼 폭력으로 다가오고 의식마저 희미하게 만드는 그 순간에 참여자가 생각한 것은 ‘반란’이었다. 그 반란의 방법으로 참여자는 대학 진학을 생각했다. 이는 대학을 나온 사람처럼 훌륭하게 되어 보자는 의도라기보다는, 그게 얼마나 ‘별거 아닌 것’인지를 확인하려는 작업이 가까웠다. 실제로 참여자는 60세가 넘어서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데, 물론 다른 여러 이유가 작동을 하긴 했지만 역시나 별거 아니라는 결론을 얻고 그만두었다.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1983년에 연동교회 부설 야학에 들어간 참여자에게 배움의 방향은 예상을 빗나가다 못해 뛰어넘었다. 연동교회에는 ‘산업부’라는 게 있어서 대학부 운동권 학생들과 함께 노동법을 배웠다. 고리키의 『어머니』, 마르크스의 『자본론』,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정래 『태백산맥』, 그리고 김지하, 박노해의 시 등을 읽었다. 이 공부의 기반에는 ‘해방 신학’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서 배웠던 예수와 다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의 편에 선 예수는 참여자가 살고 있던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삶’으로 다가왔다.

라면 물이 끓고 있었다.// 불과 몇시간 전에/ 야학 동지들과 술잔을 돌리던 그 자리/ 웬수같은 인생살이라고/ 껍껍 울어대던 평화시장 재단사/ 같이 올려주지 못한 까칠한 가슴이 아프던 밤/ 말없이 들이붓던 술잔만 쓰러져 뒹군다.// 싸한 소주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쓰린 위장 움켜진 하루가 열리고/ 뜨거운 라면 국물에 고단한 가슴을 담근다.// 83년 봄.../ 남대문 시장 새벽 3시/ 고픈 사랑에, 고픈 세상/ 스물 둘/ 맹랑한 야학도 조막만한 여자가 주먹을 꽉 쥐다.// 어둠을 지난 고래는 새우떼를 기다리고 있었다.〔「고래의 꿈」 중에서〕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한 번도 지각한 적도, 결근한 적도 없고, 일도 덜하는 게 아니니 돈을 똑같이 달라고요. 안 그러면 고발하겠다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웃는 거예요. 꺾꼬맣고 삐쩍 마른 애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웃겼나봐요. 그런데 며칠 후에 날 불러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달라 그랬어요. 그렇게 제대로 된 월급을 받았어요. 나 같은 직원은 처음 본대요.”

참여자에게 사장은 저녁에 야학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고마운 사람’이었다. 퇴근 후에 야학에 가는 일이 왜 ‘고마운 일’이 되어야 하는지는, 당시 장시간 노동으로 제시된 퇴근이 허용되지 않았던 현실을 감안할 때 이해할 수 있다.⁸⁾ 그나마 ‘고마운 건 고마운 것이고 부당한 건 부당한 것’이라는 인식은 야학으로 통해 갖게 된 참여자의 예리한 ‘앎’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저항할 수 있는 힘은 그것을 부당함으로 보는 데서 시작한다.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게 한 데는 물론 야학교사를 비롯한 동지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참여자는 유일한 장애인이자 ‘장애여성’이었다. 비장애인 사회에서 ‘장애여성’인 참여자가 동등한 일원으로 무시받지 않기 위해 선택한 것 중 하나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는 등 비장애인 남성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해보는 일이었다. 그런 행동으로 비장애남성과 같아질 수 없으며, 그들과 같아지는 게 최선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

“노들 야학에 들어와 처음 몇 개월 동안 되게 놀랐어요. 전동휠체어를 처음 봤고,

8) 1953년 근로기준법의 제정으로 법률상 8시간 노동제가 확립되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1960년대부터 노동시간의 연장으로 노동자들은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이 정부에 보낸 편지에는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하루 16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현실이 실려 있다. 노동부의 통계연감에 따르면 제조업 주당 노동시간은 1963년 47.5시간, 1965년 57.0시간, 1970년에도 52.0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장애인이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너무 대단한 거야.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을 나는 도통 모르겠는데 선생님들은 너무 잘 알아듣고 대화를 하고 있고. 영상 같은 걸 보고 또 책 가지고 세미나하고 그러면서 장애인에게도 삶이라는 게 있구나, 이걸 안 거예요, 내가. 장애인에게도 장애인만의 삶이 있고 장애인도 그 삶을 권리를 찾아가면서 살아갈 자격이 있는 거구나.”

참여자는 자신의 인생을 노들야학을 만나기 전과 이후로 나눈다. 비장애인 사회에서 쫓리지 않게 살아보려고 애써온 것이 전반부 인생이었다면 후반부인 제2의 인생은 ‘장애인인 내가 나로서 산 시간’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아무도 나한테 너 언제부터 아팠냐, 너 왜 그러냐,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비장애인 사회에서는 교회를 가도 어디를 가도 보는 사람마다 물어봐요. 언제부터 그랬냐, 왜 그랬냐, 계속 물어봐요. 그럼 나는 계속 나를 설명해. 나는 아기 때 소아마비 걸렸고 뭐 했고 뭐 했고 이걸 계속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잘해도 그냥 재는 장애인이고 장애인인데 이것도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삶이었죠. 근데 노들에 딱 오면서 아무도 안 물어봐요. 장애가 몇 급인지 무슨 장애인지 뭐 아무도 안 물어봐. 노들에 오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편안한 세상도 있구나.”

2) 질병이 있는 몸과 관계 맺기 삶의 성찰, 몸의 초월

겨우 잠든 새벽은 한 시간을 채 못 채우고 부서졌다./ 약 때문일 거야/ 숨을 못 쉴 정도로 몸이 부어오른다// 작은 병에도 남들보다 배로 아파지는 참 허접한 몸통이다 / ... / 견딜 만한 낮은 쉬 지나가고/ 이제 또 싸워야 할 밤이 있는데 난 자꾸 속이 뒤틀린다/ 매운 고추라도 한 움큼 집어넣고 싶은 심정이다.(「마른기침」 중에서)

“늘 아프죠. 어떨 때는 좀 괜찮았다가 많이 아팠다가 이렇게. 진통제 하루에 두 알씩 먹었고 증상이 심하게 올라오면 네 시간에 한 번씩도 먹어야 돼요. 몇 개월 그렇게 먹고 나니까 이러다 큰일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프면 먹고 참을 만하면 참고 이렇게 했는데 의사선생님은 참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통증을 참으면 만성 통증이 된대요. 뇌에서 그렇게 만들어버린대요.”

소아마비라는 질병으로 장애를 갖게 된 참여자는 64세 되던 해에 암 수술을 받았고, 당뇨와 섬유근육통 증후군⁹⁾을 앓고 있다. 의사는 참여자의 증세 원인을 스트레스라 단정했는데, ‘나는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참여자의 말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없다’면서 병의 원인을 규정했다. 병명을 받았어도 아픈 건 계속 아팠고, 치료라 할 것도 없이 아플 때마다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대안은 없었다. 이후 참여자의 선택은 몸을 잘 살피면서 몸과 대화를 나누는 일이었다. 좀 아플 것 같다 하면 진통제 먹고 푹 자는 등 몸 쓰는 일을 조절을 한다. 운동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그때그때 조절해야 한다. 몸의 신경을 타고 아픈 병이라 온몸이 너무 아플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내 몸에 찾아온 통증에게 말을 건다.

“또 왔냐? 잘해보자, 내가 잠을 더 잘게, 이렇게 한다든가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너무 아프면 그래 이제 살살 하자, 너 온 줄 아니까 우리 살살 하자. 이러면서 시작 하죠.”

참여자의 질병 서사는 Wendell이 그의 저서 『거부당한 몸』에서 말한 ‘일상생활의 전략’과 유사하다. Wendell은 ‘건강한 사람에게 통증은 뭔가 잘못되었으니 대처해야 한다는 신호’이지만 ‘만성통증 환자에게 통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걱정하거나 저항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통증을 알아채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자유로워져서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Wendell은 이러한 생각과 행동이 ‘몸을 무시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아픈 사람들은 강한 자아의식을 갖고서, 아픈 몸으로 계획을 실행하는 능력을 조절해가면, 증상을 갖고 살아가는 어려움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아의식과 계획은 삶에 연속성을 제공해 준다. ‘병은 알려야 한다’는 속담은, 병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알려야 다른 질병인들이 ‘병을 가진 채로도 잘 살 수 있다’는 말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럴 때 질병인의 ‘앓’은 세상의 유용한 지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

9) 증후군(症候群, syndrome)은 공통성 있는 일련의 병적 징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증후는 증상(symptom)과 징후(sign)의 합성어다. ‘증상’은 환자가 인지하는 질병의 현상을, 징후는 의료인이 검사를 통해 진단하는 질병의 현상을 가리킨다(나무위키, 2024). 의학과 심리학에서 증후군(症候群)은 여러 개의 증상이 연결되지만 그 까닭을 밝히지 못하거나 단일이 아닐 때 병의 이름에 준하여 부르는 것이다. 기술 의학 면에서 증후군은 알아낼 수 있는 특징의 모임을 가리킨다. 특정한 질병, 상태, 병은 그에 따른 이유에 따라 자세히 판명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육체적 이유가 증명되면 증후군이라는 낱말은 그 질병의 이름으로 쓰이기도 한다(위키백과, 2024).

V. 결론

랑시에르의 미학을 기반으로 장애여성인 참여자의 시와 내러티브를 분석하고자 했던 본 연구는 참여자의 시쓰기 행위에 집중하여 의미를 탐색한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장애여성의 시쓰기는 랑시에르가 말하는 ‘데모스’의 모습을 보여준다. 참여자가 자신의 정서를 ‘시’라는 형식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참여자의 정서는 객관성을 갖게 되고, 사회적인 것이며 정치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참여자에게도 장애여성으로서 ‘배려’라는 명목 하에 ‘배제’를 당하면서도 비장애인과 어울려 잘 살기 위해 ‘참기’를 선택하던 시기가 있었다.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표현할 언어가 없었던 시기를 지나, 이를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랑시에르가 말한 대로 치안(Police)은 정치(Politics)가 된다. 랑시에르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데모스’라고 했다. 참여자는 시를 쓰는 이유에 대해 ‘가슴에 불이 있어, 지니고 있기 힘이 들어서’라고 말했다. 참여자의 시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영향을 주는가보다는 자신의 정서와 생각을 나의 언어로 표현했다는 점 그 자체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이는 랑시에르가 ‘프롤레타리아의 밤’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가치이자 ‘뭉 없는 자’의 정치적인 행위로, 질서 지어진 세계에 수용되지 않는 자신을 인지하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바라봄으로써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둘째, 참여자가 시쓰기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은 랑시에르가 말한 ‘지적능력의 평등’을 보여준다. 참여자는 자신이 공교육 기준으로 초졸이라는 점을 들어 시를 쓰는 행위에 대해 ‘어설픈 행위’인 양 ‘나는 시인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이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기준으로 자신의 시를 평가하고 그 기준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거부의 역설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랑시에르는 스승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제자보다 지적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님을 역설한다. 오히려 스승은 피교육자가 주어진 텍스트의 본질을 끄집어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를 위한 전략으로서 주어진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심급의 텍스트를 전제한다는 것이다¹⁰⁾. 랑시에르가 말한 평등은 목표로서 성취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내재된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랑시에르는 스승과 제자의 위계에 대해 ‘설명자가 가진 체계의 논리를 뒤집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바로잡기 위해 설명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이 무능력이란 설명자의 세계관이 지

¹⁰⁾ 단계마다 무지의 구덩이가 패이고, 선생은 다른 구덩이를 파기 전에 그 구덩이를 메운다. 토막들이 더해진다. 스승의 공무니에 학생을 달고 다니는 설명자가 주는 얇의 쪼가리들이 더해지는 것이다. 학생은 스승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 책은 결코 전부가 아니며, 수업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항상 스승은 얇을 완결되지 않게 남겨둔다. 다시 말해 학생의 무지를 남겨둔다(랑시에르, 2016: 49)

어내는 허구이다. 설명자가 무능한 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즉 설명자가 무능자를 그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이다.”(자크 랑시에르, 2016, 19-20). 참여자가 기존 시단의 등단 문화에 동조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 글을 써나간 행위는 기존의 부당한 질서에 대한 거부이며 따라서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다.

셋째, 참여자의 시쓰기와 관련한 서사는 ‘사회적 대응에 따른 결과물로서의 장애’라는 개념을 강화하며 더 나아가 장애/비장애라는 이분법적 구분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랑시에르가 노동자/자본가라는 이분법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마르크스의 노동자 개념을 무화시키고자 했던 정치적 행위와 연관된다. 장애여성인 참여자가 받은 차별과 억압은 대부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규정 받은(disabled)’ 장애인이라는 프레임을 작동한 결과이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못하는 사람이 많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못 하고, 어떤 사람은 빠르게 걷기를 못한다. 이 외에도 설거지를 못 하는 것, 글을 못 쓰는 것, 걷기를 못 하는 것, 요리를 못하는 것 등 많은 ‘못하는 것’ 중 어떤 ‘못하는 것’은 차이가 되고 어떤 ‘못하는 것’은 무능력이 된다. 심지어 참여자는 다른 비장애인보다 작업의 성과를 더 내고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덜 받았고 이에 더하여 장애인인 참여자를 고용해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라는 의식을 강요받기도 했다. 이 분할의 구분을 랑시에르는 ‘감성의 분할(Le Partage du Sensible)’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랑시에르는 “어떤 공통적인 것의 존재 그리고 그 안에 각각의 몫들과 자리들을 규정하는 경계설정들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 감각적 확실성(évidences sensibles)의 체계”라고 부른다(랑시에르, 2000:13).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은 함께하고 있음을 전제하는 개념이다. 본래부터 각자의 것이라면 나눈다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배제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다시 중심부로 끌고 와서 보이게 만드는 것이 랑시에르가 말하는 미학이고, 감성의 분할로 구분된 선을 뒤집어 놓는 것이 정치적 행위라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장애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차별과 억압을 받고 살아가는 과정이며, 장애여성의 시쓰기는 정치적 행위로 해석하기에 충분하다. 다만 세 번째 결론은, 결론이라기보다는 문제제기에 가깝다. 랑시에르가 노동자/부르주아와 지식/비지식인의 구분을 부정했듯이 장애인/비장애인 구분도 근본적인 지점에서 다시 사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근간으로 발전한 장애학이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가야 손상/장애라는 이분법에 대한 성찰적 논의와 함께, ‘장애’ ‘장애인’ 개념 논의와도 그 맥락이 닿아 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는다.

참고문헌

- 강민경 (2012).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창의성 향상을 위한 한 방향, **비평문학**, 45, 205-231.
- 강봉하, 김진숙 (2022). 지적장애여성의 결혼적응과정에 대한 생애사 연구, **인문사회**21, 13(4), 1587-1601.
- 고미선, 신나래(2015). 유자녀 장애여성의 가사 및 자녀돌봄 서비스 이용에 관한 예측요인. **사회복지연구**, 46(1), 371-396.
- 권현준 (1998). 창의성 신장을 위한 글쓰기 방법 연구. **새국어교육**, 1-26.
- 김남희 (2018). 문학치료적 관점에서의 시 쓰기 교육 연구, **문학치료연구**, 46, 한국문학치료학회, 67-91.
- 김소은 (2020). 퍼포먼스로서 ‘시’의 수행성 연구. **드라마연구**, 60, 60-108.
- 김열규 (1979). 민간신앙에 있어서의 부정과 금기. **중앙문화**, 14.
- 김영미 (2023). 여성 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 장애의 심각성, 우울, 자존감,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종단적 효과.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6(4), 55-73.
- 김영옥, 이지은, 전희경 (2020).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 - 질병, 돌봄, 노년에 대한 다른 이야기(메이 편). 봄날의책.
- 김은정 (1999). 장애여성의 몸의 정치학: 직업 경험을 중심으로 한 생애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은정 (2022).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강진경, 강진영 역). 후마니타스.
- 김혜연 (2013). 작문교육 연구의 지평 : 전형성과 창의성의 문제. **작문연구**, 18, 63-104.
- 김희용, 주연제 (2014). 평등과 해방의 원리에 기반한 랑시에르 사상의 교육적 함의 - 무지한 스승의 보편적 가르침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12(4), 123-141.
- 박기순 (2010). 알튀세르와 랑시에르. **시대와 철학**, 21(3), 181-208.
- 박소영 (2014). 치유를 위한 시 쓰기 교육, **문학교육학**, 45, 239-271.
- 박종주 (2018). 신자유주의 시대의 교차성 분석. **여성학논집**, 35(1), 163-183.
- 보건복지부 (2020). 장애인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 배선운 (2013). 생톰으로서의 시 쓰기와 의미. **문학치료연구**, 26, 355-379.
- 염지숙 (2020). 내러티브 탐구 연구방법론에서 관계적 윤리의 실천에 대한 소고. **유아교육학논집**, 24(2), 357-373.

- 유재홍 (2015). 랑시에르의 정치와 문학. **한국프랑스학논집**, 91, 247-287.
- 전혜림 (2017). 자기 해방으로서의 정치와 미학 - 랑시에르의 정치와 미학의 동일성. **인문과 학**, 64, 185-224.
- 전혜은 (2018). 퀴어, 페미니스트, 교차성을 사유하다. 여이연.
- 정재찬 (2009). 문학교육을 통한 개인의 치유와 발달, **문학교육학**, 29, 77-102.
- 정정훈 (2021). 장애여성운동, 교차하는 억압에 저항하는 횡단의 정치. **인권연구**, 4(1), 177-205.
- 주형일 (2020). 마르크스주의적 ‘구조’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랑시에르 대 바스카. **인문학연구**, 59-3, 121-162.
- 진태원 (2015). 정치적 주체화란 무엇인가? - 푸코, 랑시에르, 발리바르. **진보평론**, 63, 185-227.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6). 한국장애인복지 50년사. 양서원.
- 한창희 (2023). 랑시에르의 미학과 크립 타임(Crip Time) : 감성의 분할과 주체-되기의 정치성.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Arts and Culture**, 4(3), 105-116.
- 현남숙 (2013). 창의적 문제해결로서의 인문학 글쓰기. **작문연구**, 19, 275-300.
- 홍영숙 (2019). 관계적 탐구로서의 내러티브 탐구, **질적탐구**, 5(1), 81-107.
- Crenshaw, K.(1989).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A Black Feminist Critique of Antidiscrimination Doctrine, Feminist Theory and Antiracist Politics, Columbia Law School Follow.
- McRuer, Robert(2006), Crip Theory: Cultural Signs of Queerness and Disability, Manhattan: NYU Press.
- Rancière, J.(1987). Le Maître ignorant: Cinq leçons sur l'émancipation intellectuelle. Le Philosophe et ses pauvres.
- Siebers, T. (2019). 장애이론 (조한진 외 역). 서울: 학지사. (원저: 2008 출판).
- Shakespeare, T. (2014). Disability Rights and Wrongs Revisited-2nd Edition. Published by Routledge.
- Wendell, S. (2013). 거부당한 몸 (김진명, 김은정, 황지성 역). 서울: 그린비.

논문 투고 : 2024.10.11.	논문 심사 : 2024.11.20.	게재 확정 : 2024.11.29.
---------------------	---------------------	---------------------

Abstract

The Politics of Writing Poetry and Narrative by Women with Disabilities With the aesthetics of Rancière

KwangJoo Han*

This study analyses the political meaning of poetry writing of women with disability through the poet's works and her narrative of women with disability. Furthermore, the study finds out how the poetry writing is related to the discrimination of the subject who lived in South Korea as a woman with disability, and how the poetry writing of women with disability acquires the political. As a result, firstly, the subject's act of writing demonstrates the form of 'Demos', which is resistance against injustice, and which is the act of recognizing oneself as an unaccepted being in the ordered society and the act of linguistic expression of unacceptance. Secondly, the process of writing poetry by the subject demonstrates the equality of intelligence. The subject didn't follow the existing culture of debut poetry in South Korea, but wrote her own poetry related to her own desire. This act corresponds to the process of 'subjectivation' and political act. Thirdly, the subject's poetry writing and its narrative reinforce the concept of 'disability as a result of social response', and it further suggests the dichotomous division of disability/ability. In turn, living in Korean society as a woman with a disability corresponds to living in

* Ph. D. Studernt, Dept, Disability Studies, Daegu University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and the poetry writing of women with disabilities becomes the political action to confront it. By extension, it is necessary to rethink the distinction of disability/non-disability in the fundamental point of disability studies, as Rancière criticized the dichotomy of worker/bourgeois. In order to achieve this, it is necessary, above all, to discuss the concepts of 'disability' and 'disabled person'.

Keywords: Women with disabilities, Rancière, writing poetry, disability, demos, intellectualequality

장애의재해석 제5권 제2호

2024 Vol. 5, No. 2, 105 - 128

한국 SF 소설에서의 장애의 의미와 재현 양상 연구 : 천선란 소설을 중심으로

유창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천선란 SF 소설은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환경 문제, 우주를 향한 욕망과 상상력,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을 이야기하고 있다. 천선란의 작품은 비판적 휴머니즘의 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장애 인물을 주체적이고 전복적인 인물로 그려 장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편집 〈어떤 물질의 사랑〉, 〈노랜드〉와 장편 〈천개의 파랑〉을 중심으로 하여 장애 신체와 포스트 휴먼 간의 관계성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았다. 천선란의 소설에서는 정상으로 인정받는 존재에서 벗어난 경계 밖 존재가 다수 등장한다. 이때 작가는 외계생명체, 인공지능, 로봇, 좀비, 신체 강화 인간, 복제 인간 등의 포스트휴먼 개체를 정상으로 간주되는 인간보다 우월하게 묘사한다. 아울러 천선란은 성, 장애를 비롯하여 여러 이유로 타자화된 인간 존재를 포스트휴먼 개체와 뒤섞어 놓는다. 포스트 휴먼과 접촉하고 연대하는 여성 및 장애 인물은 차별과 폭력적 사회 구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여 그들에게 가해진 사회적 편견을 극복한다.

이처럼 천선란의 SF소설은 정상의 범주에서 소외된 존재에게 전이되는 차별과 폭력의 재생산 과정을 포착해 내고 있다. 천선란의 소설에서 포스트휴먼이 된다는 것은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과 연대를 통해 확대된 공동체 의식을 역동적으로 실천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

주제어: 장애, 여성, 비인간, 포스트 휴먼, 타자화, 공존과 공생, SF 소설

*동의대학교 문학인문교양학부 부교수

I. 들어가며

천선란은 장편소설 〈무너진 다리〉로 한국 SF 문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은 작가로 이름을 알렸으며 장편소설 〈천개의 파랑〉, 〈나인〉, 단편 소설집 〈노랜드〉, 〈어떤 물질의 사랑〉 등을 출간했다.¹⁾ 이 밖에도 그녀는 각종 SF 엔솔로지에 작품을 발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통해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²⁾ 천선란의 SF 소설은 미래 사회가 직면할 환경 문제를 화두로 제시하여 정상성의 경계 밖에 있는 타자들에게 가해지는 인간중심적인 폭력성을 고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천선란의 SF 소설에 나타난 장애의 재현 방식과 양상을 살펴 장애 신체 및 여성을 포함한 타자화된 존재 간의 연대와 전복적 행동을 유발하는 포스트휴먼적 사고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발전과 더불어 인공 보철, 유전자 기술 발전으로 인간의 신체는 신기술과 접촉, 변이, 확장을 통해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사유가 필요하며 장애 신체에 대한 문제 역시 새롭게 제기되어야 한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인간 신체의 변화와 장애 신체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술 발전은 신체적 결핍을 보완하고 신체 기능을 강화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강화된 신체를 정상으로 그렇지 못한 신체를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차별을 재생산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둘째, 정상성이 비정상을 재단하는 방식에도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장애를 재단하여 정상의 대척점에 배치하여 장애를 세계와 불화하거나 극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재현하는 한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SF 문학은 실현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중간 지대에 놓여 있다(Russ, 2020: 67). 또한 인간 존재와 지구 공간의 경계를 허문다는 점에서 SF는 장애인에 가해졌던 고정적 시선을 벗어나 새로운 사유를 가능케 하는 장르이기도 하다. SF 소설에 재현되는 각종 첨단 기술은 인간의 생명 연장의 욕망을 실현 시키면서 동시에 삶과 죽음의 문제, 혼종 개체의 정체성 문제, 종간 갈등과 공존 공생 등 다양한 갈등 상황을 유발한다. SF의 거장 Asimov(2008)는 소설집 〈아이로봇〉에서 인간과 기계의 결합과 공존에 대해 일찍이 주목하였다.³⁾ 소설 〈바이어리_대

1) 본 연구는 천선란 소설 가운데 단편집 〈노랜드〉와 〈어떤 물질의 사랑〉, 장편소설 〈천개의 파랑〉을 연구 범위로 하여 장애의 재현 양상과 포스트휴먼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2) 본 연구에서 언급하지 않은 천선란의 작품으로 장편 소설 〈나인〉, 〈랑과 나의 사막〉, 〈무너진 세계〉 등이 있다. 다른 작가들과 함께 기획한 〈슈퍼마이너리티 히어로〉, 〈SF보다〉, 〈우리는 이별을 떠나기로 했어〉 엔솔로지에도 작가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3) '바이어리-대도시 시장이 된 로봇'의 원 제목은 〈Evidence〉이며 1946년 9월에 발표되었다. 번역서 〈아이로봇〉에 함께 실린 다른 작품들 역시 1940년대 초반에 아이작 아시모프가 잡지에 발표하였던 단편 작품

도시의 시장이 된 로봇)에서 사고를 당한 인간 ‘바이어리’는 양전자 두뇌(인공지능)를 구해 자신을 대신해 세계에 로봇을 내보낸다. 로봇 ‘바이어리’는 로봇임을 숨기고 인간의 몸으로 살아간다. 변호사에서 시장, 지역 조정관(정치인)이 되어 인간과 뒤섞여 살다가 인간 ‘바이어리’의 생물학적인 죽음 이후 로봇 ‘바이어리’도 스스로를 분해하고 사라지게 된다. 한마디로 이 소설은 사고로 인해 장애를 얻게 되어 사회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인간 대신 인공지능 탑재 로봇이 사회적 역할을 대신한다는 이야기이다.

소설 속에서 ‘수잔’ 박사는 ‘바이어리’가 로봇임을 알고 있지만 로봇 공학의 3원칙이 가장 윤리적인 인간을 기반으로 구축된 것임을 들어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뿐 감시, 통제, 구분과 같은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이처럼 ‘수잔’ 박사는 인간의 윤리와 로봇 공학 3원칙을 동일선상에 놓고 바라보며 인간의 우월성을 격하시켰다.⁴⁾ 인간/비인간 사이의 경계를 흔들어 놓는 ‘수잔’ 박사의 전복적 행위를 남성과 여성, 백인과 유색인, 장애와 비장애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내는 방식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정신과 신체의 자유로운 이동과 장애 신체를 대신하는 존재의 출현, 이러한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마인드업로딩 기술, 메타버스 세계의 실재화를 이제 실현 불가능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열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는 앞으로 인류가 맞이할 융합적이고 다채로운 삶의 양식에 적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포스트휴먼적 사유의 핵심은 인간과 사물 사이의 우열, 차이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유를 바탕으로 미래에 발생할 새로운 삶의 양식을 재현하여 한국 SF 소설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작가로 최근 김보영, 김초엽, 배명훈, 윤이형, 천선란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과학 기술 발전의 세부적 영역을 문학적으로 구체화시켜 SF 서사를 개척하고 있다. SF 문학에 대한 선행연구는 근대의 인간중심주의와 차원을 달리하여 인간의 가치를 새롭게 성찰해 보고자 하는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다.⁵⁾ 이양숙(2020)은 인간과 비인간의 수평적 관계에 주목하여 SF 소설에 나타난 탈인간중심주의적인 태도를 분석하였다. 박인성(2020)은 SF 장르에서의 시공간의 특수한 형식을 살펴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소외현상을 조

이다.

- 4) 기술 발달은 인간의 정신활동을 물리적 법칙의 연속선상에 놓고 인간 지위의 우월성을 격하시켰다. 부르스 매즐리시는 인간이 다른 존재들에 비해 특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배후에는 근본적인 불연속이 존재한다는 가정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인간과 기계 사이에는 단절된 경계가 없고 인간 정신을 설명하는 원리로 기계도 설명할 수 있다 하여 불연속의 해체를 주장한다. (신상규, 2014: 49~50).
- 5) 비판적 포스트휴먼적 입각해서 타자화된 여성과 비인간 간의 관계성에 주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서승희, 2019; 김미현, 2020; 김윤희, 서세림, 2024). 여성의 유목적 주체성의 의미를 밝힌 연구(박예은, 조미라, 2019), 인간과 기계의 공존 및 공진화의 양상을 추적한 연구(추혜진, 2020; 연남경, 2020)는 포스트 휴먼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여성 주체의 가능성을 도출해 냈다.

명하고 있다.

기술과 신체의 결합에 따른 신체 기능 강화 및 장애 신체 변화를 포스트휴먼적 사고로 확장시킨 논의로 허윤, 김윤정의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허윤(2021)은 김보영 소설에서의 여성, 장애, 로봇 신체에 가해지는 시선과 폭력의 문제점을 포스트휴먼적 입장에서 살펴 장애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방식을 추적해 내고 있다. 김윤정(2022)은 첨단 기술이 여성, 장애인, 비주류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여성 SF 소설이 장애 담론을 결합이 아닌 그 자체로 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김윤정(2021: 80)에 따르면 극복되어야 할 것은 신체가 아닌 장애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다. 기술 발전이 가져올 신체적 자율성과 독립성의 가치는 과대 평가되었으며 오히려 장애를 ‘정상화’하여 장애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여성 SF 문학은 장애를 보완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천선란 소설에 대한 연구는 작가의 대안적 상상력과 생태적 사유에 집중하여 포스트휴먼적 행위성의 의미를 밝혀내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이지연, 2023; 임지연, 2023). 천선란의 생태주의적 태도가 중국에는 종간의 경계 해체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기도 한다(진설아, 2022; 진선영, 2022; 김윤정, 2023). 이렇듯 천선란의 소설에 대한 연구자들의 접근 방식은 생태주의적 입장, 비판적 포스트휴먼적 입장을 기반으로 타자화된 존재간의 연대와 행위성에 주목하여 그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세계의 복원과 희망의 의미를 도출해 내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연구 성과들을 수용하면서 천선란 작품에서의 장애 이미지 재현 방식을 살피고 장애와 함께 배치되거나 접속하는 존재들의 혼종적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장애는 개인의 결핍과 결합으로 간주 되고 장애를 겪는 당사자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여겨져 왔다. 장애를 만들어 내는 사회적 구조의 모순을 발견하고 포스트휴먼과 접속한 장애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 천선란의 소설에서 장애는 개인의 결핍이 아니며 소극적으로 재현되지도 않는다.

이런 점에서 천선란 소설은 장애에 대한 재해석을 이끌어 내는 장애학적인 의미가 있다. 천선란 SF 소설에서 과학기술은 장애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된다. 기술은 비정상화된 신체와 정상으로 간주 되는 신체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본고에서는 장애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허무는 작가의 서술 방식을 살펴 천선란 소설 속 장애 신체의 고유한 재현 방식과 포스트휴먼적 의미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즉, 작가가 타자화된 인물의 연대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설정한 서사적 장치는 무엇이며 장애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거부하는 태도가 구체적으로 재현되는 양상을 밝혀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천선란의 소설에 재현된 장애인의 정체성을 살피기 위해 비판적 포스트휴먼 개

념을 차용하였다. 천선란 소설에서 타자화된 인간, 동물, 로봇은 모두 불완전한 신체를 갖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은 이종간 친연성의 기반이 되고 서로를 뒤섞으며 연결시켜 놓는다. 주변화된 존재들이 상호 공감하고 서로의 취약성에 상호 응답하는 과정에 공감과 공존의 공동체를 향한 연대적 연결고리를 확고히 해 나간다. 이들은 취약한 몸을 교정하기보다 다름을 전제로 한 소통을 통해 서로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주변화된 신체를 적극적으로 재현해 낸다. 이종간 적극적인 관계 맺기를 통해 위계성을 해체하며 장애에 대한 편견을 극복한다. 이처럼 천선란의 소설은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횡단하는 혼종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단순히 증강이나 향상이 아닌 훼손과 변형, 도주를 통해 장애에 가해졌던 배제와 시혜의 서사를 극복하는 전복적인 양상을 보인다.

Braidotti(2015: 81)에 따르면 고전적 휴머니즘은 이상적, 객관적, 정상적인 동일성의 체계화된 기준으로 모든 타자를 평가, 통제하기에 인간의 죽음과 해체가 포스트휴먼으로 향하는 필수적인 경로라고 하였다. 보편적 인간으로 가치를 획득한 남성은 성차화된, 인종화된, 자연화된, 장애화된 타자들과 범주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것이 된다. 이때 포스트휴먼 주체는 수평적이며 연대적 관계 형성을 통해 인간의 위계적 질서의 죽음과 해체를 가한다. 포스트휴먼 주체의 관계적 능력은 인간종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인간의 형상을 하지 않은 모든 요소로 확장된다. 특히 Braidotti(2015: 23)는 여성은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었기에 다른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다른 종에 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여성은 동물-되기, 지구-되기, 기계-되기에 있어서 남성 주체보다 유연하고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비판적 포스트휴먼 이론은 한국 SF 소설에 대한 해석의 지평을 새롭게 한다.

II. ‘비정상화된’ 존재의 ‘뒤섞임’을 통한 경계 해체

1. 자리 잃은 개체의 ‘뒤섞임’

천선란 소설에 등장하는 존재들은 경계선에 서 있다. 단편 소설 〈두 세계〉는 작가의 경계적 세계관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소설이다.⁶⁾ 〈두 세계〉에는 현실이라는 땅에 발을 붙이지

⁶⁾ 〈두 세계〉는 단편 소설집 〈노랜드〉에 수록되어 있다. 〈두 세계〉에서 ‘노랜드’는 가상현실 감각으로 소설을 읽는 시스템이다. 가상현실 창에 책 본문이 뜨고 독자가 책을 읽어 나가며 그 상황을 재생시켜 심도 있게 책을 읽을 수 있다. 등장인물은 인공지능화가 되었고 독자와 소통이 가능하다. ‘유라’는 노랜드 시스템을 설계한 프로그래머이자 운영자이다. ‘아락스’가 현실 세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신규영’이라는 인물의 육체

못하며 지구라는 행성에서의 탈출구를 찾다가 죽음을 선택한 ‘유진’, 인간에게만 허락된 현실 세계를 향해 책 속을 벗어난 AI 캐릭터 ‘아락스’가 등장한다. 이 둘은 모두 자신이 속한 공간에 적응하지 못한다. 인간은 현실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인공지능은 가상 공간에 적응하지 못한다. ‘유진’은 태어나는 순간 숨을 쉬지 않았고 말문이 늦게 트였으며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 유대 관계를 맺지 못했다. ‘유진’을 둘러싼 근거 없는 소문에는 항상 ‘귀신’, ‘원조 교제’, ‘이상한 신앙심’과 같은 수식어가 붙어 있었다. 학교 선생님들도 늘 ‘겉돌았다’라고 ‘유진’을 표현했다. 그러한 평가는 ‘유진’에게 붙어 있는 낙인을 떼놓지 못한다. ‘유진’의 차이를 개인에게 전가함으로써 교육 당국을 비롯한 사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장애는 낯선 세계에 거주하거나 자신이 거주하는 세계에 닳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심귀연, 김문정, 김창식, 2024: 218). 세계에 적응하지 못해 취약한 ‘유진’은 다르다는 이유로 세계로부터 이해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 ‘유진’은 이러한 낙인에서 벗어나 세계 밖으로 향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한다. 한편, 책 속 공간에 얽매인 AI 캐릭터 ‘아락스’의 괴로움은 책 바깥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어떠한 AI 캐릭터도 플레이어의 세계를 ‘밖’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AI 캐릭터 ‘아락스’는 ‘그런 것들이 밖에는 많나요?’라며 인간 플레이어에게 질문한다. 정해진 책 스토리대로라면 ‘아락스’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한 모험과 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꿈을 이루는 인물이 되어야 했다. 즉, ‘아락스’는 독자를 만족시키고 독자를 위한 캐릭터, 도구로만 존재해야 했다. 신체가 없는 ‘아락스’는 책 속에만 머물러 있어야 했지만 자신이 닿지 못한 다른 세계 ‘밖’을 동경하기에 ‘유진’과 마찬가지로 고민과 방황 끝에 책 속에서 자살을 한다.

소설 〈두 세계〉는 ‘노랜드’ 시스템 운영자 ‘유라’가 자신의 쌍둥이 ‘유진’에 대해 회상하는 장면과 ‘유라’가 가상현실 공간을 탈출한 ‘아락스’를 추적하는 이야기가 교차로 서술되고 있다. 이때 ‘유라’가 발견한 것은 ‘유진’과 ‘아락스’의 존재적 취약성이다. 책 바깥을 욕망하는 ‘아락스’는 정신적 실체를 지니고 있지만 물질적 실체인 신체가 없기에 취약하다. 세계와 자신이 불합치하다고 여기는 ‘유진’은 ‘여기’에서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정신적 실체가 늘 ‘밖’을 향해 있었기에 취약하다. ‘유라’는 ‘유진’이 죽음 전에 남긴 말 ‘가끔 스스로 정신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으나 ‘유진’과 같이 취약한 ‘아락스’의 도주를 추적하면서 그 뜻을 점차 이해해 간다. ‘유라’는 AI 캐릭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아락스’가

와 접촉한다. ‘신규영’은 책을 읽다가 ‘아락스’의 욕망을 눈치채고 자신의 신체를 ‘아락스’에게 제공한다. 이로 인해 가상현실 공간 ‘노랜드’는 오류가 나게 되고 ‘유라’가 그 원인을 밝혀내는 과정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인간의 몸에 들어가 원래 몸의 주인을 내몰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지만 ‘유라’는 인간의 신체를 획득한 ‘아락스’가 현실 세계에 남는 것을 묵인한다.

포스트휴먼 관계에서 요점은 상호 관계를 통해 본성을 혼종화하고 변화시켜 중간 지대를 드러내는 변형과 공생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Braidotti, 2015: 106). 비정상, 장애, 인간 아닌 존재가 뒤섞이면서 타자화된 신체는 그 취약함으로 연대할 수 있게 된다. 소설 속 가상 공간 ‘노랜드’는 인간과 비인간, 장애와 비장애, 정상과 비정상이 만나는 중간 지대이다. 이질적인 종을 횡단하는 ‘함께-되기’의 흐름 안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는 무의미해진다. 인간 ‘유진’과 AI 캐릭터 ‘아락스’는 서로의 취약성으로 ‘유라’가 만든 가상 공간을 점점으로 종을 횡단하여 접속한다. 결과적으로 이 소설은 인간 육체를 얻은 인공지능이 포스트휴먼으로 자립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통해 정신과 육체를 구분하는 근대적 사유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는다.

천선란의 단편집 〈어떤 물질의 사랑〉과 〈노랜드〉에는 다양한 개체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⁷⁾ 그들은 ‘유진’과 ‘아락스’처럼 자신이 속한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며 자신을 둘러싼 경계에 의문을 제기한다. 소설 〈레시〉에는 손가락이 여섯 개인 지구 아이와 외계 생명체, 〈흰 밤과 푸른 달〉에는 외계 생명체와 그에 맞서는 신체 강화 인간, 〈뿌리가 하늘로 자라라는 나무〉에 부상 당한 군인과 외계 생명체가 뒤섞여 있다. 이들은 경계선 위에서 위태롭지만 세계의 구조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한다. 유사한 환경에 처한 서로 다른 종의 배치를 통해 작가는 낯설고 이질적인 신체의 타자화와 그에 가해지는 폭력적 시선을 고발하며 아울러 여러 개체가 뒤섞이는 과정에서 그들이 걸도는 존재가 아니라 더 멀리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생기있는 개체들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단편 소설 〈제, 재〉는 한 몸에 이중인격을 지닌 존재의 이야기이다. 인격 ‘재’는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며 지적 능력을 갖춘 촉망받는 과학자이지만 인격 ‘제’는 예술적인 면을 제외하고는 탁월한 면이 없다. 사회적 역할이라는 기준을 정해 놓고 능력이 탁월한 한 인격만을 인정하려는 가족은 정상과 비정상,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분명히 한다. 부모는 자식이 ‘재’ 인격일 때만 연락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락 하지 않는다. ‘재’는 억지로 잠을 자지 않아 ‘제’의 인격을 깨우지 않는다. 점차 ‘재’로 깨어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반면 ‘제’로 활동하는 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소설에서 ‘재’의 삶만이 인정받고 ‘제’의 존재는 감추어

7) 단편집 〈노랜드〉에 〈흰 밤과 푸른 달〉, 〈바키타〉, 〈푸른 점〉, 〈제, 재〉, 〈이름 없는 몸〉, 〈두 세계〉, 〈뿌리가 하늘로 자라라는 나무〉 등이 수록되었다. 단편집 〈어떤 물질의 사랑〉에는 〈레시〉, 〈어떤 물질의 사랑〉, 〈그림자놀이〉, 〈두하나〉 등이 수록되었다.

진다. 이 소설은 두 인격의 차이가 교차로 서술되어 있어 정상으로 간주 된 인격과 비정상으로 간주 된 인격에 가해지는 외부의 시선이 일삼는 차별과 폭력성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다. 작가는 새로운 인물을 통해 이분법적인 경계 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냥 재가 유별나게 빠르고 특별한 거지 네가 못한 게 아니야. 너는 억지로 재의 속도에 같이 얹혀살고 있으니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지. 네가 재 속도에 맞춰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버겁지. (<제, 재> 157쪽.)

소설에서 ‘제 재’의 동생 ‘선’만이 비정상으로 구분되는 ‘제’의 삶을 인정해 준다. 동생은 두 인격 사이에 서로 다른 속도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한쪽이 다른 쪽에 억지로 맞추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며 ‘제’에게 그러한 의견을 전한다.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애초에 없었다면 두 인격 사이의 불균형적인 관계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둘의 차이를 인정할 때 ‘제 재’의 삶은 수정, 보완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러한 차이를 결핍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세상은 비정상으로 간주 되는 ‘제’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으며 심지어 살해하려고 한다. ‘재’는 자신이 개발한 연구 결과를 자신의 신체에 스스로 적용해 ‘제’의 인격을 영원히 지우려 한다. 이때 연구소 직원들이 ‘재’의 명령대로 움직이며 인격 살해에 동참한다. 부모 역시 한쪽 인격에만 연락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아 정상으로 간주 되는 ‘재’ 주도의 인격 살해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차별과 폭력이 그대로 벌어지게 두지 않는다. 인격 살해에 동참하지 않는 ‘제 재’의 동생 ‘선’의 도움으로 ‘제’의 인격은 살아남게 된다.

장애와 같이 타자화된 존재를 구분해 내며 보호 및 치료, 관리의 목적으로 자행되는 인간의 차별적 태도를 천선란의 소설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편 소설 <레시>의 경우, 손가락이 여섯 개인 아이 ‘기주’를 상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는 의사 눈에서, 장애 아이를 그저 방치하는 아빠의 행동에서 장애 신체는 불행한 것, 버려져야 할 것으로 대상화된다. 작가는 이러한 차별적 시선은 결국에 비극적 결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주’의 죽음을 통해 그려낸다. ‘기주’의 엄마 ‘승혜’의 선택지는 방치된 아이를 자신이 근무하는 남극으로 데리고 오는 것밖에 없었다. 아이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장소(소설에서는 한국)에서 설 자리가 없었기에 남극으로 내몰리게 되어 남극을 자신이 머물러야 할 자신의 영토로 생각한다. 결국 그는 남극에서 사고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다.

소설 <레시>에서는 ‘기주’뿐만 아니라 외계 생명체 ‘레시’도 지구 생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의 설 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다. 아이의 죽음 이후 ‘승혜’는 지구의 바다 생태계 복원을 위해 새로운 행성 탐사를 가게 되고 그곳에서 외계 생명체 ‘레시’를 마주한다. 지구

정부는 탐사대에게 ‘레시’를 포획해서 지구로 귀환할 것을 명령한다. 하지만 ‘레시’에게서 여섯 개의 손가락을 본 주인공 ‘승혜’는 자신의 죽은 아이와 외계 생명체를 동일시 하게 된다. 이때부터 소설은 ‘승혜’가 아이를 회상하는 장면과 ‘레시’를 관찰하는 장면이 교차로 제시된다. 현실과 꿈,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면서 ‘승혜’는 지구 정부에 ‘레시’ 포획 명령 철회를 요청한다. 그녀가 느끼기에 ‘레시’는 자신의 세계에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죽은 아이가 장애 신체라는 이유로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죽게 된 것처럼 ‘레시’ 역시 인간과 다르다는 이유로 연구 대상으로 채집되어 자신의 공간을 벗어나게 되면 죽게 되리라는 것을 ‘승혜’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처럼 소설 〈레시〉는 우주라는 공간에서 ‘승혜’라는 인물을 접점으로 그녀의 아이 ‘기주’와 ‘레시’가 서로 뒤섞이면서 비정상적으로 간주 되는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성이 확인된다. ‘승혜’는 ‘레시’가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고 이 행성에서 살아가야 할 주인임을 밝히기 위해 홀로 탐사를 강행한다. 그 결과 ‘기주’와 달리 ‘레시’는 자신의 자리를 잃지 않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천선란 소설에서 서로 다른 종들이 뒤섞여 있다. 각각의 종들은 타자화되었기 취약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소설 〈두 세계〉에서 ‘유진과 아락스’, 〈레시〉에서 ‘기주와 레시’, 한 몸에 두 인격이 공존함으로써 불완전한 〈제, 재〉의 ‘제와 재’, 모두 취약한 존재들이다. 이때 천선란은 〈두 세계〉의 ‘유라’, 〈레시〉의 ‘승혜’, 〈제 재〉의 ‘선’과 같은 인물을 설정했다. 이들은 소설 속에서 취약한 개체들이 존재를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취약한 존재들은 개체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받고 차별받거나 희생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욕망을 가진 인공지능 ‘아락스’는 책을 벗어나 신체를 갖게 되었고 비정상적으로 간주 된 인격 ‘제’는 세계로 나와 존재를 유지했다. 마찬가지로 외계 생명체 ‘레시’는 자신의 행성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었다. 천선란의 소설에서 취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인물과 그들의 태도가 바로 포스트휴먼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장애 신체의 연대를 통한 주체성 복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여러 개체의 뒤섞임의 양상은 장편 소설 〈천개의 파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천개의 파랑〉은 보다 다양한 시점의 교차 서술을 통해 뒤섞임의 양상이 앞서 살핀 단편 소설보다 더 복잡하다.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 개체가 서로에게 반응하며 다른 개체와 관계 맺는 과정을 상세히 드러냄으로써 이 소설은 중간 뒤섞임의 의미가 가시화된다. Haraway(2019: 25)는 타자들이 서로의 취약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에

주목해 반려종들과의 거듭되는 관계 맺기와 변화로 세상은 새로운 종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여 종들 간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인간중심적인 자기 동일성을 기반으로 한 인간은 멸망하지만 관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혼종적 주체들은 그 생생함으로 불멸하기에 다양한 종간의 관계 맺기는 포스트휴먼에게 있어 필수 조건이 된다.

〈천개의 파랑〉에서 소아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은혜’, 너무 빨리 달려 다리에 무리가 생겨 걷기조차 힘든 말 ‘투데이’, 말에서 떨어져 부서져 버린 인공지능 로봇 기수 ‘콜리’는 모두 보행이 어렵다. 세 개체는 서로 다른 종에 속해 있지만 취약한 이들이 만들어 가는 관계 맺기의 서사에서는 인간, 로봇, 동물의 종을 구분하지 않으며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관계 형성을 통해 〈천개의 파랑〉에 등장하는 여러 개체들은 종의 연대를 통해 주체적인 새로운 종으로 거듭나게 된다.

〈천개의 파랑〉에서 ‘은혜’는 휠체어를 타고 등하교를 한다. 기술 발달의 혜택으로 ‘은혜’는 인공 보철물을 이용해 남들과 똑같이 걸을 수 있었지만 ‘은혜’ 가족이 감당하기에 버거운 수술비용 문제가 되었다. 결국 ‘은혜’는 휠체어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장애와 가난을 향한 측은한 시선, 안쓰러운 눈빛을 받아 언제나 혼자 툭 떨어진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은혜’는 중학교에 다닐 때 ‘주원’으로 인해 그러한 소외감을 잠시나마 지울 수 있었다. ‘은혜’는 ‘주원’과 등하교를 함께 하면서 행복해했다. ‘주원’이 ‘은혜’와 가깝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역시 취약한 신체를 지녔기 때문이다. ‘주원’은 인공렌즈 삽입술을 받지 않아 전교생 중 유일하게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는 선천적 유전성 질환으로 인해 인공렌즈 삽입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트랜스 휴머니즘 입장에서 보면 기술은 인간 신체를 강화하기에 인류의 낙관적인 미래를 기대하지만 강화된 신체와 그렇지 못한 신체를 구분하기에 또 다른 차별의 소지가 있다. 소설에서 도수가 있는 안경을 착용한 사람이 도태된 자로 취급받는 상황은 기술 수혜를 기준으로 차별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한편, 소설에서 ‘은혜’와 ‘주원’의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하는데 ‘은혜’와 ‘주원’을 이어주는 결핍이라는 동등성이 깨지기 때문이다. ‘주원’이 미국에서 인공렌즈 삽입술을 받고 ‘은혜’와 다른 범주에 들어서고자 하는 것은 기술적 수혜를 통해 장애를 극복해 보고자 하는 선택이었다. 이처럼 장애를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할 경우 기술 혜택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은 계속해서 차별을 받기 마련이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조의 모순에서 비롯되는 장애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천선란은 다양한 종들을 뒤섞어 소설 속 ‘은혜’가 받아야 했던 상처,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지워 가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

〈천개의 파랑〉에서 결핍은 종간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조건이다. ‘주원’이 다른 차원

으로 가버리게 되자 ‘은혜’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학교를 그만둔다. 인간들 사이에서 ‘은혜’는 설 자리가 없었다. 그런 ‘은혜’에게 경주 마 ‘투데이’는 ‘대나무 숲’과 같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다. Braidotti(2015: 178)는 인간중심주의적 사회에서 타자로 전락해 왔던 동물, 지구, 기계 등이 인간과 유사한 환경이 놓인 동등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포스트휴먼 주체가 출발한다고 하였다. 인간들의 욕망을 위해 경주에서 앞만 보고 내달려야 했던 ‘투데이’는 태어난 지 3년밖에 안 되었지만 걷기조차 힘들어 경주마로의 가치가 없기에 폐사 처리될 운명에 놓이게 된다. ‘은혜’가 ‘투데이’를 살리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그녀는 비록 종은 다르지만 자신과 유사한 처지에 놓인 존재로 ‘투데이’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투데이의 얼굴을 두 팔로 감싸 끌어안았다. 억울했다. 자신이 억울한 것인지 투데이의 억울함을 대리로 느끼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은혜는 가슴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천개의 파랑> 215쪽)

인용문처럼 누구의 억울함인지 모르게 인간의 장애와 동물의 장애는 뒤섞여 있다. 인간에 의해 이용만 당하다 죽음을 앞둔 동물은 쓸모가 없다. 역할이 다했기에 다른 경주마와도 구분되어 마방의 한 자리조차 차지할 수 없다. 소외되고 어느 공간에도 소속될 수 없는 존재다. 인도가 아닌 차도에서 휠체어를 몰며 등교해야 했던 ‘은혜’ 역시 비장애의 공간에 속할 수 없어 늘 외롭기 마찬가지였다. ‘이 세상에서. 아니 이 우주에서 사람만 이렇게 잔인한 거 같아요.’라며 ‘은혜’는 정상성의 ‘괜찮음’이 과연 괜찮은 것인지, 오히려 장애를 향한 차별과 폭력이 비정상이 아닌지 의심한다. 이렇게 <천개의 파랑>에서 인간과 동물의 장애가 뒤섞임으로써 이질적인 존재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화하게 된다. 장애가 개인의 문제, 극복의 대상이 아니고 장애에 대한 편견이 극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간다.

<천개의 파랑>에서 설 자리를 잃은 존재는 ‘은혜’와 ‘투데이’ 뿐만이 아니다. 소설 속 다른 존재들도 결핍, 파손, 실패, 상실, 얽매임과 같은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경주마 ‘투데이’의 기수 로봇 ‘콜리’는 다른 기수 로봇과 차이가 있다. 인간의 실수로 딥러닝 기술 침이 탑재되어 ‘콜리’는 좁은 기수 방과 바깥 세상을 구분할만큼 성능이 뛰어나다. 이에 ‘콜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과 사유를 한다. 예를 들어 말 ‘투데이’와 호흡을 맞추며 생명체의 호흡에 대해서 고민하고 스스로 단어의 의미를 탐구하고 실제로 입증해 보려고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로봇의 본질은 변화해 간다. 말 ‘투데이’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낙마하는 ‘콜리’의 행위는 자신을 위한 것도 인간을 위한 것도 아니다. 동물이라는 생명체를 살리기 위한 자기희생

이었다. 애초에 프로그램된 대로라면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딥러닝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콜리’는 인간과 자연스럽게 뒤섞이면서 스스로 학습하고 어느 영역에 속해 있다고 규정할 수 없는 개체로 변화해 간다. 인간을 닮아가기도 하고 인간의 사고 경계를 벗어나기도 한다. 로봇 공학 제3원칙에 따르면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인간을 보호해야 하며 자신을 폐기할 수 없다. 하지만 ‘콜리’는 그러한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를 위해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폐기함으로써 로봇의 역할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주체로 거듭나게 된다.

‘콜리’가 이렇게 변하게 된 데는 ‘연재’와의 접촉이 영향을 끼쳤다. ‘콜리’는 낙마로 인해 폐기 처분 위기에 몰렸지만 ‘연재’의 도움으로 새로운 신체를 얻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연재’는 모델명 ‘C-27’ 대신에 ‘콜리’라는 이름을 로봇에 붙여준다. 또한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기수 로봇의 다리는 가벼운 탄소 섬유 재질로 만들어졌지만 ‘연재’는 ‘콜리’에 알루미늄 재질의 보다 무거운 다리를 부착했다. ‘연재’를 거쳐 간 ‘콜리’는 획일적으로 제작된 기수 로봇이 아니다. 한 개체로의 특수성을 확보하게 된다.

한편, ‘콜리’는 인간과 뒤섞이면서 ‘은혜’의 신체 결핍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한다. ‘은혜는 신기한 인간이다. 다른 인간들과 다르게 기구를 이용해 움직인다. 능수능란하고 힘차다.’(211 쪽). 이처럼 ‘콜리’는 ‘은혜’를 측은하거나 안쓰럽게 보지 않고 ‘다름’과 ‘힘참’으로 인식한다. ‘은혜’의 신체는 그 자체로 능수능란하고 힘차기에 교정도, 강화도 필요 없다. ‘콜리’의 시선에서 ‘은혜’의 장애는 결핍이 아닌 그 자체의 특수성으로 의미화 된다.

〈천개의 파랑〉에서 ‘은혜’의 동생 ‘연재’ 역시 취약하기는 마찬가지다. ‘연재’는 보통 아이와 달랐다. 그녀는 열한 살 때 계주 레일에서 이탈해 교문 밖을 뛰쳐나갔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만큼 멀리 뛰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다. 그 사건 이후 ‘연재’는 자신이 속한 세계에 만족하지 못한다. 특히 ‘연재’는 소프트 로봇 연구 프로젝트 대회의 최종 면접에서 기술 발전의 혜택이 무언인지에 대해 답을 하지 못했다. 그 답은 기술 혜택의 현장을 보고 온 유학과 학생만이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소설에서 기술 혜택을 받거나 기술 발전을 확인한 자는 그렇지 못한 자와 구분된다. 대회 이후 ‘연재’는 좌절감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

상처받은 ‘연재’는 자신의 꿈을 접고 무의미한 일상을 살다가 ‘콜리’를 만나면서 달라진다. ‘연재’는 알루미늄에서 느껴지는 그 차갑고 이질적인 느낌을 좋아했다. ‘연재’는 자신의 취약성으로 이질적인 것을 수용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무엇보다 ‘연재’는 폐기 직전의 ‘콜리’를 마주한 처음부터 하나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재’가 ‘콜리’의 몸체를 재구성하려는 이유는 스스로 기술 혜택의 실체를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로봇을 하나의 존재 자체

로 보고 있다. 로봇을 고쳐 수단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이는 기술 발전이 인간 신체의 강화 및 극복의 방향으로 전개되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로봇 연구 프로젝트의 최종 면접에서 연재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연재’는 ‘쿨리’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인간을 위한 로봇 개발이 아닌 로봇 자체를 위한 개발이라는 자신의 가치관을 보다 확실하게 구축하며 좌절감을 극복해 간다.

〈천개의 파랑〉에서의 인간, 로봇, 동물 등의 다양한 개체는 연대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다양체 되기를 실천했다.⁸⁾ 천선란 소설 속 인물은 신체적으로 파손되고 결핍된 부분이 있다. 이러한 취약성이 인물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동력으로 작동한다. 이때 정상과 비정상의 위계성에 가려졌던 결핍된 신체의 본성은 변화하여 새롭고 생동적인 포스트휴먼 주체로 거듭나게 된다.

III. ‘정상성’ 해체의 전복적 의지

1. ‘정상성’의 모순과 허약성 들추어 내기

천선란 소설에 등장하는 개체들은 장애와 비장애,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서 이질적인 충돌끼리 접속하며 종의 경계를 횡단한다. 앞선 장에서 살핀 것처럼 이들은 서로의 취약함에 공감하고 연대한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구분과 차별이라는 이분법적 구조와 남성 중심의 폭력적 세계의 구조적 모순과 허약성을 고발한다. 허윤(2021)에 따르면 정상과 비정상의 지속적인 구분 짓기는 결과적으로 그 차이를 생산해야만 시민권을 지켜낸다는 욕망에서 기인한다. 장애인이 비정상의 경계 안에 있어야 그 차이를 만들어 낸 주체는 유리해질 수 있다. 이는 장애가 실제적인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 일부 몸을 비정상적으로 간주하려는 사회적 해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천선란의 소설은 차별을 통해 만들어진 세계의 모순과 허약성을 끊임없이 들추어내고 있다. 단편 소설 〈어떤 물질의 사랑〉은 ‘라현’이 자신이 다른 존재들과 다르게 배꼽이 없다는 차이를 인지하면서 자신의 실체가 외계 생명체라는 사실을 알아간다는 이야기이다. ‘라현’은

8) 들뢰즈·가타리는 다양체들과 연결 접속되었을 때 본성상의 변화가 가능해지는데 ‘다양, 그것을 만들어야만 한다’를 명제를 내세워 다양체(multiplicité)되기를 강조하였다. Guattari, P., & Deleuze, G. (2001), 천개의 고원(김재인 역), 서울: 새물결, 18.

알에서 태어나 배꼽이 없었으며 두 성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남성을 사랑하면 남성이 되고 여성을 사랑하면 여성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라현’은 애초에 자신 같은 사람이 많아서 성별로 자신을 특정 지을 수 없었다면 지구에는 지금과는 다른 기준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인간은 정상으로 간주 되는 범주에 들기 위해서는 역지로 자신을 맞추어야만 한다. ‘여자 같은’, ‘남자 같은’이라는 말이 기준 및 경계가 되어 그 안에 실체를 가둔다. 작가는 ‘라현’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여러 존재를 만나며 성장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은 사회가 만들어 낸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근대 이후 지배계급의 이분법적 세계관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해 냈다. 정상의 범주에 속한 지배계급은 자신과 차이가 있는 다른 자를 비정상이라 하여 그들을 지배와 통치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시선이 배제되었을 때 새로운 인식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Braidotti, 2015: 175). 천선란은 이분법적 세계관에 의해 구분된 세계의 모순을 들추어내기 위해 장애의 조건을 뒤집어 놓는다.⁹⁾ 그런가 하면 초능력자가 편견을 넘어 우월한 종으로 전환되는 서사, 외계생명체가 지구 생명체보다 신체적으로 우월한 서사 구조를 만든다. 이 구조에서는 정상으로 판단되었던 비장애가 상대적으로 열등하게 그려지게 된다. 결국 정상성이라는 개념이 해체되고 그 허위성과 모순이 파헤쳐진다.

천선란의 많은 작품에서 바깥을 지향하는 사유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정상성의 허위성을 해체하려는 ‘라현’과 같은 존재가 항상 불순하고 비정상으로 간주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현’이 제시하듯이, ‘언제나 밖에 있는 자들이 그 장벽을 없애네요.’(〈어떤 물질의 사랑〉, 147쪽)라는 말처럼 장벽을 없애기 위한 해결책은 내부가 아닌 경계 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¹⁰⁾

천선란 소설에서 외계 생명체는 정상성을 해체하여 지구 행성의 구조적 모순과 허약함을 들추어내는 역할을 한다. 소설 〈흰 밤과 푸른 달〉, 〈바키타〉, 〈두하나〉, 〈뿌리가 하늘로 자

9) 〈그림자 놀이〉에서는 ‘깨진 거울 수술’을 통해 인류가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지 않게 된다는 전제하에 소설이 진행된다. 공감 능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현재 아스퍼거 증후군은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지만 이 소설에서는 이를 역으로 뒤집어 놓았다.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개인의 감정에 충실할 수 있기에 정상일 수 있고 타인의 감정과 시선에 의지해서 가짜 뉴스에 현혹되는 일이 발생하는 상황이 비정상일 수 있다고 소설의 주인공은 ‘깨진 거울 수술’을 지지한다. 한편, 아스퍼거 증후군이 2022년 장애의 한 종류에서 자폐 스펙트럼의 일부로 여겨지게 되었는데 이는 장애, 질병의 분류가 사회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10) 〈두세계〉에서는 정상성의 바깥, 책 속의 바깥을 욕망한다. 〈제, 재〉는 정상성의 신체를 벗어나는 비정상 인격의 탈출을 〈우주를 날아가는 새〉와 〈푸른 집〉, 〈사막으로〉에서는 환경문제, 핵과 방사능 등으로 더 이상 지구 행성에 살 수 없는 인류가 우주를 향해 나아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라는 나무>에서는 외계생명체의 지구 행성 침공이 그려진다. 지구의 정상/남성/동일자들은 외계 생명체에 비해 신장, 근육, 힘의 열세에 놓여 있어 그들만의 힘으로 패색이 짙은 전세를 뒤집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남성들은 낮은 외계 생명체에 접근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낙약하게 그려져 있다.¹¹⁾

단편 소설 <바키타>는 3미터 정도의 신장과 검은 피부, 긴 팔을 지닌 외계 생명체 바키타가 지구를 점령하게 되자 인류는 지구를 버리고 탈출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소설은 정찰을 위해 지구에 온 인류의 보고서 형식으로 전개된다. 지구를 탈출하지 못하고 남게 된 인류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진화한다. 인류는 ‘바키타’와 공생을 선택한 ‘문명의 인간’과 숲속에서 자체적으로 ‘바키타’에게 종속되지 않는 삶을 선택한 ‘숲속의 인간’으로 각기 나누어진다. ‘숲속의 인간’은 구강 구조의 변화, 손톱과 발톱의 강화처럼 야생에서 살아남도록 강하게 진화했지만 언어적으로 정찰대원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언어적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숲속의 인간’은 언어 장애가 있는 것으로 정찰대원에게 해석되지만 정작 ‘숲속의 인간’ 사이에는 소통의 문제가 없다. 지구를 탈출한 인류와 소통이 되지 않을 뿐이다.

소설 <바키타>에서 ‘문명의 인간’은 도시에 거주하고 정찰대원과 정상적 언어로 의사 소통이 가능하며 외모도 정찰대원과 비슷하다. 정찰대원의 시선에서는 ‘문명의 인간’이 보편적 인간이고 정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명의 인간’은 ‘바키타’와의 절대적인 힘의 차이를 느끼고, ‘바키타’에 종속된 형태로 삶을 유지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 소설은 정상으로 간주 되는 인간이 사실은 가축과 같은 종속적 위치로 전략했다는 설정을 통해 우열 구분의 모순성과 우열 관계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독자에게 환기시킨다. 보편적 인간은 암묵적으로 남성, 백인, 도시화, 표준 언어 사용, 이성애자, 승인된 정치조직의 완전한 시민으로 가정되어 있다(Braidotti, 2015: 87). 소설 <바키타>에서 ‘문명의 인간’이 보편적 인간의 범주에 속해 있더라도 외계생명체 ‘바키타’의 가축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점은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사회적인 구분이며 모순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소설의 구조는 비장애인이 스스로를 온전하고 주체적이며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사고를 뒤집어 놓는다.

11) ‘별은 그저 창이었고, 이겨야 하는 건 창을 쏜 몸. 총도 뚫지 못하는 두꺼운 가죽과 인간의 운동력으로 잡을 수 없는 속도, 그리고 당해낼 수 없는 힘의 차이, 인류에게 필요한 건 힘이였다.’ <흰 밤과 푸른 달> 13쪽.

‘그것은 번데기 같았다. 부화되기만을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인간들은 처음으로 숨을 죽이고 하늘을 바라봤다. 고요하게, 기원전의 인류는 하늘을 이런 모습으로 숭배했을까.’ <두 하나> 207쪽.

2. 도구와 신체의 새로운 배치 전략

단편 소설 〈이름 없는 몸〉은 천선란 소설의 전복적 사유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준다. 작가는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폐쇄적 마을과 마을 밖의 세계를 구분해 놓고 있다. 외부와 왕래가 쉽지 않은 마을은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만큼 세계 인식의 폭이 좁다. 노인들은 몸에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며 심지어 아이의 태반, 어린아이의 시신에도 관심을 갖는다. 그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면 동물, 어린아이 가릴 것 없다. 여성은 마을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돌아온 남성들은 범죄자이거나 폭력적이다.

이와 달리 주인공 ‘나’가 마을을 떠나 맞이하게 된 세계는 폭력적이지 않다. 무엇보다 마을 밖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 ‘나’가 일하는 우체국의 국장과 직원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나’를 남으로 여기지 않는다. 집을 구하는 일부터 세세한 일들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청춘의 미래를 응원해 준다. 우체국에 새로 온 직원은 ‘나’와 같이 살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간다. 이처럼 마을 밖의 공동체는 폐쇄된 ‘나’의 고향 마을과 달리 이상적으로 그려져 있다.

‘나’는 마을을 벗어나기 전 이런 세계를 항상 꿈꾸었다. 태어나고 자란 마을에서 ‘나’의 유일한 친구인 ‘너’는 가정 폭력의 희생자였으며 ‘나’ 역시 그것을 지켜보며 ‘너’의 아버지 살해와 마을 사람들에게 대한 복수를 항상 다짐했다.

충열을 붙잡아 올렸다. 몸이 기억하는 감각을 믿는 것이다. 팔과 총이 수평이 되었을 때를. 개머리판과 어깨를 맞댄 너는 천천히 움직여 네 팔과 충열이 완전히 수평이 되었을 때를 찾았다. (〈이름 없는 몸〉 169~170쪽)

인용문처럼 두 소녀는 인형을 조준하며 총의 감각을 몸이 기억하도록 사격 연습을 한다. 감각을 통해 두 소녀는 총과 접촉한다. 소녀와 접촉하기 전에 이 마을에서 총은 남성들만의 한정적 도구였다. 하지만 소녀의 몸에 기억된 총은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게 된다. 여성 신체의 감각에 지각된 총은 여성의 도구, 소유물이 된다. 이 소설에서는 남성_총에서 소녀_총으로 뒤바뀌는 양상은 줌비와 대립하는 장면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줌비 때를 마주했을 때 남성 ‘순경’은 몸을 떨며 방아쇠를 제대로 당기지 못한다. 이에 비해 ‘나’는 몸이 기억하는 감각으로 줌비의 머리를 정확히 조준해 사격을 가한다. 총의 소유권은 사용하지 못하는 남성 순경에서 사용 가능한 소녀로 뒤바뀐다.

총과 소녀의 몸이 접촉되기 전 이 마을에서 소녀의 존재는 위태로웠다. ‘너’는 가정 폭력

에 시달려야 했으며 ‘나’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낯선 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아야 했다. 남자들이 ‘폐배감’, ‘성취감’, ‘사명감’(<이름없는 몸>, 194쪽)으로 행하는 폭력에 마을에서 여성과 아이들의 울음 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마을은 아이들이 태어나서도 안 되고 자라서도 안 되는 공간이었다. 아이들에게는 죽음이 항상 따라다녔다. 이런 면에서 ‘나’가 충을 싸 맞춘 것은 좀비였지만 그 의미는 확장된다. 좀비처럼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살아 먹는 노인들, 그러한 노인들이 살고 있는 폐쇄적인 마을,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일어 났다고 세상을 믿어버리는’(<이름없는 몸>, 241쪽)세계를 향해 소녀는 충을 쏘았다.

신체가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신체의 세계 참여 방식이 달라진다(심귀연, 2015: 321). ‘나’가 마을을 벗어나 세계로 나왔을 때 세계를 상징하는 우체국 직원들은 ‘나’를 배려한다. 하지만 그러한 배려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마을은 여전히 그대로 폐쇄적이고 그 안의 마을 사람들은 좀비처럼 서로를 뜯어먹으며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을 세계에 고발하고 또 좀비로 변해버린 정상성을 살해하기 위해 소녀는 ‘충’ 도구와 결속한다. 이때 소녀의 신체는 확장되고 사회에 참여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거듭나게 된다.

천선란은 여러 작품을 통해 군인, 전사, 전투원을 여성 신체로 재현한다.¹²⁾ 새로운 접촉을 통해 신체 강화된 여성 인물은 외계 생명체와의 전투, 지구 밖으로 도주 과정에서 외부적 평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남성/여성의 이분법적 경계를 허문다. 천선란 소설의 여성이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남성 폭력의 희생자가 되지 않으며 성 역할의 테두리에 갇혀 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포스트휴먼적인 주체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기 때문이다.

기존 세계를 거부하는 소녀, 여성의 반란 및 전복적 행위는 장애의 차별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소설 <천개의 파랑>에서 ‘은혜’는 언제나 비장애인에게 의해 삭제되었다. 그녀가 비장애인들과 함께 공존할 자리는 없었다. 일반적으로 장애가 있는 신체는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진다. 이때 도움을 받은 장애인은 비장애인에게 선행한 웃음으로

¹²⁾ 천선란은 장편 <무너진 다리>에서 여전사 ‘수잔’이라는 인물을 통해 강인함과 문제 해결 능력, 종간의 유연한 관계 맺기를 실험했다. 단편소설에서 여전사는 주체적으로 묘사된다. 소설 <흰 밤과 푸른달>의 ‘명월’은 늑대 유전자와 결합된 신체 강화 인간이자 외계생명체와 대적하는 전투원이다. ‘명월’은 학창시절 학교에서 남자아이들을 싸우고 이겼는데 그때마다 ‘나는 이게 지키는 수단이야’라는 말을 했다. 소설 <부리가 하늘로 자라는 나무>에서도 외계생명체와 싸우는 군인인 ‘이인’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타인의 평가를 받지 않고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곳’이라 파병을 지원했다.

보답해야만 한다. 소설에서 휠체어를 무작정 끌어주는 사람들에게 ‘은혜’는 화를 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서도 안 되었다. 배려를 수긍하는 ‘은혜’는 선함으로 갈등 상황에 놓이지 않지만 거부하는 ‘은혜’는 비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을 유발하기에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을 그녀는 체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걸 선의라고 생각했다. 은혜가 ‘알아요’라고 차갑게 말하거나 대꾸하지 않으면 자신의 선의를 무시한 못된 인간이 된다. 그럼 곧장 인상을 찌푸리거나 대놓고 혀를 차는 경우도 있었다. 웃어야 한다. 사람들이 은혜에게 바라는 건 어떤 불굴의 상황도 웃음으로 이겨내는 긍정의 힘이었다. (<천개의 파랑> 178쪽)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수용하는 방식은 비장애 중심적이다. 장애를 지닌 존재를 단순화시켜 대상화할 경우 장애 신체가 개별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수성은 무마되고 장애 신체는 ‘도움’과 연결되어 항상 피동적이게 된다. ‘은혜’가 위험하지만 인도가 아닌 차도로 휠체어를 끌고 다니는 이유는 인도가 잘못 설계되었다고 생각해서 내린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 때문이다. 하지만 비장애인은 평면적으로 장애를 인지하기 때문에 ‘은혜’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소설에서 인도와 차도는 비장애인의 기준에 의해 설계되고 배치되었다. 비장애 신체를 중심으로 배치된 도로에서 ‘은혜’는 보호받아야만 했고 그로 인해 실존적 자유를 상실해야 했다(심귀연, 2015: 320).¹³⁾ ‘은혜’는 비장애인의 평면적이고 폭력적인 선의를 무작정 받아들여만 한다. 이처럼 비장애는 장애가 자신들의 경계 내부에서 순응적일 때만 장애를 인정하고 있다. ‘은혜’가 장애를 느끼는 것은 걸을 수 없는 다리 때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차이를 만들고 그것을 기준으로 ‘은혜’를 포착하고 구별하기 때문이다. 비장애인의 권력이 ‘은혜’의 신체에 작동하기에 ‘은혜’는 시선이 느껴지지 않은 곳으로 숨기를 바랐던 것이다.

숨어버린 집 내부에서도 ‘은혜’가 불편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홈스쿨링을 결정하고 난 후 엄마는 주말에 ‘연재’로 하여금 ‘은혜’ 옆에 있기를 당부했다. 보호의 명목이지만 일방적인 비장애인의 관점이기엔 ‘은혜’는 여전히 결핍된 존재로 간주 되는 현상에 불편함을 느낀다. 결국 가족 내외부의 비장애 신체 자체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은혜’가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장애 신체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경주마, 로봇 기수와와의 만남은 ‘은혜’

13) 장애 신체는 지각하지 못하기에 결손, 결핍,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 비장애인은 장애를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하여 장애에 보완, 도움을 통해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실존적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사물화하는 것이다.

의 장애 신체가 변화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은혜’는 ‘투데이’의 폐기를 미루고자 다음과 같이 마음 먹는다.

*지금이야말로 잠적을 끝낼 시기이며, 세상에 한 방 먹일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오랜만에 일기장을 펼쳐 은혜는 이렇게 적었다. 나는 강하다. 나는, 지킬 수 있
다.(<천개의 파랑>190쪽)*

장애 신체를 지닌 다른 개체와 만나기 전 도망치거나 숨는 등 혼자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은혜’였다. 그런 그녀를 안쓰러워하는 가족과의 관계도 매끄럽지 못했다. ‘은혜’는 ‘투데이’의 장애가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을 알게 된다. 더 빨리 달리기 위해 기수의 무게를 줄였으며 결과적으로 경주마는 더 빨리 달리게 되어 다리에 무리가 가해진 사실을 알게 된다. ‘은혜’는 신체적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외부의 문제라는 것, 따라서 사회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경주마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마방 안에서 관리받고 통제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투데이’와 신체장애로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받는 대신 그것에 항상 감사해야 하며 웃음을 지어 보여야 했던 ‘은혜’는 비독립적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은혜’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경마장이 운영되는 비리를 파헤침으로써 스스로 세상의 편견과 폭력에 저항하며 독립하게 된다. 소설에서 ‘투데이’를 살리기 위한 ‘은혜’는 어느 누구의 감시를 받지도 통제를 받지도 않는다. 비장애인을 특권화하는 위계적 관계에서 벗어나 ‘은혜’의 신체가 주체적으로 자유로워지게 되는 계기는 한 가지 더 있다. ‘은혜’의 신체가 휠체어와 접속되었기 때문이다.

*‘리어카를 끌고 가는 연재와 그 옆에서 휠체어를 움직이는 은혜의 뒷모습은 마치
전투에 나가는 전사 같기도 했다.’(<천개의 파랑> 243쪽)*

인용문처럼 ‘은혜’는 인간 복희(수의사)의 눈에 ‘전사’로 그려진다. 로봇 ‘콜리’가 ‘은혜’의 휠체어를 관찰하며 내린 결론인 ‘능수능란’이라는 표현과 유사하다. 이렇게 휠체어는 ‘은혜’의 신체를 확장시켜 주면서 인간의 눈과 비인간의 눈이 뒤섞여 전복적 행위를 이끌어 내는 도구이다. ‘은혜’의 휠체어에서 일반적 장애에 낙인된 서사는 사라지고 전사라는 개별적인 의미가 생성된다. 이때 ‘은혜’는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욕망할 수 있다. 사랑에 대한 감정, 경주마를 살리기 위해 세상과 싸워보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독립적인 주체 ‘은혜’는 탄생한다.

장애 신체의 문제는 장애인의 권리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천선란의 소설에는 취약성을 공유하는 인간, 비인간은 종간의 긍정적 유대를 통해 포스트휴먼 주체로 거듭나게 된다. 그럼으로써 정상이라는 이름으로 구분된 기준을 무너뜨려 경계 해체의 전복적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IV. 나오며 : 포스트휴먼의 정상성 해체

지금까지 천선란 소설에 재현된 장애와 그 의미에 대해 살펴 보았다. 기술 발전에 따른 포스트휴먼적인 인간 변화는 인간과 장애 신체에 대한 기존의 사유에 변화를 가한다. SF 소설은 미래 사회의 모습을 예측, 재현하고 있는데 천선란 역시 환경, 우주, 인간 비인간 공존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보여왔다. 천선란의 단편 소설집 〈어떤 물질의 사랑〉과 〈노랜드〉에서 공통적으로 장애는 타자화되거나 경계 밖에 있는 존재들과 함께 그려진다. 작가는 장애 신체를 포함하여 외계생명체, 인공지능 및 로봇 개체, 좀비, 신체 강화 인간, 복제 인간 등 비인간 개체에 가해지는 구분과 폭력적 시선을 포착해 낸다. 천선란의 소설은 근대 이성의 이분법적 기준에 작동하는 건강한 신체 및 정상성이 과연 건강하고 정상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한다. 그녀의 소설 속 등장인물들은 경계 내부에서 겪는 차별화된 폭력성을 견뎌야 하고 차별의 모순성을 지적하며 경계 밖을 지향한다. 동시에 타자화된 다양한 개체들은 서로의 취약성으로 이끌려 연대하여 새롭고 역동적인 행동을 취한다. 이를 통해 작가의 문학적 지향점이 타자화된 존재들의 주체성 회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간과 비인간의 흐릿해진 경계의 틈에 서 있는 천선란 소설의 개체들은 그 경계의 무의미함을 증명하며 경계 넘기를 감행한다. 책의 경계, 마을의 경계, 지구의 경계, 신체의 경계를 넘어서면서 정상성의 모순과 허약함을 들추어내고 정상과 비정상의 위계적 구조를 전복시킨다.

천선란 소설의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이 누려왔던 우월적 지위와 특권을 내려놓게 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대표적으로 환경문제, 인종 갈등, 빈부격차, 장애의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특히 천선란 소설에서 포스트휴먼과 결합된 장애는 장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 비장애의 기준에서 인식되는 장애는 보호, 수혜의 대상이자 수정, 관리의 대상으로 한정된다.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넘어서는 장애는 대상화된 자신의 신체를 새롭게 바라보며 장애인의 욕망을 세계에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장애 신체의 욕망에 대해 비장애 신체는 불편해하고 편견을 지니고 있다. 비장애 신체는

자신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한정한다. 장애 신체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도움은 장애 신체의 욕망과 의지와는 무관하기에 폭력적이다. 천선란은 이러한 비장애 신체의 행동이 지니고 있는 위계적이고 폭력적인 점을 간과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상성이 상대적으로 정상이라는 것, 정상성이 실제로는 모순과 허약함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소설을 통해 재현하고 있다. 그녀의 소설에서 외계 생명체를 비롯한 이질적 존재들은 상대적으로 정상으로 간주되는 개체보다 우월하게 그려져 있다. 이렇게 천선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외계 생명체는 인간과 뒤섞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인간 신체의 정상성을 전복하는 의미도 있다. 나아가 천선란은 비정상 개체가 스스로 전복적 의지를 드러내며 주체로 재탄생하는 서사를 구축한다. 신체와 도구의 배치를 새롭게 하여 소녀를 비롯한 여성 신체의 강인함을 부각시키거나 전사로 그려낸다. 장애를 보완하는 교정 도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장애 신체를 사회에 당당히 맞서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신체로 변화시킨다.

포스트휴먼이 된다는 것은 인간과 비인간이 갈등 관계에 놓인다는 의미가 아니다. 세계에 대해 무관심해지거나 탈인간화된다는 의미 역시 아니다.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과 연대를 통해 확대된 공동체 의식을 실천하는 새로운 방식을 의미한다. 천선란 소설의 의미는 첫째, 한국 SF 소설의 성장 속에서 현재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의 근원으로 이분법적인 경계 구분 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둘째, 다양한 개체들이 뒤섞인 수평적 관계가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을 문학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의식이 실천될 수 있는 미래 사회에 적합한 존재가 포스트휴먼, 혹은 포스트휴먼적 사고를 지향하는 개체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천선란 소설의 특징이자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미현 (2020).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여성과 테크노페미니즘-윤이형과 김초엽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9, 10-35.
- 김윤정 (2021). 김초엽 소설에 나타난 포스트휴머니즘과 장애. **여성문학연구**, 54, 77-107.
- 김윤정 (2022). 여성 SF문학에 나타난 장애와 포스트휴머니즘의 불구성. **이화어문논집**, 58, 83-119.
- 김윤정 (2023). 한국 여성 SF문학에 나타난 재야생화. **우리문학연구**, 79, 203-234.
- 김윤희, 서세림 (2024). 정보라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포스트휴먼 인공지능의 관계 맺기. **다문화 콘텐츠연구**, 47, 93-127.
- 박예은, 조미라 (2019). 포스트휴먼 시대의 여성 주체성. **철학탐구** 56, 153-179.
- 박인성 (2020). 한국 SF 문학의 시공간 및 초공간 활용 양상 연구-배명훈, 김초엽, 김보영의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 연구**, 77, 245-277.
- 서승희 (2019). 포스트휴먼 시대의 여성, 과학, 서사: 한국 여성 사이언스픽션의 포스트휴먼 표상 분석. **현대문학이론연구**, 77, 130-153.
- 신상규 (2014).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 서울: 아카넷.
- 심귀연 (2015). 신체와 장애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메를로 폰티와 푸코를 중심으로-. **철학논총**, 82, 305-324.
- 심귀연, 김문정, 김창식 (2024). 디지털 기술시대의 몸과 장애의 상황. **철학연구**, 171, 215-238.
- 연남경 (2020). 여성 SF의 시공간과 포스트휴먼적 전망-윤이형, 김초엽, 김보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79, 105-139.
- 우미영 (2014). 한국 현대소설의 '과학'과 철학적·소설적 질문-김보영과 배명훈의 SF를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55, 121-141.
- 이양숙 (2020). 한국소설의 비인간 전환과 탈인간중심주의. **한국문학과예술**, 34, 227-259.
- 이지연 (2023). 위기에 대한 사유와 SF의 대안적 상상력. **이화어문논집**, 61, 155-180.
- 임지연 (2023). 천선란의 SF에 나타난 '객관적 현상학'과 생태적 사유-천선란의 『나인』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88, 113-137.
- 진선영 (2022). 기술철학적 관점에서 본 SF 성장소설과 인간_비인간의 양상불-천선란의 〈천개의 파랑〉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87, 541-567.

- 진설아 (2022). 경계를 해체하는 한국 SF-김보영, 김초엽, 천선란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21(3), 75-95.
- 추혜진 (2020). SF 서사에서 나타나는 포스트휴먼과 새로운 주체로서의 가능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2), 95-102.
- 천선란 (2020). 어떤 물질의 사랑. 서울: 아작.
- 천선란 (2020). 천개의 파랑. 서울: 허블.
- 천선란 (2022). 노랜드. 서울: 한겨레출판.
- 허윤 (2021). 일할 수 없는 몸을 전유하는 페미니스트 SF의 상상력-김보영 소설을 중심으로 -. **여성문학연구**, 52, 10-35.
- Asimov, I. (2008). 아이로봇(김옥수 역). 서울: (주)우리교육.
- Braidotti, R. (2015). 포스트휴먼(이경란 역). 파주: 아카넷.
- Guattari, P., & Deleuze, G. (2001). 천개의 고원(김재인 역). 서울: 새물결.
- Haraway, D. (2019). 해러웨이 선언문(황희선 역). 서울: 책세상.
- Russ, J. (2020). SF는 어떻게 여자들의 놀이터가 되었나(나현영 역). 옥천: 포도밭출판사.

논문 투고 : 2024.10.13.	논문 심사 : 2024.11.20.	게재 확정 : 2024.11.29.
---------------------	---------------------	---------------------

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and Representation of Disability in Korean SF Novels : Focusing on Cheon Seon-ran's Novels

ChangMin Yoo*

The science fiction novels by Cheon Seon-ran, which are the subject of this study, discuss environmental issues, desires and imaginations for the universe, and the coexistence of humans and non-humans against the backdrop of a future society. Cheon Seon-ran's works are based on the attitude of critical humanism. She breaks down the boundaries between disability and non-disability and focuses on the subjectivity of disabled characters. Through this, she renews the perception of disability.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bled bodies and post-humans, focusing on Cheon Seon-ran's story. Many beings outside the boundary appear in Cheon Seon-ran's novels. Post-human are portrayed as superior to ordinary humans. Cheon Seon-ran mixes post-human entities with human beings who have been marginalized for various reasons, including gender and disability. Through this, she captures the process of reproduction of discrimination and violence that is transferred to marginalized beings. Women and disabled people who connect with and are in solidarity with posthumans question the discriminatory and violent social structures and overcome the social prejudices imposed on them.

Keywords: disability, women, non-human, post-human, otherization,
coexistence and symbiosis, science fiction

*Professor, Division of Literature, Dong-eui University

장애의재해석 제5권 제2호

2024 Vol. 5, No. 2, 129 - 160

지적장애인의 자기표현을 위한 미술치료 연구 동향 분석 : 2010 - 2024 국내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조영숙*, 정진자**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 장애인의 자기표현을 위한 미술치료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학위논문 31편과 학술지 4편, 총 35편을 발행 정보,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순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행 정보 (발행 연도, 발행 기관, 전공별) 분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한 발행 추세를 보였으며,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된 연도는 2016년과 2020년이였다. 둘째, 연구 대상 (성별, 발달 단계, 장애 등급) 분석 결과, 여성 대상자보다 남성 대상자가 많았다. 셋째, 연구방법 (구조 분석, 분석 기준, 검사 도구, 프로그램 목표분석, 매체 분류, 프로그램 분류) 분석 기준에서는 단일 집단 사전-사후 검사 설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지적 장애인의 자기 표현력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를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임상 현장에서 프로그램의 활용에 필요한 방향과 근거를 제시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지적장애, 자기표현, 미술치료, 국내 연구 동향

* 우석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과 박사과정

** 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규범을 학습하고, 이 과정에서 자아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한다. 인간의 삶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완성되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개인은 사회의 규범과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구체화한다. 타인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은 개인이 사회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위치를 확립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는 개인의 생각, 감정, 의견 등을 명확하고 솔직하게 전달하는 능력과 직결된다. 특히 이러한 자기표현 능력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개인의 사회적 적응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다(이한술, 2022). 미술치료는 심리치료의 한 방법으로 미술 활동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 심리적·정서적 갈등을 완화시켜 주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정여주, 2003). 국내 미술치료는 1991년에 한국미술치료학회가 설립되고, 1994년부터 「미술치료연구」가 발간된 이후로 크게 성장해왔으며, 국외와 마찬가지로 우울, 불안, 문제행동,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김도희, 2017). 미술은 심상의 표현으로 창조성을 가진 에너지를 유발시킨다. 이러한 미술치료의 장점과 다른 예술 형태 및 매체와의 결합을 통해 대상에 따라 증상과 상황에 감정과 감각을 통합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 통합 미술치료이다(최미경, 2010). Naumberg는 미술치료에서 미술을 통한 상징성과 상호작용을 중요한 치료적 요인으로 강조하였다. 미술치료는 일반적인 언어적 상담과는 달리 풍부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특성이 있다(Malchiodi, 2008). 미술치료는 창작을 통한 내면세계의 현실화 과정 속에서 개인의 갈등적인 심리 상태나 정서 상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관련된 갈등 관계에 있는 심리·정서적인 요인을 창작을 통해 조화롭게 해결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개인 내면의 심리적 갈등을 완화시키거나 병리적인 정신구조를 재구성하게 해준다(Malchiodi, 2001). 미술 매체를 활용해 시각화를 통한 상징적 표현이 가능하며, 미술치료는 심리적 이론을 기본 틀로 하고 여기에 더해 미술 활동이 첨부된 새로운 심리치료의 한 분야이다.

이러한 미술치료는 미술을 통해 자신의 경험들이나 내적 상황을 표출하고,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해 감정을 작품에 표출하게 하여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고, 마지막에는 이를 승화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적 치료라고 할 수 있다(이상설, 2012). 미술치료를 통한 자기표현은 비

언어적 형태의 의사소통으로 언어로는 접근할 수 없는 생각과 감정의 표출구가 되며, 결과적으로 미술치료에서의 미술 활동이 가지는 가치는 무의식과 표출되지 않는 사고와 감정을 표현하는 자기표현의 길을 열어준다는 점이다. 이렇듯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미술 활동에 의한 시각적 행동과 상징적 형태로 전달함으로써 미술적 자기표현의 향상을 통해 자기표현 및 언어표현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 미술이라는 매체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때 내담자에게 맞는 매체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Lowenfeld, 1987). 미술치료에서 자기표현은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미술 활동은 이러한 비언어적 자기표현을 증진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미술치료가 지적장애인의 자기표현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이미 입증되었다(곽예지, 2016). 미술치료는 미술 매체를 통해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게 해주며, 그림은 언어적 표현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미술치료 작품을 완성해 가며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회복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임효영, 2023). 미술치료는 자기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아동, 청소년, 성인, 그리고 심리적 혼란을 겪는 노인에게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술치료는 미술 활동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자기 치유를 돕고, 현실 인식을 증진하며, 문제행동을 감소시켜 현실 적응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성인 지적장애인들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인지적 결함으로 인해 오는 불안감 등으로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며, 언어적 표현의 한계로 인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경희, 2013). 지적장애인은 언어적 표현의 제약과 기능의 미숙함으로 인해 자신을 적절히 표현하고 의미 있는 사회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에게 자기표현을 돕고 사회성 향상과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심리지원으로 미술치료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Rubin(2001/2012)은 지적장애인의 경우, 상황이나 연령에 적합하지 않게 감정을 표출한다거나 그림을 그리는 상황에서도 미숙함을 보이지만, 미술치료 안에서는 분노, 충동적인 반응, 망상, 자극적 행동 등 무의식적 양상에 대해 부정적이고 부적절한 정서와 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송주혜, 2012). 성인 지적장애인은 지적 아동기·청소년기에 비해 사회생활과 다양한 환경에 넓게 노출되어 있지만, 타인과의 의미 있는 사회관계 형성이 어렵고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편히 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박세미, 2017). 미술치료는 지적장애인의 정서와 욕구를 표현하고,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구로 기능한다(김선정, 2009; 지한내, 2011). 미술치료는 감정, 생각, 행동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심리치료의 한 형태로, 언어적 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이 비언어적으로 감정과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자기표현에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지적장애인에게 여실히 드러난다(도은록, 2009). 어떤 사람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언어뿐

만 아니라 몸짓 언어, 눈맞춤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회적 기술은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발달하지만, 지적장애 청소년에게는 자연스러운 발달이 어렵다(이가영, 2014). 미술 치료가 정신지체 아동에게 비언어적인 소통 방식으로 미술 자기표현 향상과 언어에 도움을 주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지적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미숙(2003)의 연구에서는 미술을 통해 자기표현의 확장과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하였고, 성인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집단에서도 집단 미술치료를 통한 미술 표현 활동이 자기표현력과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하였다(윤명경, 2005). 선행연구들은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미술치료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있으며, 지적장애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곽예지, 2016). 교육 현장에서는 치료 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이 학교 적응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자아 개념을 형성하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용치료, 연극치료, 놀이치료, 운동치료, 원예치료 등이 있다. 이러한 심리치료는 정서적인 면에 접근하고, 활동을 통해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어서 장애 아동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며, 자기를 표현하고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곽예지, 2016).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지적장애인의 특성과 그들이 처한 상황을 깊이 고려한 치료적 개입이 효과적인 자기표현 촉진에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및 자기표현 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프로그램 설계 및 실행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향후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 분야에서의 실증적 연구를 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장애인의 자기표현을 위한 미술치료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데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발표된 지적장애인의 미술치료와 관련된 자기표현 연구 자료에서 발행 정보(발행 연도, 발행 기관, 전공별)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이들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지적장애인의 성별, 발달 단계, 장애 등급은 어떠한가?

셋째, 지적장애인의 미술치료와 자기표현 관련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연구 방법(구조 분석, 분석 기준, 검사 도구, 프로그램 목표 분석, 매체 분류, 프로그램 분류) 동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기준

지적장애 미술치료 자기표현 관련 연구들은 RISS 검색 사이트에 처음 등록된 박주연과 백은희(1999)의 연구를 시점으로, (임지향, 조기연, 2005; 임지향, 2008) 등의 순으로 발표되었으며, 이후 매년 꾸준히 한 편씩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적장애 미술치료 자기표현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의 자기표현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과 관련된 최근 14년간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발표된 지적장애 미술치료 관련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총 34편의 연구 중 학위논문이 31편, 학술지 논문이 4편 수집되었다. 기준은 <표 1>과 같이 발행 정보, 연구 대상, 연구 방법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석 기준을 통해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분야의 학술적 기여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한다. 이들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과 방법론을 참조하여 지적장애인의 미술치료와 자기표현에 관한 연구를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설정된 분석 항목과 분석 기준에 따라 분류한 내용은 미술치료 경험이 있는 특수교육과 교수 1인의 검토와 동향 연구 전문가 1인의 자문을 거쳐 협의된 항목만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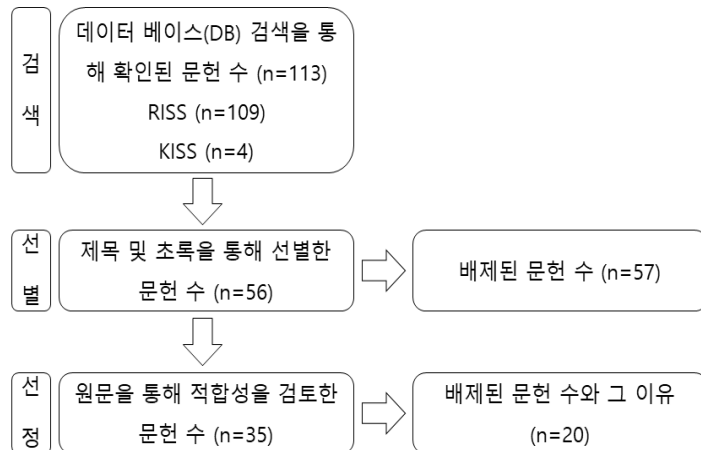
<표 1> 분석 기준

분석항목	세부분석내용
연구발행정보	발행연도, 발행기관, 연구자 전공
연구대상	성별, 발달단계, 장애등급
연구방법	구조분석, 분석기준, 검사 도구, 프로그램목표분석, 매체분류, 프로그램 분류)

1) 자료수집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http://www.riss.kr>)와 같은 논문 검색 사이트를 활용하였다. 먼저 ‘미술치료’를 주제로 검색한 후, 결과 내 재검색 및 상세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지적장애’, ‘미술치료’, ‘자기표현’ 등의 주제로 1차 분석 대상 논문을 선정하였다. 특히 ‘지적장애’를 주제로 검색했을 때는 자기효능감, 사회성, 정서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검색되었으므로, 각 논문

의 초록과 원문을 검토하여 자기표현과 관련된 논문들만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논문에 대한 자료 수집은 [그림 1]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림 1] 문헌수집절차

2) 연구주제의 분석기준

본 연구에서는 김도희와 김혁진(2022), 김이현 외(2022), 김혜진(2023)의 분석 틀을 사용하였으며, 지적장애인의 미술치료와 자기표현에 관한 학술적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학술정보(KRISS)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요 검색어로는 ‘정신지체’, ‘지적장애’, ‘미술치료’, ‘자기표현’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련된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논문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첫째, 연구의 시기적 변화와 학문적 분포 분석에서는 논문의 발행 정보(발행 연도, 발행 기관, 전공별) 동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의 시기적 변화와 기관별, 학문적 분포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특정 시기나 기관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었는지, 또는 특정 전공 분야에서 어떠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는지를 파악하였다. 이는 지적장애인의 미술치료와 자기표현 연구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학문적 접근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변화해왔는지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은 지적장애인의 성별, 발달 단계, 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각 연구가 대상으로 삼은 지적장애인의 특성과 대표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연구에서 다른 대상의 특성이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셋째, 연구 방법 분석은 구조 분석, 분석 기준, 검사 도구, 프로그램 목표 분석, 매체 분류, 프로그램 분류 등의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각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론적 접근을 상세히 검토하고, 연구 설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연구 설계의 타당성은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일반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신뢰성은 연구 결과의 재현 가능성과 관련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각 연구의 방법론적 강점과 한계를 파악하고, 향후 연구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분석은 향후 연구와 임상 적용에서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다 명확하고 성과 중심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적장애인의 미술치료와 자기표현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연구 및 임상 적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동향 분석은 미술치료의 이론적 발전뿐만 아니라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지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Ⅲ. 연구결과

1. 발행정보별 동향

1) 발행연도별 현황

지적장애 미술치료에서 자기표현을 다룬 연구의 연도별 현황은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표 2〉 연도별 현황

구분	년도	수	비율	구분	수	비율
학위논문	2010	2	5.7%	학술지	1	2.9%
	2011	2	5.7%			
	2012	0				
	2013	5	14.3%			

구분	년도	수	비율	구분	수	비율
	2014	1	2.9%			
	2015	2	5.7%			
	2016	2	5.7%			
	2017	2	5.7%			
	2018	4	11.4%		1	2.9%
	2019	3	8.6%			
	2020	5	14.3%			
	2021	0			1	2.9%
	2022	0			1	2.9%
	2023	1	2.9%			
	2024	2	5.7%			
	합계	31	88.6%	합계	4	11.4%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4년 동안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 전체적으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으나, 2012년, 2021년, 2022년에는 관련 논문이 발표되지 않았다.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2편(5.7%)의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2013년에는 5편(14.3%)으로 연구 발표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후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매년 1~4편의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었고, 특히 2018년에는 4편(11.4%), 2019년에는 3편(8.6%)이 발표되어 연구의 관심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0년에는 2013년과 동일한 5편(14.3%)의 연구가 발표되어 다시 한 번 연구가 활발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구 발표가 없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편(2.9%), 2편(5.7%)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자료는 지적장애 미술치료 자기표현 분야에서 연구의 지속성과 주기적 변동을 보여준다.

특히, 특정 연도에 집중된 연구 활동과 그 이후의 감소는 외부적 요인(예: 학계의 관심 변화, 연구 자원의 변화 등)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적장애 미술치료에서 자기표현을 다룬 연구는 일정한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발행기관별 현황

지적장애인 미술치료 자기표현 분석 연구 자료의 발행 기관 현황은 〈표 3〉과 같다.

다음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 자료의 발행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학위논문과 학

술논문에서 다양한 기관들이 관련 연구를 발행해 왔다. 학위논문 발행 기관 중에서는 대구대학교,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가 각각 4편(11.4%)으로 가장 많은 연구를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에는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영남대학교, 우석대학교,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 대전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가 각각 2편(5.7%)의 연구를 발행하였다. 그 외에도 한일장신대학교, 동의대학교, 한서대학교, 원광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평택대학교가 각각 1편(2.9%)의 연구를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발행기관별 현황

구분	분류	수	비율
학위논문 출처	대구대학교	4	11.4%
	단국대학교	4	11.4%
	동국대학교	4	11.4%
	영남대학교	2	5.7%
	우석대학교	2	5.7%
	한양대학교	2	5.7%
	건국대학교	2	5.7%
	대전대학교	2	5.7%
	광주여자대학교	2	5.7%
	한일장신대학교	1	2.9%
	동의대학교	1	2.9%
	한서대학교	1	2.9%
	원광대학교	1	2.9%
	추계예술대학교	1	2.9%
	동덕여자대학교	1	2.9%
학술지 출처	평택대학교	1	2.9%
	정서행동장애연구	2	5.7%
	임상미술심리연구	1	2.9%
	미술치료연구	1	2.9%
합계		35	100%

3) 전공별 현황

지적장애 미술치료에서 자기표현을 다룬 연구의 연구자 전공 현황은 〈표 4〉에 요약되어 있다. 다음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자들의 전공은 주로 미술치료학과, 예술치료학과, 특수교육학과, 미술상담학과 등 다양한 전공 분야에 걸쳐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

술치료학과 전공의 연구자들이 11편(31.4%)으로 가장 많은 연구를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예술치료학과가 7편(20.0%)으로 두 번째로 많은 연구를 발표하였으며, 특수교육 학과가 4편(11.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미술상담학과와 교육학과가 각각 3편(8.6%)씩 연구를 발표하였으며, 통합예술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상담복지학과에서 각각 1편(2.9%)씩 연구가 발표되었다.

학술논문의 경우, 정서행동장애연구에서 2편(5.7%), 임상미술연구와 미술치료연구에서 각각 1편(2.9%)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표 4〉 연구자의 전공별 현황

구분	학과	수	비율
전공	미술치료학과	11	31.4%
	예술치료학과	7	20.0%
	특수교육학과	4	11.4%
	미술상담학과	3	8.6%
	교육학과	3	8.6%
	통합예술학과	1	2.9%
	문화예술경영학과	1	2.9%
	상담복지학과	1	2.9%
	정서행동장애연구	2	5.7%
학술지	임상미술연구	1	2.9%
	미술치료연구	1	2.9%
합계		35	100%

2. 연구대상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지적장애 미술치료 자기표현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의 성별, 발달 단계, 장애 등급에 따른 분석 결과는 〈표 5〉에 요약되어 있다.

〈표 5〉 연구대상의 성별, 발달 단계, 장애 등급 현황

구분	세부내용	분류	수	비율	합계
연구대상	성별	남성	69	53.9%	100%
		여성	59	46.1%	
	발달단계	유아	3	2.3%	100%
		아동	7	5.5%	
		청소년	44	34.4%	
		성인	74	57.8%	
	장애등급	1급	22	17.2%	100%
		2급	54	42.2%	
		3급	52	40.6%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 대상의 성별을 분석한 결과, 전체 128명 중 남성이 69명(53.9%)으로, 여성이 59명(46.1%)보다 10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의 발달 단계별 분포를 살펴보면, 유아는 3명(2.3%), 아동은 7명(5.5%), 청소년은 44명(34.4%), 성인은 74명(57.8%)으로, 성인 대상이 전체 연구 대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연구 대상의 지적장애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현재는 폐지된 장애 등급 기준을 사용한 결과, 1급 장애인이 22명(17.2%), 2급 장애인이 54명(42.2%), 3급 장애인이 52명(40.6%)으로 나타났다. 이 중 2급 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3. 연구방법 분석기준

1) 연구 구조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미술치료에서 자기표현을 다룬 선행 연구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지적장애 미술치료 자기표현 연구의 구조분석

범주	구분	내용					
구조분석	총 회기 수	10~15	16~20	21~25	26~35	36이상	미표기
		12	11	5	3	4	0

범주	구분	내용					
	주 회기 수	1	1~2	2	2~3	3	미표기
		14	2	12	2	2	3
	회기별 시간	40	50	60	80	90이상	미표기
		2	10	14	1	5	3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적장애 미술치료에서 사용된 치료 회기 수, 주당 회기 수, 회기별 소요 시간 등은 연구마다 다양하게 나타났다. 치료 회기 수는 연구에 따라 최소 10회에서 최대 36회 이상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치료 회기 수는 10~15, 16~20, 21~25, 26~35, 36회기 이상으로 나타났다. 주당 회기 수는 주 1회, 주 1~2회, 주 2회, 주 2~3회, 주 3회도 다양하게 설정되었으며, 이는 연구마다 치료의 집중도와 지속성을 다르게 설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회기별 소요 시간은 40분, 50분, 60분, 80분, 90분 이상으로 구분되었으며, 이 중 60분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 분석기준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미술치료 자기표현에 관한 실험 연구 사례 35편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실험 연구 유형 분석

구분	수	비율
단일 사례 연구	15	42.9%
단일 집단 사례 연구	18	51.4%
동질 통제 집단 설계	2	5.7%
합계	35	100%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 연구의 설계 유형은 크게 단일 사례 연구, 단일 집단 사례 연구, 동질 통제 집단 설계로 구분되었다.

구체적으로, 단일 사례 연구(design)는 15편(42.9%)으로 나타났으며, 단일 집단 사례 연구(design)는 18편(51.4%)으로, 전체 연구 중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 자기표현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다양한 객관적, 투사적 검사 도구들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다음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객관적 검사 도구는 총 54편(59.3%)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객관적 검사 도구는 다음과 같다. 자기표현 평정척도(18회, 19.8%), 미술적 자기표현 능력 평가(8회, 8.8%), 사회성 기술 평정척도(4회, 4.4%),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4회, 4.4%), 자기표현 척도 체크리스트(4회, 4.4%), 또래 관계 척도(2회, 2.2%), 사회성 기초기능 척도(2회, 2.2%), 언어적 자기표현 능력 평가(2회, 2.2%), K-CDI 아동발달 검사(2회, 2.2%), 대인관계 검사(1회, 1.1%), 성인 행동평가 척도(1회, 1.1%), 웨슬러 지능검사(K-WAIS)(1회, 1.1%), 이화-자폐 아동행동발달 평가(1회, 1.1%), 의사소통 유형 척도(1회, 1.1%), 자기표현 향상의 5가지 체크리스트(4회, 4.4%), 한국판 성인 행동평가(1회, 1.1%), MMPI-A(다면적 인성검사-청소년용)(1회, 1.1%) 등이다. 다음으로, 투사적 검사 도구는 총 23회 사용되었다. 주요 투사적 검사 도구는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검사(K-HTP)(12회, 13.2%), 동적 학교생활화(KSD)(4회, 4.4%), 집-나무-사람 그림검사(HTP)(3회, 3.3%), 동적 가족화 검사(KFD)(2회, 2.2%), 동물 가족화 검사(1회, 1.1%), 자유화(1회, 1.1%) 등이다. 투사적 검사 도구들은 피험자의 무의식적인 감정과 태도를 드러내는 데 유용하며, 특히 K-HTP와 KSD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기타 검사 도구로는 행동 관찰 평가, 직접 관찰(회기당 발생 빈도, 고립 행동 관찰표, 자기표현 행동 관찰표), 언어 이해력 4컷 동화 카드, 언어 표현력 5컷 그림 카드 등이 있으며, 총 14회(15.4%)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연구 측정 도구 현황

분류	연구도구	개수	비율
객관적 도구	자기표현평정척도	18	19.8%
	미술적자기표현능력평가	8	8.8%
	사회성기술평정척도	4	4.4%
	아동·청소년행동평가척도(K-CBCL)	4	4.4%
	자기표현척도체크리스트	4	4.4%
	또래관계척도	2	2.2%
	사회성기초기능척도	2	2.2%

분류	연구도구	개수	비율
	언어적자기표현능력평가	2	2.2%
	K-CDI아동발달검사	2	2.2%
	대인관계검사	1	1.1%
	성인행동평가척도	1	1.1%
	웍슬러지능검사(K-WAIS)	1	1.1%
	이화-자폐아동행동발달평가	1	1.1%
	의사소통유형척도	1	1.1%
	자기표현향상의 5가지 체크리스트	1	1.1%
	한국판성인행동평가척도	1	1.1%
	MMPI-A(다면적 인성검사-청소년용)	1	1.1%
소계		54	59.3%
투사적 도구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검사(K-HTP)	12	13.2%
	동적 학교생활화(KSD)	4	4.4%
	집-나무-사람 그림검사(HTP)	3	3.3%
	동적 가족화검사(KFD)	2	2.2%
	동물 가족화검사	1	1.1%
	자유화	1	1.1%
소계		23	25.3%
기타	연구자에 의한 도구 (행동 관찰 평가, 직접 관찰, 언어 이해력 4컷 동화 카드, 언어 표현력 5컷 그림 카드 등)	14	15.4%
합계		91	100%

4) 프로그램 목표분석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미술치료에서 자기표현을 촉진하기 위한 미술치료 중재 목표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9〉 프로그램 목표분석

구분	단어	초기	중기	후기	합계
흥미유발	자기소개	3	-	-	3
	흥미	13	3	-	16
소계		16	3	-	19
관계형성	관계	-	5	7	12
	근육	-	2	-	2

구분	단어	초기	중기	후기	합계
	동기유발	-	2	-	2
	동기증진	-	-	1	1
	라포	11	-	-	11
	사회성	-	-	3	3
	상호작용	4	14	16	34
	친밀감	12	-	1	13
소계		27	23	28	78
감정인식 및 자기표현	감정발산	1	4	-	5
	감정이완	1	-	-	1
	감정인식	5	3	4	12
	감정표출	-	6	3	9
	감정표현	2	9	2	13
	긴장	11	1	1	13
	매체탐색	5	3	3	11
	매체활용	-	5	2	7
	스트레스	-	1	-	1
	욕구	2	9	1	12
	자극촉진	-	1	-	1
	정서	3	3	4	10
	정서표현	-	1	1	2
	지적표현	1	1	-	2
소계		31	47	21	99
긍정적 부정적 자아상	긍정적	1	8	10	19
	부정적	-	7	-	7
소계		1	15	10	26
자기성장 및 자기실현	자기이해	3	6	2	11
	자기인식	7	8	3	18
	자기탐색	2	2	-	4
	자기표현	11	31	35	77
	자아	5	3	2	10
소계		28	50	42	120
타인인식 및 타인이해	타인이해	-	3	4	7
	협력	-	-	8	8
	협응	-	1	2	3

구분	단어	초기	중기	후기	합계
소계		-	4	14	18
자아실현	성취감	1	8	11	20
	자신감	1	2	4	7
	자존감	1	4	2	7
	적극적	-	2	4	6
	창조적표현	1	1	1	3
	희망	-	-	1	1
소계		4	17	23	44
기간별 목표분석	총 합계	107	159	138	404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재 목표는 총 7가지 범주로 구분되었으며, 각 범주별 목표 빈도와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이 설정된 중재 목표는 자기성장 및 자기실현으로, 총 120회(29.7%)로 나타났으며, 관계 형성 목표는 78회(19.3%)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대인관계 개선이 주요한 중재 목표 중 하나로 다루어졌다. 그 외에도 기타 목표가 44회(10.9%), 긍정적/부정적 자아상 목표가 26회(6.4%), 흥미 유발 목표가 19회(4.7%), 타인 인식 및 타인 이해 목표가 18회(4.5%)로 나타났다. 또한, 중재 목표를 기간별로 분석한 결과, 초기 목표는 107회, 중기 목표는 159회, 후기 목표는 138회로, 총 404회로 나타났다.

5) 프로그램 매체분류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미술치료에서 자기표현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된 프로그램 매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10〉 프로그램 매체분류

구분	대분류	소분류
드로잉 및 페인팅 매체	종이매체	절지, 2절지, 4절지, 8절지, 한지, 색종이, 마분지, 잡지, 화장지, 도안, 화선지, 색 도화지, 티슈, 카드, 상장용지, 일기, 카드사인
	합성매체	우드 락, 하드보드지, 캠퍼스, 스티로 폼, 아크릴판, 폼 보드지, 스크래치 페이퍼, 코 텅지, 글 루건, 사포, 카드, 그림카드, 종이접시, 감정 카드, 명언 카드, 사진
	접착매체	물풀, 테이프, 본드, 스티커, 마스킹테이프, 목공용 풀, 스티커, 석고붕대
	드로잉	연필, 크레파스, 싸인펜, 펜, 색연필, 파스텔, 매직, 유성매직, 파스텔, 섬유용 매직, 염색 펜
	채색 도구	물감, 먹물 페인트, 밀가루 풀, 식용 색소, 면도 크림, 글라스데코, 금색 스프레이, 볼 클레이, 스프레이, 비눗방울, 주방세제, 모래 샌드, 염색약
모델링 매체	비정형 매체	점토, 유 토, 찰흙, 클레이, 밀가루 풀, 색 모래, 주방세제, 분무기, 물, 금색 락카 스프레이
	정형화 매체	종이 가면, 종이컵, 양초, 지우개, 유리병, 둥근 접시, 도자기, 공 지퍼, 빨대, 포크, 물약 통, 명찰, 블록 판, 수수깡, 솜, 풍선, 가면, 액자 틀, 면봉, 플라스틱 숟가락, 플라스틱 컵, 투명우산, 플레이 콘, 그릴 판, 조명 키트
도구	종이용 도구	가위, 칼, 자
	만들기 도구	자, 조각도, 톱, 송곳, 글루건, 털 철사, 노끈, 나무망치, 드라이버, 쿠키 틀, 종 샷, 콧 파스, 만들기 장식
	그리기도구	붓, 물통, 팔레트, 물, 롤링페인팅 도구, 채색 도구, 아크릴판, 뚜껑 채색 도구, 스테이플러, 백붓
	착용도구	앞치마, 토시
미디어	인쇄물	신문, 잡지, 광고물
	영상기자재	사진기, OHP필름, 사진인화기, 키보드, 싸인펜, 영상물
꾸미기	끈 종류	노끈, 낚시줄, 꾸미기줄, 고무줄, 털실
	반짝이 종류	반짝이 풀, 별모양, 반짝이 ,리본장식, 눈알, 스팅클
	만들기 재료	스펀지, 뚜껑채색도구, 다양한 오브젝, 손 인형 만들기, 휴지심, 전지, 장신구, 꾸미기재료, 리본장식
	천	광목천, 흰색 티, 보자기, 무지 에코 백
자연물	국물류	밀가루, 녹말, 식용유, 과자, 계란껍데기, 소금, 꼬깔콘, 쌀
	식물류	꽃, 나뭇잎, 배추, 꽃씨, 스칸디 아모스, 이쑤시개, 나뭇잎, 나무 조각, 나무주걱, 메추리알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석된 총 매체 수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치료 목표와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선택된 매체의 다양성을 반영한다.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매체는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되었다.

첫째, 드로잉 및 페인팅 매체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매체 유형으로, 주로 색연필, 크레파스, 물감, 마커 등의 도구를 포함하여 자기표현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데 사용되었다. 둘째, 모델링 매체는 점토, 플라스틱, 종이 접기 등의 입체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대상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형상화할 수 있도록 도왔다. 셋째, 미디어 매체는 디지털 도구나 영상, 사진 등의 현대적 매체를 활용한 것으로, 특히 청소년 및 성인 대상자들이 선호하는 표현 방식으로 나타났다. 넷째, 꾸미기 매체는 콜라주, 스티커, 비즈 등의 장식 요소를 포함하여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연물 매체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나뭇잎, 돌, 꽃 등을 이용한 것으로,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감각적 경험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도구들이 매체 사용을 보조하거나 확장하는 데 사용되었다.

6) 매체별·기간별 분류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에서 자기표현을 위해 사용된 매체를 6가지 종류로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1〉 매체별·기간별 분류

대분류	소분류	초기		중기		후기		매체별 계	
드로잉 및 페인팅 매체	종이매체	87	21.5%	110	20.4%	85	18.9%	282	823
	합성매체	10	2.5%	30	5.6%	36	8.0%	76	
	접착매체	14	3.5%	42	7.8%	33	7.3%	89	
	드로잉	88	21.8%	99	18.4%	73	16.2%	260	
	채색도구	42	10.4%	45	8.3%	29	6.4%	116	
모델링 매체	비정형매체	55	13.6%	55	10.2%	40	8.9%	150	258
	정형화매체	38	9.4%	36	6.7%	34	7.6%	108	
도구	종이용 도구	8	2.0%	13	2.4%	20	4.4%	41	170
	만들기 도구	15	3.7%	25	4.6%	10	2.2%	50	
	그리기 도구	19	4.7%	31	5.8%	27	6.0%	77	
	착용 도구	2	0.5%	0	0.0%	0	0.0%	2	

대분류	소분류	초기		중기		후기		매체별 계	
미디어	인쇄물	4	1.0%	12	2.2%	7	1.6%	23	31
	영상기자재	4	1.0%	3	0.6%	1	0.2%	8	
꾸미기	끈 종류	3	0.7%	10	1.9%	10	2.2%	23	77
	반짝이 종류	0	0.0%	3	0.6%	6	1.3%	9	
	꾸미기 재료	6	1.5%	13	2.4%	18	4.0%	37	
	천(섬유)	1	0.2%	2	0.4%	5	1.1%	8	
자연물	곡물류	4	1.0%	5	0.9%	6	1.3%	15	34
	식물류	4	1.0%	5	0.9%	10	2.2%	19	
기간별 합계		404		539		450		1,393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매체는 드로잉 및 페인팅 매체였다. 건식 매체는 지적장애인의 감정 표현을 용이하게 하고 치료적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되었으며, 사용자 친화적인 특성이 강조되었다(김영희, 1996). 평면 건식 매체는 접근이 용이하고 자기를 쉽게 의사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을 인식하며 이해하고, 협동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장성숙, 2013). 선행연구는 지적장애인들이 자기표현을 할 때 건식 매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기간별 매체 사용 빈도를 분석한 결과, 초기에는 404회, 중기에는 539회, 후기에는 450회로 총 1,393회가 관찰되었다. 이 중 중기에서 가장 많은 매체 사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7) 활동 목적 및 방법에 따른 프로그램 분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활동 목적 및 방법에 따라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2〉 활동 목적 및 방법에 따른 프로그램 분류

활동 목적 및 방법	프로그램 활동명
자기 표현 및 자기 인식	• 나를 소개해요, 또 다른 나, 난 이런 사람이야 • 나의 자화상, 방송 인터뷰, 우린 패션 디자이너 • 자기소개 및 이름 꾸미기, 나에게, 내가 만들고 싶은 것 • 오늘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기, 그림으로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그려서 소개하기 • 나에게 선물하기, 자기방 가꾸기, 나의 얼굴, 나의 집, 나의 가족 • 이게 바로 저예요!, 내 기분은요, 나를 표현하기 •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싶은 것 • 자화상 그리기, 내 마음의 캘리그래피, 내 반려가족의 좋은 점과 바라는 점 • 나의 꿈 탐색, 소망 나무 만들기, 우리는 하나, 나의 신체 • 나의 꿈 탐색 콜라주나무 만들기, 작품집 만들기, 나는 이런 기분이 들어요 • 마음을 담아요
감정 표현 및 감정 관리	• 내 짝지의 손, 기분을 말해봐, 감정표정 그리기 • 나의 기분은 어떤가요?, 자주 느끼는 감정, 감정 파이 • 감정의 표정,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버리고 싶은 감정, 갖고 싶은 감정 • 나의 장점 찾기, 감정 카드, 감정 떠올리기, 내 마음 속 이야기 • 감정 인형, 슬픔의 자유화, 어둠 속의 빛, 강점 찾기 • 풍선과 함께 사라지다, 착해져라, 내 마음의 발 • 즐거운 놀이시간, 내 마음은 보물상자, 화내지 말고 예쁘게 말해요 • 내 기분은!, 마음 탐험가
창의적 표현 및 자유화	• 분할 색칠하기, 핑거페인팅 자유화, 곡물 놀이, 직물 붓 • 데칼코마니, 녹말 놀이, 밀가루 놀이, 액체 괴물 만들기 • 자유화, 난화, 도형화, 이름 꾸미기, 나의 얼굴, 나의 손 본뜨기 • 핑거 페인팅, 난화, 자유화, 나의 얼굴, 나의 나무, 이름 꾸미기 • 손 본뜨기, 얼굴 완성하기, 스티커의 변신, 천사 점토로 표현하기 • 물감으로 데칼코마니, 물감 불기, 밀가루 쿠키, 전지에 자유화 그리기 • 신체 본뜨기, 가족 얼굴 만들기, 사과 표현하기, 모자이크, 만다라 • 앨범 만들기, 손님 초대하기, 자기표현을 잘하는 나 • 상장 만들기, 소망이 이루어지길, 꿈동산에 모여라, 알록달록 색깔 쌀 •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함께 그리기, 만다라 모빌, 만다라 협동 • 날 따라 해봐요, 내 친구 얼굴, 무지개가 떴어요

활동 목적 및 방법	프로그램 활동명
사회적 상호작용 및 협력	• 규칙 정하기, 글라스 데코 모빌 만들기, 나만의 이모티콘 만들기 • 여러 가지 얼굴 표정, 친구의 얼굴 꾸미기, 친구에게 카드 보내기 • 두 손 모아 한마음, 손에 손잡고, 최고의 상, 밥상 우리가 만든 세상 • 맛있는 상 차리기, 협동 만다라, 신체 본뜨기 • 자연재료를 이용한 미술치료, 정크아트와 결합한 미술치료 • 친구야 놀자, 내 마음의 발, 대단한 요리사, 친구의 얼굴 꾸미기 • 우리 가족 소개하기, 가족에게 카드 보내기, 친구에게 카드 보내기 • 직장 동료 이야기, 공든 탑을 쌓아요, 학교 꾸미기, 파티 열기 • 앨범 만들기, 손님 초대하기, 협동 만다라, 마음을 담아요
재료 및 기법 탐색	• 휴지죽 놀이, 커피 가루로 이름 쓰기, 무로 만든 도장 • 몽글몽글 크림, 테이프 그림, 휴지 그림, 풀 그림 • 비눗방울 그림, 배추로 나무 찍기, 도형 과자 그림, 도르륵 종이 갈기 • 스크래치, 신체 따라 그리기, 푸드 아트, 과자로 만든 내 친구 • 사포그림 만들기, CD 꾸미기, 연필꽃이 만들기 • 글루를 이용한 촉감 놀이, 색종이 연상, 만다라 컬러링, 종이접기 • 중요한 향아리, 계란화, 하트 열쇠고리 만들기 • 신체 본뜨기, 가족 얼굴 만들기, 사과 표현하기 • 모자이크, 만다라, 종이접기, 우산 만들기, 조명 만들기 • 고무찰흙 사포 그림, 신체상 본뜨기, 타일 꾸미기, 대고 그려요 • 학종이 그림 그리기, 엽서를 만들어요, 끈끈이 모래놀이, 신문지의 변신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석 결과 콜라주, 모자이크, 난화 등 다양한 미술 매체와 기법을 활용한 활동이 포함되었으며, 지적장애인의 미술치료 자기표현 연구의 프로그램 목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인식 및 자기이해(120회, 29.7%), 감정인식 및 자기표현(99회, 24.5%), 관계 형성(78회, 19.3%), 기타(44회, 10.9%), 긍정적·부정적 자아상(26회, 6.4%), 흥미 유발(19회, 4.7%), 타인 인식 및 타인 이해(18회, 4.5%)가 주요 목표로 나타났다. 이러한 활동들은 주로 자기표현, 자기인식, 감정 표현 및 감정 관리, 창의적 표현 및 자유화, 사회적 상호작용 및 협력, 재료 및 기법 탐색 등의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구조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학문적 체계를 갖추기 위한 바람으로 2005년 한국·미국의 미술치료 연구 동향 연구(최윤희 외, 2005)를 시작으로 다양한 미술치료 동향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후 유아나 노인과 같이 특정 대상을 기준으로 한 연구들(문정희 외, 2018; 손가화, 이병인, 2014; 이미옥, 2006; 이창정, 이미옥, 2008),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연구 동향 분석(박순애, 2016)에서는 31편의 논문을 분석하여 재활치료 방안과 발달 재활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 연구를 발간하였다. 또한, 동향 분석인 건강장애 미술치료 문헌 연구에서는 16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김혜진, 2023). 지적장애 미술치료 자기표현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 명시된 지적장애 미술치료 자기표현에 관한 출처를 기준으로 하여, 최근 14년 동안 연구된 학술논문 31편과 학회지 4편에 대한 국내 동향을 분석하였다. 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행 정보를 (발행 연도, 발행 기관, 전공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4년 동안 관련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었다. 김혜진(2023)에 의하면, 성인 지적장애인에 대한 미술치료 연구에서 연구 자료의 동향은 국내 미술치료가 신설된 이후 2014년,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연구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는 미술치료와 지적장애 해당 연구 주제에 대한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학위논문 발행 기관 중에서는 대구대학교,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가 각각 4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술논문의 발행 기관으로는 정서행동장애연구가 2편, 임상미술심리연구와 미술치료연구가 각각 1편의 연구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지적장애 미술치료 자기표현에 관한 연구가 특정 대학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기관에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별 현황에서는 미술치료 전공이 가장 많았으며, 학술논문의 경우 정서행동장애연구에서 2편, 임상미술연구와 미술치료연구에서 각각 1편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수은(2011)은 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미술치료 관련 대학원의 신설과 미술치료 전공자들의 양적 증가가 각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기정희 외(2011)는 미술치료 과정에서 다양하고 여러 가지 활동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의 참여와 사회적 관심, 제도적 변화에 의한 수용자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았다. 이는 지적장애 미술치료 자기

표현 연구가 미술치료학뿐만 아니라 예술치료학, 특수교육학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지적장애 미술치료 자기표현 분야에서 미술치료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전공별 연구 현황은 지적장애 미술치료 자기표현 연구가 특정 학문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학문적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미술 표현에 대한 자신감 향상, 적극적 집단 참여, 몰입과 성취감 고취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술치료가 미술 표현의 발달과 자기표현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 정유림(2008)의 연구와, 미술치료가 지적장애 성인의 부정적 자기표현을 개선하고 자기표현의 향상을 이루는 데 효과가 있다는 송은수(2009)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는 지적장애인의 자기표현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학계 간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연구 대상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연구 대상 성별은 남성(53.9%), 여성(46.1%)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7.8%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적장애를 가진 남성 대상이 연구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포함되었음을 시사한다. 발달 단계는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성인(57.8%)이 가장 많았고, 청소년(34.4%), 아동(2.3%) 순으로 나타났다. 60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박철환, 최영주(2018)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노인 미술치료에 관한 국내 학위논문의 발행 빈도는 매년 평균 3.5편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미비하게 나타났다.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에 대해 미술치료가 지니는 의의는 상당히 크다. 치료에 대한 거부감 혹은 치매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노인들을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그림은 영속성이 있어 망각으로 인해 지워지지 않고 내용을 부정하기 어렵게 만들어 전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료적 가치를 갖는다(공마리아, 2004). 선행연구는 노인 미술치료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장애 등급제가 적용된 연구 대상 분석 결과에서는 2급 지적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김혜진(2023)의 연구에서는 3급 장애가 19편(36.5%), 2급 장애가 16편(30.8%)으로 나타났으며, 1급보다는 장애 등급이 높은 3급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2급 지적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현재는 장애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분석은 지적장애 미술치료 연구에서 성별, 발달 단계, 장애 정도에 따른 연구 대상 특성을 파악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과 특정 대상 집단에 대한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의 구조분석 결과 회기 수는 1015회기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이선민(2016)의 연구에서는 주로 1620회기로 진행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회기별 소요 시간은 60분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진령(2005)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집단의 경우 회기당 30~40분, 고학년은 45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였다. 이는 발달 단계에 따라 회기당 시간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 회기 수는 연구자들이 주 1회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유형에서는 단일 집단 사례 연구가 15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설계는 단일 대상 사전-사후 검사 설계와 단일 집단 사전-사후 검사 설계였다. 연구 측정 도구에서는 객관적 검사 도구가 54회 사용되었으며, 이 중 자기표현 평정척도(18회)와 미술적 자기표현 능력 평가(8회)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투사적 검사 도구는 총 23회 사용되었으며, 주요 도구는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검사(K-HTP)(12회), 동적 학교 생활화(KSD)(4회), 집-나무-사람 그림검사(HTP)(3회)였다. 객관적 검사 도구는 지적장애인의 자기표현 능력을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하며, 투사적 검사 도구는 피험자의 무의식적인 감정과 태도를 드러내는 데 유용하다. 자기표현을 위한 프로그램 목표 분석에서는 총 7가지 목표로 구분되었으며, 가장 많은 중재 목표는 자기성장 및 자기실현으로 나타났다. 미술치료 매체 분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매체는 드로잉 및 페인팅 매체였다. Rubin(2001)은 미술치료사가 간단한 매체를 선호한다고 주장했으며, Malchiodi(2008)는 아동의 자발적인 표현을 이끌어내기 위해 간단한 재료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연구자들이 드로잉 및 페인팅 매체를 가장 많이 활용한 이유는 건식 매체의 편리함과 접근성 때문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기 치료 단계에서 매체 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자기표현의 필요성이 증가하거나, 치료적 개입이 집중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에서는 콜라주, 모자이크, 난화 등 다양한 기법이 활용되었으며, 주요 목적은 자기표현, 자기인식, 감정 표현 및 관리, 창의적 표현 및 자유화, 사회적 상호작용 및 협력, 재료 및 기법 탐색 등으로 구조화되었다. 특히 가위로 사진을 자르고 재구성하며 해체와 재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며, 콜라주 작품은 비언어적 정서 표현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이근매, 아오키토모코, 2010). 콜라주와 모자이크 활동은 지적장애인의 자기표현과 자기인식을 도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 결과, 지적장애인의 미술치료 자기표현 연구는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지적장애 미술치료의 가치와 효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RISS의 국내 연구 자료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한계가 있다. 국내외 다른 학술지와 단행본을 참고하여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지적장애 미술치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적장애를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연구가 필요하다. 노화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와 사회적 고립으로 우울감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개별화된 치료 계획과 효과적인 미술치료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객관적 검사 도구가 투사적 검사 도구보다 더 많

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적장애인의 경우 인지적·정서적·신체적 어려움으로 객관적 검사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투사 검사 도구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적장애 미술치료에 대한 매체 연구는 개인의 선호도에 맞는 매체 선택과 접근이 용이한 맞춤형 매체 연구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미술 매체(예: 컴퓨터 그래픽 소프트웨어, 태블릿, 그래픽 펜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적장애인의 자기 개념, 자아 존중감, 인지 기능 향상, 사회적 참여, 자립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 분석 결과, 객관적 검사 도구가 투사적 검사 도구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지적장애를 가진 대상자의 경우,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객관적 검사에서 요구되는 문제 이해와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투사 검사 도구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평가하는 검증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적장애 미술치료에 대한 매체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의 선호도에 맞는 매체 선택과 접근이 용이한 맞춤형 매체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21세기에 적합한 디지털 미술 분야의 매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컴퓨터 그래픽 소프트웨어, 디지털 미술, 컴퓨터, 태블릿, 그래픽 펜 등을 활용한 디지털 미술 작품 등에 대한 연구도 시급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지적장애인의 자기 개념과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고, 인지 기능 향상, 사회적 참여, 자립성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진령 (2007). **집단상담의 실제**. 서울: 학지사.
- 공마리아 (2004). 장애인과 미술치료. **한국예술치료학회 제26회 월례학술발표회**(pp.12-17). 한국예술치료학회.
- 곽예지 (2016). 지적장애 아동의 자기표현력 증진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기정희, 이숙미, 김춘경, 정종진, 최응용 (2011). 한국 미술치료의 연구동향-한국미술치료학회지 게재논문(19942010)을 중심으로. **미술치료연구**, 18(2), 463-483.
- 김경희 (2013). 감상중심 미술치료프로그램이 성인지적장애인의 자기표현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 김도희 (2017). "지적장애를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의 중재현황과 연구경향 분석 - 1994년 2016년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미술치료연구** 24.4 879-905.
- 김도희 (2017).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통한 국내 미술치료학 분야의 지적구조 규명에 관한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13(1), 1-29.
- 김도희, 김혁진 (2022). 긍정심리학을 활용한 미술치료 연구 동향(2013-2021):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 문헌 고찰. **미술치료연구**, 29(5), 1-20.
- 김선정 (2009). "미술치료가 지적장애 아동의 정서능력과 주의집중에 미치는 영향." 국내 박사 학위논문, 나사렛대학교.
- 김소연, 원희량 (2024). 장애 아동·청소년 미술치료에서 미술치료사의 어려움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미술치료연구**, 31(2), 261-282.
- 김영희 (1996). 다양한 재료를 통한 미술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 김지연, 박현우 (2023).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미술치료가 지적장애인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술치료학회지**, 30(1), 1-20.
- 김혜진 (2023). 성인 지적장애인 미술치료 국내연구동향분석, 석사학위논문,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대학원.
- 도은록 (2008). 점토를 활용한 소조활동이 지적장애 청소년의 미술표현력 및 자기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박세미 (2017). 노래중심 음악활동이 지적장애 근로자의 자기표현과 긍정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박순애 (2016).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연구동향 분석,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

- 교 교육학과.
- 박재국, 김진주 (2014).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 부산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7(4), 25-47.
- 박철환, 최영주 (2018). 노인미술치료에서의 연구방법 특성에 대한 메타분석 2012~2016년도에 발행된 국내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미술치료연구**, 25(2), 229-243.
- 손혜란, 손혜주, 이상경 (2024). 지적 장애 청소년의 자기표현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인지행동 미술치료 사례연구,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10(2), 743-758.
- 송은수 (2009). 집단미술치료가 지적장애 성인의 자기표현과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디자인대학원.
- 송주혜 (2012). 직업적응훈련 과정 중에 있는 성인 지적장애인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 윤명경 (2005). 정신지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자기 표현력과 자기 효능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이근매, 아오키 토모코 (2010). **콜라주 미술치료**. 서울: 학지사.
- 이상설 (2012). 중등학교 교육에서 미술치료의 역할 및 필요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선민 (2016).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사례 동향 연구: 2010년-2015년 국내 및 국외 학회지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은 (2011). "국내 정규 미술치료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연구 동향."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1.2 95-135.
- 이주연 (2016). 음악매체와 심신치료,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학술대회**, 37-61.
- 이한솔 (2022). "지적장애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위한 자연매체 중심 미술치료 사례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 장성숙 (2013).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문제행동 감소와 학교생활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보호지도연구**, 19, 5-21.
- 정미숙 (2003). 정신지체 청소년의 자율성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효과: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여주 (2003). **미술치료의 이해: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정유림 (2008). 미술치료가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 정유림 (2009). 미술치료가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원광

- 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 정창숙 (2016).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미술치료의 효과, **미술치료연구**, 22(3), 45-63.
- 주리에 (2012). **이구동성 미술치료: 미술치료: 이론의 종합편**. 서울: 학지사.
- 진혜림 (2021). 「2019 개정 누리과정」 적용에 따른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유아 특수교사의 개별화교육계획(IEP) 실행 경험,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최미경 (2011). 통합미술치료가 초등학교 특수학급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 Lowenfeld, Viktor. **"창의적 정신적 성장"** (김인숙, 신현식 역), SGS 서진교육.
- Malchiodi, C. A. (2008).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에 대한 창의적 개입**. 길포드 프레스와 와일리 인터사이언스 출판물.
- Rubin, J. A. (Ed.) (2001). **Approaches to Art Therapy: Theory and Technique**, 2nd ed.

〈부록 1〉 연구동향 분석논문: 국내 학위논문

- 강연숙 (2023).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발달적 미술 치료 사례연구. 대구사이버대학교 휴먼케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예지 (2016). 지적장애 아동의 자기표현력 증진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금남 (2018). 미술치료가 네말린근병증 발달장애 유아의 자기표현력 증진 및 눈-손 협응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 아소피노아트와 조소활동을 중심으로.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상담복지학과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논문.
- 권수정 (2018). 자기표현 향상 및 공격성 감소를 위한 쌀점토 활용 미술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 (2013). 감상중심미술치료프로그램이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기표현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계열 (2010). 만다라 미술치료가 지적장애청소년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평택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바름 (2019).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자기표현력 증진을 위한 미술치료 단일사례연구.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세희 (2017). 미술자기표현 중심의 집단미술치료가 지적장애성인의 사회성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홍 (2018). 지적장애 아동의 자기표현력과 행동특성에 대한 조형중심 미술치료 사례연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 (2020). 중증 지적장애 성인의 자기표현 향상을 위한 IT 매뉴얼 기반 통합예술치료 적용. 동덕여자대학교 문화예술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주 (2020). 그림책을 활용한 미술치료가 지적장애아동의 자기표현 및 행동변화에 미치는 효과.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인 (2018). 지적장애아동의 자기표현을 위한 미술치료 질적 사례연구.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선영 (2023). 퍼포먼스 미술치료가 지적장애 아동의 자기표현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동의대학교 산업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소연 (2016). 통합미술치료가 직업적응훈련반 지적장애 성인의 자기표현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보건·보완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아 (2010). 지적장애 성인의 고립행동 감소와 자기표현력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민 (2015). 미술치료가 전반적 발달장애 유아의 자기표현력 증진과 눈-손 협응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하늘 (2021). 명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시설거주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기표현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정 (2020). 업무상 재해를 경험한 지적장애성인의 자기표현 향상 미술치료 단일사례연구. 대전대학교 보건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해정 (2024). 그림책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시설 거주 성인 여성 지적장애인의 자기표현 및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순영 (2016). 미술치료가 경도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기표현력 향상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 단일사례 중심으로. 한일장신대학교 심리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은실 (2018). 경도지적장애 청소년의 자기표현 향상을 위한 인지행동적 미술치료 사례연구. 대전대학교 보건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가영 (2013). 통합미술치료가 지적장애청소년의 자기표현 및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준 (2013). 위축 행동과 자기표현 문제를 가진 지적장애 아동의 미술치료 사례연구.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2011).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지적장애학생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효영 (2024). 지적장애청소년의 미술적 자기표현에 관한 미술치료 개인사례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주혜 (2013).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기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우 (2018). 난화 상호이야기법을 활용한 미술치료가 지적장애아동의 언어이해력과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숙 (2023).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기표현 증진 미술치료 사례연구 - 점토 활용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한내 (2011). 미술치료가 특수학급 발달장애 아동의 자기표현 향상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영 (2018). 미술치료가 시설 거주 지적장애 성인여성의 자기표현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필 (2013). 집단미술치료가 지적장애 성인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대구사이버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희선 (2015). 집단미술치료가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기표현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록 2〉 연구동향 분석논문: 국내 학술논문

- 김세희, 김정애 (2020). 집단미술치료가 지적장애 성인의 미술자기표현과 사회성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27(1), 153-176
- 김은주, 오현숙 (2021). 지적장애아동의 문제행동 감소 및 자기표현력 향상을 위한 그림책을 활용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임상미술심리연구**, 11(2), 55-82.
- 박혜정, 공마리아 (2018). 집단미술치료가 지적장애청소년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4(3), 45-66.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혜일, 최선남 (2010). 집단미술치료가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기표현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4(2), 103-123.

논문 투고 : 2024.10.13.	논문 심사 : 2024.11.29.	게재 확정 : 2024.12.11.
---------------------	---------------------	---------------------

Abstract

Analysis of Trends in Self-Expression Through Art Therapy for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 Focused on Domestic Theses from 2010 to 2024

YoungSook Jo*, JinJa Ch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search trends in art therapy for enhancing self-expression in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o achieve this, 35 studies, including 31 theses and 4 journal articles published in South Korea between 2010 and 2024, were analyzed in terms of publication information, research subjects, and research method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n analysis of publication information (year of publication, institution, and academic discipline) revealed a consistent trend of publications from 2010 to 2024, with the highest number of studies published in 2016 and 2020.

Second, an analysis of research subjects (gender, developmental stages, and levels of disability) showed that male participants outnumbered female participants.

Third, regarding research methods (structural analysis, criteria for analysis, assessment tools, program goal analysis, media classification, and program classification), the single-group pre-test and post-test design was most commonly employed.

* Ph.D. Candidates, Dept. of Special Education, Woosuk University

** Professor, Dept. of Special Education, Woosuk University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researchers conducting art therapy aimed at improving the self-expression abilities of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providing directions and evidence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programs in clinical settings.

Keywords: intellectual disabilities, self-expression, art therapy, domestic research trends

장애의재해석 제5권 제2호

2024 Vol. 5, No. 2, 161 - 186

구전서사를 통해 본 장애인 가족에 대한 비장애 형제의 부모화 문제와 함의*

유수빈** 서주원*** 임나린**** 박현숙*****

Jurkovic(2004)에 따르면 ‘부모화’란 어린 자녀가 부모 역할의 일부분을 담당하며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는 역할 역전 현상을 의미한다. 역할 역전으로 인해 ‘부모화’된 자녀는 일찍부터 의젓하고 유능한 모습을 보이거나 자신의 내적 욕구를 무시한 강박적인 배려심을 가지는데, 심할 경우에는 심리적 병리 증상까지 보이게 된다. Jurkovic(1997)은 부모화의 유형을 △파괴적 부모화 △적응적 부모화 △비부모화로 분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파괴적 부모화’에 주목하여 논의하였다.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나 장애인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의 상당수는 어릴 때부터 또래와는 달리 장애인 형제에 대해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며 ‘어른 아이’, ‘부모화’ 경향을 띠고,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인해 과중한 부담감이나 우울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그림 형제 민담 <열두 오빠>와 <오누이>의 서사 분석을 통해 장애인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비장애 형제의 부모화 양상과 탈부모화 과정, 그리고 장애인 형제의 주체성 회복 과정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장애인-비장애 형제의 공존과 공생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서사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 형제와의 관계 속 비장애 형제의 부모화 양상을 구전서사를 통해 다층적 논의를 펼쳤다는 점, 장애인 형제와의 관계 속 비장애 형제의 탈부모화 및 건강한 공존을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비장애 형제, 부모화, 구전서사, 탈부모화, 공존

* 본 연구는 2024 한국장애인재단에서 주관한 ‘대학생 논문경진대회’ 본선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부생

***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부생

**** 건국대학교 교육공학과, 학부생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강사

I. 서론

Jurkovic(2004)에 따르면 ‘부모화’란 어린 자녀가 부모 역할의 일부분을 담당하며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는 역할 역전 현상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아이가 자신의 발달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돌봄, 양육, 관심을 부모로부터 받지 못해 반대로 자신이 부모를 돌보거나 부모를 대신하여 책임지고자 노력하는 ‘역할반전(Role Reversal)’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역전된 부모-자녀 관계(inverted child-parent relationships)”문제는 사회학에서도 일찍이 논의된 바 있다. Bowlby(1973)는 자녀가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를 보살피는 행동을 발달시키면 이후 성인기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강박적으로 보살피는 행동을 할 수 있다며 “역전된 부모-자녀 관계”의 심각성을 언급하였다. (조은영, 2004 재인용) 이처럼 부모와의 역할이 반전된 ‘부모화’된 자녀는 일찍부터 의젓하고 유능한 모습을 보이나 자신의 내적 욕구를 무시한 강박적인 배려심을 가지며 이로 인해 심할 경우 심리적 병리 증상까지 보이게 된다. (이혜영, 최연실, 2016; Davies, 2002에서 재인용)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나 장애인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의 상당수는 어릴 때부터 또래와는 달리 장애 형제에 대해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며 ‘어른 아이’, ‘부모화’ 경향을 띠게 된다. (김다혜, 한재희, 2016; Byng-Hall, 2002)¹⁾ 특히 성인 초기에 속한 비장애 형제는 부모가 더 이상 장애 형제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인해 과중한 부담감이나 우울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손주희, 박주희, 2019; Turnbull&Turnbull, 1990에서 재인용) 비장애 형제의 부모화와 그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은 성인 초기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청소년기의 비장애 형제는 장애 형제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나 우울, 불안 같은 내재화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백영순 박순길, 2023; 유신복, 손원숙, 2014에서 재인용)

Jurkovic(1997)은 부모화의 유형을 △파괴적 부모화 △적응적 부모화 △비부모화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파괴적 부모화 유형을 대상으로 한다. 파괴적 부모화란 “자녀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에서 장기간 가족을 돕는 것”을 뜻한다. Jurkovic(1998)에 따르면, 자녀가 적절한 수준에서 일시적으로 일부 역할을 수행하는 적응적 부모화와 달리 파괴적 부모화는 자녀가 발달 단계상 필요한 행동을 억제하게 돼 불공정한 관계 양상을 지속하고, 자녀의 △성격 △또래 관계 △사회인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현주, 2021에서 재인용).

1) 안다혜, 정주리 (2021)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정서·사회적 영역에서 비장애 형제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괴적 부모화 문제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탈부모화에 이르는 과정을 구전서사 분석을 통해 유형별로 살펴보고 장애인 가족 내 비장애 형제의 건강한 탈부모화를 위한 함의를 찾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야코프 루트비히 그림과 빌헬름 카를 그림이 정리한 독일민담 〈열두 오빠〉와 〈오누이〉다. 그림 민담은 표면적으로는 치료적 서사를 표방하지 않으나 상처 내지 갈등의 치유나 심리적 문제의 해결을 기본 화두로 삼는 이야기들을 다수 다루고 있다.(신동훈, 2013) 특히 〈열두 오빠〉와 〈오누이〉의 서사는 장애인 가족의 비장애 형제가 처한 어려움과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유의미한 작품이다. 분석 방법으로는 ‘서사적 화두’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 ‘서사적 화두’란 신동훈(2017)이 기존의 설화 의미 해석 방법론이 설화의 의미상 다양성을 밝히는 ‘화소 중심 분석법’과 순차구조에 따라 분석하는 ‘구조주의적 설화론’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제시한, 서사의 순차구조와 서사의 상징성을 분석 과정에서 모두 내포할 수 있는 통합된 방법론을 의미한다.

구전서사는 오랜 세월 구비 전승되어 온 이야기로, 인류 보편의 문제를 다루며 다의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의 문제와 그 맥락을 파악하는 데 적절한 도구이다. 신동훈(2010)은 〈심청전〉의 ‘심청’을 부모화된 인물로 정의하고, 부모화 양상과 강박적인 책무감을 설명함으로써 심청의 ‘아버지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버지를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한 것이라고 분석하며 이를 ‘일종의 강박적 책무감’이라고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신동훈(2010)은 심청을 강박적 책무감에 의해 자신의 몸을 팔아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하겠다는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해석하였고, 부모화된 인물이 가지는 이러한 강박적 책무감이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동희(2010) 또한 〈심청가〉의 ‘심청’을 부모화된 아이의 전형적인 인물로 분석하였다. 이경하(2022)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전소설 〈심청전〉과 현대 영화 〈코다〉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심청전〉의 심청과 〈코다〉의 비장애인 딸의 희생을 재의미화하였고, 심청의 선택을 과도한 책임감이 이끈 자살로 해석하였다.

이렇듯 구전서사의 재해석을 통한 장애인 자녀의 부모화 문제를 다룬 연구는 적게나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장애인과 비장애가족의 부모화 문제를 조명한 구전문학 연구는 분석 대상 작품이 〈심청전〉으로 매우 한정적이고,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자녀의 부모화 문제만을 다루어 왔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구전문학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바 없는 장애인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의 부모화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발달단계 및 심리적 성장을 자녀서사에서 이루어야 할 인물이 부모

서사 영역에 위치하게 되어 역전된 부모-자녀 관계(inverted child-parent relationships)를 형성한 내용의 구전서사를 통해, 비장애 형제의 부모화 문제 요인과 탈부모화 과정을 분석하고 장애 형제와 비장애 형제의 주체성 회복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구전서사 속 비장애 형제의 부모화 문제

1. 작품 줄거리

1) 열두 오빠 (그림 형제 (2022). 열두 오빠. 바로이북.)

옛날에 어떤 왕과 왕비가 열두 왕자와 살고 있었다. 딸을 간절히 원했던 왕은 이번에 딸이 태어난다면 아들을 전부 죽이고 딸에게 모든 것을 물려줄 것이라고 하면서 미리 관을 짜둔다. 딸이 태어나면 성탑에 붉은 깃발을 꽂아둘 것이라고 미리 일러둔 왕비 덕에 열두 형제는 깊은 숲속으로 가 목숨을 구한다. 10년간 마법이 걸린 집에서 사는 동안 이마에 황금별이 박힌 채 태어난 공주는 부모의 사랑 속에서 쑥쑥 커나가고 있었다. 어느 날 빨랫감에서 열두 장의 남자 셔츠를 발견한 공주는 왕비에게 물어 오빠들의 존재를 알게 되고 숲으로 향한다. 마법에 걸린 집에 도착해 오빠들과 만난 공주는 그때부터 살림을 꾸리며 오빠들과 함께 지내게 된다. 어느 날 공주가 식탁을 장식하고자 정원에 피어있는 열두 송이 백합을 꺾자 그 순간 오빠들이 모두 까마귀가 되어 날아간다. 슬퍼하는 공주 곁에 한 노파가 다가와 네 잘못으로 오빠들이 까마귀가 된 것이라며 오빠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7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웃어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 공주는 그 뒤로 키 큰 나무를 찾아 그 위에 올라가 앉아 실을 자으며 절대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나라의 왕이 나무 위에 앉아 있는-이마에 황금별이 박힌-공주를 발견하고 한눈에 반해 청혼한다. 결혼한 후에도 공주는 오빠들을 위해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았는데, 그 모습을 본 왕의 어머니가 공주를 웃지도 않는 요망한 마녀라고 헐뜯는다. 왕은 아내를 마녀로 모는 어머니의 말에 결국 아내를 사형시키는 데 동의하고 만다. 공주의 옷에 불이 붙으려는 순간 7년의 마지막 순간이 끝나고 열두 마리의 까마귀들이 하늘에서 날아와 사람으로 돌아온다. 오빠들은 불을 끈 뒤 공주를 껴안고, 말을 할 수 있게 된 공주는 그간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아내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게 된 왕은 기뻐했고, 그런 아내를 포함한 왕의 어머니는 끓는 기름과 독사로 가득 찬 통속에 갇혀 죽는다.

2) 오누이 (그림 형제 (2022). 오누이. 바로이북.)

계모 밑에서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어린 오누이는 오빠의 설득으로 함께 집을 나오게 된다. 갈증에 시달린 오빠는 샘물을 찾아 마시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누이는 ‘마녀인 계모가 샘에 저주를 걸었다’는 샘의 소리를 들었다. 그 물을 마시면 호랑이가 될 것이라는 샘의 소리를 들은 누이는 오빠를 말렸다. 두 번째 샘을 발견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늑대가 될 거라는 샘의 소리가 들려왔다. 오빠는 이번에도 누이의 말을 듣고 참았다. 하지만 세 번째 샘에서는 사슴이 되고 말 거라는 누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시고 만다. 결국 사슴이 된 오빠를 누이는 평생 지켜주겠다고 깊은 숲속의 빈집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누이는 홀로 살림을 꾸리고 잠자리를 마련했다. 사슴이 된 오빠는 누이가 주는 풀을 먹으며 즐겁게 놀고 밤이 되면 누이에게 기대 잠에 들었다. 어느 날, 한 나라의 왕이 그 숲에서 큰 사냥을 벌였다. 사냥을 한다는 소식에 사슴은 누이를 졸라 사냥터로 향한다. 사냥꾼들에게 상처를 입어도 사냥터로 향하던 사슴을 왕이 발견하고 그 뒤를 쫓아 집까지 들어온다. 누이를 보고 첫눈에 반한 왕은 청혼하고 누이는 사슴과 함께 지내는 조건으로 수락한다. 행복하게 지내는 세 사람의 소식을 들은 계모(마녀)는 질투에 휩싸여 왕비(누이)가 남자아이를 출산하는 때를 노려 욕실에 왕비를 가둬 질식사시키고, 몰래 데려온 외눈박이 친딸을 진짜 왕비인 것처럼 위장시켜 침대에 눕혔다. 왕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동안 왕자의 유모 앞으로 진짜 왕비가 나타났다. 요람 속 아이에게 젖을 주고 방구석의 사슴을 쓰다듬고 말없이 사라지는 진짜 왕비에 대해 유모가 왕에게 알린다. 직접 방을 지키고 있던 왕은 유모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발견한다. 첫날 밤엔 왕비를 그대로 보내지만 둘째 날엔 “그대가 나의 사랑하는 아내요!”하며 사라지려던 왕비를 붙잡는다. 그 순간 왕비는 신의 은혜로 생명을 되찾았고, 마녀와 딸은 왕이 연 재판에서 판결을 받는다. 마녀가 불에 타 재가 되자 오빠는 사슴에서 인간으로 돌아왔고 그 뒤로 오누이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열두 오빠〉, 〈오누이〉의 서사는 크게 △보호자 역할의 부재 △부모화 진행 △부모화의 심화 △탈부모화와 주체성 회복의 4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서사 분석은 4단계의 순차구조에 따라 진행하되, 두 작품의 공통 화소를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분석하기로 한다.

2. 보호자 역할의 부재

〈열두 오빠〉와 〈오누이〉 서사의 첫 부분에 제시된 가정환경의 공통점은 ‘부모 역할의 부

재'이다. 특히, 부모가 '보호자'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녀를 배척하는 공통된 태도를 보인다.

먼저 〈오누이〉 부모의 양육 태도와 남매의 성장 환경부터 살펴보자.

오빠가 누이동생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우리에게 좋은 날이라곤 없구나. 새엄마²⁾는 매일 때리기만 하고, 가까이 가면 발로 차서 쫓아버리지. 먹을 것도 고작 먹다 남은 딱딱한 빵부스러기뿐이니, 차라리 저 개가 우리보다 나아. 식탁 밑에 앉아서 수시로 맛있는 걸 얻어먹잖아. 우리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리 와, 같이 넓은 세상으로 나가자!”(그림 형제 (2022). 오누이. 바로이북.)

〈오누이〉에서는 폭력과 방임을 일삼는 양육자의 태도가 두드러진다. “매일 때리기만 하고, 가까이 가면 발로 차서 쫓아버리지”라는 인용 부분에서는 어머니의 폭력성이 드러나고, “먹을 것도 고작 먹다 남은 딱딱한 빵부스러기뿐”이라는 인용 부분에서는 자녀를 돌보지 않는 보호자의 방임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그로 인한 자녀의 성장 환경은 “차라리 저 개가 우리보다 나아”라는 아이들의 말처럼 비참할 지경이다. 더욱이 서사 속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는 가정 내에서 아버지 역할의 부재를 짐작케 한다. 남매는 아버지의 역할 부재와 어머니의 역할 비건강성으로 인해 결핍을 가진 존재가 된다.

반면, 〈열두 오빠〉에서는 아버지인 왕이 딸만 ‘편애’하고, 열두 아들은 배척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사랑의 과잉(딸)과 결핍(열두 아들)을 동시에 제공한다.

“앞으로 태어날 우리 13번째 아이가 만약에 딸이면 12왕자를 모두 죽일 거요. 그러면 우리 공주가 왕국을 혼자 차지하게 될 테고, 훨씬 더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게 될 거요.”

그러고는 관을 12개 만들어 관마다 대궐밥을 가득 채우고, 죽은 사람이 베고 누울 베개도 넣어 놓았어요. 그리고 관들을 들여놓은 방에 자물쇠를 채우고는 왕비에게 열쇠를 주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일렀어요. (그림 형제 (2022). 열두

2) ‘계모’는 사전적 의미인 ‘의붓어머니’에 해당하지만 서사 속 ‘계모’를 ‘아버지가 재혼해서 얻은 아내’로 단정 지을 수 없다. ‘계모’는 친엄마일 수도 있고, 부모나 아빠, 할머니, 이모, 고모, 선생, 선배 심지어 미래의 나 자신일 수도 있는 것이다 (신동훈, 2017). 이러한 다의성을 기반으로, 〈오누이〉 이야기에서 단계를 거듭하면서 변화하는 계모의 상징성을 살펴보는 것 또한 서사 분석의 중요한 요인이다.

오빠. 바로이복.)

위 인용문은 왕이 지나치게 공주는 편애하고 열두 왕자(오빠)는 배척하는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태어날 아이가 딸이라면 열두 왕자를 모두 죽이겠다”거나 “관을 12개 만들겠다”라고 선언하는 모습에서 그러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왕자들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공주가 왕국을 혼자 차지하면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게 되기 때문”으로 설명하며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편애를 합리화하고 있다. 아버지로 인한 열두 왕자(오빠)의 내면의 상처는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왕비의 유약한 태도로 인해 더욱 강화된다.

왕비는 하루 종일 깊은 슬픔에 잠겨 앉아 있었어요. (중략) 하지만 아들이 계속 줄라대자 마침내 왕비는 그 방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물쇠를 열고 대팻밥과 베개가 놓여 있는 12개의 관을 보여주었어요.

“사랑하는 벤자민, 이 관들은 아버지가 너와 너의 형 11명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 이란다. 이번에 내가 딸을 낳으면 너희를 모두 죽여서 여기 넣겠다고 하시는구나.”

왕비가 이렇게 말하며 흐느끼자 막내아들이 어머니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울지 마세요 엄마.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멀리 떠날게요.”(그림 형제 (2022).

열두 오빠. 바로이복.)

왕비는 열두 왕자의 예정된 죽음을 슬퍼하나, “하루종일 슬픔에 잠겨있을”뿐, 대책을 세우거나 죽음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어머니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은 막내 아들 벤자민에게 맡겨진다. “막내아들이 어머니를 위로하며”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멀리 떠나”겠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어머니와 아들의 위치가 뒤바뀌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열두 아들을 보호해야 할 존재인 어머니조차 되레 아들에게 기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자녀를 편애하는 아버지,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열두 아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어머니는 건강하지 못한 전형적인 부모의 양육 태도를 보여준다.

열두 오빠는 부모 역할의 부재로 인해 결핍을 가진 존재가 된다. 그리고 그 결핍은 분노로 바뀐다. 열두 오빠는 “계집아이 하나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죽어야 하다니! 맹세코 복수하고 말 테다. 계집아이를 보기만 하면 보는 족족 다 죽여 버릴 거야.”라며 여동생에게 극도의 분노를 표출한다. 열두 오빠는 결핍과 분노의 책임마저 부모가 아닌 여동생에게로 향한다.

이처럼 두 작품은 ‘부모 역할의 부재와 결핍’이라는 공통 화소를 지닌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오누이>에서는 부모의 폭력과 방임이 두드러지는 반면, <열두 오빠>에서는 편애와 회피가 두드러진다. 두 서사의 양육 태도는 다르나, 이후 서사 전개에서 편의의 수혜자인 <열두 오빠>의 공주, 폭력과 방임의 대상이었던 <오누이>의 누이가 보이는 부모화 양상은 유사하다. 이는 자녀에 대한 부모 사랑의 ‘과잉과 결핍’ 모두 부모화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부모화 진행

부모 사랑의 과잉 혹은 결핍을 경험한 존재들은 부재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대리자’가 된다. <열두 오빠>의 공주와 <오누이>의 누이는 공통적으로 낯선 환경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거치며 형제들에 대한 돌봄의식을 드러낸다.

*그들은 숲속으로 더 깊이, 가장 뻘뻘하고 가장 어두운 숲 한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곳에 마법에 걸린 작은 집이 있었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림 형제 (2022).
열두 오빠. 바로이북.)*

*그렇게 해서 오누이는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하루 종일 들판을 지나고 초원을 지나고
울퉁불퉁한 돌밭을 지났어요. (그림 형제 (2022). 오누이. 바로이북.)*

<열두 오빠>와 <오누이>에서 인물의 부모화는 낯선 공간과 보호자의 부재 확인에서 시작된다. 열두 오빠와 오누이는 주어진 결핍과 트라우마의 환경에서 탈출을 시도한다. 그러나, 탈출하여 도착한 곳은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고립된 공간이다. 부모화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숲’이라는 공간적 상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전해야 할 ‘집’이 오히려 생명 위협의 공간이 되면서 ‘숲’은 주인공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임시 공간인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공간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두 작품의 인물들이 낯선 공간에서 경험한 보호자의 부재는 ‘부모화된 아이’로서의 돌봄의식을 촉발시킨다.

두 작품의 서사는 공통적으로 낯선 공간에 고립된 상황에서 형제가 주체성을 잃게 되며 주인공의 부모화가 심화된다. <열두 오빠>에서는 오빠들이 까마귀가 되어 날아가 버리고, <오누이>에서는 오빠가 여동생의 금기를 어겨 사슴이 된다. 오빠들의 ‘동물 되기’는 장애인 동가이자 동물운동가인 수나우라테일러가 제시한 ‘동물로의 전환(animal turn)’ 개념과 맞닿아 있다. 장애학에서 동물로의 전환은 장애와 동물의 경계를 지우고 장애의 동물성을 긍정하

는 것이며, 더 나아가 장애인과 동물이 겪는 억압의 유사성을 찾는 연대의 움직임을 일컫는다. (이예린, 2023에서 재인용)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주체성을 잃고 동물로의 전환을 겪은 오빠는 장애 형제의 서사, 그를 돌보는 여동생은 부모화된 비장애 형제의 서사로 해석할 수 있다. 철학자 스테파니 켄킨스는 장애 차별과 종차별의 교차점 탐구에서 인지장애인과 동물의 배제를 정당화해 온 기제에는 이성, 언어, 자율성을 인간성의 조건으로 놓고 의존적으로 간주되는 몸에 낙인과 멸시를 가하는 관점이 있었음을 언급했다(Jenkins et al, 2020), (이예린, 2023에서 재인용). 이는 <열두 오빠>의 열두 왕자(오빠)와 <오누이>의 오빠의 ‘동물로의 전환’ 원인이 된다.

동물로의 전환을 겪은 장애 형제는 세상으로부터의 단절과 사회적 억압을 경험하게 된다. 단절과 억압 경험은 장애 형제의 능동성과 주체성을 스스로 상실하게 만든다. 구전서사에서 장애 형제의 능동성과 주체성 상실은 <열두 오빠> 속 열두 왕자(오빠)의 ‘까마귀 되기’³⁾와 <오누이> 오빠의 ‘사슴 되기’로 표상되고, 이들에 대한 세상의 단절과 사회적 억압은 ‘숲’이라는 고립된 공간으로 표상된다. <열두 오빠>에서 오빠들은 여동생이 7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아야만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다. 열두 오빠가 까마귀로 지낸 7년은 인간이 동물로서 세상과 소통하지 못한 채 지내는 시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오누이>의 오빠가 사슴으로 변한 것은 여동생에게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여동생의 허락 없이는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은 ‘동물 되기’를 통해 겪는 능동성·주체성의 상실과 억압을 의미한다.

두 작품에서 오빠들의 ‘동물 되기’는 ‘마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마법’은 세상과 단절되고 억압된 고립의 ‘숲’에서 오빠들 스스로 일종의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의 낙인을 상징하며, 능동성과 주체성 상실을 상징한다. 또한, <열두 오빠>의 공주와 <오누이>의 여동생과 같은 비장애 형제에게는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억압된 존재의 보호자로서 부모화가 심화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마법에 걸린 그 집 앞에 있는 작은 정원에는 백합꽃 12송이가 피어 있었어요. 공주는 밖으로 나가서 꽃을 꺾어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빠들의 식탁에 한 송이씩 놓아주면 무척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소녀가 꽃을 꺾자마자 오빠들은 순식간에 모두 까마귀로 변해 숲 위로 멀리 날아가 버렸고, 집도 정원도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그림 형제 (2022). 열두 오빠. 바로이북.)

3) ‘까마귀’는 스스로 집을 지을 수 없어 까치의 집을 약탈한다. 이러한 까마귀의 속성을 근거로 오빠들의 ‘까마귀 되기’를 능동성과 주체성을 상실로 해석할 수 있다.

〈열두 오빠〉의 공주는 고생 끝에 오빠들의 숲속 오두막집을 찾아낸다. 결핍의 서사를 지닌 오빠들이 거주하는 공간은 부모 사랑의 과잉을 상징하는 ‘이마에 금빛 별 하나 박혀 있는’ 공주의 빛나는 삶과 대비되는 햇빛도 잘 비치지 않는 작은 오두막집이다. 그런데 그곳 정원에 핀 백합꽃 12송이를 여동생이 꺾음과 동시에 오빠들이 까마귀로 변해 날아가 버리고 만다. 여기서 백합꽃 12송이는 열두 오빠의 자아를 상징한다.⁴⁾ 여동생은 열두 오빠가 집을 떠난 것에 대한 책임감과 죄책감으로 오빠들을 돌보고 기쁘게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부모에게 부정당한 내면의 상처를 끌어안은 채 힘겹게 어둠의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 오빠들의 유일한 삶의 버팀목인 자아정체성마저 꺾어버린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여동생은 선한 의도와는 무관하게 열두 오빠의 자아를 상징하는 백합꽃을 꺾어버린 존재이고, 열두 오빠는 여동생에게 꺾이는 존재가 되었다. 이는 〈열두 오빠〉 서사 도입부에 드러난 형제간 관계나 위치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지속됨을 의미한다.

“여기서 살자. 그리고 너 벤자민, 넌 가장 어리고 약하니까 집에 남아서 집안일을 하도록 해. 우리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올 테니.”

그들은 숲에서 토끼며 사슴, 새와 비둘기 등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잡아 왔고, 벤자민은 형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형들이 사냥해 온 짐승들을 요리했어요. (그림 형제 (2022). 열두 오빠. 바로이북.)

소녀는 요리할 때 쓸 장작을 모아 오고, 채소를 뜯어오고, 불 위에 올려 둔 냄비를 지켜보았어요. 그래서 늘 오빠들이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곧바로 저녁상이 차려지곤 했답니다. 소녀는 집안도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했고, 침대에도 늘 깨끗하고 새하얀 이불이 덮여 있었어요. (그림 형제 (2022). 열두 오빠. 바로이북.)

첫 번째 인용문은 여동생과 재회하기 전 오빠들의 생활을 보여준다. 오빠들은 비록 숲속 마법의 집에 갇혀 어둡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직접 사냥하고 요리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두 번째 인용문에서의 열두 오빠가 여동생과 함께 생활하면서부터 집안일의 주도권은 여동생이 가지게 된다. 여동생은 오빠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빠들의 자립성을 약화시키고 의존성을 강화시켜 놓았다. 이

4) 신동훈(2020)은 백합을 오빠들이 힘들게 지켜온 자존감의 상징으로 해석한 바 있다.

는 부모화가 비장애 형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 형제의 주체성과 자립성 또한 방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조약돌 위로 줄줄 흘러가는 조그만 시냇물을 발견하자 오빠는 곤장 물을 마시려고 뛰어갔어요. 하지만 누이동생은 시냇물이 줄줄 흐르며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중략) 세 번째 시냇물에 이르렀어요. 누이동생은 시냇물이 줄줄 흐르며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를 마시면 사슴이 돼!

나를 마시면 사슴이 돼!

누이동생이 말했어요.

“아, 오빠, 제발 마시지 마. 그 물을 마시면 오빠는 사슴으로 변할 거야. 그럼 나를 두고 멀리멀리 달아나버리겠지!”

하지만 오빠는 이미 시냇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몸을 잔뜩 구부린 채 시냇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물방울이 입술을 넘어가기 무섭게 오빠는 새끼사슴으로 변했습니다. (그림 형제 (2022). 오누이. 바로이북.)

〈열두 오빠〉에서는 열두 오빠가 먼저 떠나고 여동생이 뒤늦게 찾아갔다면, 〈오누이〉에서는 남매가 함께 길을 떠난다. 남매가 임시로 머무는 낯선 공간에서도 남매를 보호해 줄 대상은 없다. 부모의 폭력과 무관심으로 상처받고 오빠의 뜻에 따라 함께 떠나는 여동생의 출발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시작된다. 〈오누이〉의 여동생이 물을 마시려는 오빠를 말리며 “나를 두고 멀리멀리 달아나버리겠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동생의 불안과 두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여동생의 불안은 보호자가 없는 낯선 공간에서 오빠마저 자신을 떠나게 될까하는 두려움에서 촉발된다. 샘물의 물을 마실지 말지 판단해야 하는 것은 떠날 것을 제안한 오빠의 몫이었지만, 성장 과정에서의 결핍은 오빠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시킨다. 낯선 공간에서의 오빠의 불안과 두려움은 여동생보다 더 강하게 드러난다. 결핍된 상태에서 먼저 떠나자고 제안했던 오빠는 세 개의 샘물의 시험 앞에서 점차 능동성과 주체성의 약화를 보이다 결국 사슴 되기를 통해 상실하게 된다. 오빠의 사슴 되기는 앞으로의 여정에서 주체적인 판단력의 상실을 의미하고 이는 곧 여동생의 돌봄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갈등을 참지 못하고 샘물을 마신 뒤 사슴이 된 오빠로 인해 여동생은 마음의 준비 과정도 없이 오

빠의 보호자가 되어 버린다. 이처럼 <오누이>에서는 사슴이 된 장애 형제를 무방비 상태에서 책임지게 되면서 부모화 양상이 드러나게 된다.

4. 부모화의 심화

두 작품의 서사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장애 형제의 부모화 양상’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열두 오빠>와 <오누이>는 공통적으로 비장애 형제 서사를 지닌 여동생이 ‘자기희생’이 전제된 부모화 양상을 드러내며, 이는 ‘파괴적 부모화 유형’에 해당한다.

갑자기 웬 할머니가 옆에 나타나 말했어요.

“이런,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네 열두 오빠들은 이제 영원히 까마귀로 변해버리고 말았구나.”

소녀가 울면서 물었어요.

“오빠들을 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없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7년 동안 병어리로 살면서 말을 해서도 웃어서도 안 되니까 말이야. 네가 단 한 마디라도 말을 하면, 7년에서 단 1시간이라도 모자라면, 네 오빠들은 모두 죽게 되거든. 그동안 고생한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거지.”

소녀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난 해낼 수 있어. 오빠들을 꼭 구해낼 테야.”

소녀는 키 큰 나무를 찾아 그 위로 올라가 앉았어요. 그곳에서 실을 지으며 절대로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았어요. (그림 형제 (2022). 열두 오빠. 바로이북.)

<열두 오빠>에서 오빠들이 까마귀로 변한 후에 등장하는 노파는 누이의 부모화된 자아를 상징한다. 노파의 “이런,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라는 말이 누이에게 향한다는 점에서 누이가 지닌 책임감과 함께 오빠들이 까마귀로 변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드러난다. 이후, “7년 동안 병어리로 살면서 말을 해서도 웃어서도 안 된다”는 부분에서는 지나친 자기희생적 태도와 함께 파괴적 부모화 양상을 드러낸다. 그리고 “오빠들을 꼭 구해”내겠다며 나무 위에 올라가 말을 하지도 웃지도 않는 모습은 여동생이 자기 삶의 주인공이 아닌 자기희생을 통한

파괴적 부모화가 된 보호자의 위치에서 살아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⁵⁾

“안심해. 사슴 오빠, 난 절대로 오빠를 떠나지 않을 거야.”

소녀는 금실로 짠 양말 댕념을 풀어 사슴의 목에 감아주었어요. 그리고 갈대를 모아 부드러운 밧줄을 엮어서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슴과 자신의 몸을 연결했어요. 소녀는 사슴을 이끌고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어요. (중략) 소녀는 나뭇잎과 이끼들을 모아 새끼사슴에게 부드러운 잠자리를 만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먹을 나무뿌리며 딸기, 개암나무 열매, 그리고 사슴이 먹을 신선한 풀을 모아 왔어요. 새끼사슴은 소녀가 주는 풀을 받아먹으며 즐겁게 뛰놀았어요. 밤이 되면 누이동생은 피곤한 몸으로 기도를 올리고 나서 새끼사슴의 등에 머리를 얹고 누웠어요. 그렇게 사슴의 등을 베개 삼아 포근히 잠들곤 했답니다. 오빠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멋진 삶이었죠. 그렇게 오랫동안 오누이는 외진 숲속에서 외로이 살았어요. (그림 형제 (2022). 오누이. 바로이북.)

〈오누이〉의 여동생은 마치 부모가 아이를 돌보듯 오빠의 의식주를 챙기며 부모의 위치를 내면화한다. “오빠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은 여동생의 책임감이 극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후, 부드러운 잠자리를 만들어주거나 매일 아침 먹을 것을 구해오는 것을 통해 〈열두 오빠〉의 공주와 같은 자기희생적 태도를 보인다. 또한 “새끼사슴은 소녀가 주는 풀을 받아먹으며 즐겁게 뛰놀았”다는 인용문의 내용은 장애 형제의 주체성 상실과 퇴행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작품의 서사 속 부모화의 극대화 양상은 〈열두 오빠〉의 공주와 〈오누이〉의 여동생의 결혼 이후의 서사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엄청나게 호화롭고 성대하고 즐거운 결혼식이 열렸어요. 하지만 신부는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았어요. (중략)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왕의 어머니가 젊은 왕비를 중상모략하기 시작했어요. 왕의 어머니는 무척 사악한 여자였거든요. (중략) 왕은 처음

5) 신동훈(2020)은 여동생의 침묵의 7년을 상처받은 형제들과 같은 입장이 되기 위하여 늘 혜택을 누리던 삶과 완전히 선을 긋는 행위 즉, 수혜자 여동생과 피해자 열두 오빠 사이의 심연을 메우는 시간으로 해석하였다. 7년의 침묵이 공주의 결혼 이후에도 지속되며, 7년의 침묵은 공주의 결혼생활을 파국 직전까지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열두 오빠와의 심연을 메우는 공주의 형제서사가 공주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에는 전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늙은 어머니가 하도 끈질기게 몰아세우며, 왕비가 이런 저런 나쁜 짓을 했다고 계속 말하자 결국 넘어가, 왕비를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하고 말았어요. (그림 형제 (2022). 열두 오빠. 바로이북.)

〈열두 오빠〉의 공주는 제 삶을 책임지는 부부서사로 나아가는 통과의례인 결혼식에서조차 오빠들을 위한 침묵을 지속하며 말하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 부모화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왕의 청혼과 결혼은 오빠들로부터 분리된 존재로서 자기서사를 만들어갈 기회이다. 그러나 부모화가 해소되지 않은 채로 결혼식만 올린 상황에서는 개인의 성장, 가족 내에서의 역할, 삶의 목적 그 어느 것에서도 통과의를 통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특히 두 번째 인용문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등장했음에도 자신을 지키기보단 오빠들을 구하려는 마음을 다지며 자기희생적 면모만 반복할 뿐이다.

여동생의 파괴적 부모화 양상은 〈오누이〉에서도 두드러진다.

왕은 다정하게 아가씨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어요.

“나와 함께 성으로 가서 내 아내가 되어주겠소?”

왕이 물었어요.

“아, 네. 하지만 사슴도 같이 가야 해요. 전 사슴을 버릴 수 없어요.”

아가씨가 대답했어요. (중략) 왕비는 아기를 요람에서 꺼내 가슴에 안고는 젖을 먹였어요. 그리고 작은 베개를 톡톡 털어 아기를 다시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왕비는 사슴도 잊지 않았어요. 구석에 누워있는 사슴에게로 걸어가서 다정하게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림 형제 (2022). 오누이. 바로이북.)

여동생은 왕의 청혼에 “사슴도 같이 가야 한다”라며 “사슴을 버릴 수 없다”라고 표현한다. 결혼의 조건으로 사슴과의 동행을 내건 것이다. 여동생의 장애 형제에 대한 자기희생적 돌봄의 집착은 〈열두 오빠〉의 공주보다 더욱 강력하게 드러난다. 〈오누이〉의 여동생은 결혼 후에도 독립된 자기서사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사슴으로 표상된 장애 형제의 삶에 귀속되어 파괴적 부모화의 삶을 지속하고 지향한다. 특히, 마녀에 의해 목숨을 잃은 후에도 자신의 아이와 동등하게 사슴을 챙기는 모습은 자기희생이 돋보이는 파괴적 부모화의 대표적 면모이다.

결혼은 한 인물의 독립과 성장 그리고 인격 통합을 상징한다. 동등한 자녀서사에 위치한

형제서사에서 독립된 주체로서의 부부서사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열두 오빠〉의 공주와 〈오누이〉의 여동생은 여전히 형제와 분리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 〈열두 오빠〉의 공주가 7년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혼 후에도 말을 하지 않았고, 〈오누이〉의 여동생이 사슴과 함께하는 조건으로 청혼을 승낙한 것처럼 말이다. 이후, 〈열두 오빠〉에서는 시어머니, 〈오누이〉에서는 마녀에 의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비장애 형제는 제 목숨을 지킬 내면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장애 형제를 위한 돌봄의 삶, 자기희생적인 삶에 투신한 나머지 자기를 방어하고 지킬 힘을 기르지 못한 탓이다. 〈오누이〉의 여동생은 아기를 낳아 부모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형제를 자신의 아이와 동일하게 대하며 부모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지금까지는 두 서사의 순차구조와 유사한 상징성을 지닌 화소 분석을 통해 장애 형제의 주체성 상실 과정과 비장애 형제의 부모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두 작품의 결말부 서사를 통해 비장애 형제의 탈부모화와 장애 형제의 주체성 회복을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III. 구전서사 속 비장애 형제의 탈부모화

1. 비장애 형제의 탈부모화

두 작품의 비장애 형제의 서사가 자기희생으로서의 파괴적 부모화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 〈열두 오빠〉의 시어머니와 〈오누이〉의 마녀로 인한 공주의 ‘죽음 위기’와 여동생의 ‘죽음’은 모두 비장애 형제의 삶에 대한 주체성 파괴를 상징한다. 하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공주는 죽음을 모면하고, 여동생은 새 생명을 얻어 소생하게 되면서 두 작품은 비장애 형제의 삶에 대한 주체성 회복을 그리는 서사로 나아가게 된다. 이와 동시에 장애 형제 또한 ‘인간으로 되돌아오기’를 통해 주체성을 회복하게 된다.

서사적 유사성을 지니는 두 작품은 결말부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는 비장애 형제의 탈부모화 및 장애 형제와의 공존 방식의 차이를 낳는 핵심적 요소에 해당한다.

먼저 〈오누이〉의 결말부를 살펴보자.

커튼 속에 숨어있던 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왕비에게로 튀어나가며 말했어요.
“그대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분명하오!” 그러자 왕비가 대답했어요. “네, 난 당신의

*아내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은총이 내려와 왕비의 생명을 돌려주었어요.
왕비는 전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졌어요. (그림 형제 (2022). 오누이. 바로이북.)*

〈오누이〉의 여동생은 죽어서도 아기와 사슴을 돌보기 위해 궁전으로 찾아온다. 왕은 이러한 왕비를 보고 “당신은 내 사랑하는 아내가 분명하오!”라고 외친다. 이러한 왕의 외침에 왕비는 “난 당신의 아내”라며 사슴의 여동생(보호자)가 아닌 왕의 아내, 아기의 어머니 지위와 역할을 각성한다. 장애 형제의 부모화 단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제 삶의 주인공으로서의 주체적 첫 발화이다. 결혼한 이후에도 독립된 개체로 서지 못한 채 아이와 오빠를 돌보며 부모 서사로만 살아왔던 인물이 부부서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왕비는 못된 마녀와 딸이 자기에겐 무슨 짓을 했는지 왕에게 다 말했어요. 왕은 두 사람을 법정으로 끌고 와 재판을 받게 했어요. 판결이 내려졌어요. 숲속으로 추방당한 딸은 사나운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고, 마녀는 불 속에서 비참하게 타 죽었어요. 마녀의 몸이 재가 되는 순간 사슴에게 걸렸던 마법의 주문도 풀렸어요. 오빠는 다시 인간의 모습을 되찾았고, 오누이는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그림 형제 (2022). 오누이. 바로이북.)

이후 남매는 행복을 되찾는다. 왕비(여동생)를 죽인 마녀와 그 딸은 처벌받고, 오빠는 사슴에서 인간으로 돌아온다. 앞 서사구조에서 인간의 동물 되기를 주체성의 상실로 해석한 것과 같이, 결말부에서 동물로 변한 존재가 인간으로 돌아오는 것은 주체성의 회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사슴이 된 오빠가 돌아오기 위한 전제 조건은 ‘계모의 소멸’이다. 앞서, 계모의 상징성이 서사 진행에 따라 변화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누이〉 서사 전반부의 계모는 ‘부모 역할이 부재한’ 부정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부모를 상징했다면, 이후 오빠가 사슴이 되는 과정에서의 주술성을 지닌 계모는 ‘주체성 상실의 계기가 되는 사회적 환경의 낙인이자 사회적 낙인에 따른 의존적 존재로의 자발적 낙인’을 상징한다. 따라서 결말부에서의 계모의 소멸은 ‘주체성 상실의 원인적 존재의 소멸’을 의미하며 장애 형제의 주체성 회복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오누이〉 서사구조는 계모 소멸과 동시에 동물이 된 형제의 인간화로 귀결되는 것이다.

한편, 〈오누이〉에서 계모의 상징성은 서사의 결말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여동생의 내면과도 맞닿아 있다. 계모와 외눈박이 딸의 관계는 일방적인 돌봄이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계모

는 자기 삶의 지향을 외눈박이 딸에게 귀속시켜 외눈박이 딸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딸의 삶을 대신 설계해 나간다. 이는 사슴이 된 오빠를 통제하려는 부모화된 여동생의 모습과 닮아있다. 여동생의 외면은 왕의 아내인 왕비이지만, 내면은 부모화된 비장애 형제의 모습이다. 왕비가 된 여동생의 표면과 이면적 지위와 역할의 불일치성은 여동생을 제 자녀의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형제의 부모화된 비장애 형제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의 혼란을 불러 일으킨다. 이런 가운데 왕비는 계모에 의해 질식사 당한다. 계모와 부모화된 여동생을 동일한 인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계모에 의한 왕비(여동생)의 질식은 극대화된 파괴적 부모화로 인한 독립된 가정의 어머니, 아내로서의 정체성 부정과 파괴를 의미한다. ‘질식사’는 부모화된 정체성에 잠식되어 제 삶의 정체성을 놓아버린 존재의 종말을 상징한다. 하지만 〈오누이〉 서사에서는 왕비(여동생)에게 회복의 기회가 주어진다.

〈표 1〉 〈오누이〉 결말부 분석

단계	내용
① 비장애 형제의 탈부모화	해소의 전제 조건 : 부모화된 자아와의 분리
계모의 소멸	상징성 ① : 주체성 상실의 원인 상징성 ② : 부모화된 내면
② 장애 형제의 주체성 회복	회복의 전제 조건 : 주체성 상실의 원인 제거

여동생은 죽은 후 왕의 아내인 왕비로서의 정체성을 각성한 후 소생한다. 왕비의 소생과 동시에 부모화된 자아와 동일시되었던 계모는 소멸된다. ‘계모의 소멸’은 [표1]과 같이 비장애 형제인 여동생의 자기서사 성장을 방해했던 부모화된 자아와의 분리를 의미하며 비장애 형제의 탈부모화와 장애 형제의 주체성 회복의 계기를 마련한다.

다음으로, 〈열두 오빠〉의 결말부를 살펴보자.

하지만 늙은 어머니가 계속해서 왕비를 헐뜯자 결국 왕도 어머니의 말에 넘어가 왕비를 화형시키도록 명령했습니다. (중략) 왕비가 말뚝에 묶이고 곧이어 시뻘건 불길의 혀가 왕비의 옷자락을 핏고 있을 때 만 7년의 기한이 다 찼습니다. 그 때 갑자기 공중에서 새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12마리의 까마귀가 왕궁을 향해 날아와 쏜살같이 왕궁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까마귀들이 땅에 발을 딛자마자 그들은 왕비의 열두 오빠로 변했습니다. (중략) 그들은 불붙은 나무들을 해쳐 불을 끄고 말뚝에 묶인 여동생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림 형제 (2022). 열두 오빠. 바로이북.)

〈열두 오빠〉 서사의 결말부는 공주가 약속된 7년이 마무리되는 순간, 열두 오빠는 인간으로 돌아와 화형을 당하는 여동생의 목숨을 구해준다. 〈열두 오빠〉에서의 열두 오빠의 인간화의 시간성은 〈오누이〉 오빠의 인간화의 시간성과 다르게 나타난다. 비장애 형제의 탈부모화 성취 이후에 장애 형제의 주체성 회복이 일어나는 〈오누이〉와 달리 〈열두 오빠〉에서는 동물 형제의 인간화, 즉 장애 형제의 주체성 회복이 선행된다. 이러한 〈열두 오빠〉의 결말은 〈오누이〉와 대비되는 한계를 지닌다.

첫 번째 서사적 한계는 7년간의 공주와 오빠들의 서사적 공백이다. 작품 속에서 오빠들의 7년의 서사는 다루어지지 않고 여동생의 7년간의 침묵의 서사만 존재한다. 약속된 7년의 시간이 끝난 순간, 오빠들은 인간으로의 변화와 함께 나타난다. 앞서 ‘7년간의 침묵’을 여동생의 지나친 책임감의 상징이며 파괴적 부모화의 단면을 비추는 화소로 분석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보면, 오빠들의 주체성은 오로지 여동생의 책임감과 희생만으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서사적 한계는 여동생의 탈부모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빠들의 주체성이 여동생의 책임감과 희생만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은 여동생의 부모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 〈열두 오빠〉 결말부 분석

단계	내용
① 비장애 형제의 탈부모화	-
② 장애 형제의 주체성 회복	회복의 전제 조건 : 부모화된 존재의 책임감

〈열두 오빠〉 서사의 결말부를 여동생의 시점에서 해석하면 여동생은 7년 동안의 침묵으로 표상된 책임감의 보상으로 동물 형제의 인간화, 형제의 귀환을 받아낸 것이다. 따라서 [표2]와 같이 장애 형제의 주체성은 회복되었으나 여동생에게는 비장애 형제로서의 탈부모화와 왕비로서의 정체성 회복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2. 장애-비장애 형제의 공생과 공존

〈오누이〉와 〈열두 오빠〉 두 작품에서 주목해야 하는 주변 인물은 ‘왕’이다. 〈오누이〉와

〈열두 오빠〉 서사 결말부에서는 공통적으로 여동생에게 사랑에 빠진 왕이 등장하고, 여동생은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화 단계에서 왕과 결혼하게 되면서 ‘궁전’이라는 새 삶의 터전에서 새로운 갈등과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곳에서 여동생은 ‘죽음’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 왕과의 결혼으로 왕비가 된 〈오누이〉의 여동생이 겪는 죽음과 〈열두 오빠〉의 여동생이 겪는 모함으로 인한 죽음 직전의 위기 앞에 왕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두 작품의 결말은 차이를 보인다.

〈표 3〉 탈부모화 및 주체성 회복 과정

단계	결과	
	〈열두 오빠〉	〈오누이〉
위기 (위협하는 존재 등장)	부모화 극대화	부모화 극대화
왕의 역할 (부재/존재)	왕의 역할 부재 =사회/국가 차원의 노력 부재	왕의 노력 =사회/국가의 노력
비장애 형제의 탈부모화	탈부모화 실패	탈부모화
장애 형제의 주체성	서사의 공백: 주체성 회복 과정 부재	주체성 회복

왕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배경 모두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인물로, 민담에서의 왕은 종교적 제의, 정치적 제도 등 집단의식의 지배원리의 표상으로 여겨진다. (이승섭, 2023) 왕의 가장 큰 역할은 국가 운영과 백성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만들어 국가 질서를 유지하고 백성이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집단의식 지배원리의 표상으로서의 ‘왕’은 집단을 상징하는 국가와 사회 시스템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오누이〉에서 오빠가 사슴이 되면 자신에게서 도망칠 것이라고 두려워했던 여동생은 깊은 숲속의 빈집으로 들어가 나뭇잎과 이끼로 오빠의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아침마다 밖으로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는 등 육체적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왔다. 왕은 이런 여동생에게 청혼하며 결혼 후에도 사슴과 함께 있어도 좋고, 사슴은 편하게 지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다. 왕과의 결혼 후, 여동생은 내면의 부모화는 해소하지 못했지만, 육체적으로는 편안한 생활을 누린다. 이는 왕으로 표상되는 사회 시스템의 혜택이 비장애 형제인 여동생과 장애 형제인 사슴에게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왕은 왕비인 여동생의 시련과 죽음 앞에서 그녀를 외면하지 않고 지키고 각성시키는 노력을 통해 왕비의 소생 그리고 왕비의 탈부모화와 주체성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왕으로 표상되는 사회의 중요성 그리고 제도와 시스템의

필요성을 되새기게 한다.

반면, 〈열두 오빠〉에 나타난 왕은 〈오누이〉에 비해 무력한 모습을 보인다. 〈열두 오빠〉의 왕은 여동생과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지만, 이후 위기 단계에서 여동생(왕비)을 위협하는 존재인 어머니가 부인을 포함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응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화형에 동의함으로써 아내인 왕비의 책임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오히려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왕비(여동생)의 부모화된 내면의 책임감에 육체적·정신적 고통까지 가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화형당하는 아내를 보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왕의 모습은 사회의 역할과 시스템 부재를 보여준다. 비장애 형제인 여동생 개인의 희생으로 장애 형제인 까마귀의 인간화를 통한 장애 형제의 주체성 회복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장애 형제에 대한 책임은 비장애 형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그 무게감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장애 형제에 대한 책임은 장애 가족이나 비장애 형제 개인에게 온전히 지울 것이 아니라 사회 제도나 시스템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장애 형제가 회복한 주체성을 사회에서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열두 오빠〉에서는 왕으로 표상되는 사회의 역할도, 사회 제도와 시스템도 부재하기에 개인에 불과한 여동생은 부모화된 책임감을 쉽게 내려놓을 수 없으며, 탈부모화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열두 오빠〉의 공주를 위협하는 시어머니와 〈오누이〉의 여동생을 위협하는 마녀가 등장한 위기 상황에서의 왕의 태도와 역할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오누이〉의 여동생이 왕비로서의 자기서사를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의 지지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고, 〈열두 오빠〉의 공주가 끝내 침묵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왕이 왕비를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로부터 지지받는 인물과 그렇지 못한 인물의 서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시사한다. 두 작품 속 왕의 역할과 태도의 차이는 비장애 형제와 장애 형제 서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비장애 형제의 탈부모화와 장애 형제와의 공존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사회 역할 그리고 사회 제도와 시스템이 동반되어야 가능하다.

“부모님은 ‘엄마 아빠가 없을 때는 네가 엄마처럼 (형제들) 돌봐야 해’라기 보다는 ‘네가 누나로서 해줄 수 있는 데까지만 책임을 지라’고 했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게끔 신경도 많이 써주셨다.”

“공교육에서는 수업은 도움반에 분리돼 빠지고, 어떤 수업은 참여하지만 가만히 앉아있는 형태다. 그런데 대안학교에서는 서로 함께 활동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거부감이 덜한 편인 것 같다.”

“현재 하는 일이나 꿈에 형제의 영향은 없었다. (형제의) 엄마가 아닌 형제로서 분리되고 독립된 존재라고 느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분야의 진로 (미술)을 택했다. 만약 크게 하고 싶었던 것도 좋아하는 것도 없었다면 사회복지사 쪽으로 갔을 것 같다.”

위 인용문은 두 살 터울의 발달장애인 동생이 있는 비장애 형제 A 씨와의 인터뷰 내용의 일부이다.⁶⁾ A 씨는 장애 형제를 고려한 진로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부모로서의 자아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선택의 기반에는 돌봄에 대해 부모가 큰 책임감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 대안학교 재학 경험으로 통합교육을 경험했던 점 등 주변 사람들과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가 도움이 되었다고 증언한다.

비장애 형제의 탈부모화와 장애·비장애 형제의 건강한 공존을 위해서는 <오누이>의 왕으로 표상되는 사회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김수정 등 (2024)은 비장애 형제의 돌봄 부담 해소와 자존감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가족과 사회의 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장애·비장애 형제의 공존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제도적 실천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또한, 전소정(2023)이 6명의 비장애 형제를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면담에서 한 참여자가 “이번 심층 인터뷰는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경험을 했고 평상시 굳이 말할 필요를 못 느꼈거나 말하고 싶어도 적절한 대상이 없었던 원가족에 대한 자기 생각을 속 시원하게 할 수 있어 좋았다”라고 밝히며 누군가의 보호자가 아닌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비장애 형제의 심리적 치유의 방안을 모색하고 그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의 역할 또한 필요하다.

지금까지 비장애 형제의 부모화 양상이 드러나는 <열두 오빠>와 <오누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을 통해 탈부모화 및 주체성 회복의 필요성과 조건에 관해 논의하였다. 특히, 두 서사의 결말부 차이가 사회로 표상된 ‘왕’에게서 기인하였음을 통해 탈부모화 및 공존에 있어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결론에서는 해당 연구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를 논하기로 한다.

6) 연구팀은 2024년 7월 7일에 A 씨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IV.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 가족 내 비장애 형제의 부모화 양상에 주목하여 논의를 이어갔다. 구전 서사의 심층 분석을 통한 양상 발견 및 해결책 제시를 방법론으로 하여 탈부모화 및 장애·비장애 형제의 공존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부모화 양상의 네 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이중 파괴적 부모화에 주목하여 <열두 오빠>와 <오누이>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II. 본론 1장에서는 두 작품의 공통 화소를 통해 장애인 가족 내 비장애 아동의 강박적 책임감을 발견하였고 2장에서는 결말부 차이점에 주목하여 가족을 둘러싼 공동체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특히, <오누이>에서 장애·비장애 형제의 공존이 가능했던 근거로 사회를 상징하는 인물인 ‘왕’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탈부모화 및 공존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아 긍정을 넘어 가족 단위의 사회적 복지가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 비장애 형제의 관계 속에서 비장애 형제의 탈부모화 문제를 다뤄 다층적인 논의를 펼치고자 하였다. 특히 그 방법론으로 구전 서사 분석을 선택하고 구전 서사가 지닌 해석의 다양성을 활용하여, 구전 서사가 조명하는 장애, 비장애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구전 서사의 다의적 해석 가능성은 장애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요 방법론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더불어, 본 연구자들은 이번 연구가 장애·비장애 형제간 관계 개선 및 장애, 비장애 형제 가족의 행복한 공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장애·비장애 형제의 모습을 구전 서사 속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가 더욱 많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그림 형제 (2022). 열두 오빠. 바로이북.
- 그림 형제 (2022). 오누이. 바로이북.
- 김귀자 (2002). 자폐성 장애아의 비장애 형제자매와 일반학생의 자아개념 비교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 김다혜, 한재희 (2016). 지적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자매의 심리적 현상. **상담학연구**, 17(5), 357-375.
- 김수정, 김동일, 이재호 (2024). 성인 장애인 가족의 가족탄력성과 가족 외부의 사회적 지지가 비장애 형제자매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58(4), 81-101.
- 김효현 (2019). 부모화된 청소년을 위한 문학치료 사례연구. **문학치료연구**, 53, 79-132.
- 김효현 (2021). 부모화된 청소년의 탈부모화를 위한 문학치료 프로그램 설계 - 〈바리데기〉설화를 바탕으로. **문학교육학**, 70, 9-38.
- 백영순, 박순길 (2023). 장애를 가진 형제를 둔 비장애학생의 회복탄력성과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24), 203-216.
- 손주희, 박주희 (2019). 성인초기 비장애 형제자매의 부모화 경험이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과 거부민감성의 조절효과. **Human Ecology Research(HER)**, 57(3), 445-457.
- 신동훈, 고전과출판연구모임 (2010). 프로이트, 심청을 만나다.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신동훈 (2013). 문학치료에서 외국설화의 활용 가능성 탐색 - 그림형제 민담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27, 9-46.
- 신동훈 (2017). 서사적 화두를 축으로 한 화소·구조 통합형 설화분석 방법 연구. **한국구비문학회, 구비문학연구**, 46, 35-84.
- 신동훈 (2020). 옛이야기의 힘. 서울: 나무의 철학.
- 안다혜, 정주리 (2021). 성인 비장애 형제자매의 부모화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 형제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 725-743.
- 양유리 (2015). 미술치료가 장애아동을 둔 비장애 형제의 우울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5(2), 107-121.
- 유미향, 원희량 (2023). 발달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 아동의 퇴행 행동 및 우울, 불안 개선을 위한 미술치료 질적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30(6), 1589-1610.

- 유신복, 손원숙 (2014).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기본심리욕구, 정서조절 및 공격성간의 구조적 관계. **教育心理研究**, 28(1), 205-224.
- 이경순, 윤채영 (2017). 비장애 형제의 상담연구동향 분석: 1999-2015년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연구**, 27(2), 199-220.
- 이경하 (2022). 장애인과 보호자의 관계로 다시 읽는 <심청전>-영화 <코다>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46, 39-58.
- 이동희 (2010). ‘부모화된 아이’를 위한 <심청가>의 문학치료적 의의. **口碑文學研究**, 30, 241-270.
- 이민경 (2019). 장애인 가족 돌봄부담의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 연구-돌봄지원의 조절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44, 121-148.
- 이승섭 (2023). 민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의 분석심리학적 이해. **心性研究**, 38(1), 161-200.
- 이예린 (2023). 지적장애인, 동물화, 그리고 동물로의 전환 - 장애해방과 동물해방의 교차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장애학**, 8(2), 11-41.
- 이윤미 (2015). 장애아동의 비장애 형제 관련 연구동향, 국내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전소정 (2023). 성인 비장애 형제자매의 생애 경험과 관계 경험이 미치는 가족인식에 대한 이해 및 지원방안 모색. **발달장애연구**, 27(2), 135-159.
- 조은영, 정태연 (2004). 자녀의 부모화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들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여성**, 9(1), 43-62.
- 최하나, 이행숙, 한유진 (2023). 신체접촉중심 집단놀이치료가 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의 자아탄력성 및 포래유능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8(2), 45-64.
- 최현주 (2021). 형제자매의 장애 유무에 따른 청소년의 부모화 유형과 거부민감성 및 우울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4), 1715-1737.
- 홍은주, 유금란 (2020). 부모화된 자녀의 탈부모화 경험 연구: 성인초기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 14(1), 97-132.

논문 투고 : 2024.10.14.	논문 심사 : 2024.12.2.	게재 확정 : 2024.12.11.
---------------------	--------------------	---------------------

Abstract

Parentification of non-disabled siblings in families with disabled members : Insights from oral narratives

SuBin Yu*, JuWon Seo**, NaRin Lim***, HyeonSuk Park****

According to Jurkovic (2004), “parentification” refers to a phenomenon where young children take on part of the parental role and care for family members, leading to a reversal of roles. Children who are “parentified” due to this role reversal often display maturity and competence from an early age, but they may also develop a compulsive sense of care that neglects their own inner needs, which can result in psychological pathology in severe cases. Jurkovic (1997) classified types of parentification into three categories: destructive parentification, adaptive parentification, and non-parentification. This study focuses on “destructive parentification.”

Many children of parents with disabilities or non-disabled siblings of disabled brothers feel an excessive sense of responsibility towards their disabled siblings from a young age, leading to a tendency to become “adult children” or “parentified.” This sense of responsibility to take on parental roles can result in overwhelming burdens and feelings of depression.

* Under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nkuk University

** Under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nkuk University

*** Under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nkuk University

**** Lecture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narratives of Grimm's fairy tales <Twelve Brothers> and <The Brother and Sister> to understand the patterns of parentification among non-disabled siblings in relation to their disabled siblings, the process of de-parentification, and the recovery of agency for the disabled siblings. Furthermore, it narratively analyzes the social roles necessary for coexistence and symbiosis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sibling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multi-layered discussion of the parentification patterns of non-disabled siblings in relation to their disabled siblings through oral narratives, as well as its presentation of conditions for de-parentification and healthy coexistence.

Keywords: non-disabled siblings, parentification, oral narrative, de-parentification, coexistence

장애의재해석 제5권 제2호

2024 Vol. 5, No. 2, 187 - 207

탈시설의 개념적 분석과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적용방안*

이승기**

본 연구에서는 탈시설의 개념적 분석과 탈시설을 위한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탈시설에 대한 개념적 논쟁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거주공간의 이전(移轉)이 이루어진 것을 탈시설화로 정의하고, 거주공간에서의 이전(移轉)을 기준으로 이전(以前) 단계와 이후(以後)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전(以前) 단계와 이후(以後) 단계에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적용 방안을 분석하여, 이전(以前) 단계에서는 탈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적 적용 방안을 1단계로 추진하고, 이후 거주시설 의 전체 장애인에 대한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以後) 단계에서는 개인예산제의 전면적 적용을 통하여 장애인의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에게 서비스에 대한 선택과 통제를 확보토록 하고, 필요한 서비스의 전반적인 제공을 지원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개인예산제의 적용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과 통제가 강화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장애인 개인예산제, 선택과 통제, 탈시설, 장애인거주시설

* 이 논문은 2021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탈시설의 개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탈시설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적용방안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일상적인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이념은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바탕으로 자립적 삶을 실현할 방향성을 제시하며(서동명 외, 2022), 정상화(Normalization) 이론은 장애인의 삶이 비장애인의 삶과 동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념적 토대를 제공한다(이선우·이수경, 2021).

자립생활과 정상화가 이념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삶의 방향성을 규정한다면, 탈시설에 관한 논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적 삶을 실현토록 하는 실천적 차원에서의 담론이다. 거주시설 내 장애인의 삶은 인권 침해적 상황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으며, 거주시설의 통제적이고 집단적인 환경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김정수, 2019). 이에 탈시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야기되어 왔다.

탈시설을 둘러싼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상반된 입장으로 구분된다. 첫째,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 환경으로 거주시설의 기능을 전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즉 거주시설의 거주 기능을 기본으로 하되, 다양한 형태의 시설 유형화 및 기능 전환을 통해 개별 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 관점은 지역사회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탈시설이 장애인과 가족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기반한다(박민희, 2021). 둘째, 거주시설의 본질적 구조가 장애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시설을 유지한 채 장애인의 주체적 삶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최은정, 2020).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물리적 거주 환경을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탈시설만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적 삶이 보장되기는 어렵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삶이 주체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며, 탈시설 이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자립을 위해 요구되는 개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사회적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합적 지원체계의 하나로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므로(이승기·이성규, 2014), 이를 탈시설 및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과정에 적용한다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이번 정부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국정과제로 포함되면서 개인예산제 도입에 대한 연구 및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탈시설의 개념적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이 탈시설과 개인예산제를 각각 독립적으로 다룬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이 둘의 연계 가능성에 주목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적용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II.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혹은 탈시설화¹⁾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 중 시설에서 나와 자립하고자 하는 사람과 시설에서 삶을 지속하고 싶은 사람의 비중이 연구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각각 5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강정배 외, 2020; 오욱찬 외, 2019). 이러한 결과를 단순히 인정한다면 시설에서 생활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시설의 기능을 개편하여 보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설에서 나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탈시설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삶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시설에서 살기를 원하는 장애인에게 탈시설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으며,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시설의 기능 개편을 통해 시설에서의 삶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음을 말해 준다.²⁾

장애인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을 계속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에의 통합된 삶을 목표로 한다면 그간 지적되어온 시설의 집단거주 및 통제 등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시설 거주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으나 가능한 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설 거주를 원하는 장애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1) 본 장은 이승기(2021)를 수정하여 보완한 것임.

2) 물론 탈시설을 원하지 않고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계속 희망하는 경우를 달리 해석할 수 있다. 탈시설에 대한 충분한 기회제공과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위한 노력이 강화된다면 탈시설에 긍정적인 장애인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

시설에서 나가고 싶어 하는 장애인이 상당수 존재하는 현실은 탈시설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의 삶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함을 의미한다. 탈시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강조점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탈시설 논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탈시설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탈시설 및 탈시설화의 개념적 스펙트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지며 자기결정에 따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하는 목표이다. 이러한 삶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그중 하나가 거주 공간에 대한 이슈이며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거주시설은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국가의 지원과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1950년 이후 외원단체 혹은 종교기관 등의 자발적 노력에 의한 시설에서 기원하여 현재는 『장애인복지법』 상 시설유형 중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김진우 외, 2019).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거주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 공간 제공기능과 관련하여 대규모 인원의 수용이라는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2011년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원에 대해 30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규모화 정책이 수립되었다(김진우 외, 2019). 2020년을 기준으로 시설 당 평균 27.9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에는 48.8명이 거주하는 등(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21), 소규모화의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규모 수용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비판 중의 하나가 이러한 대규모 수용으로 인한 집단적 생활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탈시설을 주장하는 강력한 논거로 제시되어 왔다. 탈시설이라는 개념은 종래 정신병원의 비인간적이고 집단적이며 강제적인 수용을 타파하기 위한 과정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전반을 관통하는 용어가 되었다(유동철, 2009).

김진우 외(2019)는 탈시설은 폐쇄적이고 비인간적인 거주공간에서의 탈출을 의미하는 소극적 정책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인간적인 삶을 담보하지 못하는 개념으로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탈시설이라는 시설에서 벗어나는 거주공간의 단순한 이동에의 강조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삶에 대한 미래 방향적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수동적 개념

임에 주목하는 것이다.

거주공간 자체에 집중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탈시설에 비하여 장애인의 인간적인 삶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탈시설화’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탈시설화는 탈시설된 장애인, 즉 시설에서 벗어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주공간의 이전이라는 문제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삶을 위한 다양한 보장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오욱찬 외(2019)는 탈시설화에 대한 개념을 외국의 사례에 견주어 3단계로 정리하고 있다. 먼저 1960년대 대규모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 거주로, 1970년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확대, 1990년대 권리, 시민권, 선택 및 통제권의 확보로 개념적 범위가 확장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표 1〉 탈시설화 개념의 단계적 확장

단계	시기	개념
1단계	1960년대	대규모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거주로 이전
2단계	1970년대	+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확대
3단계	1990년대	+ 권리, 시민권, 선택 및 통제권의 확보

출처: 오욱찬 외 (2019), p.23. 인용

이를 바탕으로 ‘탈시설’과 ‘탈시설화’에 대한 개념을 분석하면, ‘탈시설’은 집단적 거주공간에서 사회사의 거주공간으로의 이전을 강조하는 물리적 공간의 재배치를 핵심으로 하며, ‘탈시설화’는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거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의 관련 서비스의 확대 및 장애인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는 영역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편, ‘탈시설’과 ‘탈시설화’에 대한 용어에 대해 논쟁이 있다. 박숙경 외(2017)는 ‘탈시설’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는 경우, 시설의 개선을 통한 탈시설의 노력도 ‘탈시설’이라고 보며 ‘탈시설화’라는 용어가 이때 선호되어 사용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이 경우 ‘탈시설’ 혹은 ‘탈시설화’는 거주시설이라는 집단적 공간을 남겨둔 채 진행되는 일련의 노력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되어 개념적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 중의 하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운영되는 ‘체험홈’ 또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탈시설화’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탈시설화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이러한 제도는 폭 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탈시설화’로 진행되는 과도기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숙경 외(2017)는 기존 시설 정책을 개선하는 정도의 내용은 ‘탈시설화’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김진우 외(2019)는 ‘탈시설’ 혹은 ‘탈시설화’의 개념적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공간의 성격’이며 거주공간의 집단성과 통제성을 벗어나 있다면 ‘탈시설화’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상의 논쟁에서 생각해볼아야 할 내용 중의 하나는 오욱찬 외(2019)가 밝히고 있는 ‘탈시설화’의 개념적 확장에 관한 것이다. ‘탈시설화’의 개념은 ‘탈시설’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의 시민적 권리를 확보하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탈시설화’는 그 전제로써 시설에서 나오는 ‘탈시설’을 바탕으로 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오욱찬 외(2019)는 장애인의 탈시설 상태를 주거 및 서비스 이용 방식에 따라 <표 2>와 같이 구분하여, 독립주거와 지원주거는 ‘탈시설 상태’로, 전환주거는 ‘탈시설 과정’으로, 소규모거주시설과 대규모거주시설은 ‘시설보호’로 구분하고 있다.

<표 2> 주거 및 서비스 이용 방식에 따른 개인의 탈시설 상태

구분	주거이용			서비스 이용			개인의 탈시설 상태
	지역사회 지리적 통합	동거인 선택권	소유·점유권 보유	지원인력 선택권	지원방식	주거결합	
독립주거	○	○	○	○	이용자 주도	×	탈시설 상태
지원주거	○	○	○	△	제공자·이용자 합의	△	
전환주거	○	×	×	△	제공자·이용자 합의	△	탈시설 과정
소규모거주시설	○	×	×	×	제공자 주도	○	시설보호
대규모거주시설	×	×	×	×	제공자 주도	○	

출처: 오욱찬 외 (2019), p.30. 인용

이러한 내용을 견지한다면 ‘집단성’과 ‘통제성’ 등 시설의 특징을 수반하는 거주공간의 단순한 개선 형태는 ‘탈시설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탈시설화’의 전(前)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탈시설’을 거주시설에서 물리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탈시설화’는 이상의 ‘탈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탈시설화의 개념적 스펙트럼

구분	탈시설화 전(前) 단계		탈시설화 단계	
	법정시설	전환지원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서의 삶	지역사회에 통합된 삶
거주공간	장애인거주시설	체험홈 자립홈 등	지역사회 주택	지역사회 주택
기능 및 내용	거주시설 기능개편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위한 지원	일반가정 형태에서의 삶	일반가정 형태에서의 삶과 정상화된 삶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적 측면에서의 노력과 기능전환 및 서비스 개선 등은 매우 중요한 사항임은 부인할 수 없으며 권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과 개선이 ‘탈시설화’의 개념적 범주 속에 포괄될 수는 없으며, 탈시설화의 전(前) 단계로써 탈시설화를 향한 장애인거주시설의 개선과 노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2. 탈시설화 전략

‘탈시설’을 포함하는 탈시설화는 오욱찬 외(2019)에서 보듯이 개념과 실천적 확장을 지속해 왔다. 박숙경 외(2017)는 탈시설화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거주공간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전하고 둘째, 가정과 같은 보편적인 환경에서 거주서비스를 제공하고 셋째, 제약을 최소화하고 거주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넷째, 사생활과 소유권을 보장하고, 다섯째,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회복을 통해 지역사회에 포함(inclusion)되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한다(p. ii).

김진우 외(2019)도 “시설이 갖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에서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친구,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주 공간을 마련하고 서비스 제공방식을 혁신하는 것”으로 탈시설화를 규정하여 유사한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³⁾

3)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경우 소극적 의미의 탈시설 정책보다는 ‘거주다양화지원정책’의 용어를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탈시설화의 개념은 장애인이 집단적 거주공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탈시설화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는 집단성, 강제성, 수동성, 선택 불가능성 등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탈시설 내지 이를 포함한 탈시설화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탈시설화가 상징하는 개인의 존엄적 삶을 억압하는 통제와 집단적 수용성을 해체하는 것을 이념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또 현재까지의 정책이 이를 위해 꾸준히 추진되어 온 것도 그 당위성을 반증하고 있다. 결국, 탈시설화와 관련한 입장 차이는 탈시설화 자체에 대한 찬성과 반대라기보다는 탈시설화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수준 차이 그리고 그로 인한 전략적 추진 방법의 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탈시설화의 단계별 진행 방식은 탈시설 → 지역사회지원 시스템 확충 → 지역사회에서의 통합된 삶이다. 이러한 단계별 진행이 시간별로 순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탈시설화의 단계적인 진행이 역순으로, 즉, 지역사회에서의 통합된 삶 → 지역사회지원 시스템 → 탈시설 순으로 일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탈시설을 먼저 이루고 그 이후 지역사회지원 시스템이 확충되며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삶을 실현하는 순서로 진행해 나가되, 각각의 단계가 상호 연결되고 중첩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실행 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탈시설화의 의미와 강조점을 집단적 거주공간으로서의 장애인거주시설의 폐지에 두는 입장이다. 조아라(2020)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집단수용시설로 규정하고 장애인의 선택이 배제된, 사회가 장애인을 시설로 추방한 결과의 산물인 장애인거주시설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한다. 김정하 외(2020)의 경우에도,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통제와 인권침해 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시설의 폐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점은 장애인거주시설의 폐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며, 거주시설의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먼저 수립되고 탈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이다.

두 번째, 탈시설화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물리적으로 벗어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적 삶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미옥(2021)은 탈시설을 추진하는 경우 장애인을 중심에 두어야 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준비가 선행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거주시설의 급진적인 폐쇄에 따른 탈시설은 오히려 장애인의 삶을 훼손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세 번째, 거주시설의 폐쇄 내지 탈시설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거주시설의 폐쇄 내지 탈시설은 결국 장애인의 돌봄과 보호의 책임을 장애인 가족에게 전가하여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고, 현실을 무시한 채 이념적으로 진행되는 탈시설 정책은 오히려 부작용만을 양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www.seasondaily.net/news/article.html?no=7044). 이러한 주장에는 탈시설 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미흡할 것이고,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는 탈시설 강행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피해를 줄 뿐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탈시설화에 대한 이러한 전략적 추진 방법의 차이는 공통적으로 지역사회지원의 강화라는 과제와 맞물려 있다. 지역사회지원 강화 내용에 따라 탈시설화의 수준과 속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Ⅲ. 장애인 거주시설의 현황 및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 욕구

탈시설 혹은 탈시설화의 개념적 논쟁을 기반으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제 장애인의 직접적인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조사는 ‘자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탈시설 혹은 탈시설화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혹은 탈시설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려고 한다.

1.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 욕구

1)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퇴소 욕구

강정배 외(2020)에 따르면 거주시설 장애인은 자신이 앞으로 살고 싶은 곳에 대하여, ‘현재 살고 있는 시설’에서 살고 싶다는 응답이 51.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부모님 집’ 16.6%, ‘혼자서 사는 집’ 14.8%, ‘친구들과 함께 사는 집’ 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시설 장애인 중 48.2%가 시설에서 나와 살고 싶은 욕구가 있음을 보여주며, 오옥찬 외(2019)에서 정리한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해도 커다란 차이가 없다. 이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중 약 50%가 탈시설 욕구 혹은 자립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를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시설에서 나가서 살고 싶은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33.5%로 나타나, 향후 살고 싶은 곳이 어느 곳인지를 물어본 문항에서 시설 이외의 곳을 응답한 비율인 48.2%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강정배 외, 2020).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가고 싶은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자립 희망 시기 및 어려운 점

현재 살고 있는 시설에서 나가서 살고 싶다는 장애인 중 자립 희망 시기는 ‘1년 이후’ 28.3%, ‘즉시’ 15.8%, ‘수개월 이내’ 11.9%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2.4%로 나타났다. 1년 이내에 퇴소하고 싶은 비율이 27.7%에 달해 상당수의 장애인이 조속한 퇴소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강정배 외, 2020).

시설에서 나와서 생활한다면 꼭 필요한 한 가지의 도움으로는 ‘돈’이 3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활동 보조인, 가사 도우미)’ 26.1%, ‘내가 살 집’ 18.9%, ‘일자리’ 10.3% 등의 순이었다(강정배 외, 2020). 이러한 결과는 시설 퇴소 후의 삶을 위해 필요한 소득, 주거, 돌봄, 고용 등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상적인 삶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장애인의 탈시설이 가능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2.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의 자립실태

서해정 외(2023)에 의하면 2020년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은 1,541명이며, 퇴소 이유는 ‘연고자 인도’로 인한 퇴소 634명(41.1%), ‘전원’ 370명(24.0%), ‘기타’ 252명(16.4%), ‘사망’ 243명(15.8%), ‘취업’ 48명(3.1%) 등의 순이었다.

동 연구는 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서비스에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 조사결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바우처 제도, 자립정착금 이용 등이 주요 지원 제도이며,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가 퇴소할 때 도움을 가장 많이 주로 주는 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언을 통해 자립지원 서비스를 위한 보다 풍부한 지원체계의 구축과 활동지원제도 등 기존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며 일자리의 확충도 필요함을 제시하였다(서해정 외, 2023).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자립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지원시스템의 강화가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지역사회지원시스템의 구축

탈시설화의 개념 속에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이념적 지향과 포괄적인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다. 장애인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써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사회의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지원 시스템이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의 변화 방향이 달라지며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지원 시스템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장애인거주시설의 폐지 혹은 개선을 논하는 것은 그 의미가 상당부분 퇴색될 수밖에 없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삶을 실현한다는 것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이다.

지역사회지원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최근에 있었던, 국가 혹은 사회의 답변은 황승현(2018)에서 설명하듯이,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이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care)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iy)에 거주하면서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보건의료, 복지,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체계”를 의미한다(김승연 외, 2018). 커뮤니티 케어의 주요 실행 목표는 지역사회 거주, 독립적 생활, 욕구에 기반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탈시설화의 관점과 맥락을 같이하며 지역사회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지를 가늠하게 한다.⁴⁾

오옥찬 외(2019)는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경로에 관한 연구에서 탈시설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분석한 후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패키지의 구성과 흐름을 제안하였다. 서비스 패키지는 주거, 소득 및 고용, 일상생활, 건강 및 의료, 사회적 관계, 심리·정서, 문화·여가, 권익 옹호 등을 내용으로, 탈시설 준비기, 지역사회 적응기, 지역사회 정착 초기, 지역사회 안착기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경숙 외(2017)는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에서 탈시설의 정책과제로 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 수립과 주택, 소득, 의료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 인식개선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결국 탈시설화로 진행되기 위해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상당한 노력과 투자 그리고 의지가 수반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실현 가능성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다(보건복지부, 2021). 동 로드맵은 정책의 추진 원칙을 지원대상, 탈시설 지원과 시설변환으로 하고, 시기별 전략을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시범사업 및 법령개정 등 제도·인프라 구축, 2025년까지 지역사회 거주 전환 지원, 2041년까지 거주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4) 커뮤니티 케어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현재는 진전된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변경되고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전문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장애인에 대한 주거유지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상의 전체적인 연구 동향이나 보건복지부의 내용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탈시설화 전략은 실행 방안이 정교해야 하고 포괄적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함은 명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지원 시스템의 구축 없이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탈시설화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지원 시스템의 구축방안에 대해 장애인의 탈시설화 과정에 따라 검토한다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능을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 개편이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현재 이 둘을 연결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도입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거주시설에 적용될 경우 거주시설의 기능 개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장애인의 주체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입 논의 중인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서비스의 개별유연화 전략을 통해 장애인의 개별적 삶을 지원하는 방식이므로 거주시설 장애인 중 탈시설 욕구를 가진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 지원 전략과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보장하는 지원 전략을 통해 탈시설화를 보다 진전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V.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거주시설 적용방안

1.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의미

장애인 개인예산제(personal budgets)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예산제는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s)⁵⁾가 먼저 시행되고

5) 장애인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s)는 영국의 1996년 커뮤니티 케어 법(Community Care Act)의 수정에 의해 제도화되었고, 유예기간을 거쳐 1997년 4월 1일 시행되었다(Glasby, & Littlechild, 2009). 직접지불제는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choice)과 통제(control)를

이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개인예산제(personal Budgets)는 장애인 이용자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점에서 직접지불제와 일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발전과정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직접지불제가 오랜 기간 동안 장애인 당사자들의 운동과 노력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고 한다면 개인예산제는 2003년에 도입된 제도로 장애인당사자에 의해 추진되었다기보다는 학습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들의 연합적 노력에 출발되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것은 개인예산제가 자립생활확보를 위한 장애운동이 아닌 학습장애인의 통합운동(inclusion movement)을 주창했던 사람들이 2003년에 모임을 결성되면서 추진되었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으며(Glasby, & Littlechild, 2009)⁶⁾, 아울러 직접지불제의 도입에 대해 영국 정부가 오랫동안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던 것에 비해 개인예산제는 오히려 영국 정부가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⁷⁾

또한, 직접지불제가 간접지불 방식으로 이미 지원되고 있었던 성인 케어서비스 영역에 해당하는 비용을 장애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작한 것이라면, 개인예산제는 개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서비스 영역에 대해 현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범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직접지불제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에게 해당 활동지원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그에 대응되는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면, 개인예산제는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하여 교육서비스, 사회생활서비스, 주거서비스 등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인정된 모든 서비스에 대응하여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직접지불제에 비하여 개인예산제는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뒤따르게 된다. 먼저, 욕구를 파악하고 파악된 욕구 중 지원이 가능한 욕구를 선별하며 선별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를 특정하고, 특정된 서비스를 현금으로 환산하고 할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현금 할당을 통해 구매력을 확보한 장애인이 실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장애인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구매 지원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이승기·이성규, 2014).

개인예산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도 많다. 서비스 인정을 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기여하고자 추진된 장애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초기에 직접지불제에 부정적이었던 영국 정부를 설득함으로써 제도에 성공하였다.

6) 이 모임이 개인예산제의 정착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영국의 비영리단체 In Control의 기원이기도 하다.

7) 영국의 개인예산제는 2014년 돌봄법(Care Act)에서 법제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 사정도구 개발, 현금지급에 따른 오남용 우려, 현금사용 후 정산 체계 마련 등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권에서 개인예산제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현재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시범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제도의 본격적 도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⁸⁾

2.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도입 모형 및 거주시설 적용 가능성 검토

1) 보건복지부 모형

(1) 개관⁹⁾

보건복지부는 2024년 개인예산제의 시범사업을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진행하고 있다.¹⁰⁾ 적용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다. 장애인이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승인받아 현금 사용이 가능하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한되는 서비스를 제외하고¹¹⁾ 이용계획의 목표 관련성과 장애 관련성이 인정되면 자유롭게 서비스 인정이 가능하다. 개인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현재 수급받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의 20% 범위에 해당하면 된다.

(2) 장점과 한계

보건복지부 모형의 장점은 장애인 개인의 욕구를 폭 넓게 인정하여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선택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매우 취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금지된 서비스 외에 개인의 욕구를 폭 넓게 인정한 결과 장애인의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장애인이 활동지원수급량의 20% 범위 내에서 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를 통제하는 장치가 매우 취약하여, 신청이 제한되는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서비스를

8)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바우처를 활용하여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2024년 현재 진행중이며, 서울시는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2024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9)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발간한 「2024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 매뉴얼」을 참고함.

10) 8개 시·군·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기도 시흥시, 충청남도 예산군, 대전광역시 동구 및 서구, 전라남도 해남군이다.

11)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는 법에 어긋나는 서비스·물품·활동, 생활비, 가족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돈을 버는 것과 관련된 일, 술·담배·복권을 사는 것, 의료비(필요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허용), 법률 또는 자체 사업 지침에 의해 지원이 제한된 비용, 개인예산 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기타 참여자의 장애와 관련 없는 지출이다.

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서비스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정 도구가 사실상 없다는 현실과 맞물려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을 단순하게 보장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서비스 인정에 대한 사정 도구에 대한 개발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서비스 제도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

(3) 거주시설에의 적용가능성

현재의 보건복지부 모형은 활동지원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거주시설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활성화로 거주시설 장애인이 퇴소 후에 개인예산제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2) 서울시 모형

(1) 개관¹²⁾

서울시는 2023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사업을 거쳐 2024년 9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수급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모형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아 현금 사용이 가능하다. 시범사업에서는 월 40만원씩 6개월간 총 240만원 한도에서 추가급여 형태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모형과는 달리 서울시 모형은 개인예산계획에 대해 매우 엄격한 승인절차를 거친다. 승인여부에 대한 기준은 크게 4가지로 장애와의 연관성, 특수한 욕구, 삶의 변화가능성, 다른 기존 서비스로 대체가능성이 설정되어 있다. 장애인의 단순한 여행, 물품구매 등이 제외되어 보건복지부 모형에 비해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다.

(2) 장점과 한계

서울시 모형의 장점은 보건복지부 모형과 비교하여, 먼저 활동지원수급여부가 자격 기준이 아니므로 대상에 있어서 폭넓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활동지원수급자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모형에 비해 개인예산제의 원형에 보다 충실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만큼 향후 제도의 확장가능성도 높다.

둘째, 보건복지부 모형에 비해 장애인의 욕구에 대한 체계적인 사정 도구를 사용하고 있

12) 동 내용은 한국장애인재단의 2004년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 교육 자료를 참고함.

으며 이를 정교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욕구기반 사정도구가 보다 정교해 진다면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 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지며 장애인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서울시 모형의 한계로는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이 자유롭지 못하고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향후 개인예산제의 발전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3) 거주시설에의 적용 가능성

서울시 모형은 활동지원수급여부가 개인예산제도의 적용 조건이 아니므로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시설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개인예산제에 의해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추가로 인정하여 이를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3.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적용방안

개인예산제의 보건복지부 모형과 서울시 모형은 지역사회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계된 것이어서 거주시설 장애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거주시설 장애인의 적용 배제가 필연적인 사항은 아니며, 개인예산제가 탈시설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거주시설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탈시설화를 탈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기초로 개인예산제의 적용방안을 탈시설화 전(前) 단계와 탈시설화 단계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표 3>에서 논의했듯이, 탈시설화 전(前) 단계는 장애인이 법정시설과 전환지원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탈시설화 단계는 거주 공간을 지역사회로 이전(移轉)한 경우를 말한다.

1) 탈시설화 전(前) 단계

탈시설화 전(前) 단계는 법정시설 혹은 전환지원 시설에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이며, 개인예산제의 적용방안에 대해 두 가지 형태가 검토될 수 있다.

첫째, 거주시설의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예산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해당 거주시설에서 이미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에 개인예산제를 통해 다른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거주시설이 제공하는 포괄적 서비스의 범위를 개인예산제 적용에 맞추어 축소해야 함을 말한다. 자연스럽게 거주시설의 기능 개편과도 맞물리며 거주시설의 정체성과 역할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된다.

둘째, 거주시설 장애인 중 탈시설 의지가 있는 장애인에게만 개인예산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먼저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욕구 파악을 통해 탈시설 의지를 확인하고 탈시설을 위해 개인예산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거주시설의 정체성과 역할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는 줄어들게 된다.

위 두 가지 방식 중 1단계로 탈시설 의지가 있는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우선 개인예산제를 적용하고, 2단계로 개인예산제의 확장 가능성이 확인되면 이를 전체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활동지원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모형은 탈시설화 전(前) 단계에 있는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적용하기는 어렵고, 서울시 모형은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정책 판단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다. 서울시 모형이 유연성과 확장성 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2) 탈시설화 단계

탈시설화된 단계의 장애인은 거주공간을 지역사회로 이전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개인예산제가 지역사회 장애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개인예산제에 해당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모형과 같이 활동지원수급자로 대상자를 제한한다면 그만큼 적용 대상이 축소될 것이고 개인예산제가 기여하는 부분이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비해 서울시 모형은 장애인의 욕구파악을 기반으로 서비스가 인정되므로 탈시설화를 통한 자립생활 실현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V. 결어

장애인복지의 발전 방향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확보, 지역사회에서의 통합된 삶을 위한 권리와 참여의 강화에 관한 것이었으나, 여전히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것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이 시설보호를 받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고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에게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인식되는 이유가 되어 왔다.

장애인거주시설은 그동안 척박했던 장애인복지의 환경 속에서 사회가 외면했던 장애인에 대한 돌봄과 생활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주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그에 대한 역할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도 점점 확충되어 가고 있다. 그만큼 장애인거주시설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역할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삶을 살아가도록 거주시설의 시설 내 보호 중심이라는 종래의 기능에서 한 단계 도약하여,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을 지역사회에서 보장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을 염두에 둔 서비스 제공은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과 인력으로 이를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것은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제도, 가족 및 타 기관과의 협력 등의 부족에서 발생하기도 하며 한편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 보호에 중점을 둔 종래의 기능을 변화시키기 어려운 것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의 서비스 제공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고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사함임을 인정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흐름이 장애인 중심으로 그리로 장애인 개인별로 제공되도록 변화해야 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거주시설의 역량을 지역사회와 연결시킬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거주시설의 준비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정배, 서해정, 김계정, 김도현, 김동현, 김희정, 임정민, 임혜리 (2020).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 김미옥 (2021). 탈시설의 전제 요건. **월간 복지동향**. 268. 23-26.
- 김승연, 장익현, 김진우, 권혜영 (2018).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개
념 정립 및 추진방향. 보건복지부·서울연구원
- 김정수 (2019). 장애인 거주시설과 인권 침해: 정책적 대안과 개선방향. **사회복지정책연구**.
15(2): 75-95.
- 김정하, 김경희, 홍정훈 (2020). 장애인의 온전한 탈시설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된다. 월간
복지동향. 255. 44-53.
- 김진우, 윤덕찬, 장기성 (2019). 거주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전환 추진방안 연구. 장애인
복지시설협회.
- 박민희 (2021). 장애인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준비의 상관관계. **사회서비스연구** 10(1),
113-135
- 박숙경, 김명연, 김용진, 구나영, 문혁, 박지선, 정진, 정창수, 조아라 (2017).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연구-. 국가
인권위원회.
- 보건복지부 (2021).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안건 1 탈시설 장애인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요약본).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4). 2024년 장
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 매뉴얼.
- 서동명, 윤상용, 이승기, 염태산 (2022). 장애인복지론(3판). 신정.
- 서해정, 송승연, 이미명, 김문규 (2023).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실태조사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오욱찬, 김성희, 박광옥, 오다은 (2019).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경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동철 (2009). 인권관점에서 보는 장애인복지. 집문당.
- 이선우, 이수경 (2021). 장애인복지론(제2판). 공동체.
- 이승기 (2021).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한국장애인복지지

설협회.

이승기, 이성규 (2014). 직접지불제도와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학**. 26: 235-249.

조아라 (2020). 집단수용시설의 탈시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월간 복지동향**. 259. 16-23.

최은정 (2020). 장애인 거주시설과 자립생활의 한계. **장애인복지학**. 28: 89-110.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21). 전국 장애인거주시설현황.

한국장애인재단. (2024).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 교육.

황승현 (2018) ‘커뮤니티네어(지역기반 케어)’ 추진 로드맵.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25-38.

Glasby, J and Littlechild, R (2009). Direct Payments and Personal Budgets. Policy Press.

www.seasondaily.net/news/article.html?no=7044

논문 투고 : 2024.10.14.	논문 심사 : 2024.11.29.	게재 확정 : 2024.12.17.
---------------------	---------------------	---------------------

Abstract

A Study on the Conceptual analysis of Deinstitutionalization and the Application of Personal Budge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eungKi Lee*

This study discussed the conceptual analysis of deinstitutionization and how to apply the personal budge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residential facilities for deinstitutioniz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nceptual debates on deinstitutionization, the relocation of living spaces was defined as deinstitutionization, and it was divided into pre-stages and post-stages based on the relocation in living spaces. By analyzing the application of the personal budge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previous and subsequent stages, it was suggested that a limited application plan for the purpose of deinstitutionization was needed in the previous stage, and in the subsequent stage, it was suggested that support for the community's independent living after deinstitutionization is needed through the full application of the personal budgets for the people. It was suggeste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personal budge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support the independent living in the community because it means securing the choice and control over services and receiving support for the overall provision of necessary services.

Keywords: Personal Budge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Choice and Control,
Deinstitutionization, Residential Facility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장애의재해석 제5권 제2호

2024 Vol. 5, No. 2, 209 - 238

청각장애인 아이돌 빅오션(Big-O!cean)에 대한 대중의 인식 : 유튜브(Youtube) 댓글 양상을 중심으로

박재원* 김하린** 한지우***

본 연구는 장애연예인에 관한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는 가운데, 최초의 청각장애인 아이돌로 데뷔한 빅오션은 대중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연구자들은 빅오션의 행보나 특정 콘텐츠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살펴보기 위해 소셜미디어 댓글을 수집하기로 하였다. 댓글 수집 매체로 소셜미디어 중 유튜브를 선정하였으며, 추출한 댓글을 바탕으로 텍스트 마이닝과 사회연결망 분석(SNA)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빅오션에 대한 대중의 지배적 여론은 지지적으로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 담론을 파악한 결과, '청각장애' 및 '장애' 등 장애와 관련된 주제어와 아이돌과 관련된 주제어가 도출되었다. 연구자들은 빅오션에 대한 아이돌 관련 담론, 장애 관련 담론 등이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서 현재 빅오션이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돌로서, 장애 특성을 반영한 문화를 생산함과 동시에 아이돌로서의 정체성을 인정받는 담론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빅오션 활동이 장애인 인식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드러내고, 장애인 아이돌에게 문화 생산자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청각장애인, 장애 문화, 아이돌, 텍스트 마이닝, 사회연결망 분석, 대중인식

*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학부생

**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학부생

***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학부생

I. 서론

1. 연구 배경

미디어에서 장애를 가진 연예인은 왜 보기 어려울까? 2019년에 진행된 미디어 다양성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방송 드라마의 전체 등장인물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0.7%였다(최재현, 이숙정, 2022). 미디어에서 장애인의 등장이 드문 이유 중 하나는,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신체적인 손상으로 인해 기능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미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청각장애인인 김리후 배우는 모델 활동 시 ‘연예인을 상품이라고 비유한다면 장애가 있는 연예인은 상품에 하자 있는 것과 다를 게 없으며, 상품 가치가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한국장애예술인협회, 2022).

텔레비전이나 영화 등의 미디어 속 장애인은 치료를 통해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존재 또는 항상 도움이 필요한 의존적인 존재나 연민의 대상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들의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이롭고 감동적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대중의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연예인의 신체장애에 긍정적 이미지가 구축되는 사례가 필요하다.

파라스타엔터테인먼트는 2020년부터 ‘장애 인식 개선의 가장 좋은 출발점이 장애인의 미디어 노출’이라는 믿음 아래 장애예술인을 육성해 왔다(이진호, 2023. 10. 30). 파라스타엔터테인먼트 차해리 대표는 연예인이라는 직업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수익이 확실하고, 대중적으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돌’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다(조지윤, 2024. 7. 12). 이에 따라 파라스타엔터테인먼트에서 기획한 프로젝트가 바로 세계 최초의 청각장애인 아이돌 그룹 빅오션이다.

빅오션은 박현진(25), 김지석(21), 이찬연(26)의 멤버로 구성된 3인조 아이돌로, 2024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데뷔했다. 멤버들은 인공와우와 보청기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으로서 청각장애의 정도가 달라 음악 소리를 인지하는 데 차이가 있다. 청각장애로 인해 정확한 음정을 듣고 내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빅오션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였다. 빅오션은 각 멤버가 여러 번 부른 노래를 인공지능이 학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음원을 발매했다. 또한, 춤을 출 때는 스마트워치로 진동을 보내주는 비트 메트로놈, 모니터를 통한 빛 메트로놈, 수신호 등을 활용해 박자를 맞췄다(남지은, 2024. 4. 25). 이들은 소리를 비장애인 아이돌처럼 음으로 기억하기보다, 음역대를 표시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신이 사용하는 근육의 위치와 정도로 소리를 기억한다(김주현, 선아, 2024. 7. 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 연예인이면서 청각장애인 문화를 널리 알리는 빅오션이 국내 대중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자들은 대중이 생산하는 빅오션 관련 유튜브 댓글을 분석함으로써 빅오션이 대중문화인으로서 대중의 장애인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빅오션이 활동하며 ‘K-POP’ 시장에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주체성 있는 공급자로서 대중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앞서 서술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질문 1. 대중들은 빅오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연구질문 2. 빅오션의 장애에 대한 대중 인식을 살펴보았을 때, 장애인연예인은 대중의 장애인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가?

연구질문 3. 빅오션에 대한 대중 인식을 살펴보았을 때, 장애인연예인은 대중문화 생산을 주도할 수 있는가?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단어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빅오션에 대한 대중의 지배적인 인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후 사회연결망 분석(SNA) 중 CONCOR 분석과 중심성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여 대중의 지배적인 여론에서 분화된 세부 담론을 확인할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미디어에서 장애를 재현하는 방식에 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는 주로 영화나 드라마의 장애인 배역에 대한 연구로, 장애인연예인 당사자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청각장애인 아이돌과 같은 특정 그룹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공백을 해소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아이돌

1) 정의

아이돌 스타(Idol star)는 2003년 3월 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에 등록된 신조어이다. 주로 10대에서 20대 초반에 솔로 혹은 그룹으로 데뷔하고, 일반적으로 기획사의 체계적인 기획과 관리 통제 시스템이 만들어 낸 스타를 말한다(이동연, 2011).

2) 자격 요건

이지운, 김상현(2022)에 의하면, 아이돌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크게 노래 실력, 작품 수행 능력(퍼포먼스), 외모(비주얼), 매력, 커뮤니케이션적 요인(미디어 노출), 도덕적(법적) 공인, 스타성 등이 있다. 이러한 자격 요건들이 모여 아이돌에 대한 대중의 인식, 즉 ‘이미지’가 형성된다. 이는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자격 요건 중 외모(비주얼)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한국 사회에서 아이돌의 ‘몸’은 직업적 자질로 당연시되며, 건강한 신체 이미지가 이들에게 요구된다. 스스로를 이미지 상품의 주체로 만들어야 하는 연예인들은 자신의 몸을 통해 이미지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김현경, 2014). 그렇기에 대중들은 얼굴과 신체 조건 등 외형이 우수한 아이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아이돌의 음악은 ‘보는 음악’으로, 노래뿐만 아니라 멤버들의 외모(비주얼), 퍼포먼스 등 시각적 요소의 비중이 크다. 빅오션 멤버들은 아이돌로서 ‘노래 실력’에서는 청각장애로 인해 타 아이돌에 비해 전문성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장애의 영향이 비교적 덜한 다른 자격 조건인 ‘외모(비주얼)’와 ‘작품 수행 능력(퍼포먼스)’에 경쟁력을 두어 아이돌 활동에 도전할 수 있었다.

아이돌 시장에서는 외모, 신체 조건과 같은 표면상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미지 역시 중요하게 여겨진다. 아이돌과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도덕적 공인으로서 팬들에게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막대하다. 인플루언서가 속한 소속사는 인플루언서의 사회적 영향력을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인플루언서의 사회적 영향력은 특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도 있다(박민석, 2021. 9. 27). 이에 따른 아이돌의 활동에는 크게 TV 음악프로그램, 예능프로그램, 드라마, 광고 모델, 각종 홍보대사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아이돌 시장에서는 이러한 멤버들 각각의 자격 요건뿐만 아니라 그룹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 또한 중요하게 여긴다. 많은 아이돌 기획사는 마케팅 전략으로 콘셉트를 통해 대중들에게 그 아이돌만의 특별한 이미지를 각인시킨다. 이러한 아이돌 콘셉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서사 스토리가 필요하다. 스토리텔링은 팬덤이 아티스트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차 창작(팬아트, 비공식 굿즈 제작, 팬 창작 영상물 등)으로 이어지게 하며 거대한 팬덤 형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나아가 대중이 다양한 매체로 콘텐츠를 접하게끔 하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새로운 소비자가 유입되도록 이끈다(채욱, 2023).

2. 청각장애인 아이돌 ‘빅오션(Big-O!cean)’

1) 빅오션 소개

빅오션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데뷔하여, 비장애인이 주류인 아이돌 시장에 도전한 세계 최초 청각장애 아이돌이다. 이들의 목표는 빅오션을 통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대중의 편견이 기대감으로 바뀌는 것이다.

빅오션 멤버들은 수어에 능할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받은 언어치료와 인공와우, 보청기 등 보조기기의 도움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또한, 빅오션은 다른 K-POP 아이돌처럼 넘치는 끼와 출중한 비주얼을 갖췄다(황미현, 2024. 6. 19).

이때, 빅오션은 아이돌 활동에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기기의 도움을 통해 보완하였다. 아이돌의 자격 요건 중 ‘노래 실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곡을 녹음할 때 음정 표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고, 이후 AI의 목소리 후보정을 통해 부족한 음정을 보완하여 음원을 완성하였다. 또 다른 자격 요건인 ‘퍼포먼스’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손뼉으로 박자를 맞추고, 손목에 찬 진동 메트로놈으로 칼군무를 만들어 나갔다.

따라서 빅오션에게 ‘청각장애’는 장애가 한계로만 인식되었던 기존 아이돌 시장에서의 편견을 깨는 차별점이 되었다.

(1) 청각장애인으로서의 빅오션

빅오션은 아이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 문화의 주체적인 생산자로 활동하고 있다. 장애 문화란 장애인들의 공통 경험과 정체성을 근거로 장애인의 생활양식 과정들에서 나온 정신적, 물질적 산물들을 말한다(전지혜, 2011). 특히, 빅오션은 전원 청각장애인으로서 구성된 아이돌로서 장애 문화 중에서도 ‘농문화(Deaf Culture)’를 알리는 모습

이 보였다. 농문화는 청인(Hearing people)문화와는 다른 농인들이 갖는 독특한 문화를 말하며,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을 중심으로 결집한 농인 공동체에서 생성되며, 계승·발전하는 문화이다(박동진, 남기현, 2022). 그 대표적인 예시로 ‘수어 안무’가 있다. 수어(手語)는 수화 언어를 일컫는 말로, 소리로 말을 배울 수 없는 농인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보이는 언어’이다. 최근 대중음악계에서는 BTS의 ‘Permission to Dance’, SF9의 ‘Don’t Worry, Be Happy’ 등과 같이 수어를 안무 작업에 통합하는 시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수어 안무를 만드는 목적은 농인과 청인 모두가 작품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Wingenroth, 2024. 2. 19).

빅오션 멤버들은 수어를 하나의 언어로 여겨, 대중이 다양한 언어로 음악을 감상하는 데에 수어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남지은, 2024. 4. 25). 빅오션은 2024년 9월 5일 기준으로 총 3곡을 발매하였고, 한국 수어(KSL), 미국 수어(ASL), 국제 수어(ISL)를 춤의 모티브로 삼아 새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첫 번째 곡 ‘빛’에서는 한국 수어를, 두 번째 곡 ‘BLOW’에서는 미국 수어를 활용한 춤을 선보였다. 세 번째 곡 ‘SLOW (Feat. Young K (DAY6))’의 뮤직비디오는 전체가 수어로 만들어졌다. 또한, 유튜브 채널에서 유명 곡을 수어로 재해석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2) 아이돌로서의 빅오션

빅오션은 아이돌로 데뷔하기 전부터 빅오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우아될?(우리는 아이돌이 될 수 있을까?)’이라는 자체 제작 콘텐츠를 통해 데뷔 준비 과정을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선보였다. 해당 콘텐츠를 통해, 대중들은 빅오션이 아이돌 연습생으로서의 피드백을 받는 모습, 청각장애인 아이돌의 녹음 과정, 수어 안무 커버영상 등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대중은 데뷔 이후에도 유튜브, 틱톡,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에서 뮤직비디오, 각종 활동 비하인드 영상, 수어 챌린지 파트 튜토리얼, 타 아티스트들과의 챌린지 등의 콘텐츠로 계속해서 빅오션의 새로운 모습을 접할 수 있었다.

빅오션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활동으로도 아이돌로서 많은 사람과 다방면으로 소통하였다. 주로 대중에게는 공개 음악 방송, 라디오, 행사, 각종 방송(교육, 예능, 특집 방송) 등을 통해 빅오션이라는 그룹 인지도를 높이고, 팬들에게는 팬미팅, 팬사인회 등으로 팬심에 보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빅오션은 꾸준히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다방면으로 알려졌고, 이러한 행보를 통해 아이돌로서의 전문성 또한 높아졌다.

3. 장애 모델

청각장애인 아이돌 빅오션에 대한 국내 대중의 인식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대중 인식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장애를 바라보는 대중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존의 장애 모델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 모델은 ‘장애’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 구성된 개념적 요소들의 체계적인 구조 또는 ‘장애’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접근법이다(Altman, 2001). 장애 모델을 고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모델이 우리의 세계를 정의하고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이종정, 2018). 이에 본 연구자들은 대중 인식을 알아볼 도구로 장애 모델을 사용하고자 한다.

장애 모델 중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이 있고, 이후 학계에 새롭게 등장한 모델로 긍정적 모델이 있다. 의료적 모델은 장애를 ‘손상된 상태(harmed condition)’로 바라보며 ‘치료’를 장애인에 대한 핵심요소로서 간주한다(Harris, 1993). 즉, 장애는 손상으로부터 생긴 비정상적인 개인의 생물학적 결함이므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해당 모델은 장애의 여러 유형 중 기능적 신체 손상만 다를 뿐, 사회의 산물로서 능력 장애나 사회적 불리(disadvantage) 차원의 장애를 다를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왔다(조한진, 2006). 그러나 의료적 모델은 진단시스템을 통해 객관성을 부여받으며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대한 조기 진단, 치료적 조치 등의 진단결과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여전히 가장 영향력 있는 모델로 간주된다(Smart, 2004; 김진희, 김용득, 2023). 의료적 모델에 근거한 장애의 사회적 이미지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 측면에서 장애인은 슬프고 비극적이라는 생각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장애인이 초인적인 영웅들로 인식되는 것이다. 초인적인 영웅들로 인식되는 장애인들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헬렌 켈러’와 같은 개인들이며, 이는 이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보여 준 사회적 성공의 결과이다(Longmore, 1987). 그러나 개인의 극복에 따른 초인적인 영웅의 이미지로 접근하는 것은 장애를 여전히 신체적 및 정신적 비극으로 보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반면에, 사회적 모델은 장애를 ‘사회적으로 구성된 현상’으로 본다. 즉, 장애를 정치, 경제, 사회의 구조적 억압의 결과로 간주한다(Oliver, 1983). 장애(barrier)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장애인 개인에게 내재하는 개별적인 제한이 아니라 장애인의 욕구를 사회에서 수용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실패한 결과라는 것이다(김진희, 김용득, 2023). 이 모델에서 손상은 신체의 결함을 의미하고, 장애는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 사회활동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이라고 본다(양혜승, 2023). 따라서 장애인 개인의 적응과 재활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차별 등의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변화가 더 중요함을 강조한다. 사회적

모델은 각종 장애인권운동에 기여하기도 했다(이종정, 2018).

한편, 21세기에 등장한 긍정적 모델은 장애나 손상을 부정적, 비극적으로 바라본 이전의 모델들과 달리, 장애와 손상을 지니며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가치 있고, 내재적으로 만족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이종정, 2018). 즉, 긍정적 모델은 비장애인이 장애나 손상에 대해 비극적으로 여기는 것들을 삶의 한 부분 혹은 장애 정체성(identity)으로 인정한다. 이때 장애 정체성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태도를 말한다.

Raymond Lang(2007)은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려는 욕구와 손상을 지닌 삶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가치 안에서 장애 자부심(disability pride)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장애 자부심은 사회가 만든 비극적 장애 이미지를 버리고 수치심이나 열등감 대신 자부심을 가지는 주체적이며 긍정적인 자기표현이다. 이에 Lang(2007)은 예시로 청각장애인의 삶을 제시하였다. 어떤 청각장애인들은 본인이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며, 독특한 사회 소수 집단을 구성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이 소수집단이 되길 원하며 자신들만의 문화와 언어를 구성한다(이종정, 2018).

4. 소셜미디어의 역할

소셜미디어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업로드하여 소통 가능한 참여적, 상호작용적, 통합적 특성의 소통 채널이다. 사용자는 크게 공급자와 이용자의 모습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다. 공급자는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일상, 생각, 감정 등을 담은 콘텐츠를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 이에 이용자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특정 콘텐츠에 대해서 의견과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다

앞서 제시한 소셜미디어의 역할은 대표적으로 아이돌 산업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돌은 공급자로서, 대중에게 공식 채널을 포함한 많은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뮤직 비디오, 음악방송, (공개)라디오, 챌린지, K-POP 커버댄스 영상, 자체 제작 콘텐츠 등을 통해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때 자체 제작 콘텐츠로는 아이돌의 소소한 일상을 담은 리얼리티나 예능, 무대를 비롯한 각종 활동 뒷 이야기(비하인드) 등의 영상이 있다.

이러한 콘텐츠를 통해서, 이용자인 대중은 해당 아이돌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아이돌의 행보나 특정 콘텐츠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댓글로 달고, '좋아요'를 누르면서 자유롭게 표현하고 소통한다. 이때, 소셜미디어의 댓글에서는 개인, 사용자, 사회의 관심사가 숨어있고, 댓글 분석을 통해 그 관심사를 찾아낼 수 있다(Siersdorfer, Chelaru, Nejdil & Pedro, 2010). 즉, 대중에게 있어서 소셜미디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 역할을 넘어 현실 세계를 반영하고 재

구성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최재현, 2022).

따라서 미디어 없이는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최재현, 2022), 소셜미디어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채널이라 볼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방법

1)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이란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의 한 유형으로서 대규모의 텍스트 자료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는 일련의 방법을 지칭하는 개념이다(김일환, 2019). 즉, 비정형 데이터를 데이터의 구조와 형식이 존재하는 정형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텍스트 마이닝은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의견이 생산 및 가공되고, 이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비정형 데이터인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분석 기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텍스트 마이닝은 그 목적과 방법에 따라 다양한 분석 방법이 있다. 정보추출, 자연어 처리, 주제 모델링(토픽분석), 감정분석, 텍스트 분류, 클러스터링 등이 존재한다.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변환하는 텍스트 마이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데이터 수집 단계는 텍스트 마이닝을 할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웹 크롤링, API 활용 등을 하여 텍스트, 소셜미디어(뉴스 기사, SNS, 인터뷰 등)의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한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수집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전환하기 위해 적합한 구조와 형식으로 정제하는 과정이다. 전처리 과정은 토큰화, 불용어 제거, 형태소 분석, 대소문자 통일, 특수문자 제거 등이 있다. 비정형 데이터의 형식이 한국어일 경우, 한국어의 특성상 다른 언어로 구성된 데이터 전처리 과정과의 차별점으로 형태소 분석, 조사와 접속사와 같은 불용어 제거, 동사와 형용사의 어간 추출, 띄어쓰기, 한자 및 외래어 처리가 중요 전처리 작업이다. 텍스트 분석 및 시각화 단계는 정보 추출, 감정 분석 등의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과정이다.

텍스트 속에서 중요 정보를 획득하는 가장 간단하면서 중요한 방법은 단어 출현 빈도수를 분석하는 것이다(김일환, 2019). 단어 출현 빈도는 해당 단어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내는 대

표적인 지표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텍스트 마이닝에서 단어 출현 빈도수는 단순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과정이다(김일환, 2019).

2) 사회연결망 분석(SNA)

사회연결망 분석(SNA)은 개인이나 집단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노드(Node)와 링크(Link)로 모델링하여 구조와 과정 등을 계량적인 수치로 분석하는 방법론이다(최정아, 2023). 사회학,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관계분석, 소셜미디어 분석 등 응용 분야에서 사용된다.

사회연결망 분석은 노드와 노드들의 관계 특징을 나타내주는 중심성 측정법으로 수행한다(오선효, 2022). 중심성은 특정 개체가 전체의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오선효, 2022). 중심성은 밀도¹⁾를 중심으로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아이젠벡터 중심성으로 나뉜다. 연결 중심성은 노드에 연결된 링크의 수를 분석, 근접 중심성은 다른 노드와의 평균 거리의 역수, 매개 중심성은 노드가 다른 노드와 최단 경로에 위치하는 빈도를 분석한다. 아이젠벡터 중심성은 연결된 노드의 개수뿐만 아니라 연결된 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연결 중심성의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한경훈, 서영수, 박근병, 2015).

사회연결망 분석 중 CONCOR 분석은 구조적 등위성 측정 방법으로서 한 네트워크에서 노드 간의 구조적 등가성을 분석하여 유사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노드를 그룹화하고 이 그룹 간의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비슷한 특성을 가진 주제어들을 군집화하는 방법이다(권진주, 2023).

2. 자료수집 및 자료 전처리

1) 유튜브 영상 및 댓글 수집

유튜브(Youtube)는 많은 대중이 이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이자, 장애 인식 재고를 위한 잠재력 있는 도구로 인정받고 있다(Ellis, 2010). 유튜브 영상들은 주류 미디어에서 자주 볼 수 없는 다양한 장애인 표상을 재현하기 때문이다.

빅오션은 청각장애인이면서 동시에 아이돌이기도 하다. 빅오션 멤버가 가진 특성 중 하나

1) 네트워크의 응집도를 평가하는 지표를 의미하며 네트워크 내 노드 간 연결된 정도(최나래, 반영운, 정현근, 중경선, 손철희, 2015)이다.

인 청각장애는 소셜미디어 중에서도 특히 유튜브의 많은 콘텐츠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유튜브 댓글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이돌로서의 빅오션과 장애인으로서의 빅오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유튜브에서 빅오션 관련 영상을 수집하였다. 빅오션의 자체 계정에 는 데뷔 전부터 타 아이돌과의 합동 공연 등의 영상이 꾸준히 업로드되었다. 이에 영상 수집 기간은 자체 계정에 본격적으로 콘텐츠가 올라오기 시작한 2023년 8월 2일부터 데뷔 후 4개월가량이 경과된 2024년 9월 5일로 선정하였다. ‘빅오션’을 검색어로 설정하여 해당 기간의 동영상과 Shorts를 찾았고, 총 218개의 영상이 수집되었다. 수집된 영상의 종류별 개수 및 비율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유튜브 영상 종류별 개수 및 비율

영상 종류	수(개)	백분율(%)
자체 제작 콘텐츠	157	72
방송	27	12
뉴스	19	9
기타	15	7
합계	218	100

*기타 : 유튜브, 라디오, 뮤직비디오

영상 중에는 자체 제작 콘텐츠가 약 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방송, 뉴스, 기타 영상이 그 뒤를 이었다. 빅오션의 자체 제작 콘텐츠에는 ‘우·아·될(우리가 아이돌이 될 수 있을까?)²⁾’, 각종 챌린지³⁾ 및 K-POP 커버댄스 영상⁴⁾이 있었다. 이때, 빅오션은 기존 챌린지, K-POP 커버댄스 방식에서 핵심 후렴구에는 수어 안무를 더하여 재해석했다.

다음으로 수집된 영상 하단에 게시된 댓글과 그에 달린 답글을 수집하였다. 이때 파이썬(Python)을 이용해 웹 크롤링(Data Crawling)하였다. 웹 크롤링은 인터넷상의 웹 페이지를 방문해 자동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다(신성일, 이은순, 2023).

2) 댓글 전처리

웹 크롤링으로 수집한 영상, 음성, 텍스트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는 분석을 위해 계량화해

2) 빅오션의 데뷔 전 연습생 시절의 활동을 담은 영상이다.

3) 짧은 동영상 플랫폼에 해시태그의 검색 기능을 적용해 제작하는 영상이다(관가우, 이소은, 2024).

4) 가수들의 댄스 안무를 모방하여 추는 춤이다(강별님, 2022).

야 한다(신성일, 이은순, 2023). 본 연구에서는 댓글 데이터를 정형화하기 위해 텍스트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데이터 정제와 키워드 추출은 빅데이터 분석 통합 패키지인 텍스트롬(Textom)을 활용하였다.

1차적으로 타 연예인에 대한 댓글, 해외 댓글, 빅오션과 무관한 댓글을 삭제하였다. 먼저 타 연예인 관련 댓글은 빅오션에 관한 대중 인식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빅오션은 타 연예인과 챌린지 영상 등을 빈번히 촬영했다. 이러한 영상 댓글에는 빅오션에 관한 댓글 못지않게 타 연예인 관련 댓글이 많았는데, 이는 빅오션이 신인이기 때문에 타 연예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해외 댓글에는 외국어로 기재된 댓글과 자신이 외국인임을 밝힌 한국어 댓글이 있었고, 이외에도 빅오션과 무관한 댓글을 삭제하였다. 그 결과 6,197개의 댓글이 최종 활용되었다.

2차적으로 유의어사전을 구축하여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동일하게 처리하고, 불용어사전을 구축하여 의미 없는 단어를 삭제하였다. 유의어의 경우 형태(예 : ‘귀엽’, ‘귀여’, ‘귀염’), 발음(예 : ‘추카’, ‘축하’), 띄어쓰기(예 : ‘수 어’, ‘수어’), 축약형(예 : ‘왓팅’, ‘파팅’, ‘화이팅’), 은어(예 : ‘개존잘’, ‘존잘’, ‘잘생겼’), 별명(예 : ‘차노님’, ‘이찬연’) 등을 고려해 동일한 단어로 지정했다. 불용어의 경우 그룹명(‘빅오션’, ‘에스보이즈’⁵⁾), 의존명사(‘거’, ‘것’) 등으로 설정하였다. 댓글 및 단어 전처리에 대한 예시는 <표 2> 와 같다.

〈표 2〉 댓글 및 단어 전처리 작업 예시

구분	작업	대상	정제 전	정제 후
댓글	삭제	해외 댓글	Guys I love you very much Im from Mexico I love you very much the day you do a concert in Mexico I will be in the front row hahaha I love you	-
			Love from India	-
		타 연예인 관련 댓글	라이즈가 드려 선배가 됐구나 ㅋㅋ	-
			아이유도 귀 안좋은댕	-
		기타 무관한 댓글	케익 맛나보임	-
			각막염에서 실명위기인데도 렌즈를 꺼야되냐.. ㅋ참	-
단어	통제	형태 유사어	귀염	귀엽
		발음 유사어	추카	축하

5) 빅오션의 데뷔 이전 그룹명이다.

구분	작업	대상	정제 전	정제 후
		은어	존잘	잘생겼
		축약형	음방	음악방송
	삭제	그룹명	빅오션, 에스보이즈	-
		의존명사	것	-

최종 정제된 데이터에서 Mecab-IMC 분석기를 이용해 명사와 형용사를 추출했다. 이 과정에서 텍스트롬(Textom) 전처리 기능을 이용하여 문장부호와 특수문자 제거, 띄어쓰기 교정, 추가적인 불용어 제거, 형태소 분석, 형태소 기반 토큰화, 어간 추출을 실시하였다. 품사로 명사와 형용사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튜브 댓글에는 빅오션의 행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담겨있고, 다양한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와 상태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에 내포된 의미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총 26,890개의 단어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3. 분석 절차

위와 같은 자연어 전처리 과정 이후, 유튜브 댓글 중 명사와 형용사로 이루어진 총 26,890개의 데이터는 텍스트롬(Textom)을 이용하여 단어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어빈도 분석의 결과값을 바탕으로 연구 대상인 빅오션에 대한 지배적인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주제어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단어빈도 분석을 통해서 빅오션을 둘러싼 지배적인 담론을 이해한 후, Ucinet을 이용하여 사회연결망 분석(SNA) 중 중심성 분석과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빅오션에 대한 주제어들이 형성한 군집을 도출하고 해당 군집이 가진 담론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군집이 형성한 담론들 사이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절차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 분석 절차 및 활용 프로그램

단계	작업 내용	활용 프로그램
데이터 수집	유튜브 내 빅오션 관련 영상에 게시된 댓글	Excel, Python
데이터 정제	교정, 통제, 제거	Excel, 텍스트롬(Textom)
데이터 분석	주제어 빈도 분석	텍스트롬(Textom)
	CONCOR 분석	Ucinet

단계	작업 내용	활용 프로그램
	주제어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데이터 시각화	상위 빈도 주제어 표	Excel
	상위 빈도 주제어 워드클라우드	텍스툼(Textom)
	CONCOR 분석 시각화	Netdraw
	중심성 분석 표	Excel

IV. 연구결과

1. 분석 결과

1) 단어 빈도 분석

빅오션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에서 추출한 댓글들을 전처리한 후, 단어 빈도수를 기준으로 상위 50개를 추출하였을 때, 단어를 나열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상위 50개 중 ‘응원’, ‘좋’, ‘멋지’, ‘노래’ 등 빅오션의 최근 행보와 그에 대한 응원, 그리고 그들의 활동과 관련된 특징에 대한 긍정적인 키워드가 빅오션에 대한 대중의 담론에서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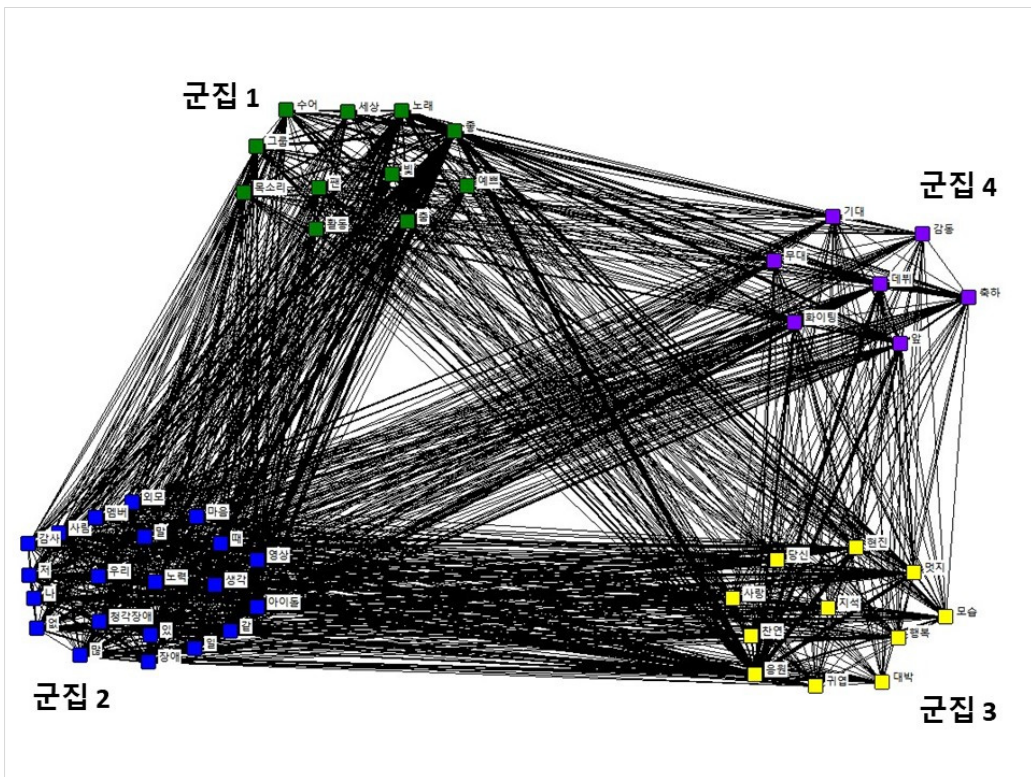
〈표 4〉 단어 빈도 기준 상위 50개 단어

순위	주제어	빈도	순위	주제어	빈도
1	응원	1092	26	영상	155
2	좋	987	27	없	152
3	멋지	532	28	우리	150
4	노래	522	29	일	148
5	현진	446	30	말	133
6	화이팅	420	31	생각	132
7	데뷔	410	32	팬	131
8	같	374	33	감사	127
9	아이돌	330	34	활동	127
10	축하	275	35	모습	125
11	수어	254	36	빛	121

- 223 -

2) CONCOR 분석

단어 빈도를 중심으로 선별한 상위 50개의 주제어를 바탕으로 Ucinet을 통해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대깊이분할은 2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주제어들은 4개의 군집으로 분할되었다. 각각의 군집은 구조적 등위성에 의해 분류된 것으로 군집별 주제가 존재하였다. CONCOR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시각화하였다.



[그림 2] CONCOR 분석 결과

3) 중심성 분석

CONCOR 분석을 통해 분할된 4개의 군집들의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 Ucinet으로 군집별 주제어들의 중심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주제어들의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아이젠벡터 중심성을 확인하였다.

(1) 군집1

군집1을 구성하는 주제어는 ‘좋(다)’, ‘노래’, ‘수어’, ‘춤’, ‘그룹’, ‘팬’, ‘활동’, ‘빛’, ‘목소리’, ‘예쁘(다)’, ‘세상’이 있다. 중심성 분석 결과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어로 ‘좋’, ‘노래’, ‘수어’, ‘춤’, ‘그룹’, ‘팬’이 있었다. 이 단어들은 모두 연결 중심성과 근접 중심성이 1로 가장 높고,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0.1455로 가장 높았다. 해당 주제어들을 통해, 빅오션의 수어를 통한 춤과 첫 싱글앨범 곡의 제목 ‘빛’과 같은 노래 등 아이돌로서의 활동에 대해서 대중 담론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군집1은 빅오션의 아이돌로서 활동에 대한 담론이다.

〈표 5〉 군집 1 중심성 분석

단어	빈도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
좋	987	1.000	1.000	0.1455
노래	522	1.000	1.000	0.1455
수어	254	1.000	1.000	0.1455
춤	245	1.000	1.000	0.1455
그룹	188	1.000	1.000	0.1455
팬	131	1.000	1.000	0.1455
활동	127	0.918	0.925	0.1348
빛	121	0.959	0.961	0.1404
목소리	108	0.959	0.961	0.1399
예쁘	90	0.918	0.925	0.1345
세상	89	0.959	0.961	0.1400

(2) 군집2

군집2의 주제어는 ‘같(다)’, ‘아이돌’, ‘장애’, ‘청각장애’, ‘사람’, ‘나’, ‘노력’, ‘많(다)’, ‘있(다)’, ‘저’, ‘때’, ‘없(다)’, ‘우리’, ‘일’, ‘말’, ‘생각’, ‘감사’, ‘마음’, ‘감동’, ‘외모’, ‘멤버’로 구성된다. 중심성 분석 결과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어로 ‘같’, ‘장애’, ‘청각장애’, ‘사람’, ‘나’, ‘있’, ‘때’, ‘우리’, ‘감사’가 있었다. 이 단어들은 모두 연결 중심성과 근접 중심성이 1로 가장 높고,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0.1455로 가장 높았다. 해당 주제어들을 통해, 빅오션의 특성인 ‘청각장애’를 중심으로 대중 담론이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즉, 군집2의 담론은 빅오션의 장애 관련 대중의 반응이다.

〈표 6〉 군집2 중심성 분석

단어	빈도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
같	374	1.000	1.000	0.1455
아이돌	330	0.980	0.980	0.1429
장애	246	1.000	1.000	0.1455
청각장애	233	1.000	1.000	0.1455
사람	207	1.000	1.000	0.1455
나	195	1.000	1.000	0.1455
노력	186	0.980	0.980	0.1428
많	184	0.980	0.980	0.1429
있	168	1.000	1.000	0.1455
저	163	0.980	0.980	0.1427
때	162	1.000	1.000	0.1455
없	152	0.980	0.980	0.1427
우리	150	1.000	1.000	0.1455
일	148	0.959	0.961	0.1399
말	133	0.980	0.980	0.1430
생각	132	0.980	0.980	0.1427
감사	127	1.000	1.000	0.1455
마음	106	0.959	0.961	0.1401
감동	102	0.918	0.925	0.1345
외모	101	0.878	0.891	0.1286
멤버	78	0.939	0.942	0.1370

(3) 군집3

군집3의 주제어는 ‘응원’, ‘멋지(다)’, ‘현진’, ‘사랑’, ‘귀엽(다)’, ‘모습’, ‘찬연’, ‘지식’, ‘당신’, ‘행복’, ‘대박’으로 구성된다. 중심성 분석 결과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어로 ‘응원’, ‘멋지’, ‘현진’, ‘사랑’이 있었다. 이 단어들은 모두 연결 중심성과 근접 중심성이 1로 가장 높고,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0.1455로 가장 높았다. 해당 주제어들을 통해, 빅오션의 개인 멤버와 그에 대한 지지가 군집3을 구성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군집3의 담론은 빅오션 각각의 멤버에 대한 대중의 칭찬과 응원임을 알 수 있다.

〈표 7〉 군집 3 중심성 분석

단어	빈도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
응원	1092	1.000	1.000	0.1455
멋지	532	1.000	1.000	0.1455
현진	446	1.000	1.000	0.1455
사랑	237	1.000	1.000	0.1455
귀엽	165	0.918	0.925	0.1339
모습	125	0.939	0.942	0.1378
찬연	117	0.959	0.961	0.1398
지식	104	0.959	0.961	0.1398
당신	100	0.857	0.875	0.1261
행복	93	0.939	0.942	0.1373
대박	90	0.816	0.845	0.1201

(4) 군집4

군집4의 주제어는 '화이팅', '데뷔', '축하', '앞', '무대', '감동', '기대'로 구성된다. 중심성 분석 결과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어로 '화이팅', '데뷔', '축하', '앞'이 있었다. 이 단어들은 모두 연결 중심성과 근접 중심성이 1로 가장 높고,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0.1455로 가장 높았다. 즉, 군집4는 빅오션의 데뷔 축하 및 응원에 대한 담론이다.

〈표 8〉 군집4 중심성 분석

단어	빈도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
화이팅	420	1.000	1.000	0.1455
데뷔	410	1.000	1.000	0.1455
축하	275	1.000	1.000	0.1455
앞	238	1.000	1.000	0.1455
무대	116	0.959	0.961	0.1400
감동	102	0.918	0.925	0.1345
기대	94	0.980	0.980	0.1427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자들은 청각장애인 아이돌 빅오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탐구하기 위해 유튜브의 국내 댓글을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 분석과 사회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단어빈도 분석에서 제시된 상위 50개의 주제어를 바탕으로 빅오션에 대한 대중의 지배적인 담론이 지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응원', '좋', '화이팅'과 같은 긍정적 단어들이 상위에 위치한 것은 빅오션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긍정적인 감정이 강하게 드러남을 보여준다. 또한, '데뷔', '아이돌', '축하'라는 단어들은 아이돌 빅오션의 데뷔를 축하하고 성공을 기원하는 대중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래', '멋지'와 같은 표현은 빅오션의 음악적 역량과 이미지가 높게 평가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와 동시에 '청각장애', '장애', '수어'라는 단어들은 청각장애인으로서 빅오션의 도전과 수어를 활용하는 방식이 대중에게 주목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종합하면 대중은 빅오션을 단순한 아이돌 그룹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애를 포함한 모든 요소를 총체적으로 포용하며 격려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지 여론의 구체적인 양상을 분류하기 위해 CONCOR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4개의 군집이 형성되어 중심성 분석을 통해 주제를 도출했다. 각 군집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군집1은 아이돌로서 빅오션의 활동과 관련된 주제어들이 집합되어 있다. 특히 빅오션만의 정체성인 '수어'를 통한 '춤' '활동'과 그들만의 '목소리'로 '노래'를 한다는 것, 그들의 '활동'을 통해 '세상'을 '좋'게 만든다는 등의 활동과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대중은 빅오션이 생산하는 '수어'를 통한 '춤'과 '목소리'를 청각장애인 아이돌 빅오션만의 차별적인 콘셉트로 인식하고, 그들의 행보를 빅오션만의 서사로 인식했다. 이는 빅오션의 매력 요소로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아이돌 산업에서 주요 흥행요소인 그룹 스토리를 통한 스토리텔링 요소를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빅오션은 멤버들의 장애 정체성을 이용하여 다양성의 가치를 부각하는 스토리텔링을 구축하였다. 즉, 빅오션의 콘셉트와 그들의 활동은 하나의 다양성과 포용성의 일환으로 장애를 제시함과 동시에 빅오션이 가지는 타 아이돌 그룹과의 차별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군집2에서는 빅오션의 장애에 초점을 두고 가장 다양한 양상의 담론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노력', '많(다)', '말'로 대표되는 담론은 청각장애를 극복한 빅오션 멤버들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었다. 이 담론은 청력 손상의 많은 어려움을 강조하며 이를 이겨

낸 멤버들의 의지를 높이 산다. 이는 노력을 통해 장애라는 비극을 이겨낸 사람을 영웅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료적 모델과 관련성이 높다. 이러한 담론은 장애인은 한계를 극복하고 비장애인처럼 활동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한국장애인인권포럼, 2012).

다음으로 ‘감사’, ‘생각’, ‘같(다)’으로 대표되는 담론은 빅오션이 미디어의 장애 재현과 K-POP의 문화다양성에 기여하는 것에 감사를 표현하는 내용이었다. 청각장애인 아이돌 빅오션은 등장만으로도 사회적 화두가 되어 대중에게 여러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다. 대중은 빅오션을 통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아이돌로서 대중문화의 생산자가 될 수 있음을 새롭게 인식했다. 이처럼 대중은 빅오션이 생산하는 장애 문화를 통해 기존의 부정적인 장애 이미지가 아닌,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이미지를 수용하게 된다. 이는 장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긍정적 모델과 관련성이 높다. 해당 모델은 장애 문화를 통한 장애인관 형성에 주목하며, 장애인을 문화 향유의 소비자보다 생산자로 여기기를 권고한다(이종정, 2018).

종합하면, 빅오션의 장애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하나는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문화 다양성의 상징으로 여기는 것이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 문화가 ‘성공 신화’ 담론 또는 ‘다름의 공존’ 담론으로 다뤄진다는 이문오(202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군집3은 빅오션 멤버 각각에 대한 칭찬과 응원에 대한 담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빅오션 멤버들의 이름, ‘귀엽’(다), ‘사랑’ 등의 그들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빅오션에 대한 대중의 감정에 관한 제시어가 군집을 구성한다. 대중은 멤버들 개인에 대해서 그들의 장애 정체성을 인식하기보다는 그들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며, 빅오션을 통해 발생하는 ‘행복’ 등과 같은 감정을 표현하고 그들을 ‘응원’했다.

군집4는 빅오션의 데뷔를 축하하고 응원하는 담론이었다. ‘감동’, ‘앞’, ‘기대’는 대중이 빅오션의 등장에 감응하며, 이들의 미래의 행보를 지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 사회에서 아이돌은 장기간의 고된 연습생 시절을 거쳐 데뷔한다. 빅오션 또한 1년 반 동안의 긴 연습생 기간을 거쳐 활동을 시작했다. 대중은 빅오션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통해 빅오션이 데뷔와 활동을 위해 강도 높은 연습을 했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이러한 빅오션의 활동 준비 과정과 데뷔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세계 최초의 청각장애인 아이돌’이라는 차별점이 더욱 특별하게 인식되었다.

한편 각 군집 간의 링크 밀집도를 미루어 보아, 군집 1과 2, 군집 2와 3, 군집 2와 4 간의 연결성이 군집 1과 3, 군집 3과 4, 군집 1과 4 간의 연결성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군집 1과 2, 군집 2와 3, 군집 2와 4 간의 연결성을 중심으로 대중 담론을 파악하였다.

아이돌로서의 활동 관련 답론인 군집1과 장애 관련 답론인 군집2 간의 연결성은 빅오션의 정체성의 교차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교차성은 빅오션이 가진 콘셉트를 강화하고 빅오션만의 독특한 활동이 생산하는 사회적 가치와 상업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앞서 군집1과 군집2의 내용에서 확인했듯이 빅오션은 장애 정체성과 동시에 한국 K-POP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 최초 청각장애인 아이돌’이라는 콘셉트를 제시한다. 이는 K-POP 산업에서 아이돌로서 빅오션만이 가지는 차별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성으로 인하여 대중은 여타 아이돌들과 같이 빅오션에 대해서 그들만의 서사와 콘셉트를 더 쉽게 수용한다. 빅오션만이 갖는 차별성을 통해 산출된 결과물의 대표적인 사례는 빅오션의 수어 안무가 있다. 빅오션은 수어라는 농문화를 이용하여 그들만의 안무를 창작하고 대중에게 안무를 선보이며, 대중은 이러한 차별성으로 인하여 빅오션의 아이돌로서의 상업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청각장애와 농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예를 들어 “위트 있는 춤 추면서 수어하는 영상은 처음 보네요!! 빅오션이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놀랄 만한 퍼포먼스를 하시길 기대합니다!”와 같은 댓글이 있었다. 빅오션의 정체성 교차성은 농문화를 대중화하고 수어 안무 등 K-POP 산업에서 새로운 예술적 가치와 긍정적인 사회 영향력을 전파하는 동시에, 빅오션의 콘셉트 역시 강화한다.

더불어 현재 빅오션의 ‘춤’과 ‘노래’에 대해 ‘좋(다)’, ‘예쁘(다)’ 등의 긍정적 평가가 다수인 것을 보아, 빅오션은 K-POP 시장에서 신예로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예계에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기능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하지만 빅오션의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보아 장애가 있는 연예인의 상품가치가 낮다는 통념은 고정관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위와 같은 대중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 수어를 통한 안무와 예술적 가치 함양은 빅오션의 시장성을 제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 관련 답론인 군집2와 빅오션 각각의 멤버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군집3 간의 연결성은 청각장애가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빅오션 멤버들의 ‘외모’가 아이돌로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귀엽(다)’, ‘멋지(다)’는 빅오션 멤버들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낸다. 대중은 멤버들의 얼굴, 웃는 모습 등 시각적인 요소에 좋은 반응을 보였다. 예를 들어 “멋있다 진짜 ♥ 꼭 대박 나라 외모나 뭐나 빠지는게 없어서 진짜 대박날 듯 진짜 기대 된다 !!!!! 위기를 기회로. 청각장애가 장애가 아닌 앞으로 드라마 남주로도 나왔으면 좋겠음.”와 같은 댓글이 있었다. 이러한 미적 평가에는 빅오션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청각장애의 비가시성이 기인한다. 사회적으로 신체장애인의 몸은 결함의 이미지로 규정된다(Brown, Sheidlower, 2021). 장애인의 몸은 대중에게 특정 부분이 불완전하거나, 휠체어

등 보조기기에 의지하는 모습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외관상 장애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청각 장애인은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난다. 이는 외모를 아이돌의 자격요건에서 주요 요소로 평가하는 대중에게 빅오션이 유리한 점으로 작용한다.

장애 관련 담론인 군집2와 응원 관련 담론인 군집4 간 연결성은 청각장애인 아이돌 빅오션과 빅오션을 응원하는 대중들의 담론 간 관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특히 미디어에서 장애를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빅오션의 행보는 장애가 있는 당사자나 그 주변인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 예를 들어 “저도 청각 장애를 가졌지만 꿈이 아이돌인데 빅오션은 당당하게 자신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데뷔한 것이 대단하네요..”와 같은 댓글은 데뷔라는 꿈을 실현한 빅오션이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것에 대한 감동을 표현했다. 긍정적 모델의 관점에서 빅오션은 장애인이 스스로 내면화한, 장애에 대한 부정적 정체성을 깨고 긍정적 정체성(positive identity)을 심어주었다. 신체적 다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통해 자부심(pride)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자들은 장애연예인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최초의 장애인 아이돌 그룹에 대한 여론을 다양한 장애 관련 이론을 적용해 분석했다. 빅오션에 대한 대중의 지배적인 여론과 세부 담론 대체로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중문화 산업과 미디어가 장애를 하나의 다양성으로 재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중문화 산업과 미디어는 비장애인들에게는 장애를 하나의 특성으로 인식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들에게는 장애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최초의 장애인 아이돌 그룹에 대한 여론을 다양한 장애 관련 이론을 적용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대중의 장애인관은 크게 의료적 모델과 긍정적 모델로 구분되었다. 의료적 모델에 기반한 반응은 빅오션의 장애를 결함으로 인식하는 담론이었다. 이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장애를 개인이 극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반면 긍정적 모델에 따른 반응은 빅오션의 장애로 인한 손상보다 이들이 주도하는 문화의 가치에 주목하는 담론이었다. 이는 장애인 아이돌이 연예계에서 다양성을 증진하여 장애당사자로서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존에 ‘장애인을 위해서(for)’ 이루어진 사회적 변화가 ‘장애인에 의해서(by)’ 시행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빅오션에 대한 대중의 긍정적 인식을 통해 연예계 내 장애인 아이돌의 상품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배경을 통해 장애연예인은 비장애인보다 기능적으로 부족하다는 등의 인식을 확인했지만, 연구결과를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아이돌 산업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산업에서 장애인이 하나의 문화 생산자로 활동할 가능성을 제

시하는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유튜브 영상에 게시된 국내 댓글만을 분석했기 때문에 빅오션에 대한 여론 전체를 대표하는 결과로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매체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포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집한 영상이 빅오션에 대해 우호적 성향을 가진 내용이었기에, 해당 영상에 대한 댓글 내용 역시 영상의 영향을 받아 긍정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수집한 유튜브 영상의 종류 중 자체 제작 콘텐츠의 비율이 약 72%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자체 제작 콘텐츠는 모두 빅오션에 대해 우호적인 영상들이었다. 유튜브 플랫폼상에서 댓글은 영상에 대한 감상평이므로 영상의 성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장기간 더욱 다양한 종류의 영상을 수집해 대중의 반응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단어 중요도 순으로 상위 50개의 주제어를 분석하여 빅오션에 대한 지배적인 담론을 파악했으나, 소수의 담론은 불가피하게 경시되었다. 이는 빅오션에 대한 여론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소수의 담론을 포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한다. 온라인상 대중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미디어의 장애 프레임이 있다(Haller, Zhang, 2010. 9. 16). 대중은 미디어가 장애를 재현하는 방식에 의해서 장애인관을 형성하며 장애인에 대한 담론을 형성한다. 따라서 유튜브 영상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한 후 그에 대한 댓글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면 빅오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별님 (2022). 여성결혼이민자의 K-POP 커버댄스 참여가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7(12), 219-229.
- 관가우, 이소은 (2024). K팝 챌린지 영상 이용자의 참여동기가 참여정도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중 비교를 중심으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8(3), 5-35.
- 권진주 (2023). 키워드 네트워크를 활용한 케이팝(K-Pop) 해외 연구 동향 분석. **인문콘텐츠**, 68, 437-460.
- 김일환 (2019). 인문학을 위한 신문 빅 데이터와 텍스트 마이닝. **어문론집**, 78, 41-62.
- 김주현, 선아 (2024. 7. 22). 세상에 하나뿐인 아이돌 그룹, 더 넓은 세상을 듣는 '빅오션'. 한국장애인재단. <http://webzine.kfpd.org/21/41>
- 김진희, 김용득 (2023). 장애 당사자 인식은 의료(개별)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는가?: 장애인 실태조사의 관련 변수 분석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33(1), 203-225.
- 김현경 (2014). 연예인 지망생 및 신인의 성형 경험과 '이미지 상품-주체'의 형성: 연기자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31(2), 3-32.
- 남지은 (2024. 4. 25). 청각장애는 조금 불편할 뿐... 희망 메신저 아이돌 '빅오션'.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138094.html
- 박동진, 남기현 (2022). 농인의 농정체성이 농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수어인식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3(9), 177-184.
- 박민석 (2021. 9. 27). 블랙핑크, BTS 등 아이돌, 기후변화 등 사회문제에 관심... 팬들에게도 '확산'. DealSite경제TV. <https://news.dealsitetv.com/news/articleView.html?idxno=71910>
- 신성일, 이은순 (2023). 충주시 유튜브 콘텐츠 댓글을 통해 본 지자체 행정PR의 함의: 텍스트 마이닝의 의미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12), 277-287.
- 양혜승 (2023). 장애인을 향한 시선 : 전장연 지하철 시위 관련 네이버 뉴스 댓글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한국방송학보**, 37(6), 197-241.
- 오선효 (2022). COVID-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수단-목적사슬(MEC) 이론과 사회연결망분석(SNA)의 통합모델을 적용한 국내 골퍼들의 가치추구체계 비교 (박사학위논문, 한

남대학교, 대전).

- 이동연 (2011). 아이돌, 아이돌 팝, 아이돌 문화. 이동연(편), 아이돌 (pp. 14-48). 서울: 이매진.
- 이문오 (2023). 일간지 담론분석을 통해 본 장애 문화예술에 대한 성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8), 451-462.
- 이종정 (2018). 장애모델의 발전사를 통해 살펴 본 긍정적 장애모델의 특성과 함의. **한국장애인복지학**, 41(41), 165-194.
- 이지윤, 김상현 (2022). 아이돌 특성 조사에 대한 정량적 분석 연구. **문화산업연구**, 22(1), 1-9.
- 이진호 (2023. 10. 30). [202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스타트업 CEO] 장애인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전문 스타트업 ‘파라스타엔터테인먼트’. **한경JOB&JOY**. <https://magazine.hankyung.com/job-joy/article/202310309312d>
- 전지혜 (2011). 장애 정체감으로서의 장애 자부심, 그리고 장애 문화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 **한국장애인복지학**, 15, 57-76.
- 조지윤 (2024. 7. 12). 차해리 파라스타엔터테인먼트 대표 “장애인도 아이돌 할 수 있어요.”, WOMAN DONGA. <https://woman.donga.com/culture/article/all/12/5027848/1>
- 조한진 (2006). 장애의 이론 모델과 실천 모델의 전환에 입각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방향. **특수교육학연구**, 40(4), 233-256.
- 채옥 (2023). 아이돌 그룹의 기호-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 그룹 엔시티(NCT)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서울).
- 최나래, 반영운, 정현근, 주경선, 손철희 (2015). 사회네트워크분석 방법을 통한 한국 EIP 산업공생 네트워크 특성 분석.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5, 서울.
- 최재현, 이숙정 (2022). 유튜브 영상 속 장애인 재현에 대한 내용분석 : 생산자 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6(6), 203-240.
- 최재현 (2022). 유튜브 콘텐츠에 나타난 장애인 이미지 재현 방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 최정아 (2023). 정보화사업 성과와 이해관계자에 관한 탐색적 연구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3(2), 157-183.
- 한경훈, 서영수, 박근병 (2015).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지하철역 네트워크 구조 분석. **한국철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5, 34-40.
- 한국장애예술인협회 (2022. 1. 31). 장애예술인 인터뷰 만능엔터테이너 김리후. **에이블뉴스**.

-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120>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2012). **장애인 방송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 황미현 (2024. 6. 19.). ‘최초 청각 장애 아이돌’ 빅오션 “편견을 기대로 바꾸고파” [N인터뷰], 뉴스1. <https://www.news1.kr/entertain/interview/5450973>
- Altman, B. M. (2001). Disability definitions, models, classification schemes, and applications. in Albrecht, G. L., Seelman, K. D., & Bury, M. (Ed.). Handbook of disability studies. Sage Publications (pp.97-122).
- Brown, R., & Sheidlower, S. (2021). Seeking to understand a journey into disability studies and libraries. Library Juice Press.
- Ellis, K. (2010). A purposeful rebuilding: Youtube, representation, accessibility and the socio-political space of disability. Telecommunications Journal of Australia, 60(2), 21.1-21.12.
- Haller, B., & L.Zhang. (2010. 9. 16.). Survey of disabled people about media representations. Media and Disability Resources. <https://mediadisability.wordpress.com/survey/>
- Harris, J. (1993). Is gene therapy a form of eugenics?. Bioethics, 7, 178-187.
- Lang, R. (2007). The development and critique of the social model of disability. Leonard Cheshire Disability and Inclusive Development Centre.
- Longmore, P. K. (1987). Uncovering the hidden histor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Review in American History. 15(3), 355-364.
- Oliver, M. (1983). Social work with disabled people. Basingstoke, UK: Macmillan.
- Siersdorfer, S., Chelaru, S., Nejd, W., & San Pedro, J. (2010). How useful are your comments? Analyzing and predicting YouTube comments and comment ratings. Paper presented at the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rld wide web (WWW '10).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New York, NY, USA, 891-900. <https://doi.org/10.1145/1772690.1772781>
- Smart, J. F. (2004). Models of disability: The juxtaposition of biology and social construction. In T. Riggart & D. Maki (Ed.), Handbook of rehabilitation counseling (pp. 25-49). New York, NY: Springer
- Wingenroth, L. (2024. 2. 19). How dance artists are fusing ASL with

choreography. Dance Magazine. <https://www.dancemagazine.com/asl-and-choreography/#gsc.tab=0>

논문 투고 : 2024.10.14.	논문 심사 : 2024.11.21.	게재 확정 : 2024.12.11.
---------------------	---------------------	---------------------

Abstract

Public perception of hearing-impaired idol 'Big-O!cean' : Focusing on Youtube comments

ChaeWon Park*, HaRin Kim**, JiWoo Han***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how Big-O!cean, the first hearing-impaired idol to debut, is perceived by the public, given the negative public perception of celebrities with disabilities. The researchers decided to collect social media comments to see what the public thinks about Big-O!cean's behavior and specific content. Youtube was selected as a medium among social media. Text mining and Social Network Analysis(SNA) were conducted based on the extracted comments.

As a result, the dominant public opinion on Big-O!cean has been confirmed to be supportive. Through an in-depth analysis of the discourse, key themes related to disabilities, such as 'hearing impairment' and 'disability', as well as those associated with idols, were identified. Researchers observed that discussions surrounding 'Big-O!cean' have diversified significantly, encompassing themes related to both idols and disabilities. It was confirmed that Big-O!cean is currently an idol with a hearing impairment, producing a culture reflecting disability characteristics, and there is a discourse that recognizes its identity as an idol. This study shows that Big-O!cean's activities are effective in improving disability awareness and suggests that disabled

* Under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oongsil University

** Under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oongsil University

*** Under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oongsil University

idols have value as cultural producers.

Keywords: Hearing Impairment, Disability Culture, Idol, Text Mining, Social Network Analysis,
Public Perception

장애의재해석 제5권 제2호

2024 Vol. 5, No. 2, 239 - 270

해외 주요국의 ‘접근성 매니저’ 직무 현황 분석 : 접근성 매니저 채용 공고 분석을 중심으로*

정종은**, 최강찬***, 강지섭****

2023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장애인문화예술과’가 설립되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공립 공연장·전시장의 장애예술 관련 의무가 명시되면서 ‘접근성’ 및 ‘접근성 매니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대 후반부터 ‘접근성 매니저’라는 직함을 달고 활동하는 기획자, 연출가들이 처음 등장했고, 2020년대에 들어서는 장애인문화예술원을 필두로 극장, 박물관 등에서 ‘접근성’ 관련 공연과 전시, 교육 프로그램이 속속 도입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접근성 매니저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접근성 매니저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서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2024년 7~8월 두 달간 ‘접근성 매니저’ 채용 공고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접근성 매니저는 접근성 기획 관리자, 접근성 교육 전문가, 접근성 기술 지원 전문가라는 세 가지 직무를 중심으로 직업이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향후 접근성 매니저 직무를 중심으로 한 정책 사업 추진에 유의미한 준거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접근성, 접근성 매니저, 접근성 기획 관리자, 접근성 교육 전문가, 접근성 기술 지원 전문가

* 이 논문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2024 접근성 매니저 직무 분석 및 양성 과정 개발』 연구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부교수

***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석사과정

**** (주)덤플링스 객원연구원

I. 서론

최보연, 정종은(2024)이 지적하고 있듯이, 2023년 12월은 “국내 장애예술 및 장애예술 정책의 역사에서 기념할 만한 시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는데, 장애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인 ‘장애인문화예술과’가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공립 공연장·전시장 등 총 759개 시설에서 연 1회 이상 장애예술의 공연 및 전시 개최가 명문화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23). 장시간 논의되어 왔던 정책 의제가 이처럼 급격하게 현실화될 수 있었던 까닭으로는 ‘장애예술’ 관련 내용이 현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중요하게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 장애예술 관련 국정과제로는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과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이 존재한다. 국정과제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및 문화비 확대와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등으로 장애인의 문화접근 장벽 해소, 공공수어통역지원 등 언어복지 환경을 개선하는 과제를 담고 있다. 한편 국정과제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은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전시장 조성, 국공립 공연·전시장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활성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및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장애유형별 맞춤형 문화예술 공모사업 지원, 장애학생 대상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23년 장애예술인 전용극장인 ‘모두예술극장’이 개관하는 등 국내 문화예술 생태계에서 ‘장애인 접근성’에 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2023)에 따르면, 모두예술극장은 그 시설과 서비스는 물론, 극장 운영 측면에서도 하우스 매니저와 접근성 매니저를 채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장애·비장애인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연시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극장 개관과 함께 “접근성 매니저”를 공개 채용한 사실은 문화예술 공간에서 접근성을 관리하는 전문인력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우리나라에서 접근성 매니저라는 직함을 달고 활동하는 기획자, 연출가들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1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공연예술계의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이들의 작업은 당시 ESG의 부상이나 인클루시브 디자인 등 시대적 변화와 조응하면서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로 인해 2020년대에 들어서는 국내의 여러 문화예술 기관에서 ‘접근성’과 관련한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 사업은 2020년부터 장애인문화예술원이 진행해오고 있는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예술가의 고유한 감수성과 창작역량 강화 및 예술매개자 양성을 통한 배리어프

리 저변 확대를 위해 장애인 예술가, 문화예술 기획자, 장애인 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2021년부터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을 기반으로 운영 중인 “배리어프리 공연제작을 위한 온라인 워크숍”도 큰 주목을 받았다. 아르코미술관에서 2022년 10월 추진한 공공프로그램 “프리즘”이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023년 7월 진행한 “2023 문화접근성 향상 세미나” 역시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최근에는 공연예술계를 넘어서 시각예술계에서도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며(김현경, 2020), 문화공간이나 문화행사에서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한 이슈 전반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로서 ‘접근성 매니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일례로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2023 국내외 직업 비교 분석을 통한 신직업 연구』를 발표하였는데, 동 연구에서는 ‘접근성 매니저’가 신직업으로서 당당하게 한 페이지를 차지하였다(김중진 외, 2023). 이 보고서에서는 접근성 매니저가 수행하는 일을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1) 문화예술 프로젝트 전반의 장애인 접근 장벽(물리적, 감각적 접근성 등) 개선 방안 기획, 2) 접근가능한 문화예술 프로젝트 홍보전략 수립, 3) 접근가능한 문화예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인력 및 장비 예약, 4) 접근가능한 프로젝트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접근가능한 문화예술 프로젝트에 참여·관람하는 장애인 관람객의 안전관리, 6) 접근가능한 문화예술 프로젝트 컨설팅. 이러한 설명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나름의 적실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직무를 분석한 결과는 아니었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 문화정책 차원에서 ‘접근성’이나 ‘접근성 매니저’에 관한 담론이 현장의 뜨거운 관심과는 달리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접근성 매니저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서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프랑스, 일본을 해외 주요국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2024년 7~8월 두 달간 국외 채용사이트 LinkedIn, Indeed 및 접근성 관련 기관 사이트에서 각 국가별로 게시된 접근성 매니저 채용 공고를 분석하였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접근성 강화’와 관련된 채용 공고는 영국과 미국에서는 수백 개에 달했으며, 캐나다에서도 50여 개가 확인되었다. 호주, 프랑스,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공고가 나왔지만, 접근성 관련 법규와 예술 프로그램의 확대로 인해 관련 직무의 수요가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채용 공고를 통해 수집한 접근성 매니저(access manager)와 유관한 직업들의 명칭을 분류하고, 각 직업별로 요청받는 구체적인 직무와 과업을 대별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해외 주요국의 문화예술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접근성 매니저’와 관련한 채용 및 활동을 분석하는

본 사례연구는 향후 국내 국·공립기관을 중심으로 접근성 매니저를 양성 또는 채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그 설계 및 운용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고찰

1. '접근성' 개념의 세 가지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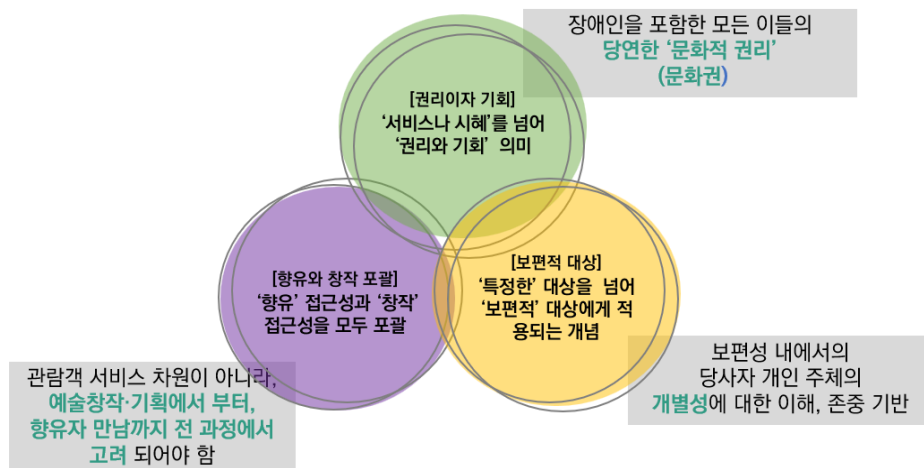
잉글랜드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가 발간한 2030 비전서 『Let's Create』에 따르면, 접근성(Access)이란 “사회경제적, 인종적, 정치적, 젠더 혹은 신체적 제약조건 등을 막론하고 누구나 최고의 문화적 경험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정의될 수 있다(ACE, 2020). 이 정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개념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 기인하는 세 가지 핵심적인 지향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접근성이란 '서비스나 시혜'를 넘어서 '권리이자 기회'를 의미하는 개념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에서 '접근성' 관련 표현으로는 Accessibility와 Access가 함께 사용되어왔다. 둘은 유사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별점이 있다. 무엇보다 전자가 공간이나 장소 혹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뜻한다고 한다면, 후자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물건이나 대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혹은 권리'를 포괄한다. 물리적으로 쉽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한다는 개념이 오늘날 운위되고 있는 접근성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Accessibility'에서 시작하여 'Access'로 나아가는 보다 확장적인 이해는 주요한 연관 개념들, 즉 배리어 프리, 유니버설 디자인, 인클루시브 디자인 등의 개념사(史)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최보연, 정종은, 2024). 즉, 오늘날의 접근성 개념은 물리적, 감각적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단순한 정의에 머물지 않고, 권리와 기회의 보장이라는 보다 적극적이고 확장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로, 접근성이란 '특정한' 대상을 넘어 '보편적' 대상에게 적용되는 개념이라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접근성 개념은 역사적으로 특정 주류 집단에 맞춰져 있던 사회적, 물리적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흑인, 여성, 장애인 집단의 노력을 통해서 진전의 계기들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접근성 개념의 역사에서는 '보편성'이라는 지향이 매우 주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는바(Persson et al., 2014), 오랜 시간에 걸친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접근성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결국, 특

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집단에게 특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특혜적인 성격이나 배려의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소수자와 주류 집단을 포함한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접근성 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접근성이란 향유와 창작을 아우르는 권리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잉글랜드예술위원회의 접근성 정의에서 “누구나 최고의 문화적 경험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이라는 표현에 주목해보자. 영국을 중심으로 호주,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에서 ‘문화 정책의 궁극적 목표이자 핵심가치’는 수월성(excellence)과 접근성(access)이라는 양대 축으로 형상화되어왔다(Arts Council England, 2013: 39). 여기서 ‘접근성’이란 개념은 향유 정책의 핵심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장애인에만 한정된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당연히 장애인을 포함하되,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제약하는 물리적, 지리적, 경제적, 더 나아가 사회문화적 장벽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수월성’이란 개념은 창작 정책의 핵심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지적, 정신적, 미적 수준에서 최고의 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최고의 문화적 경험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향유 접근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 접근성을 포괄하는 것이다. 요컨대, 문화예술 분야에서 ‘접근성’이란 ‘누구나’ ‘최고의 문화적 경험’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이해될 수 있는바, 여기서 ‘누구나’는 향유자와 함께 창작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여기서 ‘문화적 경험’은 향유의 경험만이 아니라 창작의 경험까지 아우르는 것이다.



[그림 1] 문화예술 분야 접근성 개념의 세 가지 지향

2. 문화예술 정책의 두 기둥: 창작과 향유

앞서 언급했듯이, 영연방을 중심으로 발전한 문화정책 전통에서는 '문화예술' 분야를 크게 두 기둥, 즉 예술을 생성하는 과정으로서 '창작'과 예술을 소비하는 과정으로서 '향유'로 대별하여 이해해 왔다. 먼저 '창작'은 문화예술을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 창작 과정을 지원하는 활동 등으로 구성된다(Fillis et al., 2023: 17). 작가, 음악가, 화가, 영화감독, 안무가 등 직접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창작'의 주체이지만, 작품의 기획, 자금 조달, 팀 구성 등 전반적인 창작 과정을 관리하는 프로듀서 및 기획·기술 스태프 역시 창작 활동에 종사하는 인물들이다. 기존의 예술을 통해 새로운 통찰력을 도출하거나 새로운 창작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연구자 및 비평가도 창작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장에 맞는 작품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마케터, 창작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정책 연구자, 창작에 관련된 제도를 시행하는 행정 관리자 역시 넓은 의미에서 '창작'에 관여하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에 '향유'란 주로 예술 작품의 소비, 감상, 평가, 그리고 관객과의 소통, 판매에 관련된 활동들을 의미한다(Walmsley, 2019).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소비하는 관객과 청중이 대표적인 '향유'의 주체로 상정되지만, 예술 작품을 통해 교육을 하면서 감상법을 가르치는 예술 교육자들 역시 향유 부문의 핵심적인 행위자가 된다. 작품을 분석 및 비평하며 대중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을 주는 비평가 또한 향유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문화예술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정책을 관리하고 제도를 제시하는 문화정책 전문가 및 행정 관리자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향유'에 관여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작품과 대중, 미디어 간의 소통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마케터 또한 향유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이처럼 '창작'과 '향유'는 기능과 과정, 목적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상호보완적일 뿐 아니라 의존적인 성격까지 가진다(Kelleher et al., 2019). 예를 들어, 감독은 관객에게 작품을 만들어 향유에 영향을 주지만, 역으로 관객은 작품에 대한 반응으로 감독의 창작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한편 예술 교육자는 문화예술 창작에 도움이 되는 기술적, 지식적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음과 동시에 향유에 도움이 되는 작품의 향유에 관한 방법론에 대해서도 교육을 할 수 있다.¹⁾ 일반적으로 '향유'보다는 '창작'이 더 낮은 접근

1) 이러한 상호영향 관계는 끝도 없이 서술할 수 있다. 가령 마케터는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창작과정에서 제시할 수도 있고, 대중을 설득하는 판매 방법을 향유 과정에 적용할 수도 있다. 비평가의 문화예술평 역시 창작자의 창작과정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향유자의 향유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을 가진다고 이야기되는데, 이는 후자의 경우가 더 많은 배경지식과 노동이 요구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3. 창작 및 향유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

창작과 향유에 대한 접근성은 개인과 집단을 둘러싼 환경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개인과 집단의 문화예술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크게 ‘사회적 조건’, ‘지식적 조건’, ‘물리적 조건’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먼저, 사회적 조건은 개인이나 집단이 속한 ‘문화적 배경’이 얼마나 예술을 중시하는지, ‘사회적 가치관’이 얼마나 예술 친화적인지 등에 따라 나누어진다(Váradí & Józsa, 2023; Milligan et al., 2014). ‘문화적 배경’으로서 예술이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질 경우 예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예술이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될 경우 예술에 대한 접근성은 낮아진다. 예컨대, 예술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인 고소득 집단은 예술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지만, 반대로 예술이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저소득 집단은 예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상대적으로 예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 문화예술이 특정 집단에 어울리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인 ‘사회적 가치관’ 또한 접근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청년층은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에 노출될 기회가 많으며 문화예술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그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의 기회와 지원이 주어지는 데 반해, 노년층은 문화예술의 주된 소비층이라는 인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예술 향유는 센터나 비영리 단체의 소규모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그 폭도 현저하게 좁다. 예술에 대한 깊은 지식이나 이해를 갖추고 있고 가처분 소득과 같은 자원을 충분히 갖추고 있더라도, 사회적 조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면 예술에 대한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운 것이다.

둘째, 지식적 조건은 대상 집단이나 개인에게 ‘체계적인 예술교육’이 시행되었는지, 본인 혹은 본인이 속한 집단이 ‘예술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구분 가능하다(Nagel et al., 1997). 대상에게 얼마나 ‘예술교육’이 잘 이루어져 왔는지, 그 질과 빈도는 어떠한지에 따라 예술에 대한 접근성이 달라지는 것이다. 즉, 필수 교육에서 전문 교육으로 갈수록, 빈도가 지속적일수록 교육 대상의 예술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지게 마련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모가 예술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수록 자식에게 예술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보장하게 된다(Willekens et al., 2014: 3). 다시 말해서, 예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아동들은 다른 친구들보다 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에 따라 더 다양한 예

술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예술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보호시설 아동들은 예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예술교육을 통해 예술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잘 갖추어져 있을 경우에는 더욱 다양한 문화예술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성이 보장된다.²⁾

셋째, 물리적 조건은 대상에게 갖추어진 자금 및 시설, 도구, 프로그램 등 '자원의 유무'에 따라, 그리고 대상의 신체적 조건, 정신적 조건 등 대상 본인에게 주어진 '개인적 특성'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Mak et al., 2020). 대상 개인이나 집단이 자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들에게 시설은 얼마나 사용하기 편리한지, 그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도구는 주어졌는지, 그들에게 애초에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는지 등에 따라서, 즉 유무형 '자원의 유무'에 따라서 접근성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가령, 경제생활을 다 함께 분담하는 대가족의 경우 자금과 시간, 이동 가능성에 있어서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지만, 반대로 혼자 경제생활을 견뎌내야 하는 미혼모 가정의 경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자금이나 방법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접근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상의 성별과 나이, 체형과 장애 유무, 인종과 국적 등 대상이 선택할 수 없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도 접근성의 물리적 조건이 달라진다. 예컨대, 육체노동이 주로 이뤄지는 무대 제작팀에서는 남성을 선호하고 여성을 배제하는 관례가 있으며, 역으로 발레, 현대 무용과 같은 예술 직종은 남성의 비율을 적게 고용하는 관습도 존재한다. 관객 응대 및 문화예술 서비스 직종에서 인종이나 나이, 성별을 특정하여 고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전시나 공연에서 이주민에 대한 감수성을 배제하고 배타주의적 창작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

4.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 접근성 매니저의 역할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문화예술 분야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창작과 향유가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Glăveanu, 2011).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창작과 향유를 저해하는 조건들을 인식하고 개인 간, 집단 간 간극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문화예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위의 세 가지 조건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Milligan et al., 2014). 따라서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²⁾ 예컨대, 두 친구가 같은 미술관에 방문해서 같은 회화를 마주한다고 하더라도, 예술에 대한 지식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이루어진다. 지식이 풍부한 자는 작품을 보고 더 다양한 의미와 심층적인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지식이 부족한 자는 표면적인 이해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예술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더라도 예술에 다가가려는 인식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예술의 진정한 의미에 접근하기 어렵다.

접근성 매니저는 다음과 같은 격차(gap)를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적 조건’과 관련하여 장애인들은 향유 및 창작 접근성에 도움이 되는 문화적 배경이나 사회적 인식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예술’이란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그들을 예술 활동의 주체로 바라보지 않는 사회적 인식도 존재해왔다. 그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예술 참여 기회는 자주 주어지지 않았으며, 다른 사회 구성원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둘째, ‘지식적 조건’에서도, 장애인의 개별성을 고려한 예술교육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비장애인과 동일한 예술적 교육이 행해지고 예술적 지식이 주어지더라도 장애인 각각의 장애 유형에 맞춘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요청되지만, 이를 제공하는 교육기관은 많지 않다(Mastrogiuseppe et al., 2020). 셋째, 물리적 조건에서도, 장애인은 다른 집단에 비해 추가적인 자원을 요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면 접근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즉, 장애인의 불편함을 고려한 건축 설계 및 도구의 이용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요구되며 장애 당사자의 개인적 특성에 맞춘 추가적인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회 구성원에 비해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 활동은 장애인 집단에게 직접 찾아가 공연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어왔다. 하지만 이것은 어쩌면 장애인 집단을 수혜의 대상으로 보고 장애인 집단이 ‘진취적으로’ 공연을 관람하고 향유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한 결과는 아닐까? 즉, 접근성의 ‘권리’ 측면이나 ‘보편성’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해법일 수 있다. 이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조건에서 공연을 볼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는 형태로 접근성 정책의 방향성이 변화되고 있는바, 다른 사회 구성원들처럼 장애인 집단도 자율적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해야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장애인 접근성의 가장 높은 단계는 장애인이 예술향유자로서나 예술창작자로서나 어려움 없이 최고의 예술적 경험 및 활동을 하게 되는 상태를 이루는 것이라고 상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접근성 매니저’는 장애인을 필두로 모든 소수자 집단에게 이와 같은 경험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예술 기관과 프로그램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단순한 ‘향유’만이 아니라 ‘창작’에 있어서도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필수불가결한 자원과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접근성 매니저들은 장애인을 포함한 소수자 집단의 보편적인 접근성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각 집단에게 주어진 ‘개별적인’ 또는 ‘특수한’ 조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을 하면서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III. 주요국 사례연구

1. 사례연구 개요

앞에서 살펴본 개념적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에서 '접근성 매니저(access manager)'의 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 7월 10일부터 2024년 8월 28일까지 총 50일간 관련 직업의 채용 공고를 분석하였다. '접근성 매니저'라는 직업 및 직무 분석을 위한 대상 국가로는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프랑스, 일본까지 총 여섯 개 국가를 선정하였는바, 접근성 관련 논의가 가장 앞서서 발전해온 영국³⁾ 및 영연방 국가들과 미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고, 유럽의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접근성 논의가 적용되어온 프랑스의 사례와 문화적 유사성을 갖는 아시아권에 속한 일본의 사례를 추가적인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사례 조사 및 분석 절차는 <표 1>과 같이 대상 설정→항목 설정→기초 조사→심층 조사→시사점 도출이라는 다섯 단계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표 1> 사례 조사 및 분석 절차

구 분	내 용
대상 설정	- 주요국의 접근성 정책 추진 기관 파악 - 대상 기관별 정보 취합 정리(홈페이지, 발간 보고서, 기사 활용) - 접근성 정책 추진 기관의 접근성 매니저 직업(occupation) 현황 조사
항목 설정	- 직업 내 직무(job)의 유형에 관한 가설 설정 - 가설 검증을 위한 주요 국가 및 기관 별 조사 및 분석 항목 설정
1차 조사 (기초 조사)	- 대상 직업과 관련한 정보 취합 및 정리(고용사이트, 웹 크롤링, 기사 활용) - 국가별 유관 직업의 예시표 작성
2차 조사 (심층 조사)	- 유관 직업 분석을 통한 접근성 매니저 대표 직무 및 대표 직무별 과업 도출 - 접근성 매니저 3대 직무별 과업, 고용 형태, 직업 요건, 고용 현황 분석 3대 직무별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 작성
시사점 도출	- 각 직무별 특성 비교 분석 및 국가별 특성 분석 - 국내 접근성 매니저 관련 정책을 위한 시사점 도출

3) 영국의 장애예술 정책의 흐름 및 장애예술 단체의 활동 현황에 대해서는 정종은·최보연(2021)을 참조할 것.

첫 번째 단계로서, 여섯 개 대상 국가의 접근성 정책 추진 기관들을 파악하고 주요 사업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단체들은 중앙 정부 차원의 기관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들과 지방 정부 및 민간 기관 차원에서 세부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들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이들 기관의 사업을 분석함으로써 해외의 접근성 정책 사업이 크게 세 가지 차원, 즉 장애에 술인 창작 지원, 접근성 관람 서비스 지원, 접근성 검수 및 컨설팅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국가별 주요 기관의 사업 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접근성 매니저의 역할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접근성 관련 직업(occupation) 내의 주요 직무(job) 유형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⁴⁾ ①장애 예술 분야의 접근성 공연 및 프로젝트 등을 기획하고, 시설과 단체의 접근성을 검수하며, 장벽을 발견하고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직무, ②장애 당사자들에게 창작을 위한 프로세스, 향유를 위한 정보 등을 제공해주며, 비장애인 직원들과 지역 커뮤니티 등에 접근성 실현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직무, ③웹, 디지털 관련 접근성을 검사하고,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을 유지 관리하며, 발전하는 접근성 기술에 대한 도입을 담당하는 직무.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의 채용 공고를 일관된 형식으로 분석하고 정리하기 위한 항목들을 설정하였다.

세 번째 단계인 ‘기초조사’에서는 국가별 채용 공고를 분석하여 ‘접근성 매니저’와 관련된 직업을 [그림 2]와 같은 예시표의 형식으로 분류하였다. ‘예시표’를 사용한 것은 2024년 7~8월이라는 특정 시기에 채용 공고를 낸 고용기관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한 해 전체를 분석한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예시표는 명칭, 고용 기관, 직무 설명, 가설에 따른 분류와 근거, 주요 과업 및 세부 업무로 정리하였으며, 특히 과업 차원에서 해당 유관 직업들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는 무엇인지를 구별하고자 국내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분석 방식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4)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개발한 국제표준직업분류(ISCO-08)에서는 직업(Occupation)을 ‘주요 작업과 책무(tasks and duties)가 매우 높은 유사성을 지닌 직무(job)의 집합’이라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직무(job)란 ‘자영업을 포함하여 특정한 고용주를 위해 개별 종사자가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해야 할 일련의 작업과 책무(tasks and duties)’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직무분석을 위해 직무의 구조를 살펴보면, 하나의 직업은 하나 혹은 두 개 이상의 직무로 구성되며, 직무는 다시 책무(duty), 과업(task), 과업 요소(task element)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종의 탐색적 사례연구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직업(occupation)-직무(job)-과업(task)이라는 세 단계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해외 주요국의 '접근성 매니저' 직무 현황 분석

직무 명칭	주요 고용 기관	직무 설명	분류 부문	근거	
Access Manager	ex) 지역 극장 및 공연장 - 박물관 및 갤러리 - 커뮤니티 예술 센터	장애인, 노약자, 여성 등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사회적, 문화적, 물리적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보장함	전략 및 기획	접근성 관련 프로그램, 프로젝트, 또는 행사의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함.	
(접근성 매니저) 주요 업무 및 세부 과업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ex) 조직의 접근성 목표 설정 - 법률 및 규정 준수	교육 및 훈련	접근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활동을 진행함.	
	정책 수립 및 준수 관리	ex) 조직 내부 접근성 정책 개발 및 시행	기술 지원 및 서비스		접근성을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 정보 기술(IT), 디지털 접근성 관리 등을 담당함.
	프로젝트 관리	ex) 예산, 일정, 자원 관리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ex)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국가 		
	커뮤니티 참여 및 관계 구축	ex) 장애인 단체와 협력			
	시설 및 서비스 평가	ex) 물리적 공간과 서비스의 접근성 평가			
	보고 및 평가	ex) 접근성 활동과 성과 측정			

<table><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d>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td></tr><tr><td>접근성</td></tr></table>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전략 개발 및 실행																																																																																																																																																																																																																																																																																																																																																																																																																																																																				
접근성																																																																																																																																																																																																																																																																																																																																																																																																																																																																									

[그림 2] 국가별 유관 직업 예시표 작성

네 번째 단계인 '심층조사'에서는 위에서 도출한 총 46개의 접근성 매니저 유관 직업을 비교하여 [그림 3]과 같이 해외 접근성 매니저의 대표 직무를 열 가지로 정리하였다. ①접근성 목표 설정 및 전략 수립, ②접근성 교육 및 훈련, ③프로젝트 관리 및 개선 방안 제시, ④디지털 접근성 관리, ⑤장애인 예술가 지원 및 프로그램 기획, ⑥DEI(Diversity, Equity, Inclusiveness) 증진 업무, ⑦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⑧콘텐츠 제작 및 품질 관리, ⑨서

비스 제공 및 고객 지원, ⑩시설 및 물리적 접근성 유지 관리가 바로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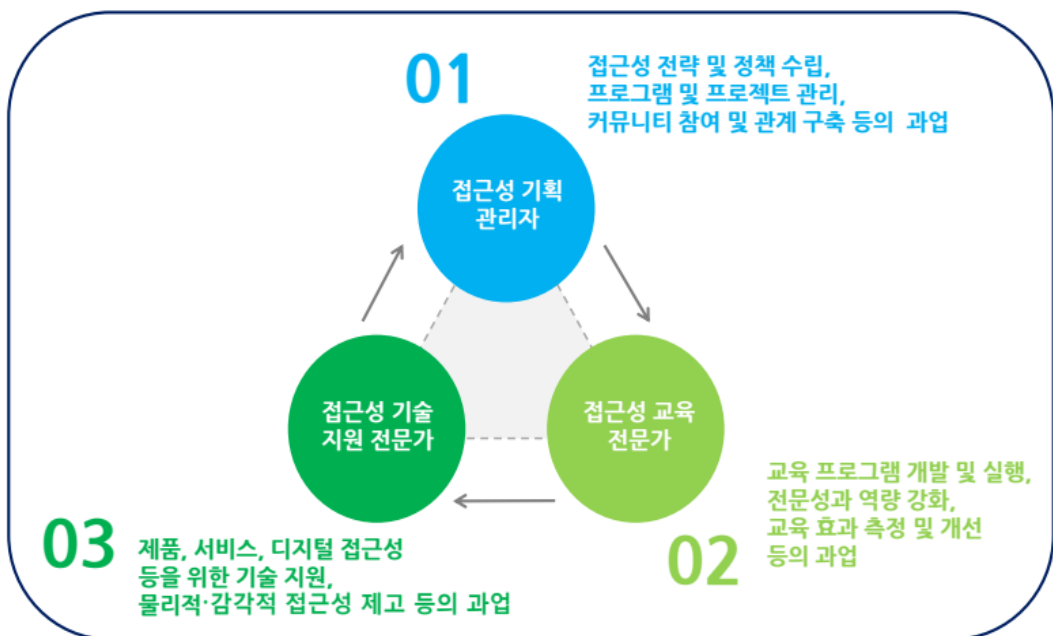
1. 접근성 목표 설정 및 전략 수립 (접근성 목표 설정, 장기적 계획 수립, 법률 준수, 정책 개발) <table><thead><tr><th>업무</th><th>번호</th></tr></thead><tbody><tr><td>조직의 접근성 목표 설정</td><td>1)</td></tr><tr><td>장기적 전략 및 계획 수립</td><td>2)</td></tr><tr><td>법률 및 규정 준수</td><td>3)</td></tr><tr><td>내부 접근성 정책 개발 및 시행</td><td>4)</td></tr><tr><td>조직 전체에 정책 전달</td><td>5)</td></tr><tr><td>접근성 개선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td><td>6, 13, 23, 72)</td></tr><tr><td>법률(ADA, Accessible Canada Act, AODA 등) 준수 보장</td><td>7, 8, 9, 10, 11, 12, 73)</td></tr><tr><td>접근성 행동과 성과 측정</td><td>21, 65, 88)</td></tr><tr><td>법률 준수 전략 개발</td><td>8, 73)</td></tr><tr><td>조직의 DEI 목표 설정</td><td>70)</td></tr><tr><td>전략 및 계획 수립</td><td>71)</td></tr><tr><td>DEI 관련 정책 작성</td><td>72)</td></tr><tr><td>법률 변경 반영</td><td>73)</td></tr></tbody></table>	업무	번호	조직의 접근성 목표 설정	1)	장기적 전략 및 계획 수립	2)	법률 및 규정 준수	3)	내부 접근성 정책 개발 및 시행	4)	조직 전체에 정책 전달	5)	접근성 개선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6, 13, 23, 72)	법률(ADA, Accessible Canada Act, AODA 등) 준수 보장	7, 8, 9, 10, 11, 12, 73)	접근성 행동과 성과 측정	21, 65, 88)	법률 준수 전략 개발	8, 73)	조직의 DEI 목표 설정	70)	전략 및 계획 수립	71)	DEI 관련 정책 작성	72)	법률 변경 반영	73)	2. 접근성 교육 및 훈련 (접근성 관련 교육, 직원 및 경영진 훈련) <table><thead><tr><th>업무</th><th>번호</th></tr></thead><tbody><tr><td>직원 대상 접근성 교육 프로그램 설계</td><td>15)</td></tr><tr><td>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td><td>16, 45)</td></tr><tr><td>프런트 직원 교육</td><td>21, 38)</td></tr><tr><td>직원 및 경영진 대상 접근성 교육 실시</td><td>37, 39, 66)</td></tr><tr><td>접근성 지침 제공 및 교육</td><td>42, 45)</td></tr></tbody></table>	업무	번호	직원 대상 접근성 교육 프로그램 설계	15)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16, 45)	프런트 직원 교육	21, 38)	직원 및 경영진 대상 접근성 교육 실시	37, 39, 66)	접근성 지침 제공 및 교육	42, 45)	3. 프로젝트 관리 및 개선 방안 제시 (접근성 개선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 <table><thead><tr><th>업무</th><th>번호</th></tr></thead><tbody><tr><td>물리적 공간과 서비스의 접근성 평가</td><td>19)</td></tr><tr><td>개선 방안 제시</td><td>20, 22, 73)</td></tr><tr><td>서비스 제공 조율</td><td>24, 25, 62)</td></tr><tr><td>접근성 장비 및 서비스 관리</td><td>24, 67)</td></tr><tr><td>서비스 제공 일정 조율</td><td>61, 68)</td></tr><tr><td>문제 발생 시 대응</td><td>63, 64)</td></tr><tr><td>피드백 수집 및 반영</td><td>18)</td></tr><tr><td>시행 조치 계획 수립</td><td>30, 88)</td></tr><tr><td>예산, 일정, 자원 관리</td><td>14, 23, 43)</td></tr></tbody></table>	업무	번호	물리적 공간과 서비스의 접근성 평가	19)	개선 방안 제시	20, 22, 73)	서비스 제공 조율	24, 25, 62)	접근성 장비 및 서비스 관리	24, 67)	서비스 제공 일정 조율	61, 68)	문제 발생 시 대응	63, 64)	피드백 수집 및 반영	18)	시행 조치 계획 수립	30, 88)	예산, 일정, 자원 관리	14, 23, 43)
업무	번호																																																													
조직의 접근성 목표 설정	1)																																																													
장기적 전략 및 계획 수립	2)																																																													
법률 및 규정 준수	3)																																																													
내부 접근성 정책 개발 및 시행	4)																																																													
조직 전체에 정책 전달	5)																																																													
접근성 개선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6, 13, 23, 72)																																																													
법률(ADA, Accessible Canada Act, AODA 등) 준수 보장	7, 8, 9, 10, 11, 12, 73)																																																													
접근성 행동과 성과 측정	21, 65, 88)																																																													
법률 준수 전략 개발	8, 73)																																																													
조직의 DEI 목표 설정	70)																																																													
전략 및 계획 수립	71)																																																													
DEI 관련 정책 작성	72)																																																													
법률 변경 반영	73)																																																													
업무	번호																																																													
직원 대상 접근성 교육 프로그램 설계	15)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16, 45)																																																													
프런트 직원 교육	21, 38)																																																													
직원 및 경영진 대상 접근성 교육 실시	37, 39, 66)																																																													
접근성 지침 제공 및 교육	42, 45)																																																													
업무	번호																																																													
물리적 공간과 서비스의 접근성 평가	19)																																																													
개선 방안 제시	20, 22, 73)																																																													
서비스 제공 조율	24, 25, 62)																																																													
접근성 장비 및 서비스 관리	24, 67)																																																													
서비스 제공 일정 조율	61, 68)																																																													
문제 발생 시 대응	63, 64)																																																													
피드백 수집 및 반영	18)																																																													
시행 조치 계획 수립	30, 88)																																																													
예산, 일정, 자원 관리	14, 23, 43)																																																													
4. 디지털 접근성 관리 (웹사이트, 앱, 디지털 콘텐츠 관리) <table><thead><tr><th>업무</th><th>번호</th></tr></thead><tbody><tr><td>웹사이트, 앱, 디지털 콘텐츠의 접근성 평가</td><td>27)</td></tr><tr><td>표준 준수 보장(WCAG, Section 508, RGAA 등)</td><td>28, 29, 91)</td></tr><tr><td>개발자와 협력하여 접근성 기능 구현</td><td>30)</td></tr><tr><td>디지털 접근성 정책 및 가이드라인 개발</td><td>31)</td></tr><tr><td>콘텐츠 테스트 및 검증</td><td>35, 86)</td></tr><tr><td>디지털 경험 개선을 위한 피드백 수집</td><td>35)</td></tr><tr><td>디지털 플랫폼의 지속적 준수 모니터링</td><td>36)</td></tr><tr><td>콘텐츠 제작 프로세스 문서화</td><td>87)</td></tr></tbody></table>	업무	번호	웹사이트, 앱, 디지털 콘텐츠의 접근성 평가	27)	표준 준수 보장(WCAG, Section 508, RGAA 등)	28, 29, 91)	개발자와 협력하여 접근성 기능 구현	30)	디지털 접근성 정책 및 가이드라인 개발	31)	콘텐츠 테스트 및 검증	35, 86)	디지털 경험 개선을 위한 피드백 수집	35)	디지털 플랫폼의 지속적 준수 모니터링	36)	콘텐츠 제작 프로세스 문서화	87)	5. 장애인 예술가 지원 및 프로그램 기획 (장애인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기획, 전시회 및 작품 홍보) <table><thead><tr><th>업무</th><th>번호</th></tr></thead><tbody><tr><td>장애인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기획</td><td>47)</td></tr><tr><td>워크숍, 전시회 조직</td><td>48, 50)</td></tr><tr><td>작품 개발 지원</td><td>50)</td></tr><tr><td>만남 기회 식별 및 신청</td><td>51)</td></tr><tr><td>후원사 및 파트너십 구축</td><td>52)</td></tr><tr><td>장애인 예술가와 작품 홍보</td><td>53)</td></tr><tr><td>소셜 미디어 및 이벤트 활용</td><td>54)</td></tr><tr><td>장애인 예술 동향 조사</td><td></td></tr><tr><td>자원, 네트워크 기획 제공</td><td>49)</td></tr><tr><td>정책 제안서 작성</td><td>56)</td></tr><tr><td>커뮤니티 내 네트워크 구축</td><td>57, 58)</td></tr></tbody></table>	업무	번호	장애인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기획	47)	워크숍, 전시회 조직	48, 50)	작품 개발 지원	50)	만남 기회 식별 및 신청	51)	후원사 및 파트너십 구축	52)	장애인 예술가와 작품 홍보	53)	소셜 미디어 및 이벤트 활용	54)	장애인 예술 동향 조사		자원, 네트워크 기획 제공	49)	정책 제안서 작성	56)	커뮤니티 내 네트워크 구축	57, 58)	6.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관련 업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목표로 하는 업무) <table><thead><tr><th>업무</th><th>번호</th></tr></thead><tbody><tr><td>조직의 DEI 목표 설정</td><td>70)</td></tr><tr><td>DEI 관련 정책 작성</td><td>72)</td></tr><tr><td>직원 대상 DEI 교육</td><td>75)</td></tr><tr><td>다양성 고려한 채용 전략 수립</td><td>77)</td></tr><tr><td>외부 기관과 협력</td><td>80)</td></tr><tr><td>법률 변경 반영</td><td>73)</td></tr><tr><td>다양성 데이터 수집 및 분석</td><td>74)</td></tr><tr><td>공정성 보장 지원</td><td>76)</td></tr></tbody></table>	업무	번호	조직의 DEI 목표 설정	70)	DEI 관련 정책 작성	72)	직원 대상 DEI 교육	75)	다양성 고려한 채용 전략 수립	77)	외부 기관과 협력	80)	법률 변경 반영	73)	다양성 데이터 수집 및 분석	74)	공정성 보장 지원	76)
업무	번호																																																													
웹사이트, 앱, 디지털 콘텐츠의 접근성 평가	27)																																																													
표준 준수 보장(WCAG, Section 508, RGAA 등)	28, 29, 91)																																																													
개발자와 협력하여 접근성 기능 구현	30)																																																													
디지털 접근성 정책 및 가이드라인 개발	31)																																																													
콘텐츠 테스트 및 검증	35, 86)																																																													
디지털 경험 개선을 위한 피드백 수집	35)																																																													
디지털 플랫폼의 지속적 준수 모니터링	36)																																																													
콘텐츠 제작 프로세스 문서화	87)																																																													
업무	번호																																																													
장애인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기획	47)																																																													
워크숍, 전시회 조직	48, 50)																																																													
작품 개발 지원	50)																																																													
만남 기회 식별 및 신청	51)																																																													
후원사 및 파트너십 구축	52)																																																													
장애인 예술가와 작품 홍보	53)																																																													
소셜 미디어 및 이벤트 활용	54)																																																													
장애인 예술 동향 조사																																																														
자원, 네트워크 기획 제공	49)																																																													
정책 제안서 작성	56)																																																													
커뮤니티 내 네트워크 구축	57, 58)																																																													
업무	번호																																																													
조직의 DEI 목표 설정	70)																																																													
DEI 관련 정책 작성	72)																																																													
직원 대상 DEI 교육	75)																																																													
다양성 고려한 채용 전략 수립	77)																																																													
외부 기관과 협력	80)																																																													
법률 변경 반영	73)																																																													
다양성 데이터 수집 및 분석	74)																																																													
공정성 보장 지원	76)																																																													
7.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지역 사회, 소외된 그룹 참여 및 협력) <table><thead><tr><th>업무</th><th>번호</th></tr></thead><tbody><tr><td>커뮤니티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td><td>96)</td></tr><tr><td>지역 단체와 협력</td><td>98)</td></tr><tr><td>공동 프로젝트 추진</td><td>99)</td></tr><tr><td>소외된 그룹의 참여 촉진 이니셔티브 개발</td><td>95)</td></tr><tr><td>커뮤니티 이벤트, 워크숍 조직</td><td>97)</td></tr><tr><td>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td><td>100, 101)</td></tr><tr><td>정보 공유를 위한 행사 참여</td><td>57)</td></tr><tr><td>커뮤니티와 네트워크 구축</td><td>58)</td></tr></tbody></table>	업무	번호	커뮤니티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96)	지역 단체와 협력	98)	공동 프로젝트 추진	99)	소외된 그룹의 참여 촉진 이니셔티브 개발	95)	커뮤니티 이벤트, 워크숍 조직	97)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100, 101)	정보 공유를 위한 행사 참여	57)	커뮤니티와 네트워크 구축	58)	8. 콘텐츠 제작 및 품질 관리 (오디오 설명, 자막 제작, 콘텐츠 품질 관리) <table><thead><tr><th>업무</th><th>번호</th></tr></thead><tbody><tr><td>오디오 설명, 자막 제작</td><td>82)</td></tr><tr><td>콘텐츠 품질 보장</td><td>83)</td></tr><tr><td>제작 일정 및 예산 관리</td><td>84)</td></tr><tr><td>새로운 접근성 기술 도입 및 테스트</td><td>85)</td></tr><tr><td>접근성 솔루션 개발 및 적용</td><td>86)</td></tr><tr><td>콘텐츠 테스트 및 검증</td><td>87)</td></tr><tr><td>콘텐츠 제작 프로세스 문서화</td><td>86)</td></tr></tbody></table>	업무	번호	오디오 설명, 자막 제작	82)	콘텐츠 품질 보장	83)	제작 일정 및 예산 관리	84)	새로운 접근성 기술 도입 및 테스트	85)	접근성 솔루션 개발 및 적용	86)	콘텐츠 테스트 및 검증	87)	콘텐츠 제작 프로세스 문서화	86)	9. 서비스 제공 및 고객 지원 (장애인 고객 서비스 제공 및 지원) <table><thead><tr><th>업무</th><th>번호</th></tr></thead><tbody><tr><td>장애인 방문객 문의 응답</td><td>60)</td></tr><tr><td>필요한 지원 제공</td><td>61)</td></tr><tr><td>긴급 상황 대응 지침 제공</td><td>63)</td></tr><tr><td>서비스 이용 현황 및 피드백 수집</td><td>64, 67)</td></tr><tr><td>서비스 개선 활동</td><td>65)</td></tr><tr><td>관계 피드백 수집 및 서비스 개선</td><td>66, 67)</td></tr><tr><td>서비스 제공 일정 조율</td><td>61, 62)</td></tr></tbody></table>	업무	번호	장애인 방문객 문의 응답	60)	필요한 지원 제공	61)	긴급 상황 대응 지침 제공	63)	서비스 이용 현황 및 피드백 수집	64, 67)	서비스 개선 활동	65)	관계 피드백 수집 및 서비스 개선	66, 67)	서비스 제공 일정 조율	61, 62)										
업무	번호																																																													
커뮤니티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96)																																																													
지역 단체와 협력	98)																																																													
공동 프로젝트 추진	99)																																																													
소외된 그룹의 참여 촉진 이니셔티브 개발	95)																																																													
커뮤니티 이벤트, 워크숍 조직	97)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100, 101)																																																													
정보 공유를 위한 행사 참여	57)																																																													
커뮤니티와 네트워크 구축	58)																																																													
업무	번호																																																													
오디오 설명, 자막 제작	82)																																																													
콘텐츠 품질 보장	83)																																																													
제작 일정 및 예산 관리	84)																																																													
새로운 접근성 기술 도입 및 테스트	85)																																																													
접근성 솔루션 개발 및 적용	86)																																																													
콘텐츠 테스트 및 검증	87)																																																													
콘텐츠 제작 프로세스 문서화	86)																																																													
업무	번호																																																													
장애인 방문객 문의 응답	60)																																																													
필요한 지원 제공	61)																																																													
긴급 상황 대응 지침 제공	63)																																																													
서비스 이용 현황 및 피드백 수집	64, 67)																																																													
서비스 개선 활동	65)																																																													
관계 피드백 수집 및 서비스 개선	66, 67)																																																													
서비스 제공 일정 조율	61, 62)																																																													
10. 시설 및 물리적 접근성 유지 관리 (물리적 공간 및 시설의 접근성 유지 관리) <table><thead><tr><th>업무</th><th>번호</th></tr></thead><tbody><tr><td>시설 점검 및 협력하여 유지보수 지원</td><td>88)</td></tr><tr><td>접근성 시설 상태 점검</td><td>89)</td></tr><tr><td>점검 가능한 좌석 배치 및 확인</td><td>90)</td></tr><tr><td>시설 점검 및 개선</td><td>91)</td></tr><tr><td>접근성 정보 업데이트</td><td>92)</td></tr><tr><td>물리적 공간의 접근성 활동 평가 및 개선</td><td>93)</td></tr></tbody></table>	업무	번호	시설 점검 및 협력하여 유지보수 지원	88)	접근성 시설 상태 점검	89)	점검 가능한 좌석 배치 및 확인	90)	시설 점검 및 개선	91)	접근성 정보 업데이트	92)	물리적 공간의 접근성 활동 평가 및 개선	93)																																																
업무	번호																																																													
시설 점검 및 협력하여 유지보수 지원	88)																																																													
접근성 시설 상태 점검	89)																																																													
점검 가능한 좌석 배치 및 확인	90)																																																													
시설 점검 및 개선	91)																																																													
접근성 정보 업데이트	92)																																																													
물리적 공간의 접근성 활동 평가 및 개선	93)																																																													

[그림 3] 해외 접근성 매니저의 대표 직무 및 직무별 주요 과업

위와 같이 10대 대표 직무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가별 법령의 차이, 용어의 혼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총 639개의 과업(task) 역시 82가지 과업으로 재구성하였다. 각각의 과업은 번호를 부여하여 빠짐없이 10대 직무 내로 반영하였고, 이를 통해 각

직무별로 어떤 과업이 많이 등장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직무는 사례연구 절차에서 '항목 설정' 단계에서 도출한 접근성 매니저 직업(occupation)을 구성하는 세 가지 직무(job)에 대한 가설과 부합하였다. 열 가지 대표 직무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로 재구조화할 수 있었는데, 1) 조직 내 접근성 관련 목표를 설정하고, 법령과 정책을 관리하며, 프로그램의 계획과 실행을 진행하는 '접근성 기획 관리자', 2) 조직 내외 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접근성 관련 교육을 전담하고,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업을 진행하는 '접근성 교육 전문가', 3) 제품, 서비스, 디지털 접근성 등 다양한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면서 물리적·감각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접근성 기술 지원 전문가'가 바로 그것이다. 아래에서는 사례연구의 '심층조사' 단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해외 '접근성 매니저'의 세 가지 직무별 특성 및 주요 현황을 차례차례 살펴보았다.



[그림 4] 접근성 매니저의 세 가지 직무

2. 접근성 매니저 직무 - 1) 접근성 기획 관리자

접근성 기획 관리자 Access/Accessibility Planning Manager	
Job info. 접근성 전략 및 기획과 관련된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는 접근성 기획 관리자는 조직 내에서 접근성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직무는 다양한 부서와 협력하여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고 포괄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유사 직종 • 영국 : Access and Inclusion Manager, EDI Manager • 미국 : Accessibility Program Manager, Access and Inclusion Director • 호주 및 캐나다 : Accessibility Planning Coordinator, Inclusive Policy Manager
주요 과업 및 세부 업무 A. 접근성 전략 및 정책 수립 • 조직의 접근성 목표 설정, 법률 및 규정 준수 보장, 접근성 정책 개발 및 업데이트 B.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관리 • 접근성 개선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다부서 협업 및 조정, 성과 측정 및 평가 C. 커뮤니티 참여 및 관계 구축 • 장애인 단체 및 커뮤니티와의 협력, 이해관계자 관리 D. 교육 및 인식 제고 • 직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리더십 발현 및 문화 형성 E. 보고 및 커뮤니케이션 • 보고서 작성 및 발표,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필수 기술 및 태도 • 전략적 사고 및 기획 능력 • 법률 및 규정 이해 능력 : 각 국가의 장애인 관련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 • 프로젝트 관리 기술 : 예산 관리, 일정 관리, 자원 배분 등 • 커뮤니케이션 및 협상 능력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효과적으로 소통 • 팀 리더 및 협업 능력 • 문제 해결 및 의사 결정 능력 • 문화적 민감성 및 포용적인 태도
고용 형태 - 대부분의 경우 정규직, 프로젝트 기반으로 계약직 - 소속 : 정부 기관, 대기업, 비영리 단체 등 공공 및 민간 부문 - 평균 근속 : 5~10년 이상(전략 수립 역할에 따름)	
직업 요건 ▪ 학력 - 기획 및 행정 관련 분야 학사 학위 (경영학, 사회학, 심리학, 행정학, 인적자원관리, 정보기술 등). 석사 학위 우대 (비즈니스 관리, 공공 정책, 접근성 및 포용성 관련) ▪ 경력 - 유사한 직무에서 최소 5~7년 경력 (접근성 분야, 프로젝트 관리, 정책 개발 등). 직장 내 관리 및 팀 리더 경험 필수	

접근성 매니저라는 직업의 첫 번째 직무로서 '접근성 기획 관리자'는 조직의 접근성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법률 준수, 프로그램 관리,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조직 전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 과업 및 세부 업무는 다음의 다섯 가지 범주로 정리할 수 있다.

'A. 접근성 전략 및 정책 수립'이라는 과업은 ①조직의 접근성 목표 설정(조직의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접근성 목표 정의 / 장기적 및 단기적인 접근성 계획 수립 / 각 부서와 협력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개발), ②법률 및 규정 준수 보장(국가 및 지역별 장애인 관련 법률과 규정 파악 및 준수⁵⁾ / 법률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에 반영), ③접근성 정책 개발 및 업데이트(내부 접근성 정책 및 절차 작성 / 정책 및 절차의 정기적 업데이트 / 정책이 조직 전체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이라는 세부 업무로 구성된다.

'B.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관리'라는 과업은 ①접근성 개선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접근성 관련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설정 및 실행 계획 수립 / 예산, 일정,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 프로젝트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보고), ②다부서 협업 및 조정(디자인, 개발, 마케팅, HR 등 다양한 부서와 협력하여 접근성 목표 통합 / 부서 간 접근성 관련 활동 조율 및 지원), ③성과 측정 및 평가(접근성 활동의 성과를 측정할 KPI(핵심성과지표, Key Performance Indicator) 설정 /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 및 개선점 도출)라는 세부 업무로 구성된다.

한편 'C. 커뮤니티 참여 및 관계 구축'이라는 과업은 ①장애인 단체 및 커뮤니티와의 협력(지역 및 국가의 장애인 단체와 파트너십 구축 / 커뮤니티 피드백을 정책과 프로그램에 반영), ②이해관계자 관리(내부 이해관계자(경영진, 직원)와 외부 이해관계자(고객, 커뮤니티, 정부 기관)와의 연결 관리 / 접근성 인식을 높이기 위한 이벤트나 캠페인 기획)이라는 세부 업무로 구성된다.

'D. 교육 및 인식 제고'라는 과업은 ①직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전 직원 대상 접근성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실행 / 접근성 법률, 모범 사례, 고객 서비스 등에 대한 교육 제공)과 ②리더십 발현 및 문화 형성(조직 내 접근성 문화를 조성하고, 주 업무팀의 지지를 확보 / 성공 사례 공유하여 접근성의 중요성 강조)라는 세부 업무로 구성된다.

⁵⁾ 미국의 「ADA」, 영국의 「Equality Act」, 캐나다의 「Accessible Canada Act」, 호주의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프랑스의 「Loi Handicap」, 일본의 「장애인차별해소법」 등은 매우 강력한 근거 법안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E. 보고 및 커뮤니케이션' 과업은 ①보고서 작성 및 발표(접근성 관련 활동과 성과를 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 /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할 보고서를 작성)과 ②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접근성 목표와 성과를 공개하여 조직의 투명성을 높임 / 피드백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라는 세부 업무로 구성된다.

국가별로 이 직무에 요구되는 주요 과업 및 이에 따른 고용 현황은 아래의 <표 2>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관련 법의 의무 준수를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 실행 방안을 기획하는 업무가 주가 되는 만큼 국가별 과업 차이는 크지 않으며, 미국의 경우 대기업 정규직 채용 공고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따라서 연봉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2> 접근성 기획 관리자의 국가별 주요 과업 및 고용 현황

■ 접근성 기획 관리자의 국가별 주요 과업

- ◆ 미국 - ADA 준수를 위한 전략 수립, 접근성 프로그램 총괄
- ◆ 캐나다 - Accessible Canada Act에 따른 접근성 계획 수립 및 시행
- ◆ 호주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준수 및 접근성 정책 개발
- ◆ 프랑스 - 'Loi Handicap'에 따른 접근성 전략 수립 및 법률 준수
- ◆ 일본 - 장애인차별해소법에 따른 접근성 목표 설정 및 추진

■ 접근성 기획 관리자의 국가별 고용 현황

- ◆ 미국 - 대기업 / 정규직 / 연봉 \$70,000 ~ \$100,000 (한화 약 8,000만 ~ 1억 2,000만 원) / 학사 학위 (경영학, 사회학 관련) / 최소 5년의 관련 경력 / 접근성 관련 프로젝트 관리 경험 필수
- ◆ 영국 - 비영리단체 / 정규직 / 연봉 £40,000 ~ £60,000 (한화 약 6,000만 ~ 9,000만 원) / 학사 학위 / 최소 3년의 정책 개발 및 기획 경험 / 공공 관련 경력 우대
- ◆ 캐나다 - 정부 기관 / 정규직 / 연봉 CAD 65,000 ~ CAD 90,000 (한화 약 6,000만 ~ 8,000만 원) / 석사 학위 우대 / 5년 이상의 접근성 정책 경험 / 우수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 ◆ 프랑스 - 기술 전문 기업 / 정규직 / 연봉 €45,000 ~ €65,000 (한화 약 6,000만 ~ 8,500만 원) / 학사 학위 / 접근성 도구 및 소프트웨어 사용 경험 / 다국적 팀과의 협업 경험
- ◆ 일본 - 다국적 기업 / 정규직 / 연봉 ¥6,000,000 ~ ¥9,000,000 (한화 약 6,000만 ~ 9,000만 원) / 학사 학위 필수, 석사 학위 우대 / 글로벌 프로젝트 경험 / 정부 규제 및 정책에 대한 이해

3. 접근성 매니저 직무 - 2) 접근성 교육 전문가

접근성 교육 전문가 Access/Accessibility Education Specialist	
Job info. 접근성 교육 및 훈련 전문가는 접근성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직무는 교육 자료를 작성하고 워크숍을 진행하여 직원과 장애인에 관련 이해 관계자에게 접근성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유사 직종 - 프랑스 : Médiateur culturel en accessibilité (접근성 문화 매개자) - 일본 : Accessibility Training Coordinator - 미국 및 영국 : Accessibility Educator, Disability Awareness Trainer
주요 과업 및 세부 업무 A.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 교육 니즈 분석, 커리큘럼 및 교육 자료 개발, 교육 세션 실행 B. 전문성 개발 및 역량 강화 - 직원 역량 강화 지원,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운영 C. 교육 효과 측정 및 개선 - 교육 성과 평가, 지속적인 학습 문화 조성 D. 인식 제고 및 캠페인 - 인식 제고 활동 기획, 커뮤니케이션 자료 개발 E. 외부 협력 및 네트워킹 - 전문 기관과의 협력, 커뮤니티 참여	필수 기술 및 태도 - 교육 설계 및 실행 능력 - 접근성 법률 및 표준에 대한 지식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다양한 학습자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능력 - 창의적인 교육 방법론 적용 능력 - 피드백 수집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선 능력 - 문화적 민감성 및 포용적인 태도
고용 형태 - 교육 기관이나 대형 조직에서 정규직,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단위로 계약직, 프리랜서로 교육 서비스 제공 - 소속 : 대학 등의 교육기관, 내부 교육을 시행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 평균 근속 : 3~5년 (프로젝트 기반 고용이 많아 근속 연수가 다양함)	
직업 요건 - 학력 -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관련 분야 학사 학위 (교육학, 특수교육, 심리학, 인적자원관리, 접근성 관련 분야 등). 접근성 관련 인증(CPACC, WAS 등), 교사 자격증 또는 교육 관련 자격증 우대 - 경력 - 2~5년 이상의 교육 경험 (접근성 분야 또는 포용성 관련 교육 경험 등) - 교육 자료 개발 및 커리큘럼 설계 경험 우대	

접근성 매니저 직업의 두 번째 직무로서 ‘접근성 교육 전문가’의 역할은 조직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접근성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접근성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접근성 교육 전문가가 담당하는 주요 과업 및 세부 업무는 다음과 같이 파악된다.

‘A.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업은 ① 교육 니즈 분석(조직의 교육 요구사항 파악 및 우선순위 설정 / 직원들의 접근성 지식 수준과 필요 역량 평가), ②커리큘럼 및 교육 자료 개발(접근성 법률, 지침, 모범 사례 등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 /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고려한 교육 자료(동영상, 프레젠테이션, 매뉴얼 등) 제작), ③교육 세션 실행(워크숍, 세미나, 온라인 코스 등을 통해 교육 실시 / 실습 중심의 교육 통해 실제 업무 적용 지원)을 세부 업무로 갖추고 있다.

‘B. 전문성 개발 및 역량 강화’ 과업은 ①직원 역량 강화 지원(부서별 특화된 교육 제공하여 업무에 필요한 접근성 지식 전달 / 신규 직원 온보딩 과정에 접근성 교육 포함), ②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운영(접근성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심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외부 교육 기회나 인증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이라는 세부 업무로 구성된다.

또한 ‘C. 교육 효과 측정 및 개선’ 역시 접근성 교육 전문가의 핵심 과업 중 하나인데, 이를 위해서는 ①교육 성과 평가(교육 후 평가를 통해 학습 효과를 측정 / 피드백을 수집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과 ②지속적인 학습 문화 조성(접근성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문화와 환경 조성 / 내부 커뮤니티나 학습 그룹을 형성하여 지식 공유를 촉진)이라는 세부 업무가 요청된다.

‘D. 인식 제고 및 캠페인’ 역시 중요한 과업이다. 본 과업을 위한 세부 업무로는 ①인식 제고 활동 기획(접근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이나 이벤트를 기획 /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Global Accessibility Awareness Day, GAAD) 등의 특별한 날을 활용하여 활동 전개), ②커뮤니케이션 자료 개발(뉴스레터, 블로그,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접근성 관련 정보 공유 / 성공 사례와 모범 사례를 소개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이 있다.

마지막 과업은 ‘E. 외부 협력 및 네트워킹’으로서 세부 업무는 ①전문 기관과의 협력(접근성 관련 전문 기관이나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최신 정보 습득 / 외부 전문가 초청하여 특별 강연이나 워크숍 개최), ②커뮤니티 참여(지역 사회나 업계의 접근성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정보 교류 / 컨퍼런스나 세미나에 참석하여 최신 동향을 파악)로 구성된다.

국가별로 채용 공고상에서 이 직업군에 기대하는 가장 주요한 과업 및 이에 따른 국가별 고용 현황은 아래의 <표 3>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접근성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접근성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통해 기관 내외에서 적극적인 매개자 역할을 담

당하는 과업이 국가의 경계를 가로질러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접근성 기획 관리자가 경영학, 사회학, 심리학, 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 수립이나 기획 부문에서 5~7년에 이르는 경력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접근성 교육 전문가는 교육학을 기반으로 2~5년에 이르는 경력이 요구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또한 고용 형태 역시 정규직보다는 프로젝트 기반 채용 형태가 더 많았으며, 이로 인해 연봉 수준도 '접근성 기획 관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접근성 교육 전문가의 국가별 주요 과업 및 고용 현황

■ 접근성 교육 전문가의 국가별 주요 과업 ◆ 영국 - 접근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직원 훈련 제공 ◆ 미국 - 직원 및 경영진 대상 접근성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 캐나다 - 접근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자료 개발 및 교육 실행 ◆ 프랑스 - 접근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직원 역량 강화 ◆ 호주 - 접근성 원칙에 대한 직원 교육 및 지원 ◆ 일본 - 접근성에 대한 직원 교육 및 인식 제고 활동 수행
■ 접근성 교육 전문가의 국가별 고용 현황 ◆ 미국 - 교육 기관 / 정규직 / 연봉 \$50,000 ~ \$75,000 (한화 약 6,000만 ~ 9,000만 원) / 교육학 학사 학위 / 최소 2년의 교육 자료 개발 경험 / 접근성 인증 (CPACC) 우대 ◆ 영국 - 비영리단체 / 계약직 / 연봉 £30,000 ~ £45,000 (한화 약 4,500만 ~ 6,800만 원) / 학사 학위 / 접근성 관련 워크숍 진행 경험 / 프레젠테이션 기술 필수 ◆ 캐나다 - 대학교 / 정규직 / 연봉 CAD 50,000 ~ CAD 70,000 (한화 약 4,600만 ~ 6,500만 원) / 교육 자료 개발 경력 3년 이상 / 접근성 표준에 대한 지식 / 우수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 프랑스 - 교육 기관 / 정규직 / 연봉 €35,000 ~ €50,000 (한화 약 4,600만 ~ 6,600만 원) / 학사 학위 / 접근성 교육 및 훈련 경험 / 강력한 조직력 및 계획 능력 ◆ 일본 - 비영리단체 / 계약직 / 연봉 ¥4,000,000 ~ ¥6,500,000 (한화 약 4,000만 ~ 6,500만 원) / 학사 학위 필수 / 교육 및 프레젠테이션 경험 / 특히 다문화 팀과 협업 능력

4. 접근성 매니저 직무 - 3) 접근성 기술 지원 전문가

접근성 기술 지원 전문가 Access/Accessibility Technical Support Specialist	
Job info. 접근성 기술 지원 및 서비스 전문가는 디지털 플랫폼과 환경이 모든 사용자, 특히 장애를 가진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이 직무는 개발자 및 디자이너와 협력하여 접근성 기능을 구현하고 정기적인 테스트를 수행하여 지속적인 기술 발전에 기여한다.	유사 직종 • 캐나다 : Digital Accessibility Specialist • 호주 : Assistive Technology Coordinator • 미국 : Accessibility Engineer, Technical Accessibility Analyst
주요 과업 및 세부 업무 A. 접근성 평가 및 준수 보장 • 접근성 평가 수행, 표준 및 지침 준수 B. 기술적 문제 해결 및 지원 • 접근성 이슈 식별 및 해결, 보조 기술 지원 C. 기술 구현 및 개발 지원 • 접근성 기능 개발 지원, 프로토타입 개발 및 사용자 경험 개선 D. 기술 문서화 및 가이드라인 제공 • 접근성 기술 가이드라인 작성, 문서화 및 지식 공유 E. 교육 및 기술 지원 제공 • 기술 전문가 교육, 지원 및 상담	필수 기술 및 태도 • 접근성 표준 및 지침에 대한 전문 지식: WCAG, ARIA, Section 508 등 • 접근성 테스트 도구 사용 능력 (예: JAWS, NVDA) • 웹 및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 HTML, CSS, JavaScript 등 • 보조 기술에 대한 이해: 스크린 리더,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등 • 문제 해결 능력: 접근성 이슈 식별 및 해결 • 상호 협업 능력: 개발자, 디자이너와의 원활한 협업 • 지속적인 학습 태도: 최신 기술과 표준에 대한 업데이트
고용 형태 - IT 기업이나 디지털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정규직, 특정 프로젝트 또는 기간 동안 계약직, 프리랜서로 컨설팅 제공 - 소속 : IT 및 소프트웨어 회사, 웹 및 앱 개발사, 정부 기관 및 공공 부문, 컨설팅 회사 - 평균 근속 : 3~5년 (기술 분야의 빠른 변화로 인해 근속 연수 다양)	
직업 요건 ▪ 학력 - 컴퓨터 기술, 정보기술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컴퓨터 공학, 소프트웨어 공학, 정보 기술, HCI(Human-Computer Interaction) 등). 웹 접근성 관련 인증(CPWA, CPACC 등) 우대 ▪ 경력 - 2~5년 이상의 관련 경험 (웹 접근성, 소프트웨어 개발, UX/UI 디자인 등) ▪ 접근성 표준 준수 경험 및 접근성 기술 구현 경험 우대	

접근성 매니저 직업의 세 번째 직무로서 '접근성 기술 지원 전문가'의 직무는 조직의 제품, 서비스, 디지털 플랫폼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접근성 평가, 문제 해결, 기술 구현 등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접근성 기술 지원 전문가가 담당하는 주요 과업 및 세부 업무는 다음과 같다.

'A. 접근성 평가 및 준수 보장'이라는 과업은 ①접근성 평가 수행(웹사이트, 앱,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의 접근성 검사 실시 / 자동화 도구와 수동 검사를 결합하여 정확한 평가 제공)과 ②표준 및 지침 준수(WCAG, ARIA, Section 508, AODA, JIS X 8341-3 등 국제 및 국가별 접근성 표준 준수 지원 / 조직의 제품과 서비스가 해당 표준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세부 업무를 구성하고 있다.

'B. 기술적 문제 해결 및 지원' 과업은 ①접근성 이슈 식별 및 해결(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근성 문제 식별 및 해결책 제시 / 디자이너, 개발자와 협력하여 접근성 개선), ②보조 기술 지원(스크린 리더, 보조 입력 장치 등 보조 기술과의 호환성 검토 / 사용자 테스트를 통해 실사용자의 피드백을 수집하고 반영)과 같은 세부 업무를 포함한다.

'C. 기술 구현 및 개발 지원' 과업을 위해서는 ①접근성 기능 개발 지원(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능이나 모듈 개발 지원 / 해당 기능의 접근성 표준 준수 확인), ②프로토타입 개발 및 사용자 경험 개선(접근성을 고려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테스트 / 사용자 경험(UX)을 개선하여 모든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같은 세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한편 'D. 기술 문서화 및 가이드라인 제공'이라는 과업은 효과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서 ① 접근성 기술 가이드라인 작성(접근성 모범 사례를 반영한 개발 가이드라인을 작성 / 디자인과 시스템에 접근성 원칙을 통합)과 함께 ②문서화 및 지식 공유(접근성 관련 기술 문서 작성 및 유지 관리 / 내부 위키나 지식 베이스 등을 통해 정보 공유)라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청받는다.

마지막으로 'E. 교육 및 기술 지원 제공' 역시 접근성 기술 지원 전문가의 주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과업을 위해서는 ①기술 전문가 교육(기술팀을 대상으로 접근성 원칙과 구현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 / 최신 접근성 기술과 도구에 대한 정보 공유), ② 지원 및 상담(기술팀이 접근성 관련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조언)이라는 세부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국가별로 채용 공고상에서 접근성 기술 지원 전문가에게 기대하는 가장 주요한 과업 및 이에 따른 국가별 고용 현황은 아래의 <표 4>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온·오프라인을 아울러서 물리적·감각적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가별로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나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한 학위를 바탕으로 2~5년에 이르는 경력이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접근성 기획 관리자보다는 짧지만, 접근성 교육 전문가와는 유사한 경력 요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 기간 전 세계가 경험했던 비대면(untact) 커뮤니케이션의 확대에 따라 디지털 접근성 표준에 대한 과업이 강조되는 경향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접근성 기술 지원 전문가’의 연봉 수준이 ‘접근성 기획 관리자’와 ‘접근성 교육 전문가’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4〉 접근성 기술 지원 전문가의 국가별 주요 과업 및 고용 현황

■ 접근성 기술 지원 전문가의 국가별 주요 과업

- ◆ 미국 - 디지털 접근성 준수 및 구현 지원, Section 508 및 ADA 준수
- ◆ 캐나다 - 웹 및 디지털 콘텐츠의 접근성 평가, AODA 및 WCAG 준수
- ◆ 호주 -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Australian Government Digital Service Standard 준수
- ◆ 프랑스 - 디지털 접근성 책임자로서 RGAA 및 WCAG 준수 지원
- ◆ 일본 - 디지털 접근성 표준(JIS X 8341-3) 준수 및 기술 지원
- ◆ 영국 - 웹 및 모바일 접근성 평가, WCAG 및 Equality Act 준수 지원

■ 접근성 기술 지원 전문가의 국가별 고용 현황

- ◆ 미국 - 교육 기관 / 정규직 / 연봉 \$50,000 ~ \$75,000 (한화 약 6,000만 ~ 9,000만 원) / 교육학 학사 학위 / 최소 2년의 교육 자료 개발 경험 / 접근성 인증(CPACC) 우대
- ◆ 영국 - 비영리단체 / 계약직 / 연봉 £30,000 ~ £45,000 (한화 약 4,500만 ~ 6,800만 원) / 학사 학위 / 접근성 관련 워크숍 진행 경험 / 프레젠테이션 기술 필수
- ◆ 캐나다 - 대학교 / 정규직 / 연봉 CAD 50,000 ~ CAD 70,000 (한화 약 4,600만 ~ 6,500만 원) / 교육 자료 개발 경력 3년 이상 / 접근성 표준에 대한 지식 / 우수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 ◆ 프랑스 - 교육 기관 / 정규직 / 연봉 €35,000 ~ €50,000 (한화 약 4,600만 ~ 6,600만 원) / 학사 학위 / 접근성 교육 및 훈련 경험 / 강력한 조직력 및 계획 능력
- ◆ 일본 - 비영리단체 / 계약직 / 연봉 ¥4,000,000 ~ ¥6,500,000 (한화 약 4,000만 ~ 6,500만 원) / 학사 학위 필수 / 교육 및 프레젠테이션 경험 / 특히 다문화 팀과 협업 능력

5. 사례연구 시사점

해외 주요국의 실제 고용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성 매니저'의 직업/직무/과업 등을 분석하는 것은 현재 국내에서 새로운 직업 후보군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접근성 매니저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떠한 역량을 갖추고, 어떠한 과업을 맡게 되는지, 그들의 고용 여건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이러한 관심으로 본 연구는 2024년 7~8월 2달간 국외 채용사이트 및 접근성 관련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사이트에서 국가별로 채용 공고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 48개의 연관 직업들을 추출하였고 더 나아가 분류와 종합의 과정을 통해 10가지 대표 직무와 82가지 과업을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접근성 매니저에 대한 3개의 직무를 설정하고, 각각의 직무에 따른 주요 과업과 세부 업무를 구체화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의 '접근성 매니저' 활동 및 고용 현황을 다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국내에 관련 직무 도입을 위해 기억할 필요가 있는 시사점을 여럿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의 네 가지 시사점이 특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접근성에 대한 관심, 접근성 매니저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사실이다. 상당한 양의 고용 공고가 여섯 개 국가를 가로질러 두 달 사이에 쏟아져 나왔는데, 이는 접근성 매니저에 대한 직업적 수요가 풍부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ESG', 'DEI' 등의 트렌드가 UN의 「지속가능 발전 계획(SDGs)」 수립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적 관심 확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법적 규제 강화, 급격한 기술 발전, 새로운 수요자 개발 등이 맞물리면서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접근성 매니저 직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해외 주요국에서는 접근성 매니저먼트 직무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신규 직종의 창출, 직무 다양성 증가, 포용적 고용 환경 조성 등 새로운 흐름이 고용 시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해외의 경우 접근성 논의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접근성 매니저' 직업 내에 직무별 전문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우리나라의 경우, '슈퍼맨'과 같이 모든 직무를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고백이 실제 활동가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접근성 기획자와 교육자의 구분이 모호하거나 반대로 기술 지원 직무는 접근성 기획이나 교육과는 거리가 먼 분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해외 주요국의 경우, 각 직무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조직과 프로젝트의 접근성을 총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요컨대, 접근성 기획자는 큰 그림을 그리고, 접근성 교육 전문가는 인식과 역량을 높이며, 접근성 기술 지원 전문가는 실제 구현을 담당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접근성 실현이라는

미션을 체계적으로 이루어나가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위의 세 가지 직무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함께 협력하여 조직의 총체적인 접근성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여러 국가의 법적인 또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해당 직무의 명칭과 역할은 일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직무가 접근성 매니저의 핵심 역할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이와 같은 해외의 접근성 매니저 고용 시장의 형성은 법·제도의 구축과 이로 인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출현 등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많은 예술 기관에서 접근성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략 및 기획, 교육 및 훈련, 기술 지원 및 서비스 등의 업무를 구분하여 채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접근성’이 단순히 물리적 환경만이 아닌 사회적·문화적 관심, 인식 개선, 디지털 서비스 등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드는 일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해외 주요국은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접근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NEA(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나 영국의 ACE(Art Council England) 등 권위 있는 기관들이 관련 법 규정의 준수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접근성 및 접근성 매니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와 가이드라인 등을 지속적으로 발간해오고 있다.⁶⁾ 이들 국가에서는 접근성 관련 전략의 수립과 기획의 과정, 교육과 훈련 및 인식 개선, 물리적이고 감각적인 차원의 기술 적용 방안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관련 통계 데이터 등과 함께 제공함으로써 접근성을 실현하는 방법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접근성 실현의 분야가 ‘예술’ 분야 또는 ‘공공’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을 아울러서 ‘조직 운영’이나 ‘기술 적용’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되어야 한다. 기업의 경영 분야에서 접근성을 실현하거나, 지역사회 커뮤니티와의 협업을 통한 접근성 제고 노력은 개별 분야의 이슈를 넘어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거대한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 전술하였듯이, 해외 주요국들이 접근성을 실현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련 정책 및 법령과의 지속적인 조율을 위해 각종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발행에 적극적이라는 사실도 이와 같은 흐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로 인해 접근성 매니저 관련

6) 국내에서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이러한 중심 기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각국의 법적 기반 마련에서 중요한 계기는 UN의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고하라. 한국장애인개발원 (2021). 『모두가 행복할 권리: 사례로 보는 UN 장애인권리협약』, 한국장애인개발원.

직무의 증가 추세는 단지 공공에 국한되지 않고, 민간 기업과 비영리단체, 소셜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협회 등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는 접근성 매니저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워크숍과 교육과정, 인증 과정 등이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시사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우리는 국내에서 접근성 매니저 직무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 필요한 방향과 조건은 무엇이며, 해외와 다른 우리의 상황에서 이러한 새로운 직업 또는 직무를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무엇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무엇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유의미한 준거점(reference points)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접근성 매니저라는 직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직업의 주요 직무와 직무별 역할 및 과업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접근성 개념의 세 가지 지향성, 즉 권리이자 기회로서의 접근성, 보편적 대상에게 적용되는 접근성, 창작과 향유를 아우르는 접근성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접근성 매니저'라는 직업이 '접근성 기획 관리자', '접근성 교육 전문가', '접근성 기술 지원 전문가'라는 세 가지 직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국내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

첫째, 해외에서 접근성 매니저 직무가 힘을 얻게 된 것은 각국의 법·제도 정비와 긴밀하게 맞물려있는 것이었음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 관련 법·제도 정비에 힘을 쏟아야 한다. 가령, 영국의 「Equality Act 2010」과 캐나다의 「Accessible Canada Act 2019」에서 접근성을 권리이자 보편적인 가치로서 인정하여 조직과 기관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법적 의무로 규정한 이후, 접근성 매니저와 관련된 직업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면, 국내 문화예술계에서 일고 있는 접근성 및 접근성 매니저에 대한 관심은 일시적인 유행으로 사그러들 위험이 있다.

둘째, 법·제도의 정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인식 제고이다. 특별히 문화예술 기관의 관리자, 기획자, 예술가, 기술 전문가 등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관의 장애인 접근성 인식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예술인 및 장애인 관객들에 대한 장벽을 낮춰야 한

다. 나아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대중 매체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접근성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 공감 캠페인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때 성공 사례 공유를 통해 접근성 개선의 방향이나 노하우, 기대 효과를 자연스럽게 확산함으로써 관심이 있는 기관들로 하여금 접근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접근성 실현에 관한 성과 측정 및 평가 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 관리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예술생태계에서 접근성이 큰 폭으로 신장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을 아울러 장애 당사자 및 장애 예술에 포용적인 조직 문화 구축이 시급하다. 접근성이 단순히 개인의 윤리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조직 체계 내에서 정책으로, 철학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경영자 및 관리자의 접근성 개선 관심을 기초로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성과 측정과 평가 체계 도입이 필수적이다. 가령,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과 같은 접근성 지표 개발을 통해 관련 노력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함으로써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성 향상을 추동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피드백을 수용하는 과정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 실행 방안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평가와 의견을 종합한 정기적인 보고서 발간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

국제적 협력 강화를 통해 해외 모범 사례를 도입하고 공동 연구 및 공동 실천을 추진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2024년 10월 14일 ‘모두예술극장’에서 진행된 접근성 포럼에서는 케네디 센터와 스미소니언 재단의 접근성 사업 책임자들이 자신들의 접근성 정책을 소개하는 발표를 진행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교류 프로그램이나 MOU 체결 등을 통해 해외 주요국의 모범 사례와 노하우를 협업적인 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 British Council(2023)의 『Time to Act: Two Years On』에서도 강조되고 있듯이, EU의 경우 영국을 중심으로 ‘Europe Beyond Access’와 같은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접근성 전략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협력은 국제 표준 준수를 통해 국내 접근성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무 체계화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세분화된 ‘접근성’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직 법·제도가 미진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힘든 과제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접근성 기획 관리자, 접근성 교육 전문가, 접근성 기술 지원 전문가처럼 각 직무별로 체계적인 양성 과정을 운용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길러내야 한다. 대학 및 전문 교육 기관에서의 전공 과정과 연동하여 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제공하는 일정한 교육을 통해 ‘느슨한’ 자격증 제도의 도입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접근성 매니저’ 직업에 대해 해외의

선행 사례 및 실제 직업 공고를 중심으로 어떠한 직무들이 존재하는지를 규명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향성 및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사례 수집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웹을 통해 수집 가능한 정보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기에 심층적인 조사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특정 국가들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추후 공간적 범위 차원에서도 확대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접근성 매니저'라는 직무가 가진 책임과 역할에 대해 비교의 준거점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 운용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국내 접근성 매니저의 실제 업무 현황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접근성 매니저의 직무를 규정하거나, 해당 직업이 국내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정책 및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들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접근성은 특정 집단을 위한 특혜나 배려가 아닌,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이다. 이를 촉진하는 접근성 매니저의 역할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유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접근성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을 통해 시간이 흐를수록 보다 포용적이고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참고문헌

- 김중진, 이해나, 김민정 (2023). 『2023 국내외 직업 비교 분석을 통한 신직업 연구_2차 연
도 연구(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고용정보원.
- 김현경 (2020).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박물관·미술관 가이드라인 수립 방향 연구』, 한
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2023). 2023년 장애예술인 정책 성과[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정중은, 최보연 (2021). 장애예술단체 활성화 정책의 방향 모색: 영국의 정책 및 현장 사례
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연구**, 12(2), 81-113.
- 정중은, 최보연, 최보경, 최강찬, 강지섭 (2024). 『2024 접근성 매니저 직무 분석 및 양성
과정 개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최보연, 정중은 (2024). 문화예술 분야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개념적 고찰: 접근성 개
념 및 관련 용어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연극학**, 16(2), 85-114.
- 한국장애인개발원 (2021). 『모두가 행복할 권리: 사례로 보는 UN 장애인권리협약』, 한국장
애인개발원.
- Arts Council England. (2020). Let's Create: Arts Council England strategy
2020-2030, Arts Council England.
- Arts Council England. (2013). Great Art and Culture for Everyone: 10-year
Strategic Framework 2010-2020, Arts Council England.
- British Council. (2023) Time to Act: Two Years On, British Council.
- Fillis, I., Lehman, K., & Wickham, M. (2023). Assessing the notion of art as a
product: Entrepreneurial marketing insights from the visual arts.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 and Entrepreneurship*, 25(3), 410-430.
- Glăveanu, V. P. (2011). Creativity as cultural participation.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ur*, 41(1), 48-67.
-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12)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ISCO-08, Geneva: ILO.
- Kelleher, C., Wilson, H. N., Macdonald, E. K., & Peppard, J. (2019). The score
is not the music: Integrating experience and practice perspectives on
value co-creation in collective consumption contexts. *Journal of Service
Research*, 22(2), 120-138.

- Mak, H. W., Coulter, R., & Fancourt, D. (2020). The impact of area deprivation on engagement in arts and cultural activities: Evidence from a UK nationally-representative study.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74(Suppl 1), A1-A92.
- Mastrogiuseppe, M., Span, S., & Bortolotti, E. (2021). Improving accessibility to cultural heritage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 tool for observing the obstacles and facilitators for the access to knowledge. *ALTER, European Journal of Disability Research*, 15, 113-123.
- Milligan, N., Nieuwenhuijsen, E., & Grawi, C. L. (2014). Using a participatory action strategic approach to enhance accessibility and participation in arts and cultural events: Results of four focus groups. *Disability and Health Journal*, 7, 105-113.
- Nagel, I., Ganzeboom, H., Haanstra, F., & Oud, W. (1997). Effects of art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s on cultural participation in later life. *Journal of Art & Design Education*, 16(3), 325-332.
- Persson, H., Åhman, H., Yngling, A., & Gulliksen, J. (2014). Universal design, inclusive design, accessible design, design for all: different concepts—one goal? On the concept of accessibility—historical, methodological and philosophical aspects. *Universal Access in the Information Society*. 14(4), 505-526.
- Váradi, J., & Józsa, G. (2023). Factors affecting attendance of and attitudes towards artistic events among primary school children. *Social Sciences*, 12(7), 1-12.
- Walmsley, B. (2019). The death of arts marketing: A paradigm shift from consumption to enrichment. *Arts and the Market*, 9(1), 32-49.
- Willekens, M., Daenekindt, S., & Lievens, J. (2014). Whose education matters more? Mothers' and fathers' education and the cultural participation of adolescents. *Cultural Sociology*, 8(3), 1-19.

논문 투고 : 2024.10.15.	논문 심사 : 2024.11.29.	게재 확정 : 2024.12.11.
---------------------	---------------------	---------------------

Abstract

Comparative Analysis of the Job Status of ‘Access Manager’ in Some Advanced Countries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Job Postings concerning Access or Accessibility Manager

JongEun Chung*, KangChan Choi**, JiSeop Kang***

In December 2023,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stablished the ‘Division of Disability Culture and Arts,’ and with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it was made mandatory for national and public performance venues and exhibition halls to hold at least one performance or exhibition of disability arts annually. As a result, there has been increasing interest in ‘access or accessibility’ and ‘access managers’ within the domestic cultural and arts ecosystem. The first appearance of producers and directors working under the title of ‘access manager’ in Korea can be traced back to the late 2010s. Their voluntarily initiated work received significant support, resonating with the evolving concepts of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and inclusive design at the time. Consequently, from the 2020s, educational and workshop programs related to access and accessibility began to be introduced at institutions such as the I-Eum Academy of Korea Disability Arts &

* Associate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Art, Culture & Image

** Master's Student, Pusa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Art, Culture & Image

*** Guest Researcher, Dumplings

Culture Center, ARKO Arts Theater, and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In this context,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23), through its report <2023 New Occupation Research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Occupations> identified 'access manager' as a representative emerging occupation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However, comprehensive research on access or accessibility managers in Korea has yet to be conducted. Based on this awareness, 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analyze and organize the roles of access managers, drawing on case studies from some advanced countries abroad. To this end, the study focuses on the UK, US, Canada, Australia, France, and Japan as the spatial scope and analyzes 'access manager' job postings on international job platforms such as LinkedIn, Indeed, and websites of accessibility-related organizations during July and August 2024.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occupation of access manager comprises three primary roles: access/accessibility planning manager, access/accessibility education expert, and access/accessibility technical support specialist. This finding is expected to provide a meaningful reference point for future policy initiatives centered around the roles of access/accessibility managers in South Korea.

Keywords: access, accessibility, access manager, accessibility planning manager, accessibility education specialist, accessibility technical support specialist

장애의재해석 제5권 제2호

2024 Vol. 5, No. 2, 271 - 301

장애와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한 조건 : 돌봄 토대의 장애 정의론

이주영*, 최수민**

이 논문은 우리 사회가 장애와 공존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돌봄(care)이 사회적·공적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구현하는 장애 정의론은 돌봄 윤리를 토대로 롤즈(John Rawls)의 정의론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도출된다. 장애 정의론은 장애에 대한 인식과 장애 관련 정책 사이에서 사회가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이론적 토대이며, 장애인과 장애의 분야에서 정의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로서 기능한다. 그래서 장애 정의론은 사회가 장애와의 공존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이론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보편적 사회의 정의와, 인간 권리의 측면을 강조하는 기존 정의론은 장애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으로 이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탈시설 운동과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가 일부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 제한을 초래한 문제가 이러한 어려움의 사례에 해당한다. 장애인 정책을 제대로 견인하기 위한 장애의 정의론은 장애인의 미시적 삶과 그러한 삶에 내재된 돌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정의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을 수정하여 사회가 장애와 잘 공존할 수 있게 하는 이론적 틀과 제도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으려 한다.

주제어: 장애 정의, 돌봄 윤리, 에바 키테이, 계약론적 정의론, 이상론적 정의론

*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학부생

**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학부생

I. 들어가는 글

1. 탈시설 담론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장애인 정책과 관련 담론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실감하면서부터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예시로 탈시설 담론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몇 년 전, 장애인 탈시설(脫施設·Deinstitutionalization)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 적이 있다. 장애인 탈시설이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의 수용 상태를 벗어나 지역 사회에 포용되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탈시설 논의가 시작된 배경에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 권리를 보장하고,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윤리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그런데 탈시설 정책이 모든 장애인 당사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장애 유형에서는 오히려 탈시설 정책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장애 유형을 구분할 때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지체장애인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구분한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이들은 인지능력 및 의사소통, 언어발달,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에서 부족함을 겪는다.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최중증/중증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는 탈시설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¹⁾ 몇몇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시설 이용의 필요가 높기 때문이다. 필자들은 이처럼 장애인 정책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고, 일부 장애인이 돌봄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

1) <https://youtu.be/Y55AfGA0SM?si=ULwk0MWJUZmB8xi2> 이 보도자료는 JTBC에서 보도한 뉴스 자료로, 탈시설 논의에 대한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반대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첫 번째 인터뷰 당사자로 나온 발달장애인 이 모씨를 아들로 둔 전 모씨는 필자들 중 한 명(이주영)의 어머니이다. 시설 이외의 대안적 돌봄 서비스를 제시 하지 않은 탈시설 논의는 중증 발달장애인에게서는 성급한 논의라고 보여진다. 인터뷰 후반에 탈시설 이후 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강씨의 경우 어느 정도의 타인과의 의사소통과 타협, 의견 조정이 가능한 수준의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자의 가족인 이모씨의 경우, 약 20년간 지속적으로 언어치료 등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견 조정과 타협의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중증 발달장애인이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선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복지 시스템에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적다. 또한 이 모씨의 경우를 비롯하여 중증 발달장애인은 자해, 폭력, 기물 파손 등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시설에 들어갈 기회조차 박탈당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 발달장애인과 그의 부모에게 시설은 일말의 희망이자 최후의 수단이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 사회에서 발달 장애인에 대한 돌봄과 복지 서비스가 개선된다면 돌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장애인과 부모 모두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호자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장애인이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기 위해 시설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런데 기존 시설의 존속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장애인의 '독립하여 살 권리'만을 주장하는 탈시설 논의는 오히려 장애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주장이다. 독립의 권리와 더불어 '잘 의존할 수 있는 권리'도 고려해야 한다.

받지 못한 이유를 개별 장애인의 특수한 차이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기존의 정의론은 개인의 차이를 고려하기보다 제도적 측면에서 획일화되고 보편화된 방식으로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하지만 탈시설을 위한 제도나 정책만으로는 장애인의 권리를 충분히 담보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일부 장애인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불어 장애인을 하루 종일 돌봄으로서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돌봄인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정책뿐 아니라 장애인, 그리고 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수한 삶에 대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고려 또한 있어야지만 실질적인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된다. 장애인의 삶은 의존이나 돌봄이 필요가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제시되는 삶이고, 이때 돌봄에 대한 필요는 장애인마다 다르다.²⁾ 하지만 돌봄 필요의 정도와 구체적 사항에 차이가 있음을 무시하고 기존 정의론이 강조하는 권리에 집중하여 장애인의 홀로서기식 자립만을 추구한 정책은 오히려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장애인의 특수한 삶을 고려하는 ‘장애 정의론’을 새로이 구상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논문에서는 이를 돌봄을 기반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돌봄의 관점에서 볼 때, 탈시설 담론은 장애인 돌봄의 형태가 다양함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탈시설 담론이 장애인의 삶에 기여하며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면, 기존 정의론에서 주장하는 장애인의 독립적 생활을 누릴 권리를 다루는 동시에,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보다 ‘잘’ 의존하기 위한 조건들과, 의존을 위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이 돌봄 공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기존의 탈시설 논의는 돌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 없이 장애인의 시설 생활이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는 좋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설에서 나와 독립생활하는 것만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장애의 특수성, 특히 돌봄의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정의 윤리에서 강조하는 권리의 문제에만 집중한 것이 장애 관련 정책이 원래 목표했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장애 정책에서 돌봄의 문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사례는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적절한 돌봄을 제

2) 여기서 말하는 돌봄이나 의존은 장애인의 결함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삶에서 의존의 요구가 있다는 보편적 사실과 그 의존의 요구는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요구된다. 장애인만 돌봄과 의존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공받는 것과 더불어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돌봄 노동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이다.³⁾ 사회적 돌봄 서비스인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은 국민 청원을 통해 장애인 활동 보조 가족에 대한 지원을 허락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한 바 있다.⁴⁾ 이 요구의 배경에는 장애의 당사자들에게 사회적 돌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와, 가족이 있는데 국가가 장애인을 왜 돌보아야 하나라는 정치권에서의 잘못된 발언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활동 보조 서비스는 일부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돌봄을 제공할 부모가 있어 이용 시간을 적게 할당받거나, 문제 행동이 심하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곤 하는 것이다. 본 정책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서비스 제공 시간을 결정하는 인정 점수를 낮게 부여하는데,⁵⁾ 이는 일차적으로 가정 내에서 장애인 돌봄이 수행된다면 국가는 그러한 장애인에 대해서 사회적 서비스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서 김광백, 전지혜(2024)는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시간 할당에 있어 인정 점수를 더 낮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정책의 목표와는 다르게 장애인의 가족들에게 돌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도움의 필요도가 높은 발달장애인이 사실상 충분히 지원받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는 것이다.⁶⁾

3. 공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돌봄

장애인의 삶에서 돌봄의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현재의 일부 정책은 장애의 당사자들에게 커다란 부정의를 발생시킨다. 왜냐하면 첫째, 일부 장애인이 사회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

3)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 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해당 정책의 목적을 확인 할 수 있다.

4)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37> 소셜포커스. 20200720. [머니의 간곡한 請(청)... “활동보조 가족지원 허용해주세요”] (검색일: 2024년 7월 31일.) 이 보도에서는 노인 요양은 급여정책이 있는데, 장애인 활동보조에 대한 급여는 주어져지 않는 상황에 대한 언급과, 장애인 활동 보조 가족지원에 대한 청원 내용이 나와 있다.

5)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 할당은 서비스 종합 조사표의 인정 점수를 근거로 이루어진다.

6) 원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최중증 장애인이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지만, 활동지원 등급이 낮아서 시간이 적게 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서 매칭이 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다(조우홍, 2020). 이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목적과 다르게, 활동지원이 꼭 필요한 장애인 가족에게는 박탈감을 안겨주는 상황이 되었다. 더 쉬운 장애인을 선택하려는 활동지원사의 욕구와 타인이 가족보다 더 잘 케어할 수 없다는 믿음이 상호작용하면서 결국 일부 장애인과 가족은 활동 지원사로 가족이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p36)

스인 돌봄을 받지 못하기에 복지 정책이 목표했던 바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책의 대상자에서 일부가 배제됨은 그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장애인을 돌보는 돌봄 제공자에게 불평등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사회적 돌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장애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은 지속해서 돌봄 노동을 개인 차원에서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때 돌봄 제공자가 자유롭게 행위할 권리와 개인적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침해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장애 정책이 기반을 둔 정의론이 권리에만 집중하여 돌봄은 사적 영역 또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공적 영역을 다루는 정의론에서 돌봄을 다시금 고찰할 필요가 있다.

II. 기존 정의론의 검토 : 롤즈, 아마티아 센

1. 롤즈의 정의론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에게 마땅한 복지를 누리고 삶의 질을 보장받게 해줄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세우기 위해서는 정책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장애 정의론’의 확립이 필요하다. 장애 정의론은 장애인의 권리를 잘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가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롤즈의 정의론을 검토하고 해당 이론에서 장애를 다루기에 부족한 점을 파악하여 수정·보완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돌봄 윤리적 비판인 에바 키테이(Eva Kittay)의 주장⁷⁾에 주목하여 사회적 돌봄 복지 제도가 어떠한지 제시하지만, 정의론의 틀을 유지하면서 정의론 그 자체가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필자들은 롤즈의 정의론이 성립할 수 있는 배경이 돌봄임을 받아들이고, 이를 토대로 정의론이 개선된다면 장애가 우리 사회에서 장기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본다. 이 장에서는 우선 현 장애론에 적용된 롤즈의 정의론에 대해 검토하고 그 정의론의 토대로 돌봄이 들어올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원초적 입장

롤즈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이상론적인 작업을 시행한다.

7) 키테이의 주장은 III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이상론은 부정의한 상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론적으로 구상해 보는 작업이다. 이때 정의의 원칙은 자격이 있는⁸⁾ 사람들의 합의를 통해 도출된다. 사람들은 합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이라는 가상의 설정 속에 놓이며, 자신의 여건이나 운, 사회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을 쓰고 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개인적 특성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시민들은 정의의 원칙을 합의한다. 이러한 롤즈의 논의는 정의의 원칙을 준수하는 의무를 지닌 당사자들 스스로가 정의의 원칙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계약론적 정의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도를 통해 권리를 보장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제도론적 정의론이라고 할 수 있다.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이라는 장치는 계약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사회적·자연적 여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유혹하는 특수한 우연성의 결과들을 무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무지의 베일은 계약의 당사자 누구에게도 더 유리한 정의의 원칙이 도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과 동시에 개인을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여겨지게 하는 가상의 장치이다. 계약 참여자들은 자신이 어떤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래서 정의의 원칙은 자신과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더 유리한 원칙이 되지 않고 공정하게 도출된다. 하지만 무지의 베일에 모든 정보가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원초적 입장의 사람들은 합의 과정에서 제대로 사고하기 위해 인간과 인간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정치 현상이나 경제 이론의 원칙들을 이해하며 사회 조작의 기초와 인간 심리의 법칙들도 알고 있어야 한다.(롤즈, 2003)⁹⁾ 일반적인 정보, 즉 법칙이나 이론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데, 이는 모든 정의관들이란 그것들이 규제할 사회적 협동 체제의 특성들에 부합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배제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롤즈, 2003)¹⁰⁾

2) 정의의 두 원칙

원초적 입장에서 계약의 당사자들은 도덕적 주체로서 능력을 갖추고 있어 합의의 주체가 된다. 도덕적 능력은 첫째, 가치관과 정의감에 관련된 능력과 더불어 둘째, 합리적이고 합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적 능력이다. 이 도덕 능력은 시민이 평생에 걸쳐 사회에 충분히

8) 합의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 원칙에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말한다.

9) 196p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10) 위와 같음.

협력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되도록 하고, 사회 구성원들 간의 평등한 조건을 보장하는 동시에 자유의 근거가 된다. 만약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계약에 참여한다면 그 사람은 착취적인 사회 협력에 노출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합의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구분하고 이를 거부할 능력이 없다면 자신에게 해가 되는 원칙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합의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계약의 당사자들은 실제 사회에서 사회적 협력으로 착취 없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을 수립한다.

제1원칙.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인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전체 체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2원칙.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의 두 가지 즉

- a) 그것이 정의로운 저축 원칙과 양립하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고,
- b)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제1원칙은 자유와 평등의 권리에 관한 것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제2원칙은 기회의 균등을 넘어 이득의 분배가 적절히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롤즈는 이 두 원칙에 따라 자유, 기획, 소득, 재산 및 자존감의 기반 등 5가지의 사회적 기본재의 분배를 주장한다. 이러한 사회적 기본재는 사회 구성원이 될 사람들이 도덕적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필요한 것으로, 그 도덕적 능력의 두 가지는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 수정, 추구하는 능력과 정의 원칙을 합의, 준수하는 능력을 포괄한다. 또 사회적 기본재는 누구에게나 평등히 분배되어야 한다.

3) 계약 과정 중 장애인 배제 문제

장애 논의와 관련해 롤즈의 정의론이 가장 비판받는 점은 원초적 입장에서 장애인이 배제된다는 점이다.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계약의 참여자들은 두 가지의 도덕 능력을 가진다. 이러한 두 가지 도덕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장애인, 특히 지적 능력이 잘 발달되지 않은 인지 장애인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합의 과정인 원초적 입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즉 롤즈의 계약론적 정의관을 따르면 계약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장애인은 자신이 합의하지 않은 정의의 원

칙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지적 능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은 합의에 참가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다. 계약론적 정의론은 합의를 위해 장애가 없는 정상적인 상태를 요구하고, 이는 장애를 ‘의료적 모델’로 보는 관점과 연관된다. 의료적 장애 모델은 그동안의 많은 장애 정책에서 채택해 온 모델로, 여기서 장애는 ‘개인 차원의 육체적·정신적 손상’으로 간주된다. 장애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정의는 WHO의 손상·장애·핸디캡 분류(ICIDF)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기준은 의료적 모델의 관점을 따른다. ICIDF에 따르면 장애란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떤 사람의 몸에 손상이라고 간주될만한 이상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김도현, 2019)¹¹⁾ 이러한 손상으로 인해 특정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여기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은 사회적 요인이 아닌 개인의 손상에 있기 때문에, 의료적 장애 모델은 정상성 개념에 기초하여 장애를 비정상적인 상태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은 단지 누군가에게 평생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결과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의 부정의가 촉발된다. 이는 장애인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상호 협력적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극복해야 하는 부정적 상황을 지닌, 독립적으로 생활할 능력이 결여된 비참한 존재로 인식한다. 따라서 도덕적 주체 능력을 상실한 장애인도 정의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과 사랑의 대상, 의존적 존재인 객체로 간주된다.(목광수, 2012) 다시 말해 의료적 모델은 장애를 정상성 개념으로 해석하여 비정상적인 상태로 폄하하고,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여 사회적 논의에서 내몰아 버린다.

4) 롤즈 비판의 정당성 검토

롤즈의 정의론이 장애의 문제를 충분히 대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유효하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이 롤즈의 장애 정의론을 적절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롤즈는 현실의 부정의 해결이 정의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고 하지 않는다. 롤즈는 자신의 정의론은 제도 차원에서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후에는 이와 관련된 사회 태도와 인식 등의 미시적 차원의 논의가 보충되어야 실질적인 온전한 정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존 롤즈, 2003, p. 52.) 현실의 부정의에 대한 온전한 해결은 현실을 반영하는 사회 이론이나 제도, 인식 개선 등의 협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 배제의 문제와 그에 따른 장애인의 인식적 부정의에 관한 비판은 롤즈의 이상론적 정의론이 완성된 정의론이라고 착각한 것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롤즈의 정의론이 장애의 문제를 배제한다는 비판은 재반박될 여

11) 60p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지가 있다.

롤즈 정의론을 전체적 관점에서 해석해 본다면, 롤즈 정의론은 원초적 합의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비록 원초적 합의에서 장애인이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배제가 곧바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합의 당사자인 가문의 대표(the head of family)는 특정 장애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표가 자신의 가문 구성원일 수 있는 장애인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해석에 대해 특정 장애인, 예를 들어 합리적 사고가 어려운 중증 인지 장애인들이 롤즈 정의론에서 합의 당사자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장애인을 배제한다고 롤즈 정의론을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형이상학이 지배적인 가치일 수 없는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토대와 원칙을 정하기 위해 당장 현재는 합의의 방식 이외에 다른 것을 쓰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합의를 필수적인 방법론을 사용해야 한다면, 합의와 관련된 최소한의 지적 능력을 갖지 못한 존재자들의 합의 참여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물론 합의가 아닌 방식으로 정의의 원칙이 도출될 수 있다면 지적 능력의 한계를 두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합의는 지금의 민주주의/다원주의 사회에서 공적인 논의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최선의 방법이자 거의 유일한 의사 결정 방법이다. 만약 합의가 아니라 제비뽑기나 신탁과 같은 형이상학적 존재, 종교적 신념에 기대어 사회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다면 민주주의 사회 정서에 맞지 않고 부당한 것이라 지적될 것이다. 그래서 정의의 합의에는 합의 내용을 이해하고, 정의 원칙을 공정하고 정당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여한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롤즈는 모든 장애인이 합의 과정에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롤즈 정의론에서 발생하는 배제의 문제는 롤즈가 비장애인은 모두 합의에 참여할 수 있고 장애인은 모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는 착각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롤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집단으로 구분하여 장애인 집단 모두를 배제하지 않았다. 합의 과정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장애인은 충분히 합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능력을 갖추지 못한 비장애인은 합의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능력은 합의라는 정의 원칙을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도출하려는 과정에서 원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끔 하는 최소한의 장치였을 뿐이다. 따라서 롤즈 정의론은 원초적 합의에서 장애인을 배제했다고 보지 않을 수 있고, 비록 원초적 합의에서 장애인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배제가 곧바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지도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롤즈가 원초적 상황의 합의에서 도출하고자 한 것은 정의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밑그림이자 이론적 토대였다. 즉 롤즈의 논의는 이상적 사회론이며, 비이상론적인 현실이 개선되는 데에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롤즈의 정의론이 장애

인에 대한 인식적 부정의를 산출할 수 있다고 비판한 것은, 롤즈 정의론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롤즈의 이상론적 논의를 넘어 있는 현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다. 이것을 정의론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은 당연히 충분하지 않고 비이상론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그래서 롤즈의 정의론이 장애를 다루기에 불충분하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롤즈는 이상론적 정의론만으로는 정의가 완성된다고 하지 않고, 비이상론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원초적 합의에서 도출한 정의의 원칙은 이상적인 사회를 제시하는 지침서이고, 현실에서의 문제는 비이상론에서 보완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상론으로서 정의의 체계가 장애 정의론을 완벽히 완성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한다. 롤즈의 이상론만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오해하여 그것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롤즈가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제도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려 한 것처럼, 현실에서도 이상론이 문제없이 적용되어 제도만으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2. 아마티아 센의 역량접근법

롤즈의 정의론에 대항하여 비이상론적 정의론을 제시하는 학자도 있다.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은 롤즈의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라는 계약으로부터 도출되는 정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본다. 센은 이상적 사회인 ‘질서정연한 사회’에서의 정의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공적 추론을 통한 정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부정의가 없는 이상적 사회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이상론적이고, 합의와 계약을 통해 정의를 도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계약론적이다. 비이상론적 정의론에서는 롤즈 정의론이 결과적 공정을 고려하지 않고 분배 과정의 공정성에 집중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본재의 분배 몫이 복지로 전환될 때 그 복지 전환율이 달라 불평등이 발생한다¹²⁾는 사실을 무시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롤즈의 대안으로 ‘역량접근법(capability approach)’을 제시한다. 역량접근법은 원칙을 통한 위에서 아래로의 재화 배분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역량이 부족할 때 그것을 충족시키는 방법이다. 가령 신체적 건강이라는 역량이 부족하다면 롤즈는 이를 보건의 서비스의 확대를 통한 재화 분배로 해결하려 할 것이다. 그런데 역량접근법은 개인이 필요한 역량의 수준에 다다를 때까지 이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역량을 강화한다.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는 역량접근법은 차별 문제에 대응하기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목광

12) 복지 전환율이란, 사회가 재분배한 재화를 통해 복지의 상태를 추구하고자 할 때, 내가 바라는 복지의 상태로 얼마만큼 달성될 수 있는지를 뜻한다.

수는 역량 중심 접근법을 따르면 장애인이라는 범주를 제거하여 인식론적 차별의 토대를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¹³⁾

역량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누스바움은 인간이 누려야 하는 10대 역량을 제시¹⁴⁾하고, 센은 역량의 내용을 직접 제시하기보다 사회적 합의, 공적 추론으로 그 목록을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센에게 있어서 역량이란 ‘가치 있는 상태들과 행위들인 기능을 성취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를 의미한다. 누스바움과 달리 센은 역량 수혜자의 기능 충족을 위해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수혜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다.

1) 역량접근법과 장애인 배제 문제

공적 추론을 통해 정의와 민주주의를 연결하는 센에게 심의 민주주의의 건전성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가지고 들어온다면, 공적 추론이 현실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을 합의자로서 포함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긴다. 일부에서는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이 배제되지 않고 소통하는 넓은 의미의 공적 합의에서 장애인이 부당하게 배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 또는 소수의 사람은 공적 추론의 영역에서 힘있는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왜냐하면 토론장에서는 다수의 권력, 발언권의 제약 등 정치적인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하며 이러한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발언이 힘을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토론장에서 모두가 동등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토론의 구조적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토론의 구조적 부정의는 먼저 비판적으로 검토되고 해결되어야 하는데, 센은 이러한 부정의에 대해서는 깊게 파고들지 않았다.¹⁵⁾ 이는 오히려 장애인에게 기만적인 방식으로 배제의 문제를 호도하는 것으로, 배제의 문제 자체보다 더 큰 부정의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장애인 배제 문제는 해결된 듯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장애인이 정의의 사회적 합의에서 배제될 여지가 남는다. 롤즈에서 문제로 지적된 배제의 문제가, 비이

13) 목광수는 「장애(인)와 정의의 철학적 기초」(2012)에서 아마티아 센의 논의를 더 발전시켜 수정된 역량접근법을 제시한다.

14) 누스바움은 모두가 인정하는 10대 역량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롤즈의 계약론적 합의를 넘어서려 하는 동시에 원초적 합의와 같은 방식을 쓰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15) 김병곤, 봉재현은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2014)에서 센의 토론에 대한 강조가 토론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모두가 토론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규범적 주장만을 한다는 점에서 토론을 통한 부정의 제거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한다.

상론인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 장애인에게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2) 장애인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의 문제

역량 접근법은 장애인이라는 범주를 제거해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프레임을 제거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장애 정의론을 구축하는 논의에서 장애인의 범주를 일절 제거하는 것은 ‘장애인’이라는 핵심 개념을 명확하게 확립하지 않은 텅 빈 논의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또 장애인 운동에서 정체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실제 발생하는 장애 문제를 나은 방향으로 견인할 힘을 잃을 수 있다.¹⁶⁾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를 발견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장애의 인식적 부정의를 해결하려면 장애라는 범주를 버려야 함과 동시에, 장애 문제를 해결하려는 운동에서는 장애의 정체성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 따라서 장애의 정체성을 버리기보단 절충안으로서 장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정상성에서 벗어난 손상된 개인으로서의 장애’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특수한 의존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장애의 정체성을 확립하면, 의존의 보편적 사실 아래 장애라는 특수한 존재 양식을 포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I. 돌봄 윤리

기존 정의론들은 장애에 특화된 정의론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것은 정의론에 개인의 삶, 미시적인 측면을 분석하는 이론적 토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논의에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겠지만, 필자들은 철학사에서 정의론의 한계를 비판하며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돌봄 윤리가 수정을 통해 보완된다면 기존 정의론이 보지 못했던 측면을 보완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장애의 정의론에 토대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본다. 정의론의 토대로 나아가기 전에 우선 에바 키테이의 논의를 중심으로 돌봄 윤리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려 한다.

16) 김도현은 『장애학의 도전』에서 장애인 정체성과 정치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치문제에서 정체성이란 간단히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 연구에서는 주제에 벗어나 있으므로 간단히 언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1. 돌봄과 의존의 편견 허물기

돌봄 윤리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의존적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사회에서 완벽한 독립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갓난아기, 질병의 시기, 노년기까지 모든 인간은 돌봄이 필요한 의존적인 존재이다. 의존의 시기에 돌봄을 받지 않는다면 인간은 생존하거나 성장할 수 없다. 돌봄 윤리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의존성을 ‘인간 의존의 사실’이라고 하며, 이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는 존재론적 사실이기에 의존은 부정적인 상태도, 벗어나야만 하는 상태도 아니다. 흔히 정의로운 사회의 구성원인 시민은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사회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의 독립적인 모습 이면에는 돌봄이 숨어있다. 의존은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시작이며, 독립보다 앞서있는 근본적 관계이자, 인간 실존의 조건이다. 따라서 의존이라는 낙인으로 발생하는 차별, 배제, 혐오를 거부해야 한다. 돌봄 윤리는 정의의 영역에서 관심가지지 않았던 상황과 맥락,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돌봄이란 특정 상황에서 상대방의 요구에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며 응답하는 능력이자 의무이며, 응답과 연결을 통해 함께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응답과 연결이라는 특성 때문에 돌봄받는 존재는 더이상 객체적인 존재가 아니게 된다. 돌봄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돌봄을 위한 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존재이다.

흔히 의존적인 삶으로 대표되는 장애인의 삶도 ‘인간 의존의 사실’하에서는 특별히 비정상적인 삶이 아니며, 잘 자립하는 데 필요한 특정 돌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삶이다. 이때 요구하는 특정한 돌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하는 차별적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장애라는 어떤 삶에 필요한 돌봄이 각 개인의 삶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는 뜻이다. 모두가 잘 자립하기 위해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사회가 돌봄에 필요한 역량을 적절히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갖게 하며, 이때 그러한 역량은 당연히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라 다르므로 분배 과정에서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적인 평등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장애인에게 더 많은 돌봄의 서비스가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평등이 아니다. 돌봄 복지 사회가 추구할 방향은 돌봄이 잘 이루어지는 상태에 대한 결과적 평등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돌봄의 관점에서는 장애인이 돌봄을 받는 의존적 존재라는 것에서 오는 인식적 부정의가 해결될 수 있다. 기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적 부정의¹⁷⁾는 장애와 비장애 간의 질적 차이에

17) 장애인에 대한 인식적 부정의는 장애인이 정상인들보다 좋지 않은 삶을 살며, 오로지 의존적이고 그렇기에 삶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적 부정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논의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장애인의 삶을 이차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문제를 낳을 수 있어서 해결

서 비롯된다. 즉 장애는 정상성에서 벗어난 손상의 상태이며, 비장애는 정상적인 상태라는 차이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돌봄의 관점에서 본다면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은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 정도에 따른 양적 차이만 있을 뿐, 인간 의존의 사실이라는 관점에서 질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은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 중 ‘사회적 장애 모델’에 가깝다. 사회적 장애 모델¹⁸⁾은 최근 장애인 운동에서 의료적 모델의 대안으로 자주 등장하는 모델인데, 장애인의 손상 자체가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본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근본적 차이는 없다. 장애인이 장애인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억압적인 사회 환경과 제도의 산물이다. 예를 들어, 내가 다리를 다쳤을 때 다리의 손상 자체는 불능의 상태로 주어지지도 않으며 인식적 차별의 근거도 되지 않는다. 신체적·정신적 결손은 소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그 다리를 이끌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올라가야 하는 상황에서 나는 ‘할 수 없음’의 상태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회 환경에서 배제와 차별이 일어날 때 장애인이 된다는 것이 사회적 장애 모델의 핵심 주장이다. 이제 장애인은 단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정책적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사람으로 구체화되었다.(황수경, 2004) 이 관점에서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결손이 아닌 인간의 기능적 제약이 핵심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적 제약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부정의를 돌봄의 제공으로 개선할 수 있다.

2. 에바 키테이의 돌봄 윤리

에바 키테이는 의존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존자(돌봄 수혜자), 의존 노동자(돌봄 노동자), 의존 노동(돌봄노동), 의존관계(돌봄 관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의존자는 생애 주기적, 육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주어진 환경에서 누군가의 돌봄과 보호 없이 스스로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속한다. 의존 노동자는 의존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노력과 관심이라는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의존 노동은 의존자를 돌보는 돌봄노동을 뜻하며 의존관계는 불가피한 의존에 기초해 돌봄을 주고 받는 관계를 말한다.

돌봄 수혜자와 돌봄 노동자(care giver)의 관계는 대부분 가족관계 안에서 형성되지만 이

해야만 한다.

18) 김도현은 『장애학 함께 읽기』에서 사회적 장애 이론으로 UPIAS가 채택하고 있는 장애를 ‘손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거의 또는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사회 활동의 주류적 참여로부터 배제시키는 당대의 사회조직에 의한 불이익이나 활동의 제한’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를 단지 애정을 기반으로 한 헌신과 희생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감정적인 교류나 애착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의 어려운 가족을 돌볼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책임감은 의존 노동의 강력한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키테이는 이런 의무를 ‘배태(胚胎)된 의무(nested obligations)’라고 명명했다. 배태(胚胎)란 사전적으로 ‘아이를 배다’는 의미이지만, 이것에서 파생된 의미로 어떤 현상의 원인은 그 속에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배태된 의무에서는 의존 대상자의 절대적인 취약함이지만 절박함, 또는 돌봄노동의 부담을 나눌 조력자의 부재가 돌봄을 제공하는 이유가 된다. 돌봄노동의 의무감은 의존 수혜자의 취약한 상황에 응답하는 능력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이는 비강제적이지만 비자발적인 돌봄노동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아픈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며느리의 효(孝)나 지적 장애인 자식의 부모가 직장을 그만두고 그를 온종일 집에서 돌보는 경우와 같다. 이는 자발적인 이타심, 헌신, 희생정신보다는 관계가 부과하는 기대, 유대, 책임, 사회적 압력으로 인한 의무감 등을 촉발 원인으로 가지기도 한다. 개인적·자발적 선택을 넘어서는 것이다.

배태된 의무에서 나오는 돌봄은 즉각적인 대가를 기대한 행위가 아니다. 즉, 그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이득이나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롤즈의 정의론을 피상적으로만 해석하여 사회구속력을 가지는 의무는 협력적인 사회를 만들고 호혜성(reciprocity)을 제공하기 때문에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관점이 있다.¹⁹⁾ 그러나 정작 협력적인 사회를 만드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시민에게 필요한 돌봄의 의무는 호혜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 돌봄은 이른바 ‘확장된 호혜성’을 바탕으로 한다.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은 자신도 돌봄이 필요한 순간에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회에 대한 장기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 즉 이런 기대는 우리 사회가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적 협력이 가능하다는 관점을 반영한다.

롤즈의 호혜성을 상호성으로 해석하는 관점에서 돌봄의 기대는 돌봄이 롤즈 정의론과 양립할 여지가 있다. 롤즈는 상호성(reciprocity)이 서로에게 이익을 기대하는 태도(mutual benefit/advantage)를 넘어선다고 말한다.²⁰⁾ 그렇기 때문에 롤즈는 정의로운 저축 원칙

19) 롤즈는 『정의론』에서 사회 협력의 개념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에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인생 전반에 걸쳐 사회적 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동등한 시민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때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상호성이 아닌 호혜성(즉각적 대가)으로 이해하는 것은 롤즈를 피상적으로만 파악하여 오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 롤즈의 상호성 개념은 “중요한 심리학적 사실”(deep psychological fact)로서(존 롤즈 (2003), p. 634) 사회 협력의 통합적 성격을 갖는 개념으로 개인적 좋음과 합리성에 의해서만 설명되는 상호 이익(mutual advantage)과 달리 상호 이익뿐만 아니라 협력 조건이 공정하고 합당하다는 등의 도덕적 요소까지 덧붙여진 개념이다(Samuel Freeman (2018), *Liberalism and Distributive Justice*, Oxford University Press, pp. 207-208).

(just savings principle)을 통해 후손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세대를 거친 사회적 협력체계를 주장하며, 세대 사이의 유대를 전제하는 그러한 관계론적 존재론을 고려한 정의로운 저축 원칙과 돌봄의 요구는 유사한 동기로 해석될 수 있다.²¹⁾

3. 의존과 자립의 이분법을 넘어서

장애 권리 운동에서 권리는 흔히 ‘자립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로 통하고, 장애인도 돌봄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객체적 존재라는 차별적 인식을 없애고자 노력한다. 그래서 일부 장애 운동은 그러한 차별적 인식 개선을 위해 의존의 거부와 독립²²⁾을 지향하기도 한다. 하지만 장기적인 장애인 인식의 개선을 지향할 때 의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거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독립을 통해 장애인 인권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독립적인 삶만이 좋은 삶이라는 이론적 틀에서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시 차별받게 된다. 이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방해할 수 있다.

장애인 독립의 요구는 기존에 있는 자립-의존의 이분법적인 프레임 안에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시도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돌봄은 그러한 이분법적인 프레임 자체를 전복하려는 시도이며, 돌봄과 의존에 대한 편견을 근본적으로 허물려는 노력이다.²³⁾ 필자들은 자립할 수 있는 권리 등 인권에 포함된 권리들을 돌봄의 반대 개념으로 보는 시각을 거부하고자 한다. 인간 의존의 사실을 고려하면 그 누구도 아무런 의존 없이 홀로 살아갈 수는 없고 그런 의미에서 자립은 ‘잘 의존하는 상태’ 또는 ‘의존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국가와 사회제도가 자립을 위한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의존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의존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에게 있어서도 자립은 완전히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잘 이용하여 자립에 필요한 역량에 도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1) 정의로운 저축 원리는 IV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22) 이 논문에서 독립은, 의존의 상황 없이 ‘홀로’ 생활하는 것을 뜻한다.

23) 김도현은 『장애학의 도전』(2019)에서 자립개념이 가지고 있는 정상성 개념과, 데카르트 이후부터 이어진 이성 중심주의와 개인주의로부터 이성-비이성, 정상-비정상, 자립-의존의 이분법적인 구분과 그에 따른 위계가 이어져 왔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개인주의의 대안으로 코뮌주의와 공생을 제시하는데, 코뮌주의-공생에서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며 장애인이 의존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의 사회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고 비장애인은 사회에서 의존을 이미 자연스럽게 할 수 있기에 자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비장애인의 자립은 완전히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며 장애인들도 자립-의존의 이분법적인 틀에서 벗어나 잘 의존할 수 있도록, 의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바르다는 주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의존-자립의 이분법을 넘어서면 장애에 대한 인식의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장애인은 의존적인 존재, 비장애인은 자립적인 존재라는 구분 자체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자립이 잘 도움받는 상태로 이해된다면 도움받는 삶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독립의 허상을 제거하고 나면 비로소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장애인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돌봄 윤리에서 돌봄의 대상은 의존인뿐만 아니라, 의존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까지 포함된다. 홀로 독립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한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돌봄 노동자의 노력은 가려지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잘 도움받는 상태의 자립을 인정하면 그동안 등한시되었던 돌봄 제공자의 노력에 주목할 수 있다. 즉 비로소 돌봄 관계의 참여자를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듯 의존-독립의 이분법을 거부하고, 독립의 허상을 제거하면 돌봄의 끈으로 연결된 의존인-돌봄 제공자의 존재 양식을 인정하고 건전한 돌봄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

4. 돌봄의 공적 확대 가능성

1) 시민성 함양의 조건: 돌봄

돌봄은 인간이 사회적 협력에 요구되는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정의와 관련된 것으로 확장될 수 있다. 돌봄은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또 시민성을 갖추어주기 위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돌봄 윤리에 대한 공적 책임이 곧 돌봄의 공공 윤리라고 할 수 있다.

키테이가 말하는 사회는 의존의 사실에 놓여있는 개인들이 돌봄의 관계로 얹혀있는 사회 협력체이다. 사회는 돌봄을 토대로 협력한다. 우리는 돌봄이라는 사회적 협력망 속 일원으로서 평생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있으며, 누군가에게 우리 모두가 돌봄을 주어야 하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확장된 호혜성은 인류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서로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받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즉 돌봄으로 맺어진 협력체계가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돌봄이 사회적 협력의 조건으로서, 시민을 길러내는 역할을 하고 돌봄을 통해 한 사람이 정의로운 사회를 도모하는 시민이 되는 것이라면 돌봄은 개인에 대한 희생이나 애정에만 국한되지 말아야 한다. 돌봄은 사적 윤리를 넘는 공공 윤리이며, 더 나아가 정의로운 사회의 규범적 기초이고, 사회적 역량이자 복지와 번영하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살피는 사회적 활동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돌봄을 공적인 것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2) 돌봄의 공적 요구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인간이 삶을 살아가며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더 이상 돌봄을 장애인, 노약자 등의 취약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준다. 돌봄은 모든 시민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담론이다. 특히 키테이는 돌봄 노동자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통해 사회와 국가에 대한 돌봄을 요청한다. 돌봄 수혜자에게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1차 돌봄 관계에서 돌봄 노동자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다면, 돌봄 노동자는 취약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많은 경우 장애인의 돌봄 노동자는 가까운 가족이 되는데, 돌봄의 제공자인 장애인의 가족은 장애인의 의료생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등의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돌봄 수혜자를 돌봄으로써 취업 기회 상실 및 사회 활동 포기를 감수하거나 발달장애인이 성장하는 각 단계에서 충격, 분노, 슬픔, 우울 등의 정서적 긴장감을 겪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가족이라는 사정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즉 돌봄 노동자는 돌봄인에게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 때문에 직업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데다가, 여가시간이 부족하고 대인관계나 사회 활동에 소홀하게 됨으로써 불안감이나 우울증에 시달려²⁴⁾ 돌봄 제공자로서가 아니라 온전한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결국 장애인의 돌봄이 지속적으로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돌봄 제공자 그 개인의 삶 또한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2차 돌봄 관계이다. 키테이는 2차 의존관계를 돌봄 노동자가 조력자에게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의존의 상황은 개인의 특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서 나온다. 따라서 돌봄 노동자에 대한 돌봄의 책임은 공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그들에게 사회적 재화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 분야 이외에서도 돌봄의 공적 요구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22년,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독사라는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위기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고독사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결과²⁵⁾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고독사는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전체 사망률에서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율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노인복지 요양시설 현황도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돌봄의 요구가 점

24) <https://www.welvoter.co.kr/42008> 장애인 뉴스. 20230726. [장애인 가족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 (검색일: 2024년 7월 31일.)

25)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374084 보건복지부, 20221214. [2022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발표]

점 증가하면서 정책도 발맞추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다. 복지 정책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돌봄의 공적 확대는 복지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맞는 이념이라고 생각된다.

IV. 돌봄 토대의 정의론

1. 정의론 없이 돌봄 윤리만으로 장애를 다룰 때의 문제점

정의론이 장애를 다루는 데 있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장애를 돌봄 윤리의 관점에서만 다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돌봄 윤리 일원론으로 장애를 다루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 첫 번째, 지배의 문제이다. 아무리 장애인을 돌보는 돌봄 노동자가 지배하려는 의도가 없고, 착취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이 돌봄 노동자에 대한 의존성이 있다는 것에서 권력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권력의 차이는 장애인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장애인 스스로가 타인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느낌과 무력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돌봄에 있어 지배의 문제는 돌봄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이 문제에 해결책은 권리의 영역이나 정의의 영역에서 제시해 줄 수 있다. 특히 롤즈는 ‘자존감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는 비록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지 못하게 된다(롤즈, 2003)²⁶⁾고 언급하며 자존감을 사회적 재화 중 자존감을 가장 중요한 재화임을 강조하고 있다. 롤즈의 정의론에 따르면 장애인 돌봄에서 비롯하는 장애인의 자존감 훼손은 정의의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해결될 것이라고 보인다.

두 번째, 돌봄 노동자의 개인적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돌봄이 정의론의 안으로 들어와 정치적 확대를 도모하지 않는다면 돌봄은 사적 영역에 자리 잡아 돌봄 노동자가 장애인을 계속해서 돌봐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은 돌봄 윤리가 사적인 관계에서 시작한다는 전제로부터 비롯되는 문제이다. 장애인 돌봄의 문제가 돌봄 윤리 안에서만 논의된다면 정부의 돌봄 책임에 대한 공적 지원, 사회경제적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세 번째, 돌봄이 정치적 확장으로 잘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정의에 대한 문제

26) 568p에서 인용하였다.

들이 정의론을 통해 논의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의론은 공적인 문제들에 이상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관련 제도들의 정당성을 부여해 왔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정의론을 제외하고 돌봄만을 강조한다면 돌봄이 공적 사안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이유를 정의의 관점을 벗어나서 설명해야 한다는 난점에 마주치게 된다.

2. 롤즈의 정의론의 토대: 돌봄 윤리

돌봄 윤리 일원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장애 정의에 대한 논의가 돌봄 논의만으로 다루지는 것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이제, 돌봄을 롤즈 정의론의 토대로 삼아 장애 정의론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돌봄 윤리는 롤즈의 정의 윤리를 통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롤즈의 정의론은 이상론을 제시하는 것 외에도 정책이 정의에 합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롤즈 정의론은 정의를 위한 최소한의 것을 담보한다. 즉, 정의론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침범하지만 않는다면 장애인에 대한 돌봄윤리적 정책은 정치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 롤즈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기본적 자유들과 기회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체계는 정의의 원칙에 의한 비판의 대상이 되며, 원칙의 충족이 체계의 잘못을 교정하기에 충분하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사회 이론과 인간 심리 및 다른 많은 것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롤즈, 2016) 그래서 정의를 완성하기 위해 롤즈는 현실적 측면에서 보완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한 보완은 돌봄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현재 일어나는 장애인 돌봄의 문제는 돌봄 당사자인 장애인뿐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는 자유로운 시민의 기본적 자유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루에 상당 부분의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 받아야만 자립의 삶을 기대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는 돌봄 노동인이 돌봄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 의무가 법이나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자발적인 희생으로 보았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돌봄의 의무는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나온 것도, 자발적인 것도 아니며 그러한 돌봄 노동을 사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은 돌봄을 수행하는 돌봄 제공자의 자유와 돌봄 이외의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태는 롤즈 정의론의 틀 안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돌봄이 정의론의 토대로 들어간다면, 그러한 비판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현실을 개혁할 원동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 계약의 출발점

롤즈에게 정의는 시민들의 합의로부터 나온다는 점에서 사회계약론의 전통을 따른다. 사회

계약론은 인간의 취약성에서부터 협력의 원리를 설명한다. 키테이가 ‘인간 의존의 사실’을 들어 말했듯, 돌봄은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이다. 의존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취약함은 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가장 처음의 조건이다. 계약론을 따르는 롤즈의 입장에서 이러한 돌봄 필요는 계약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가 협력해야 하는 문제이다. 돌봄은 사회와 같은 정치공동체가 발생하도록 하는 조건이자 동시에, 계약으로 생겨난 사회의 존속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계약이 건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시민성을 길러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의 내용은 모든 사회 공동체의 이익이나 정의감에 맞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이때 돌봄은 사회 협력을 위한 시민들을 양성하는 동시에 후세대에서까지 돌봄이 제공될 것을 요구한다. 즉 돌봄은 계약을 통한 사회 협력체가 앞으로도 존속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다. 앞선 장의 ‘돌봄의 공적 확대 가능성’에서도 보았듯이 돌봄은 계약을 할 수 있는 시민을 길러낸다는 점, 계약을 통한 사회 협력에 돌봄이 포함된다는 점도 돌봄이 롤즈 정의론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정의 원칙 합의 과정의 고려 사항: 롤즈의 정의로운 저축 원리와 돌봄의 공통된 관심

롤즈는 계약의 참여자인 개인은 가문의 대표(the head of family)로 가까운 후손에 대한 이해 관심을 가지고, 합의 당사자들이 넓은 의미의 상호성으로 자신들이 선조들로부터 받고 싶은 것을 자신들도 후손들에게 주려는 동기를 가진다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은 롤즈의 정의론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회의 정의를 결정하는 데 있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상호성을 고려하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는 현재를 원초적 입장에 등장하는 시간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그들이 동시대인임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가정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떤 저축에도 합의할 이유가 없다. 앞선 세대들이 저축을 해왔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전혀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합당한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첫째, 당사자들은, 말하자면 적어도 그들의 보다 근접한 후속 세대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로서 가족의 계통을 대표한다. 둘째, 채택된 원칙은 모든 선행 세대들에 대해 그들이 따랐기를 바라는 바로 그런 원칙이어야 한다. 무지의 베일과 함께 이러한 제약은 어느 세대든 모든 세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증해야만 한다.²⁷⁾

롤즈가 추가한 이 두 가지 가정으로부터 돌봄이 합의 과정에서의 타당한 고려 사항이라는 것이 추론될 수 있다. 우선 합의 당사자인 가문의 대표는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이해 관심을 갖는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해 관심이 돌봄 대상자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 본인의 관점과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라는 점이다. 롤즈는 원초적 입장의 합의 당사자를 고립된 개인으로 보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 특히 자신의 후손에 대한 애정과 헌신을 갖는 존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⁸⁾ 합의 당사자에게 돌봄의 상황은 정의의 원칙을 수립할 때 합리적으로 고려할 만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의존 노동자가 되었을 때 대상자의 안녕을 위해 전적인 돌봄 수행을 선택하여 자신의 관심 전부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계약에서 전제한 상호무관심성과도 양립한다. 상호무관심성은 합의 당사자들에 대한 것이지만 자신이 대표하는 가문의 구성원들에 대한 고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롤즈는 또 넓은 의미의 상호성²⁹⁾을 주장하는데, 이 넓은 의미의 상호성으로 롤즈가 도달하고자 했던 정의로운 사회는 지속적으로 정의의 여건을 실현시킬 수 있다. 롤즈와 주장한 호혜성을 키테이가 확장된 호혜성에서 더욱 구체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키테이는 정의와 돌봄의 관점 모두를 고려할 때 돌봄이 잘 수행되는 사회에서 정의의 여건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사회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돌봄은 정의의 합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이것은 돌봄을 정의론이 포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키테이는 정의의 제3원칙으로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원칙은 의존이라는 불평등한 취약성, 도움이 필요한 타인에 대해 응답하는 도덕적 힘, 그리고 행복과 안녕보다 우선하는 인간관계에 근거한다(에바 키테이, 2016).³⁰⁾ 이 원칙이 롤즈 정의론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의존관계 참여자의 사회적 지위가 공적 논의에 포함될 것이다. 그렇다면 키테이가 말했듯, 돌봄에 대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돌볼 수 있는 각자의 능력으로부터, 그리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만들어주는 사회제도의 지원에서, 모두가 충분히 지속되는 관계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에바 키테이, 2016).³¹⁾

27) 존 롤즈 (2003), p. 384.

28) 목광수는「기후변화와 롤즈의 세대 간 정의: 파핏의 비동일성 문제를 중심으로」(2016)에서 본문의 내용과 같이 설명하고 있으며, 후손에 대한 애정이 상호무관심성과도 양립 가능하다고 언급한다.

29) 앞서 언급하였듯이 롤즈의 상호성은 호혜성(mutual benefit)을 넘어서는 것이다. 상호성은 개인에게 즉각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통시적 관점에서 협력의 체계를 기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0) 208p에서 인용하였다.

3) 롤즈 정의론의 비이상론 보완으로서 돌봄

더 나아가 롤즈 정의론의 비이상론적 보완은 돌봄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롤즈는 자신의 정의론을 이상론으로 제시하면서, 비이상론에서 보완한 여지를 남겨 두었다. 이상적 정의론의 토대가 된 돌봄은 구체적인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발생하는 부정의를 포착하고, 부정의를 해결할 이유와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에 대한 돌봄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족이 활동 보조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재화를 지원한다면, 장애인 돌봄의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돌봄이 온전히 돌봄 제공자 개인의 몫으로 남아있다면 돌봄의 문제는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니다. 돌봄 윤리라는 이상적 방향성이 없다면 돌봄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되는 정책이 다시 검토되기 어렵고, 돌봄에 대한 재화 지원만으로 가족의 부담이 지속될 수 있다. 이상론이 없다면 정책의 개선이 어려워지며, 장애인의 돌봄을 개인의 의무나 희생으로 간주하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직관적인 정의감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장애인의 돌봄을 사회가 책임지지 않거나 개인의 의무 또는 희생만으로 취약한 존재의 돌봄이 이뤄지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정의감, 또 장애인의 삶도 장애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의 삶도 모두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정의감을 직관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의감의 실현은 비이상론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상론적인 계획이 있을 때 수정되면서 나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현실의 문제에서는 정의감을 제쳐두고 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사항들이 강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V. 나오는 글

1. 장애와 지속 가능한 공존의 조건

장애인 돌봄 제공자는 자신이 원하는 가치관에 따라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자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만약 중증 장애인과 같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돌봄의 부담이 온전히 한 개인에게만 집중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와 평등이 심각하게 저해된다. 돌봄이 지향하는 확장된 호혜성은 돌봄인에 대한 권리도 지켜

31) 209p에서 인용하였다.

쳐야 한다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이는 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돌봄이 개인의 착취적인 희생을 통한 것이라면 그것은 장애의 부정의를 해결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다. 돌봄은 단지 의존적인 삶을 사는 당사자뿐 아니라, 이 사회의 구성원 전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위에서 논의가 전개되었던 롤즈의 요지, 즉 이상적인 사회에서 지켜질 것으로 예상하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은 돌봄 윤리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좋은 밑거름이며, 장애와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를 지속하게 해주는 밑바탕이다. 돌봄과 자유의 균형을 위해 롤즈의 자유주의적 인간관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 장애인의 삶과 더불어 장애인을 돌보는 자의 자유도 충분히 고려된다면 돌봄이 더욱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으며 장애와 함께하는 삶이 누군가에게 부담을 지우는 삶이 아닌 상호발전하며 공존하는 삶의 형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장애와 지속적으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장애인의 돌봄 요구와,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보호자, 돌봄 노동자의 돌봄 필요에 구체적으로 응답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넓은 스펙트럼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 정책에 대해 어떤 지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롤즈의 자유론적 논의에 따라 돌봄 제공자의 자유 또한 보장될 수 있는 논의가 앞으로 더욱더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장애와 공존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돌봄이 어떻게 가능할지가 논의에서 핵심 질문이 될 것이다.

롤즈가 정의의 두 원칙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질서정연한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가치관을 선택하고 가치관에 맞는 삶을 꾸릴 자유가 있어야 한다. 돌봄을 받는 장애인도 당연히 자신의 삶의 형태에서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권리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러한 가치관에 맞는 삶을 꾸려 나가는 능동적인 존재로 이해될 수 있다.(키테이, 2023)³²⁾ 하지만 이때,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삶을 정말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기도 한다.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의사표현을 전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의사전달에서의 어려움과 불가능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할 것 같다.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은 장애에 대한 인식의 부정의에서 나오는 생각이며, 언어로 의사전달이 잘 이뤄지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장애인이 표현하는 요구에 돌봄 제공인은 응답할 능력이 있다. 말을 하지 못하는 갓난아이, 동물의 경우에도 부모나 사육사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대개 알아차리고 요구에 응답한다. 중증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도 돌봄 제공인

32) 246p에서 인용하였다.

은 그들의 요구에 응답할 능력이 있다. 오히려 이러한 능력이 돌봄 제공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하며 종종 장애인을 자유롭게 가치관을 선택할 수 없는 존재로 보는 것은 장애에 대한 정의를 후퇴하게 만든다.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정책은 돌봄을 토대로 한 장애의 정의론을 받아들인다면, 정책 대상자인 장애인에게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된다. 돌봄이 사회제도의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여겨짐에 따라 복지제도는 돌봄의 필요에 따라 그 서비스의 내용과, 고려 대상이 더욱 세분될 것이다. 이 글에서 새롭게 구성된 돌봄 중심의 장애 정의론을 토대로, I 장에서 권리 중심의 정의론의 한계로 거론되었던 탈시설과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간단히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이 글에서 구성된 돌봄 중심의 장애 정의론이 실질적인 장애 정책 논의에 어떤 시사점과 상상력을 제시할 수 있을지 고민하도록 할 것이다.

2. 탈시설 정책의 새로운 방향

1) 탈시설의 의미 확대와 시설의 개편

이 글에서 제시된 돌봄 중심의 장애 정의론은 의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자립-의존의 이분법적 구분을 버리고 자립의 상태를 ‘잘 의존하며 살아가는 상태’로 규정했다. 그렇다면 이제 탈시설의 배경인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기존의 이해를 넘어 사회의 서비스를 잘 이용하는 것으로 확대될 수 있다. 기존의 이해는 ‘탈시설’의 의미를 하드웨어적으로만 해석하여 시설이라는 공간으로만 접근하고, 제도나 기관, 조직적이고 관습적인 체계라 보는 소프트웨어적 해석을 등한시하였다.³³⁾ 따라서 새로 규정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탈시설의 의미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탈시설 운동은 ‘Deinstitutionalization’을 공간적 의미인 시설로만 한정해 해석하였고,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단체도 있었다. 그러나 시설의 전면 폐쇄는 돌봄의 사회적 확장을 저지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자립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탈시설의 의미를 ‘공간적 시설에서 벗어나’에서 더 확장시켜 ‘돌봄을 기반으로 한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내 포용으로 해석해야 한다. 장애인들이 자립하기 위해 필요한 돌봄의 요구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정책마련 시 중요한 고려사항은 그러한 돌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장애

3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804021003> 서울신문. 20230803. [기고] ‘탈시설’ 용어 사용의 위험성. 김성우 천주교청주교구 가톨릭사회복지연구소장 · 신부 (검색일: 2024년 7월 31일)

인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커뮤니티 케어와 시민 교육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 잘 포용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케어가 탈시설을 전인해야 한다. 커뮤니티 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탈시설 이후에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사회 시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둘째, 지체 장애인 뿐만 아니라 발달 장애인도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전문화된 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발달 장애인은 자신이 필요한 돌봄 요구를 언어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러한 의사소통 과정의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돌봄인의 양성이 필요하다.

3) 장애인 가족 맞춤 지원

탈시설로 인해 장애인 가족의 원치 않는 돌봄 노동의 부담이 사회로부터 전가된다면 돌봄 윤리가 목표로 하는 탈시설 정책의 목표는 달성될 수 없다. 왜냐하면 돌봄 윤리에서 고려하는 돌봄 수혜자에는 장애인 가족도 포함되며, 그들의 삶의 복지가 감소된다면 돌봄의 사각지대가 다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애인 가족의 삶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심리 상담이나, 장애인 가족 자조 모임과 같은 비물질적 돌봄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심리 상담의 경우, 장애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느라 외출이 어렵다면 비대면 원격방식으로 진행하는 방향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돌봄에 필요한 물질적 요소들도 장애인 가족의 돌봄 요구에 맞추어 세분화 된 형태로 지원되어야 한다.

3.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의 새로운 방향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으며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는 돌봄의 접근성과 공공 지원이 부족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음은 이 서비스가 본 논의를 토대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다.

첫째,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몸을 움직이는데

많은 불편함을 겪는 장애인, 도전적 행동이 잦은 장애인 등 활동 보조사가 돌봄을 제공하는 장애인들은 각각의 특수한 생활 양식이 있다. 따라서 활동 보조사는 여러 장애 유형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도움을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를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책 결정 과정에 장애인과 그 가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과 같이 살고 교류한 그의 가족들은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 숙련된 전문가의 지식에 가족들이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들이 합쳐진다면 장애인의 돌봄 필요는 더 잘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정책을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이 실제로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셋째, 활동 보조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시켜 돌봄의 사각지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활동 보조 서비스의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불거졌던 바 있다. 특히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정의론을 기반으로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의 접근성과 공정성이 재설계되어야 한다. 문제에 대한 현실적, 실질적인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만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종합조사표의 인정 점수를 재조정하거나, 팬데믹 기간 동안 원격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가상 상담을 통해 지원을 제공하는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는 롤즈의 이상론적인 정의론에 대한 비이상론적 보완으로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필자들은 본 연구에서 장애의 정의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돌봄 윤리를 토대로 한 새로운 장애 정의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롤즈의 정의론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의의 원칙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 보완과 토대로 돌봄 윤리를 제시하였다. 또한 돌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의존-자립의 이분법적 구분에서 오는 장애를 비롯한 의존적 삶에 대한 인식적 부정의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합의가 아닌 모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정의관을 확립하는 것에는 한계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실현 가능한 형태의 장애 정의론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의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통해 장애인의 정의로운 삶을 보장하려는 시도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를 통해 장애가, 또 장애인을 비롯한 의존적인 삶이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으로 이해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광백, 전지혜 (202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탈가족화 및 재가족화 현상과 대안 탐색. **장애의 재해석 Vol.5(1)**, 33-57.
- 김도현 (2009). 장애학 함께 읽기. 서울: 그린비출판사.
- 김도현 (2019). 장애학의 도전. 파주: 도서출판 오월의 봄.
- 김병곤, 봉재현 (2014).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21세기 정치학회보 Vol.24(3)**, 29-49.
- 김성우 (2023.08.04). [기고] ‘탈시설’ 용어 사용의 위험성/김성우 천주교청주교구 가톨릭사회복지연구소장·신부.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804021003>
- 김승욱, 남현주 (2022). 의존을 포용하는 평등의 이상과 복지국가 - 롤즈의 정치이론에 대한 키테이의 의존비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Vol.74(4)**, 41-63.
- 김희강, 강문선, 이인재 (2010). 보살핌의 공공윤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더 케어 컬렉티브 (2021). 돌봄선언(정소영 옮김). 서울: 니케북스.
- 목광수 (2012). 장애(인)와 정의의 철학적 기초. **사회와 철학 Vol.(23)**, 147-184.
- 목광수 (2016). 기후변화와 롤즈의 세대 간 정의: 파팿의 비동일성 문제를 중심으로. **환경철학 Vol.(22)**, 31-61.
- 박지원 (2020. 07. 20). 어머니의 간곡한 請(청)... “활동보조 가족지원 허용해주세요”. 소셜포커스.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37>
- 보건복지부 (2022.12.14).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374084
- 에바 페더 키테이 (2016). 돌봄: 사랑의 노동(김희강, 나상원 옮김). 서울: 박영사.
- 에바 페더 키테이 (2023). 의존을 배우다(김준혁 옮김). 서울: 반비.
- 이병화 (2023. 07.26). 장애인 가족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 장애인 뉴스.
<https://www.welvoter.co.kr/42008>
- 존 롤즈 (2003). 정의론(황경식 옮김). 서울: 이학사.
- 존 롤즈 (2016).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서술(김주휘 옮김). 서울: 이학사.

황수경 (2004). WHO의 새로운 국제장애분류(ICF)에 대한 이해와 기능적 장애 개념의 필요성. **노동정책연구 Vol.4(2)**, 128-149.

Freeman, Samuel (2018). *Liberalism and Distributive Justice*. Oxford University Press.

[크로스체크] 발달장애인 부모들 “탈시설은 사형선고” JTBC 뉴스룸. 2021.08.01.

<https://youtu.be/Y55AFfGA0SM?si=ULwk0MWJUzmB8xi2>

논문 투고 : 2024.10.15.	논문 심사 : 2024.11.15.	게재 확정 : 2024.12.11.
---------------------	---------------------	---------------------

Abstract

Conditions for Sustainable Coexistence with Disabilities

: A Disability Justice Theory Based on Care Ethics

JuYoung Lee*, SooMin Choi**

This paper argues that care must be extended to the social and public sphere in order for our society to coexist with disability, and to realize it. It proposes a 'disability justice theory' that modifies John Rawls' justice theory based on the ethics of care. The theory of disability justice is a theoretical foundation that suggests how society should view and respond to disability, and functions as a standard of justice in the field of disability and disability-related policies. Therefore, it is an important theoretical foundation that must be examined if society wants to move toward coexistence with disability. However, established theories of justice, which emphasize universal social justice and human rights, do not lead to policies that reflect the specificities of disability. An example of this is how deinstitutionalization and assisted living services have limited access to care for some people with disabilities. In order to properly guide disability policy, a justice theory of disability must consider the micro-liv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care relationships inherent in such lives. Therefore,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established theories of justice and aims to revise them to provide a theoretical framework and institutional direction for society to

* Under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Philosophy, University of Seoul

** Under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Philosophy, University of Seoul

coexist well with disability.

Keywords: disability justice, care ethics, Eva Kittay, contractualist justice theory,
idealist justice theory

장애의재해석 제5권 제2호

2024 Vol. 5, No. 2, 303 - 331

인문학 강좌를 통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최금희*

본 연구는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의 인문학 강좌를 중심으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자 간 상호작용과 네트워크 형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인문학 강좌 자료와 3년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및 비장애인 총 8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인터뷰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은 50대에서 70대 사이의 다양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시각장애인 4명과 비장애인 4명으로 구성되었다.

분석은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을 적용하여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프로그램 참여동기, 심리적 안정감,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로 주제별로 범주화하여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인문학 강좌는 인간 행위자(시각장애인, 비장애인 참여자, 강사)와 비인간 행위자(코로나19 정책, 비대면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며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와 포용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ANT 관점에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을 유동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해석하며, 이러한 관점을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의 중요성을 제안한다.

주제어: 시각장애인, 비장애인, 사회적 통합, 인문학프로그램,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코로나19 팬데믹

*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술연구교수

I.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활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초래하며 사람들에게 심리적·사회적 제약을 가중시켰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66.4%의 국민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61.3%가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한다(이은환, 김옥, 2021). 이러한 제약 속에서 특히 장애인들은 정보 접근성과 자율성 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시각적 정보를 대체할 수단이 제한되어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불안을 더욱 심각하게 경험하였다(유지영·오충원, 2020;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조사 결과, 2021; 원영미, 전지혜 2023).

한국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를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개선하며 장애인의 재사회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한상일, 2012). 그러나 실질적인 사회통합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예를 들어, 최근 한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안마원 운영에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약 2억 원의 활동지원급여 환수 통보를 받았고, 결국 심리적 부담과 좌절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다¹⁾. 또한, 한 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점자도서의 부족은 문화적 접근권에서의 격차를 보여준다²⁾. 이러한 사례들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이 여전히 미흡함을 나타낸다.

사회통합은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동체 내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문학 강좌는 이러한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인문 교양교육, 시민 참여 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으로 구분되며(김두영·박원희, 2013), 특히 인문학 강좌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고, 상호 존중과 포용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정(황지연, 2017; 박종은, 2022)과 여가 활동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김두영·박원희, 2013; 이계승, 2014; 김삼원 외, 2018; 김두영 외, 2022),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원영미, 전지혜 2023; 오성은 외, 2023)들은 어느 정도 이루지고 있는 반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여가 활동 및 교육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계 확장이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

1) 경향신문, 2024.10.16. 기사 참조

2) KBS 2024.11.11. 뉴스 참조.

로 다른 연구는 전무하다.

Nirje의 정상화(Normalization) 이론에 따르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생활 조건을 가지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Nirje, 1969). 또한 Wolfensberger의 사회적 역할 가치화(Social Role Valorization, SRV) 이론은 사회적 평가절하를 받을 위험이 있는 개인들에게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Wolfensberger, 1983). 이러한 이론들은 시각장애인 and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인문학 강좌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문학적 수양을 통해 사회적 관계와 지지를 어떻게 확장해가는 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2021년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은 약 9.5%에 해당하는 251,620명이며, 대구광역시에는 약 4.8%에 해당하는 12,067명이 거주한다(‘ 시도별, 장애 유형별, 성별 등록장애인 수’, KOSIS, 2021). 이에 본 연구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을 적용하여, 인문학 강좌가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상호작용을 어떻게 촉진하는지를 탐구한다. 이를 통해 인문학 강좌가 두 집단 간의 사회적 통합³⁾과 포용적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문학 강좌의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인문학적 요구에 부합되는가?

둘째, 인문학프로그램의 주제와 형식적 요소들은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서적 연결과 화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 인문학 강좌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3) 정부의 인문진흥기본계획에 의하면 인문학은 인간의 본질과 존재의 의미에 대한 탐구이며, 이를 통해 인간적 능력을 배양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위기 해결, 사회통합을 촉진하며,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부록 1 참조).

II. 이론적 배경

1.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통합 연구

시각장애인이 사회적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통합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인문학프로그램이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선행연구들은 시각장애인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정(황지연, 2017; 박종은, 2022), 여가 활동의 어려움(김두영·박원희, 2013; 이계승, 2014; 김삼원 외, 2018; 김두영 외, 2022),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동안 시각장애인들이 겪은 어려움(원영미, 전지혜, 2023; 오성은 외, 2023)에 대해 어느 정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시각장애인 개인의 사회적 관계 형성이나 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여가 활동이나 교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부족하다. 이는 본 연구가 다루는 인문학프로그램의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먼저, 황지연(2017)의 연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우울감, 자아존중감 및 장애 적응의 어려움과 깊은 연관이 있다. 장애 적응이 어려울수록 성취감과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회복탄력성의 원리가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시각장애인들은 감염 위험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사회 참여에 제한을 받았다(원영미, 전지혜, 2023). 이는 시각장애인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이러한 과정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은 인문학프로그램과 같은 정서적 학습 활동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함께 지식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정서적 안정을 찾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다음으로, 여가 활동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도 주목할 만하다. 이계승(2014)의 연구는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를 잘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네트워크가 확장될수록 삶의 질이 개선된다. 하지만 장애인은 신체적 한계로 인해 가족 외의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여가 활동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 김두영 외(2022)의 연구는 시각장애인이 여가 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경제적 부담, 교통 및 여가시

설의 불편함을 지적하며, 이러한 요인이 사회참여를 제한한다고 설명하였다.

교육은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통합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강조된다. 김두영·박원희(2013)의 연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은 지적 성장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교육이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통합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중학교 이하 학력이 과반수를 차지하던 2005년 이후로 고등학교나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시각장애인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김삼원 외, 2018).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구체적 사례로는 송지숙(2012)의 연구가 있다. 송지숙은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분석하며, 이 센터가 이용자 중심의 유연한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가들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했다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는 시각장애인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복지관과 별개로 독립적인 운영이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한상일(2012)은 시각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관한 특성과 요인으로 장애인의 재사회화를 강조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의 재사회화는 사회적 지지와 상호 관계망, 여가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여기서 사회적 지지는 공적 지지와 사적 지지로 나뉘며, 공적 지지는 정부 및 지방 단체에서 제공되는 물질적인 이용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적 지지는 가족·친구·이웃·시각장애인동료·종교단체와 같이 시각장애인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으로부터의 지지를 뜻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시각장애인의 심리적 안정, 여가 활동, 교육은 그들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의 인문학 강좌는 공적 지지와 사적 지지체계를 통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관계와 지지를 연구하기에 적절한 대상으로 평가된다.

2.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

1) 행위자-네트워크 개념과 구성요소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은 사회적 관계나 현상을 설명할 때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 모두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구조가 형성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1980년대 후반에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 존 로우(John Law), 미셸 칼롱(Michel Callon) 등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초기에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이후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적용되어 왔다(Latour, 1987; Callon, 1997).

ANT의 핵심 개념은 행위자(actor)와 네트워크(network)이다. 행위자는 인간뿐만 아니라, 도구, 기계, 제도, 정책과 같은 비인간 요소도 포함된다. 이러한 비인간 행위자들은 네트워크 안에서 인간 행위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작용하며, 그 결과 사회적 구조가 형성되고 변화한다. 라투르(2005)에 따르면, 행위자들은 단순히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그 역할과 위치가 조정되는 유동적인 존재로 본다. 존로 역시 행위자를 강조하면서 사회적 행위자를 개별적이고 단순한 존재로 보는 대신, 복잡한 네트워크에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강조했다(Law, 1992).

미셸 칼롱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과정을 “번역(translation)”이라고 정의했으며 번역의 4단계(문제제기-관심 끌기-등록하기-동원하기)를 제시했다. 번역은 한마디로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과 협상을 의미한다. 번역은 또한 행위자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행위자들을 설득하고, 협력하게 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한다(Callon, 1997).

ANT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대칭성(symmetry) 개념이다. ANT에서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를 동등하게 다루며, 이들 모두가 네트워크 내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 중심적인 분석이 아닌, 비인간 행위자들이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ANT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Law, 1992).

이상에서 ANT를 정리한다면, 이 이론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가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와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2)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연구 적용 가능성

ANT는 과학적 실천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전, 사회적 관계 형성, 조직의 변화 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분석 도구로 사용된다. 특히,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관계와 그들이 만들어내는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ANT는 행위자들 간의 네트워크가 고정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각 행위자가 네트워크 안에서 새로운 위치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동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ANT를 원용하여 시각장애인, 비장애인,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자 등의 인간 행위자와 함께, 비대면 시스템, 코로나19 정책, 인문학 프로그램의 콘텐츠 같은 비인간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한다. 또한 네트워크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구조를 의미하며,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작용하면서 그들 간의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재구성되고 발전하는지 분석한다.

국내의 장애인 연구 분야에서는 ANT를 원용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본 연구는 이 이론을 적용하여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 형성 및 사회적 통합 과정을 분석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상호작용을 비인간 행위자들과 함께 분석하여, 보다 복합적인 관계 형성 과정을 탐구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인문학 강좌를 파악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및 비장애인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먼저 비인간 행위자로서 인문학 강좌는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12년째 이어져 온 대표적인 장수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본 논문의 목적이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진행된 인문학 프로그램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한 고찰이므로 강좌의 분석 기간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해인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로 제한하였다.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와 참여자들이 느낀 프로그램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원 관계자를 포함한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에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동반자 및 봉사자) 각각 4명씩 모두 8명이 참여하였다. 연구의 주요 대상인 시각장애인 참여자는 1급에서 4급 사이의 장애 등급을 가지며, 해당 프로그램에 4년에서 12년간 참여한 장기 참여자들로 구성되었다. 비장애인 참여자는 시각장애인의 동반자이거나 문화원의 운영에 깊이 관여해 온 문화원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이다. 각 인터뷰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참여자	시각장애 등급	학력	프로그램 참가 기간	나이	비고
참여자 1	1급	대졸	12년	60대	프로그램 기획자
참여자 2	3급	고졸/학부 재학	5~6년	50대	
참여자 3	4급	석사졸업	5~6년	70대	
참여자 4	1급	고졸	4~5년	60대	
참여자 5	비장애인	대졸	20년	50대	프로그램 기획자
참여자 6	비장애인	고졸	7~8년	60대	
참여자 7	비장애인	박사 졸업	10년	70대	
참여자 8	비장애인	대졸	3년	50대	

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질적연구로서 인문학 강좌가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사회적 관계와 지지로 형성되고 발전하는가에 대한 사례 경험을 분석하였다. 프로그램 자료 분석에서는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으로부터 제공받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프로그램 자료를 바탕으로 강연 주제, 참여자 구성, 형식적 요소 등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기간을 2019년부터 정한 이유는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과 후에 변화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이 시각장애인의 인문학적 요구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코로나19라는 비인간 행위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변화하고 적응했는지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성과와 참여자들이 느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참여자와 비장애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미리 준비한 면담질문지를 바탕으로 순서대로 면담하는 구조화된 면담방식과 사전 질문 없이 즉석에서 면담자의 생각과 경험을 끌어내는 비구조화된 면담방식을 함께 사용하여 진행했다. 인터뷰의 주요 내용은 프로그램의 참여 동기, 프로그램이 심리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사회적 통합에 관한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인터뷰는 1회 40~60분씩 총 2회 문화원 행사 전후에 만나서 진행하였으며,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하고 면담이 끝나면 녹음한 자료는 바로 전사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 질문지에 없는 내용이나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3차로 만나거나 전화로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주제 분석 방법을 통해 주요 주제에 따라 범주화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심층 면담을 위한 주요 질문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2〉 심층 면담 질문목록 범주

영역	심층 질문 요소
인문학 강좌 참여동기	-참여동기 -참여에 영향을 미친 사람, 정보, 주체적 동기
인문학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혹은 불평도	-프로그램 주제에 대한 경험 -프로그램 강사진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 주체 기관(시각장애인문화원)에 대한 경험과 의견
인문학 강좌 참여를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 과정	-참여에 가장 영향을 미친 인물 및 계기 -코로나19와 인문학 강좌 참여와의 상관관계 -참여를 통한 내적 성장에 관한 경험 -참여를 통해 형성된 동료 혹은 비장애인과의 관계 -개인의 사회성의 발전 경험

사례연구에서 사례자들과의 라포형성은 연구 시작 단계와 자료수집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연구 목적과 동의에 관한 서명을 받는 것, 신뢰를 구축하고 연구 접근 시 예상될 수 있는 혼란이나 어려움을 미리 설명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John W. Crewwell · Cheryl N. Poth, 2018:86). 본 연구자는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에 출강한 강사인 동시에 연구 참여자들과 5~8년이라는 기간 동안 함께 강의에 참여하기도 하고 역사문화탐방에 봉사자로 참여하면서 형성한 오랫동안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면담을 진행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여, 프로그램 내 인간 행위자(시각장애인, 비장애인 참여자, 강사, 운영자)와 비인간 행위자(코로나19 정책, 비대면 학습 시스템, 인문학 콘텐츠) 간의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 행위자가 프로그램 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방식을 탐구하고, 이러한 행위자와 네트워크가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관계와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인문학 강좌에서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의 상호작용

1) 행위자로서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이하 문화원)은 2003년 2월(7월에 법인설립)에 개원해서 올해로 20년째 운영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아주 의미가 있는 공간이다.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이 추구하는 가치는 “상대방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폭넓은 교류를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가치 있는 생활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운영과 주요 사업은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이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여성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연구재단, 대구시문화재단, (주) K-토토 등 정부 기관과 민간 단체의 지원을 받아 연평균 10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1]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의 주요 사업 활동사진(문화원 제공)

문화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의 문화를 풍부하게 하고 우리 사회의 장애인 문화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화사업과 프로그램으로는 시각장애인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역사 기행과 인문학 강좌, 도서 낭독아카데미, 문화 아카데미, 인문학 강좌, 문화 나들이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는 인문학 강좌를 중심으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떻게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가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문화원에서 인문학 강좌의 시작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학 대중화 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진행되었다. 하지만 한국연구재단 사업 종료 후에도 민간기업을 비롯한 여러 지역 문화 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속성을 가질 수 있었다.

2012년도에 우리가 한국연구재단에 인문학 대중화 사업이 생겨서 그때 지원했는데 선정되어 천 5백만 원 지원금을 받아서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인문학 강좌가 3년 연속 선정되어서 ... 연속 3년 했고 그 후로 인문학 대중화 사업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참가자들의 반응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 후로 평화 큰 나무 복지재단이라든지 지역의 문화재단같이 민간이나 공공기관 사업에 꾸준히 지원하고 선정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참여자 1>

문화원의 실무진에는 시각장애 1급인 이사장과 원장,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비시각장애인인 홍보실장과 간사가 있다. 문화원의 실무진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꾸려진 점은 인문학 강좌를 오랫동안 운영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비시각장애인인 홍보실장은 20년 동안 한결같이 이사진을 도와 문화원의 각종 사업과 행사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저는 20년간 시각장애인문화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한 번도 우리 시각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문화원은 전국에서 유일한 시각장애인문화원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제대로 된 마인드와 교양을 갖춘 봉사자가 옆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비장애인만큼 잘 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 5>

문화원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문화적,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간으로, 비인간 행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화원의 설립 및 운영은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ANT 관점에서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인간 행위자(시각장애인, 강사, 비장애인 참여자)와 비인간 행위자(프로그램, 콘텐츠, 기술적 지원)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했다.

2) 코로나19 전후 인문학 강좌의 변화와 운영 현황

코로나19 팬데믹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도 사회적 거리 두기와 비대면 환경 속에서 기존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제한되면서 심리적 고립감과 불안감이 심화되었고, 사회적 연결망의 단절이 이들의 정신적·정서적 안녕에 큰 영향을 미쳤다(유지영·오충원,

2021) 이는 2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던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의 인문학 강좌와 회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해 2019년도 문화원에서 진행한 인문학 강좌와 2020년도 인문학 강좌 현황을 보면 그러한 시기적 상황을 보여준다.

〈표 3〉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 2019년 인문학 강의 프로그램

강의 일정		강의 주제	인문학 범주	참가인원
1주	04. 11	제 4차 산업혁명과 아날로그적 감성, 시 읽고 쓰기 1차	문학	16명
2주	04. 18	4차 산업혁명과 아날로그적 감성, 시 읽고 쓰기 2차	문학	18명
3주	04. 25	영화감상 및 배로 즐기기 (1)	예술	15명
4주	05. 02	영화감상 및 배로 즐기기 (2)	예술	22명
5주	05. 09	인생은 연극	예술	17명
6주	05. 16	톨스토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고전	17명
7주	05. 23	클래식 -쇼팽	예술	19명
8주	05. 30	클래식 -헨델	예술	20명
9주	06. 13	클래식 -말러	예술	21명
10주	06. 20	유럽 여행 백배 즐기기 / 일본을 시작으로 독일까지	여행 인문학	18명
11주	06. 27	즐거운 윤리학 /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	22명
12주	07. 04	노자를 알면 왜 편안해지는가?	철학	24명
13주	07. 11	경북대 박찬석 총장님의 삶과 인생	명사초청	55명
14주	07. 18	나를 치유하는 고전의 지혜 - 논어	고전	22명
15주	07. 25	나를 치유하는 고전의 지혜 - 시경	고전	23명
16주	09. 19	도덕경	철학	19명
17주	09. 26	시 낭송 “마음을 읽다”	문학	26명
18주	10. 10	6070 영화 음악 이야기	예술	17명
19주	10. 17	베이컨 에세이 “죽음에 관하여”	문학	20명
20주	10. 24	우리는 행복 할 수 있을까?	철학	23명
21주	10. 31	공감	기타 인문학	21명
22주	11. 07	우리는 왜 시를 읽어야 하는가?	문학	23명
23주	11. 14	“논어” 그 맛없음에 대한 찬미	철학	17명
24주	11. 21	힘 빼고 사는 법 : 철학자들의 삶	철학	16명
25주	11. 28	성악의 의미와 발성법	예술	22명

일반적으로 인문학 강의는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 강의실에서 매주 목요일 6시에 시작해서 강의 한 시간, 20~30분 동안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된다. 강의 주제들은 문학, 철학, 예술 등 다양한 인문학 장르를 위주로 4차산업이라는 시대적 특성에 맞는 감성과 철학적 사고를 키우게 하는 강의 주제와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철학, 고전, 일반문학, 음악과 영화, 시 쓰기, 연극, 지역의 유명 인사를 초청하여 듣는 전기적 삶 등 강의 주제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도서관 등에서 진행되는 강좌들과 비슷하거나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20년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인문학 강좌의 횟수가 줄어들었고, 강의 주제도 문학으로 한정되었다. 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강사 섭외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출강해온 한 강사가 재능기부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강사는 고구려 시대의 교훈적인 동화와 설화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팬데믹 기간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제가 해소될 때마다 문화원은 조금씩 인문학 강좌를 재개할 수 있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은 10년간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강사와 실무진, 회원들 간의 상호작용 덕분이었다. 특히,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참여 인원은 크게 줄지 않았으며, 이는 강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표 4〉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 2020년 인문학 강의 프로그램

강의 일정		강의주제	인문학 범주	참가인원
1주	5. 14	도끼 이야기(1) : 도끼 바보 이야기-우치 1	문학	16명
2주	5. 21	도끼 이야기 (2) : 해설과 토론 : 우치 2	문학	18명
3주	5. 28	바지 이야기 (1) : 바지 바보 이야기 : 미움 1	문학	24명
4주	6. 4	바지 이야기 (2) : 해설과 토론 : 미움 2	문학	22명
5주	11. 5	장독 이야기 (1) : 장독 바보 이야기 : 만심 1	문학	26명
6주	11. 12	장독 이야기 (2) : 해설과 토론 : 만심 2	문학	28명
7주	11. 19	영감 이야기 (1) :영감 바보 이야기 : 욕심 1	문학	23명
8주	11. 26	영감 이야기 (2) : 해설과 토론 : 욕심 2	문학	28명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과정은 관심끌기(interestment)의 중요한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강사와 프로그램(비인간 행위자)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인간 행위자)의 관심을 끌고 유지함으로써 네트워크가 유지되었고, 이 과정에서 강사와 실무진, 참여자들 간의 신뢰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했다. 강사의 재능기부와 프로그램의 지속성은 참여자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서도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정서적 안정감

을 얻는 데 기여한 중요한 요소였다. 결국, 이러한 상호작용은 문화원과 인문학 프로그램이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에서 코로나19 시기(2020~2022) 진행된 인문학 프로그램의 주제와 형식을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의 범주는 여전히 과거와 비슷하게 고전, 철학, 문학, 예술, 사회학, 그리고 기타 인문학(여행, 초청 인사의 전기적 삶 등)으로 분류된다. 팬데믹 기간 상황이 일시적으로 호전되어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 혹은 강화가 반복될 때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표 5〉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 2021년 인문학 강의 프로그램

강의 일정		강의주제	인문학 범주	참가인원
1주	5. 13	차향과 명상	기타 인문학	26명
2주	5. 21	논어 그 맛없음에 대하여	철학	21명
3주	5. 27	슈만과 시인의 사랑	예술	15명
4주	6. 3	시의 향기 : 시 낭송의 즐거움	문학	14명
5주	6. 10	노자가 지닌 세 가지 보배	철학	17명
6주	6. 17	노자는 왜 물처럼 살라고 했을까?	철학	20명
7주	6. 24	나는 행복하게 살기로 했다.	기타 인문학	23명
8주	7. 1	문학작품을 향유한다는 것	기타 인문학	15명
9주	7. 8	시 읽기의 표층과 심층	문학	24명
10주	8. 19	문학을 통해 본 초월 현상	문학	20명
11주	8. 26	한국 풍류 문화의 멋과 조화	기타 인문학	16명
12주	9. 2	음악을 통해 본 죽음의 미학	예술	27명
13주	9. 9	죽음과 철학	철학	16명
14주	9. 16	스트레칭과 반딧불 놀이	놀이	15명
15주	9. 23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대사연습	문학	20명
16주	9. 30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대사연습	문학	21명

코로나19로 소극적으로 열렸던 인문학 강좌는 2021년에는 조금씩 회복해 가다가 2022년에는 거의 코로나19 이전의 정상 수준으로 횟수와 참여자 수가 증가하였다.

〈표 6〉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 2022년 인문학 강의 프로그램

강의 일정		강의주제	인문학 범주	참가인원
1주	5. 19.	노자를 알면 즐겁고 편안해지는가!!!	철학	25명
2주	5. 26.	전문가 정신은?	기타 인문학	23명
3주	6. 2.	천억보다 귀한 시 '한 줄의 시인'	문학	26명
4주	6. 9.	실크로드	기타 인문학	28명
5주	6. 16.	푸치니의 삶과 음악	예술	30명
6주	6. 23.	차와 마음 비움	기타 인문학	29명
7주	6. 30.	상상과 연극	예술	23명
8주	7. 7	현명한 부모로서, 행복한 시인으로 살아가기	기타 인문학	30명
9주	7. 14.	내 마음 챙기기	기타 인문학	25명
10주	7. 21.	내 마음 행복해지기	기타 인문학	27명
11주	9. 22.	노자와 장자는 왜 쿼를 강조했는가?	철학	18명
12주	9. 29.	신명 나는 국악 한마당	예술	20명
13주	10. 6.	당(唐)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문학	31명
14주	10. 13.	영화의 심장 소리 시인이 들려주는 따뜻한 이야기	기타 인문학	26명
15주	10. 20.	가을밤에 듣는 베토벤의 불멸의 연인	기타 인문학	20명
16주	10. 27.	영화와 함께하는 음악	예술	27명
17주	11. 03.	참살, 아름다운 마무리 //well dying	철학	30명
18주	11. 10.	북한 다녀온 이야기	기타 인문학	32명
19주	11. 17.	가곡 교실	예술	29명
20주	11. 24.	이스라엘 삶의 이야기	기타 인문학	42명
21주	12. 1.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예술	33명
22주	12. 08.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공연	37명

〈표 3~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문학프로그램은 코로나19 기간에도 고전과 철학, 역사와 문화, 시 낭송과 음악 예술 등 다양한 범주의 인문학 주제로 꾸준히 진행되었다.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인문 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이라는 세 가지 범주에 걸쳐져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은 자아실현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된다. 인문학 프로그램은 철학과 문학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음악과 예술을 통해 문화적 교양을 쌓으며, 시민참여 교육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배우는 과정을 포함한다.

김두영·박원희에 따르면 한국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체계는 인문 교양교육, 시민참여 교육, 문화예술교육, 학력 보완교육, 기초 문해 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등 6가지로 분류된다(김두영·박원희, 2013).

〈표 7〉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6개 영역별 세부 분류표

1	인문교양교육	인문학적 교양 · 사회재활 · 생활소양
2	직업능력향상교육	전문직업교육 · 기초직업교육 · 자격인증
3	기초문해교육	한글생활문해 · 기초자립생활 · 한글문해
4	학력보완교육	초등학력보완 · 중등학력보완 · 고등학력보완
5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숙련 · 문화예술향유 · 여가스포츠
6	시민참여교육	시민활동 · 시민역량 · 시민의식

재구성 : 김두영 · 박원희, 2013 : 255

〈표 6〉에 비추어 볼 때 인문 교양교육은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재 이유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으로 문화원의 『논어』와 화이트 헤드의 유기체 철학, 톨스토이 작품 등과 같은 주제들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평생교육의 핵심적인 실천 영역으로서 문화원의 프로그램에서 베토벤의 음악이나 한국 가곡, 시 쓰기 등은 문화예술교육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시민참여 교육의 영역에는 시민의식 프로그램, 시민역량 프로그램, 시민 활동 프로그램 등이 있다. 쇼리스(Earl Shorris)가 “인문학이라는 지적 동력 없이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얼 쇼리스 2007: 27).”라고 규정했듯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은 이 과정을 통해 시민의식과 시민역량을 배양할 수 있다.

또한 문화원의 인문학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철학과 문학은 세상의 이치와 삶의 지혜 등 참여자들의 의식을 높이는 데 필요한 인문학이다. 따라서 인문학 범주는 시민의 평생교육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철학, 문학, 예술을 통해 참여자들이 사회적 역할을 배우고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적 통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갈 수 있다.

다음으로 인문학프로그램의 모든 강의 내용은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의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서 강의 후 언제라도 문화원 회원들이 보고나 들을 수 있다.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은 온라인 자료실을 통해 인문학프로그램의 강의 내용을 회원들이 언제든지 다시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는 시각장애인들이 강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홈페이지 자료실 조회수는 평균 20~30회로 대부분의 참여자가 강의 후에도 지속적인 학습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관계 및 상호작용

1) 실무진과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코로나19 기간에도 문화원의 인문학 강좌는 실무진의 헌신과 참여자들의 열정에 의해 지속되었다. 문화원의 실무진은 담당 실장 <참여자 5>와 두 명의 간사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실장은 매년 인문학 강좌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강사진을 섭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간사와 함께 포스터 제작과 홍보를 담당한다. 매주 목요일 열리는 강좌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실장은 시각장애인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안내하는 등, 회원들이 문화원과 인문학 강좌에 꾸준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코로나라고 해서 특별히 참가해야 하나 마나 별로 고민안한 것 같아요. 선생님. 워낙 매주 목요일은 문화원에 가는 날이구나, 인문학 강의를 듣는 날이구나 하는 것이 정해져서 습관처럼. 그냥 좋아요. 가면 사람들 만나고 좋은 강의 듣고 내가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요. 특히 강사님이나 실장님이 질문하고 발표하게 하는거 아직까지 떨리지만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 4>

실무진은 회원들의 지적 성장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강사진 선발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저의 문화원에 나오시는 시각장애인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10년 넘게 나오는 분들도 있고 본인이 장애가 있으면서 특수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분도 있구요, 대학교와 대학원까지 다시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의 언론과 접촉할 때나 강사분들을 섭외할 때나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라고 하면 그들의 수준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참여자 5>

실무진의 관심끌기(interestment) 노력은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사회적 역할을 자각하게 만드는 행위자로서 중요한 요인이다. 이 과정에서 비인간 행위자(프로그램, 기술 지원)와 인간 행위자(참여자) 간의 대칭적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이는 코로나19 기간에도 문화원의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회원들이 꾸준히 인문학 강좌에 참여하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2) 인문학 강좌를 통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상호작용

참여자들은 인문학 강좌를 통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참여자 4>는 강의에서 매번 새로운 영감을 얻고자 하며, 이 과정이 그에게 꾸준한 참여동기를 제공했다고 이야기한다.

강의 들으러 가면 다양한 강의가 있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를 듣고 와도 그 한 시간 중에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 갖고 가거든요. 오늘 하루도 강의 들을 때 내게 하나 꽂히는게 있으면 좋겠다~그렇게 생각하고 가면 그래서 저는 거의 안 빠지고 가요. <참여자 4>

이처럼 꾸준한 참여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각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참여자 8>의 사례에서 보듯이, 강의 자체가 즐거움과 마음의 안정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조금이라도 봉사한다는 생각도 들고, 강의를 들으면 그 시간 자체가 즐겁고 맘이 편해요. <참여자 8>

인문학 강좌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상호작용의 장으로, 정서적 안정과 지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참여자 4>는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장애인과 함께 학습하는 것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근데요 저기 선생님,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다 달라요. 선생님처럼 일반 사람이 다 다르듯이 장애가진 사람들도 다 다릅니다. 소심해서 10년 20년씩 집에 있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처럼 그냥 일반 학교 다니면서 고생스럽지만 그래도 일반학교 나오면서 절친들도 있어요... 저는 제가 시각장애를 가진 거에 대하여 한번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참여자 4>

<참여자 7>은 문화원에 오랫동안 출강한 강사이며 자신이 가진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

누는 과정에서 얻는 만족감을 언급했다.

*시각장애인과 오래동안 함께 하고 있어서 이제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또 제가 가진 지식을 함께 향유한다는 부분이 좋아요. 저 또한 배우구요. <참여자 7>*

이와 같이 인문학 강좌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면서도 존중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 있다. 실무진과 강사, 참여자들은 매주 만남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 상호 존중과 자연스러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인문학 강좌가 단순한 강의를 넘어 사회적 관계 형성의 장으로 기능하는 것을 보여준다.

저는 여기 인문학 강좌에서 (예술적인 방면으로 음악을 좋아해서) 예술 방면 쪽의 강의를 참 좋았고, 또 철학적인 강의도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계속 듣다 보니까 옛날엔 재미없었는데 점점 나에게 하나라도 들어오니까 재밌더라고요... … 요즘 악기도 하나 첼로를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가곡 수업에도 더 재밌고 가곡이나 악기를 잘 배워서 연극처럼 선보이는 계기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기대감도 더 커져요. <참여자 3>

참여자들의 인터뷰에서 몇 가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꾸준한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학습과 사회적 관계 형성. 둘째, 대부분 참여자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셋째, 인문학 강좌 참여를 통해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 넷째, 문화원의 원장과 이사장이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회원들과 함께 참여하며 내적 성장을 이끌어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인문학 강좌는 실무진과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긍정적 마인드를 통해 만족도와 상호작용을 강화하며, 지속적인 참여동기와 기대감을 이끌어낸다.

3) 인문학 강좌를 통한 사회적 지지와 관계 확장

문화원의 실무진들은 인문학 강좌에서 강의를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참여자들의 질문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단순한 즐거움과 사회참여를 넘어 지적 성장과 소속감을 형성하였다.

원래 학부 대학원에서 국문과를 나왔죠. 그래서 인문학 강좌 자체가 좋았어요. 특히 글쓰기나 시 낭송 시간이 좋아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에는 계속 참여하고 싶습니다. <참여자 3>

<참여자 3>은 인문학 강좌가 열릴 때마다 시 낭송과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물로, 본 연구자가 오랜 기간 관찰한 바에 따르면 <참여자 5>의 적극적인 유도를 통해 다수의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질문을 주고받고, 주제에 맞는 발표와 시 낭송에 참여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초기에는 실장님이 프로그램참여에 대해 전화해 줄 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도 한번은 가보고 싶어가 참여했는데 좋았어요. 점점 배우는 재미도 늘고 같은 시각장애인들과 동질성과 유대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어서 자꾸 가게 되었어요... 실장님이 제가 올 때마다 막 반겨주고, 질문도 하게 하고 내세워주니까 성취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문화원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느낌이 점점 강하게 들었어요. <참여자 2>

<참여자 2>는 인문학 강좌에 참여하면서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이 발표할 기회를 얻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유대감을 형성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유대감과 소속감은 비장애인 참여자에게도 발현되었다. 그들은 주변 지인들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안마 활동을 연결하거나, 시각장애인들이 역사탐방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때 자원봉사자들과 상호작용하며 서로의 사회적 관계와 지지를 강화해 나갔다.



[그림 2] 인문학프로그램 진행 모습(문화원 제공)

따라서 인문학 강좌는 프로그램의 인문학적 주제들이 잘 짜여진 것도 있지만 실무진과 강사진, 그리고 참여자 각각의 역할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 즉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2021년과 2022년 연말에 진행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연극공연으로 이어졌다⁴⁾.

이 연극 공연은 대구문화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된 것으로, 첫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의 협력 공연이었다. 시각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이 협력해 만든 이 공연은 인문학 강좌에서 쌓은 시 낭송, 노래, 스피치 등의 기량을 바탕으로 시각장애인이 시력을 잃고 재할하는 과정을 재연하여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이와 같은 과정은 비시각장애인들도 다양한 인문학 강좌를 통해 교양과 지식을 습득하며, 시각장애인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연극공연하는 모습(출처: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 제공)

결국, 인문학 강좌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관계와 지지를 촉진하는 매개체로 기능하며, 서로의 교류를 통해 상호 존중과 포용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해 나갔다.

4) 영남일보, 2021년 11월 30일 기사 참조.

V. 결론

본 연구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을 활용하여,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에서 진행된 인문학 강좌가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관계 형성과 사회적 통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의 인문학 강좌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장을 제공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의 인문학 강좌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문학적 지식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키고, 그들의 학습 욕구를 자극하는 데 기여하였다.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참여자는 문학, 철학, 예술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강사진의 강의 내용과 운영시스템의 효율적인 조화로 구성되어,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학습과 개인적 성장을 가능케 하였다.

둘째, 인문학프로그램의 주제와 형식적 요소들은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서적 연결과 화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문학, 철학, 예술 등 다양한 주제는 참여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참여자들은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서적 안정과 친밀감을 형성하였다. 인문학프로그램의 다양한 주제와 포맷은 이러한 정서적 연결과 화합을 가능하게 하여, 참여자들이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셋째,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의 관점에서 인문학 강좌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인간 행위자인 시각장애인, 비장애인 참여자, 강사와 실무진은 강좌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 신뢰를 구축하였다. 비인간 행위자인 프로그램 운영시스템, 기술적 지원, 강좌 주제 등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요소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대칭적 상호작용은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고, 공동체 내에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적 관계 확장과 지지의 결과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한 연극 공연이 성사되었다. 연극은 인문학 강좌에서 형성된 상호 신뢰와 협력의 성과를 예술적 활동으로 승화시킨 사례로서, 참여자들이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코로나19 기간에 진행된 문화원의 인문학 강좌는 관심 끌기와 질의응답을 통한 참여자들의 호응을 끌어내고 다양한 인문학적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실무진의 노력과 강사진의 재능기부와 비장애인들의 봉사 정신, 시각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관계와 지지를 확장하는 매개체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인문학 강좌가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사회적 관계형성과 지지의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했음을 밝힘으로써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추가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수가 제한적이므로, 더 많은 지역과 다양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를 통해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며 완전한 사회적 지지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정책적으로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두영 (2014). 시각장애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교육·복지 욕구 분석. **시각장애연구**, 30(2), 115-137.
- 김두영, 박원희 (201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개발 기초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8(2), 245-271.
- 김두영, 장철승, 조창빈 (2022).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과 문화·여가활동 추이 및 과제. **시각장애연구**, 38(2), 45-65.
- 김상원, 엄문설, 안새미, 이양희, 조준동 (2018). 시각장애인의 스트레스, 여가생활,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시각장애연구**, 34.1, 25-39.
- 김호연, 고등영 (2015). 시각중복장애인 평생교육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고찰. **시각장애연구**, 31(2), 43-68.
- Bolt, David (2018). 장애 인문학(전지혜 역), 서울: 학지사.
- 송지숙 (2019). 사회통합을 위한 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의 역할: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학술대회지**, 1-10.
- 오성은, 허수연, 이유신, 박정미, 박재홍. 코로나19가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장애인복지학 62.62 (2023)**: 179-206.
- 얼 쇼리스 (2016). 희망의 인문학(고병현 외 3인 역), 서울: 이매진.
- 원영미, 전지혜 (2023).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의 비대면 생활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59.59**: 89-121.
- 유지영, 오충원 (2021). 재난약자로서 시각장애인의 코로나19 경험에 관한 연구. 146-146.
- 이계승 (2014).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양상과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 사회 자본의 구성 개념인 네트워크와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5(2) : 375-402.
- 이은환, 김욱 (2021). 코로나19, 감염재난이 국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1-135.
- 이정화, 이옥순 (2007). 중년층의 노년기 교육에 대한 욕구분석: 성별 및 학력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 노년학연구**, 16 : 85-104.
- 장덕희, 임승희 (2021). 중도시각장애인의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2.3** : 2995-3010.
- 한상일 (2012).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

원, 서울

- 황지연 (2017). 장애인의 심리적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한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인지발달장애학회지**, 8(1) : 71-88.
- Bengt Nirje. (1969). "The normalization principle and its human management implications". In R. Kugel & W. Wolfensberger (Eds.), *Changing Patterns in Residential Services for the Mentally Retarded*. President's Committee on Mental Retardation.
- Callon, M. (1997). Actor-Network Theory - The Market Test. In J. Law & J. Hassard (Eds.), *Actor Network Theory and After*. Blackwell Publishing.
- Creswell, John W. (2021). *질적 연구방법론(조홍식 외 공역)*. 서울: 학지사.
- Latour, B. (1987). *Science in Action: How to Follow Scientists and Engineers through Society*. Harvard University Press.
- Latour, B. (2005). *Reassembl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 Law, J. (1992). Notes on the Theory of the Actor Network: Ordering, Strategy, and Heterogeneity. **Systems Practice**, 5(4), 379-393.
- Wolfensberger, W. (1983). "Social Role Valorization: A proposed new term for the principle of normalization". **Mental Retardation**, 21(6), 234-239.

부록

〈표 8〉 2017년 이후 인문진흥기본계획 비교

구분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2017~2021)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 (2022~2026)
추진 배경	- 국가경제의 성장에 비해 개인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은 향상되지 못함 - 타인과 사회에 대한 불신과 함께 공동체 해체 위기가 대두 - 인간의 존엄과 사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인간에 대한 성찰과 삶의 지혜 함양을 본질로 하는 인문정신문화 진흥 필요 - 인문정신문화가 개인과 공동체 위기 해결 및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진흥정책 추진	- 뉴노멀 시대의 등장과 인문학 - AI·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본격화로, 획일화된 생산물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산업사회에 충격 요인으로 작용 - 선진국들은 미래의 변화에 발맞추어 “무엇이”, “왜” 문제인지를 탐구하고 문제를 정의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비 중 - 인간의 본질과 실존적 삶의 형태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인간적 능력을 배양하고 지식을 생산·축적하는 인문학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인문학의 새로운 방향 모색 필요
그간의 성과와 한계	- 인문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의 관심 증가 / 단순 지식 위주로 인문에 대한 본질적 성찰은 부족 - 대표 매개기관인 도서관·박물관의 인문서비스 확대 / 인문 친화적 공간이 부족하고 현장의 기회역량 강화 요구 - 세대단절, 문화소외 등을 고려한 정책사업 추진 / 큰 틀에서 체계적인 선순환 구조 형성 미흡 -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법·제도적 기틀 마련 / 장기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정책기반 구축이 과제	- 인문학 진흥 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인문학의 외연 확대: ‘대학’, ‘연구’에 한정된 것으로 여겨졌던 인문학의 외연 확대 - 현장의 요구에 부응한 인문학 연구지원: 더 많은 인문학 연구자들이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문학 관련 학술지원 예산규모 점진적 확대, 전임 연구자 & 인문학 분야 연구소 예산 지원 확대 - 한계: 정채된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된 지원 / 사회 변화에 대한 인문학 대응 미흡 / 인문학 진흥 정책의 단절
비전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여 삶의 질 향상	국가와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인문학 진흥
목표	- 인문 진흥 및 사회적 확산 - 인문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	- 본질적 가치를 생산하는 인문학의 발전 -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인문학의 도전
과제	〈전략 및 중점과제〉 1) 인문 본질을 강화한 프로그램 제공 2) 인문활동의 자행력 신장 3) 공간의 인문적 활용 촉진	인문학의 본질 실현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1) 대학의 인문학 교육·연구역량 확보 2) 우수 인문학 연구자 양성 및 연구지원 3) 대학 외 생애주기별 인문교육 내실화

구분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2017~2021)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 (2022~2026)
	4) 문화기반시설의 매개역량 강화 5) 사회적 화두에 적극 대처 6) 인문의 산업성 활용 및 국제적 확산 7) 장기 실효성 담보를 위한 기반 정비	인문학의 새로운 도전: 융합, 국제화 디지털 확산 1) 인문학 중심의 융합연구 도전 2) K-인문학으로의 발전 및 확산 3) 디지털 인문학 2.0: 축적에서 확산으로 인문학 가치의 공유와 확산 1) 대중·지역과 함께하는 인문학 2) 인문학 진흥 추진체계 구축 3)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과제 발굴
담당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 출처: 교육부 자료를 참고로 연구자가 정리하였음.

논문 투고 : 2024.10.15.	논문 심사 : 2024.11.29.	게재 확정 : 2024.12.11.
---------------------	---------------------	---------------------

Abstract

A Study on the Social Interaction between Visually Impaired and Non-Visually Impaired Individuals through Humanities Lectures : Focusing on Actor-Network Theory

GuemHee Choi*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ocial interaction experiences of visually impaired and non-disabled individuals centered around the humanities lectures at the Daegu Visually Impaired Cultural Center and to explore the interactions and network formations that occur in this process. The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eight participants, including four visually impaired and four non-disabled individual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program for over three years from 2019 to 2022.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from December 2022 to May 2023, involving participants aged 50 to 70 with diverse educational backgrounds and experiences.

The analysis applied Actor-Network Theory (ANT) to categorize data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into themes such as program participation motivation, psychological stability, and the formation of social networks.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humanities lectures contributed to building collaborative relationships and inclusive networks through interactions between human actors (visually impaired individuals, non-disabled participants, instructors) and non-human actors (COVID-19

* Academic Research Professor, Daegu Catholic University

policies, online systems). This study interprets the integration of visually impaired and non-disabled individuals as a result of dynamic interactions from an ANT perspective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designing programs that reflect this perspective.

Keywords: Visually Impaired, Non-disabled, Social Integration, Humanities Program, Actor-Network Theory, COVID-19 Pandemic

장애의재해석

제5권 제2호(통권 6호)

발행처 한국장애인재단

발행일 2024년 12월 31일

발행인 이성규

전화 02)6399-6235

팩스 02)6399-6238

홈페이지 <https://www.kfpd.org/>

주소 (04517)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86, 207호(순화동 바비엡3)

인쇄처 디자인이인

편집위원회

위원장 백은령(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 원 공마리아(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 교수)

권선진(평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

김동기(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동주(우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

심규하(한국예술종합학교 디자인학과 교수)

양숙미(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진자(우석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정창호(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

최복천(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Journal of Reinterpretation of Disability

Vol. 5 , No.2, Dec 2024

Contents

- A case study on supporting independent living for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Catholic social workers' reflective journals // MeeSook Kim
- Analysis of the Impact of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n Self-esteem And Happiness: Focusing on 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 // HyeYeong Jeon
- A Comparative Study on AI Technology and Data Protection Laws: Focusing on the challenges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in the field of welfare for the disabled // YUMJIRMAA BATTSETSEG, MiJeong Nam
- The Politics of Writing Poetry and Narrative by Women with Disabilities With the aesthetics of Rancière // KwangJoo Han
- A Study on the Meaning and Representation of Disability in Korean SF Novels: Focusing on Cheon Seon-ran's Novels // ChangMin Yoo
- Analysis of Trends in Self-Expression Through Art Therapy for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Focused on Domestic Theses from 2010 to 2024 // YoungSook Jo, JinJa Chung
- Parentification of non-disabled siblings in families with disabled members : Insights from oral narratives // SuBin Yu, JuWon Seo, NaRin Lim, HyeonSuk Park
- A Study on the Conceptual analysis of De-Institutions and the Application of Personal Budge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SeungKi Lee
- Public perception of hearing-impaired idol 'Big-O!cean': Focusing on Youtube comments // ChaeWon Park, HaRin Kim, JiWoo Han
- Comparative Analysis of the Job Status of 'Access Manager' in Some Advanced Countries: Focusing on the Analysis of Job Postings concerning Access or Accessibility Manager // JongEun Chung, KangChan Choi, JiSeop Kang
- Conditions for Sustainable Coexistence with Disabilities: A Disability Justice Theory Based on Care Ethics // JuYoung Lee, SooMin Choi
- A Study on the Social Interaction between Visually Impaired and Non-Visually Impaired Individuals through Humanities Lectures : Focusing on Actor-Network Theory // GuemHee Choi